

34/20 (3430)
360.20911

北韓의 政治理念과 體制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이 冊子는 當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
據 特殊課題로 위촉 연구되어 既發刊된 바
있는 研究報告書를 “北韓의 政治理念과 體
制”로 묶어 北韓研究의 參考資料로 活用키
위하여 再發刊한 것임.

1984年 12月

編 輯 : 調査研究室 第1 研究官 尹 璟 泰
補 佐 官 朴 雄 熙
補 佐 官 李 鳳 朝

總 目 次

○ 北韓主體思想理論體系	3
○ 北韓 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	77
○ 北韓共產主義思想體系와 權力構造	133
○ 北韓政權機關(行政機關)의 組織 變遷에 관한 研究	187
○ 北韓의 政治體制와 肅清	269

北韓主體思想理論體系

梁 好 民

(前朝鮮日報社 論說委員)

目 次

I. 主體思想 出現의 狀況	7
1. 國際共產主義運動 內部的 變動	7
2. 對內的 權力鬭爭의 要請	18
II. 主體思想의 圖式	30
1. 思想, 政治, 經濟, 國防에서	30
2. 中·蘇紛爭속에서	53
III. 主體思想 展開의 方向	67
— 金日成 個人崇拜와 統一戰略 —	67

I. 主體思想 出現의 狀況

1. 國際共產主義運動 內部的 變動

金日成이 <主體>의 確立問題를 党内에서 公的으로 처음 提示한 것은 1955年 12月 28日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自立路線>으로서 對外的으로 宣言한 것은 1966年 8月 12日字 <<로동신문>>社說 <自主性を 擁護하자>에서였다. 金日成이 對內外的으로 <主體>路線을 公言하기까지에는 1953年 3月の 스탈린死亡, 그後의 蘇聯內의 一大政治變化, 1956年 2月の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 이것을 契機로 發生한 中·蘇紛爭과 共產圈의 多元的 分裂, 그리고 이 모든 것을 反映한 朝鮮勞動党内의 權力鬭爭이라는 일련의 事態를 거치고 있었다. 金日成이 처음 <主體>를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未成熟狀態의 意識이요, 想念에 不過했다. 그러나 그後 時日의 經過와 더불어 이것은 具體的 內容을 담게 되고 理論的으로 다듬어지고 體系化되면서 이른바 <主體思想>으로 展開되었던 것이다.

<主體>問題를 처음으로 提示한 10年 뒤에 金日成은 說明하기를 <우리党的 主體思想은 우리革命과 建設을 成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가장 正確한 맑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이며 人民共和國政府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¹⁾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主

註 1) <<金日成著作選集>> 4, 平壤, 1968, p.533

體思想>은 一黨獨裁下의 北韓人民들을 思想的으로 劃一化하고 理論的으로 編制化하면서 經濟建設과 軍事力強化에 總動員하는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立하게 되었다. 金日成에 의하여 定式화된 <唯一思想體系>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黨의 唯一思想이란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立,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의 原則으로 일관된 우리 黨의 革命思想입니다. 우리 黨의 이 思想은 朝鮮革命을 完成하고, 우리 人民을 社會主義, 共產主義에로 가장 올바르게 이끄는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된 맑스-레닌主義입니다.²⁾

이러한 <主體思想>은 1972年12月에 制定된 北韓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에까지 挿入되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第4條)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곧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中共에서의 毛澤東思想과 마찬가지로 絶對化, 唯一化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主體思想>이 絶對化, 唯一化되었다는 것은 그의 全體主義 獨裁權力이 完壁하게 確立되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全體主義社會에서는 政治權力은 獨裁者의 이데올로기의 絶對化, 唯一化와 더불어 確立되기 때문이다.

本來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스탈린의 死亡 및 韓國休戰을 契

註 2) 《金日成同志약전》, 平壤, 1972, p.777에서 引用

機로 노정된 國內派, 延安派, 蘇聯派와의 黨權鬭爭에서 金日成이 자기의 權力을 擁護 強化하려는 이데올로기上的 무기로서 登場한 것이었다. 즉 主體思想은 對內的 權力鬭爭의 戰略上的 要請에 따라 出現했다. 그러나 이러한 對內的 契機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을 거쳐 中·蘇紛爭과 共產圈의 大分裂에 이르는 國際共產主義運動內的 狀況變化라는 對外的 契機와 不可分の 交錯關係를 形成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主體思想>을 出現케 한 國際共產主義運動內部的 變動에서부터 考察하기로 한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은 스탈린의 死亡을 劃期的인 始點으로 하여 이른바 一中心支配體制 (monolithism)에서 多中心的體制 (polycentrism)로 바뀌어 나갔다. 그리하여 레닌이 創始하고 스탈린에 의하여 公고화되었던 馮민테른型的 單一的 權威의 中心, 單一的 國際組織, 單一的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嚴格하게 統制되는 統一的 運動으로서의 國際共產主義는 終末을 告하고 맑스-레닌主義의 多様な 解釋, 多様な 主張을 試圖하는 多様な 共產主義나라들과 共產黨들이 全世界的 規模로 出現하게 되었다.

統一的 國際共產主義運動은 모스크바와 北京의 2大共產黨, 中·蘇의 2大共產黨國家가 벌이는 헤게모니鬭爭에 의하여 모스크바型指向, 北京型指向 또는 獨自型 指向의 黨과 國家들에 의하여 多元적으로 分裂되어 왔으며 하나로 뭉친 이른바 <社會主義陣營>은 消滅되게 되었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은 1919年에서 1943年까지는 레닌과 스탈린의 馮민테른을 통하여, 第2次世界大戰 以後에는 스탈린 麾下의

소베트占領軍과 蘇聯秘密警察의 嚴格한 中央集權的 統制에 의하여 統一性이 維持되어 왔다. 그리고 世界共產主義運動의 超國家-民族的 國際主義는 名分뿐이요, 사실은 運動全體는 蘇聯의 安全과 國家利益, 蘇聯政府의 外交政策에 철저히 服務하는 道具로 轉落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支配에 반기를 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1948年 콤인포름 (Cominform)에서 追放된 後 自主的인 社會主義路線을 追求하게 되었을 때 單一中心의 統一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기반은 깨지고 各國黨의 自主性を 基礎로 하는 多中心的-多元的體制가 出現하리라는 徵兆가 나타났던 것이다.

티토를 最高指導者로 하는 유고슬라비아의 共產主義勢力은 毛澤東指導下의 中國共產黨과 마찬가지로 政治權力을 蘇聯解放軍에 의하여 물려받지 않고 獨自的 革命鬪爭에 의하여 掌握했다. 이들은 革命鬪爭에 있어서 모스크바로부터의 戰略-戰術上의 支持를 오히려 무시했다. 自主性を 견지했던 티토와 毛澤東만이 政權 樹立後 모스크바에의 追從을 먼저 拒否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重要的 歷史的意義를 갖는다. 이 나라들은 自力에 의한 武裝鬪爭으로 革命에 成功한 例에 속한다. 이 나라 共產主義者들이 蘇聯으로부터 약간의 援助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革命을 이룬바 外部 (蘇聯)으로부터 強要된 革命은 아니었다. 이런 나라의 범주에는 엔베르 호자의 알바니아와 그後의 越盟, 쿠바를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北韓과 東歐諸國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除外)의 共產黨政權은 모두 蘇聯軍을 背景으로 強要한 革命의 結果였다

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요컨대 自力으로 革命을 수행한 者만이 먼저 外勢의 支配에 저항하는 自主精神을 보일 수가 있었다. 만일 티토와 毛澤東이 自主的으로 政權을 獲得한 歷史的 事例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國際共產主義의 多中心的 體制를 유도한 後의 事件들은 하나도 發生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로벤탈 (Lowenthal)의 解釋에는 充分的 妥當性이 있다.³⁾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모스크바의 支配體制의 崩壞는 티토의 반란으로 금이 가기 始作한데서 由來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重要的 決定的인 事件으로는 스탈린死亡後 蘇聯에서는 그에 比할 만한 높은 權威와 간교한 統制力을 갖춘 指導者가 出現하지 못했다는 것, 광대한 中國大陸이 共產化되어 世界 第2의 共產主義大國으로 登場했다는 것, 그리고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를 起點으로 始作된 非스탈린化運動이 흐루시초프의 기대와는 달리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反蘇叛亂을 일으켜 蘇聯의 對東歐諸國에 대한 政策轉換을 強要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若干의 說明을 加할 必要가 있다.

世界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莫 강한 權威를 公認받고 있었을 뿐만

註 3) Richard Lowenthal, "The Rise and Decline of International Commun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XII No. 2, Mar - Apr, 1963, 參照

아니라 神格化되고,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產主義國家와 非共產主義國家의 共產黨들에 대해 絶對權力을 행사해온 스탈린이 國際共產主義舞臺에서 사라지자, 單一的 共產主義運動이 一大混亂에 빠질 것은 必然的이었다. 말하자면 統制의 사슬의 中心고리가 끊어진 것이었다. 混亂은 스탈린이 死亡한 後 蘇聯共產黨內에서 그에 비견할 만한 指導者를 發見할 수 없었던 點에서 加重될 수 밖에 없었다.

말렌코프도 흐루시초프도 스탈린의 衣鉢을 계승하여 그가 建設한 世界帝國을 安全하게 統治하기에는 너무나 權威가 미약했다. 그 위에 흐루시초프는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의 秘密演說을 통하여 스탈린의 지난날의 暴政을 暴露하고 個人崇拜의 해독을 攻擊함으로써 스탈린은 일거에 神의 地位에서 惡魔의 地位로 轉落했고 國際共產主義運動에는 權威動搖의 危機 (authority crisis)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은 스탈린에 관한 不可誤謬性的의 神話를 破壞했고, 그 結果로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蘇聯共產黨의 正確, 完璧한 指導에 대해 各國 共產主義者들이 지녔던 信仰을 일거에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 <偉대한> 스탈린마저 그런 誤謬를 犯했다면 그 後繼者들이라고 해서 犯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흐루시초프는 스탈린批判으로 各國 共產黨들의 이러한 疑惑을 誘發함으로써 自己自身이 스탈린과 蘇聯共產黨의 傳統的 威信을 繼承할 수 있는 機會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스탈린의 後繼者들은 스탈린時代의 공포와 暴政, 테러리즘과 個人

偶像化에 終止符를 찍고 社會를 制限된 範圍 안에서나마 <自由化> 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衛星國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스탈린的 絶對支配와 命令-盲從關係를 大幅 緩和하고, 단지 社會主義共同體 안에서 蘇聯의 指導權을 維持하는 方向으로 修正하려 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非스탈린化政策에서 유래한 權威의 國際的 眞空狀態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單一的 組織과 劃一的 이데올로기의 解體를 가져온 決定的 要因이 된 것이다. 흐루시초프의 非스탈린化 運動은 우선 東歐諸國에다 심각한 衝擊을 주어 폴란드에서는 1956年 6月の 보즈난暴動과 10月の 反蘇政治危機를 초래했다. 그리고 同年 10~11月에는 헝가리에서 共產主義者들을 包含한 反蘇叛亂을 일으켰다. 蘇聯은 폴란드事態는 스탈린主義者들의 축출로 무마하고, 헝가리革命은 武力으로 鎮壓할 수 있었다. 그러나 東歐 衛星國들의 自主權을 熱望하는 時代的 大勢는 막을 수가 없었다.

한편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는 中·蘇紛爭이라는 國際共產主義陣營內的 大分裂을 초래한 劃期的 事件으로 되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과 스탈린格下運動은 全世界에다 큰 파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北京 사이에다 世紀的인 이데올로기 論爭을 誘發시켰던 것이다. 두 共產主義巨國이 각각 相對方을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배신자라고 규탄하는 攻防戰 속에서 戰爭과 平和問題, 帝國主義의 本性, 社會主義建設의 方法, 民族解放鬭爭에 관한 戰略과 戰術,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本質 등 現代共產主義의 모든 理論的 問題들이 論爭의 대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論爭이 進行되는 동안

그 본래의 성격과 의미는 변화擴大되게 되었다. 결국 中·蘇의 論爭은 對立을 낳게 되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指導權을 다투는 一大 權力鬭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더우기 이 鬭爭에서는 두 나라의 國家利益上的 對立이 이데올로기의 分규와 交錯되었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우위를 표방해온 共產圈內에서 國家主權의 問題, 國境問題, 民族問題가 重要視되게 되었다.

中·蘇의 이데올로기論爭은 단순한 國家的 勢力鬭爭을 맑스-레닌主義의 用語로 위장한 것만은 물론 아니었다. 이데올로기는 手段이요, 實利가 中·蘇紛爭의 內容이라는 단정은 共產主義者들의 權力鬭爭의 特徵을 평가한 것이다. 中·蘇紛爭은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出發하였고 對立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것은 黨과 黨의 政治鬭爭, 國家와 國家의 利害鬭爭으로 擴大된 것이다. 그 결과로 單一中心, 單一組織의 統一된 國際共產主義運動은 깨지고 多中心의 民族的 共產主義運動이 出現하게 되었다. 요컨대 共產主義는 國際化的 時代에서 民族化的 時代로 突入하고 있는 것이다.

國家權力을 掌握한 여러나라의 共產主義者들은 맑스-레닌主義의 보편적 教養에 대한 忠實성을 公言하면서도 同時에 한 特定的 國家의 指導者로 행세하고 싶어하고 있다. 각기 제 民族의 獨自的 過去를 의식하고, 國家利益을 守護하기 위해 努力하고, 主權意識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大國으로부터 最大限의 可能的 自立을 누리려는 것이 中·蘇紛爭과 매를 같이해 일어난 현상이다. 특히 이들은 自己民族의 固有한 文化와 歷史를 강조하면서 東歐에 관한한 러시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 相對方으로 넘겨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危險性
을 모두 經驗에 의하여 감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小共產主義나라들에 壓力을 지나치게 加할 수도 없었다.
바르샤와條約機構와 코메콘에 의하여 蘇聯에 묶여있는 東歐諸國도 反
蘇的 立場을 取하지 않는 한 對內外政策에 있어서 相對的인 意味의
自治權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나라들의 地位는 蘇聯의 屈從
的인 衛星國에서 小同盟國으로 向上되었던 것이다.

中共의 경우도 文化大革命期(1966~1969)를 除外하고는 反中
共的이 아닌 小共產主義나라들에 壓力을 加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對美戰爭에서 蘇聯의 支援을 받는 越盟을 中共도 援助하
고 있었다. 이것은 北韓의 경우에서도 비슷했다. 요컨대 美·蘇의
두 巨國의 鬭爭속에서 小共產主義나라들은 어느정도 漁夫之利를 求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世界 各國의 共產
黨들은 맑스·레닌主義의 系列의 限界內에서는 스탈린時代와는 比較
가 안되는 幅넓은 自治, 自主, 自我의 領域과 行動의 自由를 獲得
할 수 있었다.

그 結果로 모스크바와 北京이 各各 正統的 맑스-레닌主義의 中
心으로 자처하는 것과 병행하여 베오그라드, 부크레스티, 하노이, 평
壤, 하바나 등이 그 獨自的-自主的 立場을 내세우면서 제약된 範圍
에서나마 各各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小中心이 되려했다. 統一的 이데
올로기의 分裂이 政治權力의 多中心化를 유도한 以上과 같은 國際
共產主義運動의 性格은 古代비잔틴教會의 性格과 흡사하다고 로베탈

아文化的의 影響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指導者들이 國民들의 支持를 얻는 길이기도 했다. 이와 同時에 東歐의 多大數 國家들은 蘇聯의 不滿을 무릅쓰고 西歐와의 知的交流를 추진해 왔다. 이른바 <民族的인 것에 대한 肯定> (national affirmation) 現象이 나타났던 것이다. 만일 東歐에 蘇聯의 軍事的 壓力이 없었더라면 共產主義의 民族化는 보다 빠른 속도로 進行되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런데 蘇聯의 軍事力은 蘇聯國內共產主義 國家들이 蘇聯을 離脫하기에 이를 지나친 民族化에는 제동을 걸어왔다.

制限은 있었지만 共產主義國家들이 民族化하면서 多中心體制를 形成해온데는 스탈린같은 鐵拳的 劃一主義-中央集權主義의 명수가 다시 登場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重要的 것은 中·蘇 2大共產主義나라 사이의 歷史的 紛爭이 그밖의 나라들의 小共產黨들로 하여금 獨自的 行動을 取할 수 있는 一定한 여지를 만들어 준 事實이다. 北韓, 越盟, 루마니아 등은 中·蘇의 政治的 境界線에서 형세를 觀望하면서 蘇聯 또는 中共으로부터 軍事的 壓力을 받을 危險이 없는 한, 그 어느편에 기우러지거나 지도를 기다릴 必要없이 自黨의 路線을 자기가 決定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바니아와 같이 完全히 北京편에 加擔 (1960~1976) 하여 蘇聯에 正面으로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쿠바와 같이 처음부터 獨自的인 社會主義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 現在의 쿠바는 철저히 蘇聯편에 서고 있지만…….

모스크바도 北京도 小共產主義國家들을 자기편에 예속시키려 하다가는

은 비유하고 있다.⁴⁾ 그에 의하면 現代全體主義의 本質을 지니고 있던 비잔틴教會에서는 카톨릭教會에서와는 달리 皇帝가 同時에 教皇으로 되는 소위 皇帝-教皇一體性を 特徵으로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信仰에 대한 忠誠과 國家에 대한 服從은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와 國家權力은 不可分の 統一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이데올로기가 分裂될 때는 政治的 多元化(權力의 分裂)現象이 일어난다.

스탈린死亡 以後에도 共產主義라고 하는 反宗教的 教會에서도 單一的 教義가 깨짐으로써 그 中央集權主義는 종말을 고하고, 각각 自己의 權力을 正當化하는 새로운 教義 또는 再解釋된 教義위에 자체의 獨立教會를 세우려는 現象이 世界到處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의 이러한 時代的 추세를 따라 自身의 獨自的 教義(이데올로기), 教會(黨) 및 教權(政治權力)을 추구해온 것이 바로 金日成의 <主體>의 確立過程이다. 그러므로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큰 變動의 環境에서 把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黨宣傳員들은 <永生不滅의 主體思想>은 金日成에 의하여 비로서 <創始>되었다는 것을 立證하기 위해 既存의 黨記錄은 削除하고, 있는 記錄은 대담하게 創作해 왔던 것이다.

註 4) 上揭 論文 參照

2. 對內的 權力鬭爭의 要請

스탈린時代의 北韓은 東歐諸國과 마찬가지로 蘇聯의 權威가 壓倒的으로 優勢했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가 스탈린主義에 의하여 急速히 再編成되고 있었다.

金日成은 北韓의 스탈린이었으며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蘇聯의 스탈린體制的 복사판이었다. 이것은 個人崇拜作風을 人爲的으로 造장하여 1人獨裁의 權力機構를 強化하고 있던 점에서 그랬고, 소위 社會主義의 기초건설을 人民大衆의 生活의 희생위에서 急速度로 강행한 점에서 그러했고, 勞動者들의 罷業禁止, 秘密警察의 肅清作業, 經濟體制的 官僚化가 社會主義의 特徵으로 된 점에서도 그러했다. 스탈린은 1953年 3월에 死亡했고 韓國休戰은 1953年 7월에 成立되었다. 스탈린死亡後 스탈린主義는 蘇聯과 東歐에서도 退潮하기 始作했으나 北韓에서는 休戰後 스탈린主義가 더욱 強化되고 있는 逆現象을 보였다.

戰禍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北韓땅에서 金日成은 급박한 民生問題를 뒤로 돌리고 重工業優先主義, 軍事力の 強化, 성급한 農業集團化를 기본으로 社會主義建設을 다그치는데 全人民을 動員했다. 그리고 그의 目標와 方法은 1928年 以來로 스탈린이 蘇聯에서 一國社會主義의 建設을 強行하고 있던 때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했다.

스탈린은 蘇聯을 世界革命의 기지로 認識하고 一國社會主義의 建設을 가혹한 方法으로 밀고 나갔던 것처럼, 金日成은 北韓을 全韓

半島의 共產主義革命을 위한 <民主基地>로 규정하고 그것에서 超 스탈린主義的 方法으로 社會主義建設을 強行했던 것이다. 스탈린에 의한 蘇聯의 社會主義建設은 <資本主義의 包圍國>이라는 공포속에서 施行되었으므로 그 方法이 殘忍苛酷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戰後復舊建設計劃 (1954~1956年)과 5個年計劃 (1956~1960年)은 아직도 統一을 維持하고 있던 <社會主義陣營>나라들, 특히 中·蘇의 國際的 支援속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1950年代의 北韓은 1930年代의 蘇聯과는 달리 內部的 狀況이 日 緊張되고 日 苛酷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은 反對로 北韓에서는 이 時期에 가장 가열한 黨內的 權力鬭爭, 肅清煽動, 社會의 統制化가 進行되고 있었다.

金日成은 戰爭의 開始와 더불어 새로 設置된 (1950.6.26) 黨軍事委員會의 委員長職을 차지하고 이것을 利用하여 黨內에서 權力을 一層 鞏固化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強化된 權力을 통하여 자기의 黨指導權에 挑戰하는 일체의 <反黨宗派分子>들을 소탕함으로써 自己支配下에 黨을 <統一>하는 것을 緊急한 課題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第1次的 目標은 朴憲永을 頂上으로 하는 南黨系였다. 서울에서부터 平壤으로 도피해간 朝鮮共產黨系, 즉 뒤의 南朝鮮勞動黨系는 朝鮮勞動黨內에서 形式上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는 있었으나 金日成의 감시하에서 수다한 屈辱을 참아야 했다. 이들은 戰爭時期에 이미 金日成의 支配에 不滿을 품고 은밀히 抵抗組織을 擴大하고 있었다. 그러나 戰爭이 進行되고 있는 동안 朴憲永과 金日成의

鬭爭은 表面으로 爆發할 수는 없었다. 休戰이 成立되자 金日成은 곧 이들에 對한 先制攻擊을 斷行했다. 1953年 7月 이들은 逮捕되어 特別裁判所에서 <美帝의 고용간첩>이란 罪名을 뒤집어쓰고 極刑을 받았다. 그리고 1955年 12月 朴憲永의 死刑을 집행함으로써 金日成은 党内最強의 反對派를 除去할 수가 있었다.

南勞黨系의 沒落으로 金日成을 위협하는 党内反對勢力은 蘇聯派와 延安派로 壓縮되게 되었다. 金日成一派는 스탈린에 의하여 派北되었으므로 解放直後에는 蘇聯派로 간주되고 있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蘇聯派는 許가이, 朴昌玉, 金承化, 朴義玩 등 蘇聯公民으로서 北韓에 派遣되어 黨과 政權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者들이다. 그중에서 金日成의 最強의 敵은 黨組織을 掌握하고 있던 許가이였지만, 그는 戰爭中 朴憲永과 反金日成 共同戰線을 폈다가 53年 2月 逮捕直前に 自殺했다. 그러나 許가이는 모스크바 支持없는 蘇聯派였으며 그밖의 蘇聯出身 幹部들과는 不和關係에 있었다. 모스크바의 金日成에 대한 支持는 確固不動했으며, 소위 蘇聯派는 金日成을 核心으로 한 黨과 政權을 創設하는 設計로서 派遣되었던 것이다.

한편 延安派는 解放直後 毛澤東의 革命根據地 延安으로부터 歸國한 者들이며 金科奉, 崔昌益, 武亭, 尹公欽 등의 一派를 말한다. 그중에서 金日成이 가장 경계한 것은 中國內戰에 參加하여 명성을 날린 八路軍의 重鎮 武亭이었다. 北韓의 軍部の 相當部分이 武亭을 中心으로 하는 中共系 軍人들에 의하여 掌握되고 있었다는 것은 金日成의 큰 고민이었다. 그러나 武亭은 1950年 12月 韓國戰爭에서의

敗戰責任과 命令不服의 罪過로 第2軍團長職에서 解職된 後 肅清되었다. 武亭의 沒落은 延安派의 沒落의 序曲임이 곧 判明되었다. 그러나 1956年8月까지 延安派의 地位는 比較的 安全했다. 그것은 背後에 中共이 있었기 때문이다.

韓國戰爭이 일어날 때까지 北韓은 全적으로 크레믈린의 指示下에 있는 蘇聯의 典型的 衛星國이었다. 中國共産黨이 北韓에다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것은 中共이 韓國戰爭에 派兵한 以後의 일이었다. 毛澤東은 林彪와 彭德懷같은 猛將을 韓國戰線에 派遣했고 中共의 <人民志願軍>은 人海戰術에 의하여 莫大한 犧牲을 치렀다. 國際關係에서는 어떤 나라를 위해 犧牲을 치른 者가 그나라 問題에 關係 강한 發言權을 獲得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古典的 法則이다. 中共은 韓國戰爭에 參加하여 北韓의 黨과 政權을 絶滅의 危機로부터 구출함으로써 北韓에다 政治的 影響力을 떨쳤고, 休戰會談의 한 當事者가 되었고, 제네바會議과 유엔總會 등에서의 韓半島問題에 關係한 討議에서는 發言權을 얻었다. 그리고 戰爭中과 戰後에 中共이 北韓에 제공한 軍-經援助는 中共의 對北韓 影響力을 強化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렇다고해서 北韓에 對한 蘇聯의 影響力이 弱化되지는 않았다. 스탈린이 死亡한 얼마 뒤까지도 蘇聯은 國際共産主義運動의 中心이요, 中共도 蘇聯을 <先頭>로 한 單一社會主義陣營에 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6年 흐루시초프의 衝擊的인 秘密演說이 있을 때까지 北韓에서는 蘇聯의 權威가 여전히 우세했다.

그런데 흐루시초프의 非스탈린化運動은 北韓에서도 큰 波瀾을 몰

고 왔다. 무엇보다도北韓의 스탈린인 金日成은 이 運動에 의하여 一大危機에 逢着하게 되었고, 金日成의 오만불손한 獨裁下에서 屈辱과 不平의 生活을 해온 延安派 - 蘇聯派 黨幹部들은 蘇聯으로부터 불어오는 非스탈린化運動에 큰 격려를 받았다. 스탈린死亡後 크레믈린內에서는 權力繼承을 둘러싸고 鬭爭이 있었으나 베리아의 處刑을 끝으로 流血肅清은 없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一人專制體制에 대신하여 集團指導體制가 나타났고, 이것은 東歐와 中國을 비롯한 各國共産党内에 심각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스탈린以後의 <自由化>로 불리운 政治的 文化的 緩和政策과 非스탈린化政策은 各國 共産黨을 根本적으로 動搖케 했다. 여기서 金日成은 自己의 權力이 崩壞할지도 모른다는 危機意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蘇聯의 支援을 必要로 하는 한 흐루시초프의 政策路線에 反對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表面上으로는 흐루시초프를 支持하는 發言을 했다. 즉, 歷史的인 蘇聯共産黨 第20次大會 後에 열린 勞動黨第3次大會 (1956. 4)에서 그는 蘇聯共産黨의 平和共存路線과 核武器의 生産 및 使用禁止를 內容으로 한 흐루시초프의 軍備縮少提案을 극구 讚揚했던 것이다.⁵⁾ 그러나 內心으로는 스탈린主義를 固守하고 흐루시초프型 修正主義를 反對하고 있는 것이 分明했다. 무엇보다도 金日成은 스탈린死亡後 서서히 進行되고 있던 個人崇拜作風의 批判에 대해 不安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最高指導者에 대한 個人崇拜의

註5) 《金日成選集》4, 平壤, 1960, pp. 443-444.

反對는 곧 金日成個人崇拜에 대한 反對, 즉 金日成의 權威에 대한 反對로 직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金日成은 北韓에서 個人崇拜를 퍼뜨린 것은 자기가 아니라 黨內的 <宗派分子들>이라고 主張하면서 宗派主義와 <非妥協的 鬭爭>을 벌이고, 個人崇拜를 철저히 清算하여 黨의 <統一과 團結>을 固守해야 한다고 역습했다.⁶⁾ 요컨대 그는 世界共產主義運動에 과급되어가고 있는 個人崇拜反對運動을 영웅하게 꺼꾸로 自身の 權力을 더욱 強化하는데 利用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金日成의 反對派들은 蘇聯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變化-스탈린罪狀暴露, 平和共存과 平和的 革命의 主張, 秘密警察의 組織과 權限의 大幅 縮小, 集團指導體制의 導入, 文化에 대한 統制緩和, 福祉政策의 신장 등에 의거하여 그를 除去하려는 運動을 했다. 金日成一派(주로 그의 遊擊隊時節의 直系中心)와 反對派(蘇聯派와 延安派)의 黨內鬭爭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北韓에서 스탈린體制를 固守하려는 者와 그것을 反對하는 者의 鬭爭이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鬭爭은 必然적으로 權力을 維持하려는 者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者의 鬭爭이었다.

金日成은 反對派와의 鬭爭에서 스스로를 正當化할 수 있는 思想的 立場의 確立을 絶對로 必要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蘇聯 또는 中共을 믿고 自己의 獨裁權에 도전하는 者를 黨의 團結과 統一을 破壞하는 <反黨宗派分子>요, 이들은 맑스-레닌主義를

註 6) 上揭書, p.540.

옳게 理解하지 못하고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서 蘇聯 또는 中共의 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主體도 創造性도 없는 分子들이라고 非難하기 始作했다. 1955年 12月 28日 그는 앞에서 言及한대로 <主體>의 確立問題를 党内에서 最初로 公的으로 提起했다. 즉, 그는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主體>가 없이 남의 것을 베껴다가 외기만 하는 党内의 蘇聯派와 延安派, 특히 蘇聯派에 대하여서는 許多한 事例를 들어 批判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朝鮮革命을 옳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党思想事業에서 <主體>를 세워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事業에서 革命的 眞理-맑스·레닌主義的 眞理를 體得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眞理를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게 適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蘇聯式과 같이 해야만 한다는 原則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蘇聯式이 좋으니, 中國式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式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맑스·레닌主義의 眞理를 배우지 않고 남의 形式만 따르는 것은 百害無益합니다. … 우리나라의 歷史도 우리人民의 傳統도 무시하고 우리의 現實과 우리 人民의 苦勞 정도도 考慮함이 없이 남의 經驗을 機械的으로 適用한다면 教條主義의 과오를 犯하게 될 것이며 革命事業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7)

註 7) 上揭書, pp.336-337.

金日成이 <主體>確立의 必要性을 이와같이 說明한 것은 이미 論
한 바와 같이 스탈린死亡後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劃一的 統制
가 깨져 各國의 共產黨들이 獨自의 路線을 追求하고 있던 一般의
狀況에서였다. 그도 다른 나라 共產黨指導者와 마찬가지로 모스크바
(또는 北京)의 支配를 받고 싶지 않다는 自我意識을 以上の 말에
서 완곡하게 表現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가 <主體>의 確立이라는 思想的 名分을 自己에게
도전하는 党内反對派를 공격하는 派閥鬭爭의 武器로 삼았다는 戰術
的 側面이다. 그의 主張에 따른다면 맑스·레닌主義의 眞理를 터득
한 것은 바로 자기뿐이요, 自己의 反對派는 <남의 經驗을 機械的으
로 適用한> 形式主義者와 教條主義者였다.⁸⁾

맑스·레닌主義의 普遍的 原則을 그 나라의 具體的 條件에 <創
造的으로> 適用해야 한다는 要求는 世界의 모든 共產黨에 있어서는
하나의 公式이다. 그리고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者는 <創造的>인
맑스·레닌主義者로 公認을 받아왔고, 따라서 權力鬭爭에서는 反對派
를 <創造物>이 못된다는 批判을 加하는 것이 상투적인 手法이다.
金日成은 党内反對派에 대한 攻撃을 완곡하게 다음과 같이 表現했
던 것이다.

註 8) 金日成은 <主體>란 말을 내세우기 이전부터 즉 1955年 4
月1日부터 党内의 形式主義와 教條主義를 攻撃하기 始作했다.
이것은 벌써부터 党内의 權力鬭爭은 은밀히 進行되고 있었음
을 뜻하는 것이다. 《金日成選集》4, 前掲版, pp.230-237.

“맑스·레닌主義는 教條가 아니라 行動의 指針이며 創造的 學說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主義는 매개 나라의 具體的 條件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될 때 비로서 그 不敗의 威力을 發揮할 수 있는 것입니다. 兄弟黨의 經驗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兄弟黨들의 經驗을 研究하여 그 本質을 把握하고 그것을 우리 現實에 옳게 適用하여야 그 經驗이 價値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 일을 망쳐 버린다면 우리 事業에 害를 줄 뿐만 아니라 兄弟黨들의 高貴한 經驗까지도 毀損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9)

1955年 當時 金日成은 党内反對派들을 批判할 때는 <教條主義>라는 은어를 使用했으며, 이들이 아직 맑스·레닌主義의 原則을 <創造的으로> 適用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表現 以上을 넘지 않았다. 金日成이 말하는 <教條主義>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처한 具體的 現實條件을 타산하지 않고 일반 命題를 그대로 適用하거나 남의 것을 機械的으로 옮겨다 놓는 태도>요, <비유해서 말한다면 남의 것을 통째로 삼킨다는 뜻>이라는 것이다.¹⁰⁾ 金日成은 바로 그 反對派들이 이런 <教條主義>의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을 主張했다. 그의 反對派들, 즉 蘇聯派와 延安派는 흐루시초프의 路線에 公명하면서 그의 힘을 援用하여 金日成을 타도하려 했음이 明白하다.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자기의 非스탈린化政策을 北韓에서도 推進할 것

註 9) 上揭書, p.337.

10) 上揭書, p.623.

을 金日成에게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호루시초프의 非스탈린化政策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個人崇拜反對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호루시초프가 政治的 運命을 걸고 斷行하고 있는 個人崇拜反對政策에는 처음부터 완강히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自己의 權力的 終末과 直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數年뒤에 와서 (1963.10.28) 《로동신문》은 北韓內 金日成反對派를 성원한 호루시초프의 個人崇拜反對를 다음과 같이 공박하고 있다.

“소위 <個人迷信反對>運動을 다른 黨들에게 내려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관으로 하여 兄弟黨, 兄弟國家들의 內政에 干涉하고 이 나라들의 黨指導部를 轉覆하기 위한 活動을 敢行하는 것은 法대로 容許할 수 없다. 바로 <個人迷信反對>의 소동으로 하여 수많은 兄弟黨들이 公公然히 熱病을 겪었으며 國際共產主義運動이 커다란 損失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도 一部 사람들에 의하여 <個人迷信反對>의 소동은 繼續되고 있다. 이러한 行動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斷乎히 排擊되어야 한다.” 11)

다음으로 黨內權力鬭爭에서 爭點으로 된 것은 社會主義建設의 方法에 관한 것이었다. 黨內的 蘇聯派와 延安派는 金日成의 急進的 社會主義改造 및 建設方法에 反對하고 이에서 權力鬭爭의 正當性을 찾고 있었다. 金日成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 <反黨宗派分子>

註 11) <社會主義陣營을 擁護하자>, 《로동신문》, 1963年10月28日 社說.

들은 자기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非現實的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당면한 人民生活을 考慮할 것과 時機가 이른 農業集團化와 個人商工業의 協同組合化政策을 拋棄할 것을 主張했으며, 이들의 主張은 党内外에서 相當한 共感을 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²⁾ 이 <反黨宗派分子들>의 金日成批判을 蘇聯共産黨이 支持하고 있었음을 後日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暴露했다.

“지난 시기 일부 同志들은 우리 黨의 社會主義建設政策에 대하여도 應當한 理解와 支持를 表示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個年計劃은 幻想>이라느니 <機械製作工業을 建設할 必要가 없다>느니 <農業協同化의 速度가 빠르다>느니 <農機械가 없이 어떻게 農村經濟를 協同化할 수 있겠는가>하는 등 남의 實情도 모르면서 여러가지로 시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決心대로 獨自的으로 行動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損失을 받은 것은 없었다...”¹³⁾

蘇聯派와 延安派는 1956年8月 드디어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日成派에 대한 決戰을 단행했으나 結果는 慘敗로 돌아갔다. 이를 뒤따라 蘇聯派가 延安派에 接近했던 黨員들에 대한 수색 색출전이 벌어졌고 1930年代의 스탈린의 大肅清을 방불케 하는 恐怖雰圍氣로 北韓社會는 끌려 들어갔다. 이 世稱 <八月宗派事件>은 勞動党内의 權力鬭爭으로는 가장 큰 事件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對中·蘇關係라는 側面에서 重要な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 事件을 契機

註 12) <<金日成選集>> 6, 平壤, 1966, pp.123-124.

13) <<로동신문>>, 1963年10月28日字 上揭社說.

로 党内反對派에 대해서는 비단<教條主義>뿐만 아니라 <現代修正主義者>, <反革命分子>, <事大主義者>, <民族虛無主義者>등의 새로운 비방이 添加되게 되었다. 金日成은 이들 <宗派分子>는 <外部로부터 침습한 國際修正主義의 사상영향에 사로잡혔다.>¹⁴⁾ 고 非難하는 한편, 이 <反党修正主義分子>들이 이들을 支持하는 <다른 나라의 修正主義者들>과 結托하여 自己의 權力을 <뒤집어엮기 위한 陰謀를 敢行하였다.>¹⁵⁾ 고 斷言했던 것이다.

以上을 要約하면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스탈린死亡後의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分裂속에서 出現한 多元化推勢의 한 支流다. 그리고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의 壓力下에서 이에 편승한 党内의 <反党宗派分子들>의 反抗에 直面하면서 金日成이 死活을 걸고 党指導權을 固守, 強化할 때에 思想的 武器로서 <主體>確立에 강조되기 始作했다. 그가 1955年頃부터 돌연 <自己의 것>, <제나라 歷史>,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主體>를 내세운 것은 對内外의 도전으로부터 自己自身の 權力과 政策路線을 擁護하기 위해서였다. 蘇聯과 中共이라는 두 共產主義巨國의 影響力밑에서 金日成의 党指導權을 維持 強化하기 위해서는 <内政干涉>, <事大主義>, <大國主義>를 反對하면서 自主的이요, 民族的 感情에 부합하는 思想的 立場을 제시하는 것이 效果的이었다. 그런 것으로써 金日成이 찾은 것이 바로 <主體思想>이었던 것이다.

註 14) 《金日成選集》 5, 平壤, 1960, p.241.

15) 《金日成著作選集》 4, 平壤, 1968, p.200.

II. 主體思想의 圖式

1. 思想, 政治, 經濟, 國防에서

北韓의 主體思想은 金日成이 만들어낸 『革命과 建設의 가장 正確한 馬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¹⁾이며 北韓 政府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²⁾이라고 한다.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처음으로 표방한 1955年 12月 28日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題目으로 「黨宣傳煽動 일군들 앞에서 한 演說」 가운데서 『馬스·레닌主義는 教條가 아니라 行動의 指針이며 創造的 學說』³⁾이라고 規定하고 그렇기 때문에 馬스·레닌主義는 各國의 具體的 條件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될 때에 비로소 그 不敗의 偉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후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言及할 때마다 「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을 強調하고 있다.

즉 金日成은 馬스-레닌主義의 教條性은 否認하지만 그 創造的 適

註 1)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p.553.

2)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437.

3) 《김일성저작선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570.

用的 價値를 讚揚함으로써 國際共產主義運動으로부터 異論이라는 비난을 예방하면서 北韓 住民들에 對해서는 날조된 歷史와 金日成 自身の 「抗日武裝鬪爭史」를 통해 服從的인 一體感 形成을 試圖하고 있다.

그래서 金日成은 그의 統治手段의 모든 部門에서 主體思想을 精神的 支柱로 삼고 있다. 勞動黨規約은 그 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은 맑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동지의 偉大한 主體思想을 自己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⁴⁾고 規定하고 있으며 北韓의 새 憲法도 第4條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⁵⁾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곧 主體思想의 淵源을 北韓 政權은 黨에서, 黨은 金日成에서 찾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北韓의 主體思想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며 金日成이 主體思想을 「創始한」 目的은 그가 黨을, 黨은 政權을 「效率的으로」 支配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北韓의 主體思想이란 北韓 住民의 主體를 소중히 여겨 나온 것이 아니고 民族主體는 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 住民은 오히려 金日成의 主體思想 旗幟아래 더욱 隸屬化되었고 民族의 歷史도 主體思想으로 더욱 歪曲되어 버렸다.

註 4)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79, p.209.

5) 上揭書, p.225.

그러나 金日成은 主體思想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理論的 體系가 必要했고, 이 體系는 對外的으로는 宣傳에, 對內的으로 住民感情에 모두 어필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圖式이다.

그러나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그 圖式은 사실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狀況變化와 對內的 權力鬭爭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로서 出現되었다. 따라서 金日成의 말대로 「主體思想」이란 表現은 確固不動한 것일지 몰라도 그 內容은 與件과 獨裁強化의 必要에 따라 수시로 變할 수 있는 流動的인 것이다. 즉,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심오한 哲學的 意味를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歷史性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직도 未完成段階에서 理論上으로는 矛盾點들을 드러내고 實踐에 옮겨질 때는 難關에 봉착하기 일수이다.

이제 主體思想의 圖式을 따라 그 理論과 實際를 해부해 보기로 한다.

「思想에서의 主體」는 人間을 思想的으로 改造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1955年 12月 28日 金日成이 「黨宣傳煽動 일군들」앞에서 演說하는 가운데 最初로 提起되어 1966年 10月 18日 金日成이 「黨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宣傳煽動部 일군들」앞에서 演說할 때 거의 定立을 보았다. 金日成은 1966年 10月 18日 演說때 『사람들을 革命化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利己主義, 個人主義를 비롯한 부르조아思想을 빼고 個人의 利益보다도 集團과 全體의 利益을 重

要하게 여기는 共產主義思想 意識을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革命化한다는 것은 個人의 利益을 버리고 黨과 革命을 위하여, 大衆을 위하여, 人民을 위하여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려는 강한 意志를 가진 革命家로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⁶⁾고 그가 要求하는 人間像을 설정하고 있다. 그는 또 1978年 9月 9日 「北韓政權 創建 30 週紀念 中央慶祝大會에서 한 報告」에서 『3大革命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思想革命』⁷⁾이라고 前提하고 「모든 勤勞者들이 우리 黨의 革命思想,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武裝하였으며 온 社會에 主體思想이 짝 들어찼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全體 人民들은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에 대한 높은 忠誠心을 간직하고 있으며 革命的 要求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어 용감하게 鬪爭하고 있습니다』⁸⁾고 主體思想의 現段階를 이야기하고 있다.

金日成은 「主體思想의 旗幟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 建設을 더욱 다그치자」는 題目의 이 演說에서 온 社會를 主體思想化하는 것을 「共和國政府」의 最終 目標로 設定하고 모든 사람들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만들 것과, 온 社會를 主體思想의 要求대로 철저히 改造할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하여 만들어지는 社會를 「思想的要塞」라고 말하고 있다.

註 6) 《김일성저작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416.

7) 《근로자》, 1978년 10호, p.6.

8) 同誌, p.6.

이것은 무서운 國家觀이다. 1978年末 가이아나에서 發生했던 존스의 「人民寺院」과 흡사한 社會를 이룩하자는 것이 「思想에서의 主體」의 目標이다. 그는 「人民大衆」이 「國家」를 만들고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國家」가 「人民大衆」을 만들고 변형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國家至上主義를 내걸고 있다.

金日成은 「思想에서의 主體」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몇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먼저 손꼽히는 것이 「3大革命小組」組織이다.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 北韓에 몰아붙였던 「3大革命小組」運動은 한때 北韓 權力層의 內紛에 의해 小康狀態에 들어갔으나 1978年9月9日 金日成의 上記報告를 계기로 되살아났다.

金日成은 이때 『우리 黨은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하여 3大革命小組運動을 발기하고 政治的 實務的으로 準備된 黨核心들과 青年인테리들로 3大革命小組를 두어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들을 비롯한 人民經濟 여러 部門에 派遣하는 積極的인 조치를 취하였읍니다』⁹⁾고 공표했다. 1977年12月の 最高人民會議 報告 「人民政權을 한층 強化하자」는 題目의 演說에서는 「主體思想이나 「3大革命」에 關係 거의 言及이 없었던데 비추어, 9個月만에 金日成이 이렇게 말한 것은 1977년에는 平壤의 指導層 內部에 어떤 異見對立내지 權力鬭爭이 심각했으며 1978년에는 金日成이 危機를 수습하고 內部政治에서 어느 정도 自信을 얻

註9) 同誌, pp.10 ~ 11.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3大革命小組는 「革命的 前衛」로서 「鬪爭의 旗手」로서 다시 金日成에 의해 活用되었다. 3大革命小組는 1973年2월에 金日成의 發議에 의해 党的 決定으로 탄생된 것으로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에 의해 組織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3大革命小組의 運動이 위축되었던 時期는 金正日の 金日成後繼問題를 둘러싼 鬪爭이 展開되었던 時期이며 이제 다시 3大革命小組가 脚光받는 것은 金日成의 自畫自讚이라는 점과 함께 金正日後繼가 굳어져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3大革命小組는 실제로 狂氣에 가까울 정도로 6個年計劃을 앞당겨 달성하려는 「速度戰」, 「電擊戰」, 「殲滅戰」을 추진하며 金日成에의 「無條件性, 絕對性的 忠誠」, 「살아도 首領을 위하여, 죽어도 首領을 위하여」라고 하는 忠誠競爭을 展開하는 組織이다.

이러한 3大革命小組가 機能을 회복하게 된 것은 金日成 獨裁強化와 金正日 後繼에 대한 北韓 住民들의 盲從을 強要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確立하기 위해 새로운 法體系를 構築했다.

우선 1972年10月부터 12월에 걸쳐 制定된 新社會主義 憲法이 「主席」制를 新設, 金日成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命令의 發出權」을 갖고, 동시에 新設된 中央人民委員會에 政令, 決定의 採擇權과 指示의 發出權을 부여했다. 이것은 金日成이 종래에는 党的

首領으로서 實質的인 權限을 行史하던 것을 이제는 「主席」의 자리까지 차지한 명실상부하게 最高權力者, 絶對者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한편 最高人民會議은 立法機關으로서의 性格을 현저하게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1976年4월에 制定된 幼兒保育教養法은 幼兒는 「代를 이어 革命을 할 革命偉業의 繼承者」라고 規定하고 幼兒를 「主體型的 革命的인 새로운 人間」으로 기르고, 어머니를 「幼兒教育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解放」시킬 것을 指向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람을 어릴 때부터 主體思想으로 完全 教化시켜 金日成의 後繼者에까지 3大 革命小組가 展開하는 「無條件性, 絶對性的 忠誠」을 「즐겁게」 바치도록 하는데 있다.

1978年9月29日 平壤에서 開催된 「全國教育活動者大會」에서 党中央委員會 政治委員兼 秘書 金煥은 「金日成主席이 提示한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를 철저하게 貫徹하기 위하여」라는 報告에서 『우리 靑少年 學生은 主席을 마음으로부터 흠모, 一念으로 忠誠을 다하는 主體型的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로 만들도록 教育시키고 있다』¹⁰⁾고 말했고 金日成은 政權樹立 30周年記念 報告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人口의 절반이 넘는 8百60萬名의 어린이들과 學生들이 國家의 부담으로 無料教育을 받으며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¹¹⁾고 자랑했다.

註 10) 《코리아評論》, 民族問題研究所, 1979年3號, p.40.

11) 《근로자》, 1978年10호, p.9.

여기서 8百60萬名은 단순한 8百60萬名이 아니다. 이들을 保育教育시키는 教員, 保育員, 教養員들이 있고 이 어린이들을 人質로 한 부모가 어떤 形態로든지 主體型的 人間으로 教化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現在 北韓에서 主體思想의 教育을 받고 있는 人口는 1千萬名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北韓은 하나의 커다란 「人間改造工場」이라고 말할 수 있다.

金日成은 또 1978年4月 主體型的 社會主義勞動法을 制定했다. 勤勞者는 勞動을 통하여 自己를 革命化할 것을 目標로 한 이 法은 第33條에서 『8時間 勞動, 8時間 休息, 8時間 學習의 原則을 철저히 貫徹』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北韓 勤勞者들의 이와 같은 時間生活은 常識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健康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時間은 8時間이라고 한다. 勞動時間 8時間은 北韓의 成人이라면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成人들은 8時間을 金日成의 主體思想 學習에 割愛할 것을 强要당한다. 그렇다면 休息時間 8時間을 쪼개어 수면, 食事, 交友, 家庭生活(夫婦의 性生活, 父母兄弟間의 환담 등의 時間뿐만 아니라 家事整理時間도 包含됨)을 영위해야 한다.

따라서 北韓 住民들은 休息時間의 不足으로 항상 疲곤한 狀態에 있게 되며, 疲곤은 學習時間에 가장 크게 느끼기 마련이다. 北韓住民들에게는 金日成의 著作類가 전부인 이 學習을 되풀이하는 時間이 가장 지긋지긋할 것에 틀림없다.

요컨대 北韓은 「政權機關」과 「黨」이 學生·勤勞者(이 두가지 職業이면 北韓 住民이 거의 다 包含된다) 한사람 한사람의 生活全體를 完全 管理下, 支配下에 두고 있다. 존스의 人民寺院을 除外하고는 古代王朝時代로부터 現代民主社會에 이르기까지 東西를 통해 이처럼 하루 24時間의 全生活이 國家支配의 強制下, 管理下에 들어가본 人類歷史는 없다. 「思想에서의 主體」化 作業은 어떤 國民도 經驗해 보지 못한, 따라서 어떤 結末을 가져올지 豫測할 수 없는 當代의 가장 큰 悲劇이다. 「政治에서의 自主」는 내부의 權力鬭爭과 中·蘇理念紛爭의 渦中에서 金日成이 生存의 길을 찾기 위해 「創造된」 것이며 이것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狀況變化와 東西間의 緊張緩和 무드에서 매우 流動的으로 活用되고 있다.

金日成은 北韓政權 樹立初期의 權力構造에서 崔昌益등의 延安派와 朴昌玉등의 蘇聯 2세派, 그리고 朴憲永등의 南黨系를 숙청하는 무기로 「政治에서의 自主」를 利用했다.

金日成이 1955年 12月 28日 黨宣傳煽動 일꾼들 앞에서 처음으로 宣傳事業이 많은 점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에 빠져 있으며 思想事業에서 主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라고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매우 분노에 찬 語套로 朴昌玉, 朴憲永, 朴英彬등을 신랄히 공격했다.

金日成은 그 자신은 解放直後인 1945年 가을에 이미 『우리民族의 鬭爭歷史를 研究하며 그 우수한 傳統을 繼承할데 대하여 強

調』¹²⁾ 했으나 宣傳煽動일꾼들이 이 指示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宣傳事業의 全面改編을 역설했다.

그는 朝鮮歷史에서 朴燕岩, 丁茶山 같은 先進的 學者, 作家들의 우수한 作品과 光州學生事件, 3.1 運動 등을 깊이 研究하여 宣傳하지 않았기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은 勿論이요, 「民族的 양심을 가진 進歩的인 人士」들을 「옳은 方向」으로 이끌수 없다고 말했다.¹³⁾

金日成은 當時 北韓의 宣傳事業이 잘못되어 있는 몇가지 端的인 例를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내가 언제인가 人民軍 休養所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씨비리(筆者註: 「시베리아」의 北韓 表記) 초원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風景은 아마 로씨야(筆者註: 「러시아」의 北韓表記) 사람의 마음에는 들 것입니다. 그러나 朝鮮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금강산이나 묘향산과 같은 아름다운 산들이 있으며 맑은 시냇물과 파도치는 푸른 바다가 있으며 五穀이 무르익는 논밭이 있습니다. 우리 人民軍隊로 하여금 자기의 鄉土와 祖國을 사랑하게 하려면 이러한 우리나라 風景의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여름 어느날 지방의 民主宣傳室에 가보니 거기에 蘇聯의 5 個年計劃에 대한 圖表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5 個年計劃에 대한 圖表는 한장도 없었습니다.』

註 12) 《김일성저작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p.561.

13) 上揭書, pp.562 ~ 563.

『人民學校에 가보니 寫眞을 걸었는데 마야팝쓰끼, 뿌슈끼 등 全部 外國 사람들뿐이고 朝鮮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소책자를 적을 때에 목차를 붙이는데도 남의 본을 따서 그것을 뒷장에 넣습니다.…… 우리 책의 目次는 응당 첫머리에 붙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¹⁴⁾

金日成의 이같은 지적은 當時 蘇聯派 朴昌玉과 朴英彬 등의 숙청을 「正當化」하는 理論으로 使用되었고 한편으로는 스탈린 死亡後 中共이 世界 第2의 大共產勢力으로 登場함에 따른 國際共產主義의 2元化내지 多元化 傾向에서 새로운 進路를 모색하는 宣言이었고 또 가장 重要的 것은 「金日成崇拜」를 促求한 信號였다.

金日成은 그후 자신에 대한 崇拜運動을 어떤 다른 部門의 運動보다도 급속히 추진, 現在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지나간 자취마다 「유서 깊은 革命의 史蹟地」로 단장된다.

北韓이 主體思想을 對外的으로 公式宣言한 것은 1966年8月12日 字 <<로동신문>>의 社說 『自主性を 擁護하자』에서였다. 이 社說은 中·蘇紛爭이 일으키는 未曾有의 격동속에서 모스크바나 北京을 莫論하고 外部에 依存하고 있었다는 金日成의 反對派들을 「修正主義者」, 「教條主義者」, 「事大主義者」라고 공격하고, 世界의 모든 共產黨들의 相互關係에서는 「完全한 平等, 自主, 互相尊重, 內政不干涉, 同志的 協調」의 規範을 嚴格히 遵守해야 한다고 強調했다.

이 社說은 共產黨들 사이에서는 어떤 特權的 黨도 있을 수 없

註 14) 上掲書, pp.564 ~ 565.

다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큰 黨과 작은 黨은 있으나 높은 黨과 낮은 黨, 指導하는 黨과 指導받는 黨은 있을 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中央的 地位에서 指示하고 통솔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服從하고 떠받드는 關係란 許容될 수 없다. 그들은 다같이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同等한 成員들이다』 15)

이러한 주장은 北韓이 코민테른(第3 인터내셔널)과 같이 各國 黨에다 中央集權的 統制를 加하는 「世界革命의 中心」을 거부한 것이다. 金日成은 그해 10月5日 勞動黨 代表者會에서 「現情勢와 우리 黨의 課業」이란 題目으로 演說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를 한층더 분명히 하고 있다.

『대개 나라에서의 革命은 결코 그 어떤 國際的《中央》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 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黨의 指導밑에 그 나라 人民의 힘에 의하여 遂行되고 있습니다. 共產主義者들은 國際 共產主義運動에서 그 어떤 《中心》이나 《中央》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16)

金日成이 中·蘇의 兩大國紛爭 속에서 이처럼 自主路線을 擇할 수 있었던 것은 黨內에서의 자기의 獨裁權力이 이미 確立되었고, 世界 共產主義圈 內에서 多元化 現象이 일어나 中·蘇紛爭에서 漁父之利를 얻을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었다는 主觀的·客觀的 條件에서

註 15)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16) 《김일성저작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347.

였다. 17)

그러나 金日成은 70年代에 들어와 越南戰爭이 끝나고 東西間의 緊張이 和解와 接近으로 急變하는 世界情勢에 能動的으로 대처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試行錯誤를 빚었다. 이동안 그는 主體思想을 對外的으로 閉鎖政策에 援用했다가 오늘날에는 非同盟外交의 「大展開」를 위한 武器로 活用하고 있다.

「經濟에서의 自立」은 金日成이 社會主義 國家에서 自主的 民族 經濟를 建設하는 것은 「政治的 自主」의 바탕이 된다는 생각에서 構成한 것이다. 이것은 1956年 12月 11日 金日成이 党中央委員會 全 員會議에서 演說하는 가운데 처음 提起되었다. 이때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援助가 激減하여 5個年計劃 樹立에 蹉跌이 빚어지고 있었다. 6·25 動亂後 10餘年間 對外依存經濟에서 환멸을 느꼈던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經濟的 自立은 政治的 獨立의 均質的 基礎입니다. 經濟的으로 外勢에 依存하는 나라는 政治的으로도 다른 나라의 追從國家로 되며 經濟的으로 隸屬된 民族은 政治的으로도 植民的 奴隸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8)

그리고 金日成은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變을 主動的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직한 經濟的 土臺」는 오직 「自力更生の 原則」,

註 17) 《北韓政治論》，極東問題研究所，1976，pp.346 ~ 347 參照.

18) 《김일성저작선집 4》，p.537.

「自立的 民族經濟建設路線」을 견지해야만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서 『自力更生이란 우리나라 革命은 基本的으로 자기의 主體的 力量에 依據하여 完遂하려는 철저한 革命的 立場이며, 자기 나라 建設은 자기 人民의 勞動과 자기 나라의 富源으로 進行하려는 自主的 立場』¹⁹⁾ 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北韓의 宣傳物들은 이 自力更生の 精神도 金日成이 最初로 「創造的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 가운데서 毛澤東은 이미 1935年 12月 27日 「自力更生」을 처음으로 부르짖었고 2次大戰後 많은 新生國들 가운데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을 위하여 제 나름대로의 自力更生の 精神을 발휘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毛澤東의 경우 革命運動에서 國際的 援助를 얻기가 어려울 때, 大衆의 生活苦에서 오는 불만이 高潮될 때 危機를 넘기기 위해 이를 부르짖곤 했는데 金日成은 사실 毛澤東에서 「自力更生」 口號를 배웠고 또 그것을 動員한 先例를 따랐다고 推斷할 수 있다.

毛澤東은 1958年 여름에 始作된 大躍進運動이 蘇聯 援助의 斷絶로 破局에 부딪치자 自力更生の 口號를 다시 들고나와 大衆의 革命的 정열을 고취했는데 中共의 大躍進運動에 뒤따라 北韓에서 1959年 2月 千里馬運動이 처해 있었던 國際的 環境과 同一하기 때문이

註 19) 上揭書, p.537.

다.²⁰⁾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을 처음에는 흐루시초프時代의 蘇聯이 經濟援助를 구실 삼아 內政干涉을 試圖한데 대한 충격에서 認識했으나 그후에는 韓國을 공격하고 東歐의 「修正主義者들」을 비난하는대로 擴大 適用해 왔다.

그러나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에서 어디까지가 外勢에 대한 依存이고, 어떤 方式이 對外的 經濟協力인지의 基準을 오로지 그의 主觀的 判斷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北韓이 蘇聯 또는 中共으로부터 받는 經濟援助나 資本主義 日本 또는 西歐로부터 얻는 借款은 하등 自力更生의 精神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韓國이 美國, 日本 또는 西歐 國家들과 經濟協力 關係를 갖는 것과 東歐의 유고슬라비아, 두브체크 時代의 체코슬로바키아가 西方諸國과 經濟적으로 提携하는 것은 「植民地的 隸屬」 또는 「追從」이 된다.

金日成은 自立的 民族國家를 急速히 建設하기 위하여 休戰以後부터 6 個年計劃(1971~76年)을 期間前에 達성했다는 1975年 10月 現在에 이르기까지 重工業의 優先的 成長을 「보장」하면서 同時에 輕工業과 農業을 發展시킨다는 強硬路線을 걸었다. 金日成은 重工業을 北韓 經濟에서 「가장 큰 밑천」으로 認識하고 重工業을 基礎로 해야만 輕工業과 農業도 發展시킬 수 있고 擴大再生産도 보장할 수 있

註 20) 《北韓政治論》，極東問題研究所，1976，pp.347 ~ 348 參照.

다는 생각을 固守해 왔다.

그는 이러한 路線을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要求를 옳게 反映하고 맑스·레닌主義 理論을 創造的으로 發展시켜 達成한 獨裁的 路線』²¹⁾ 이라고 스스로 높이 評價하고 있다.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을 實踐함에 있어서 産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조금씩 단행했다. 1954년에 着手한 農業集團化運動은 1958年8月 完成되었고 小規模의 個人商工業은 말할 것도 없고 零細手工業도 「自願性」의 原則에 따라 1956~58年사이 모두 協同組合으로 改편되었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改造의 完成은 社會主義 經濟制度로의 全面的 改編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建設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重要한 것은 技術과 資本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5個年計劃(1957~60年), 7個年計劃(1961~70年), 6個年計劃(1971~75年)을 통해 繼續 「技術革命」을 強調했다. 그러나 技術革命은 文化革命 없이는 遂行될 수 없고 이 두가지에 先行되어야 할 것을 思想革命이라고 金日成은 말해왔다. 그리고 60年代 後半부터 韓國 經濟의 急速한 成長을 본 金日成은 「自力更生」의 神話가 不可能했다고 깨달은듯 日本과 西歐로부터 外資를 도입했다.

그러나 北韓의 非開放經濟는 技術改善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技術이 改善되지 않은 채 導入한 外資는 결국 償還不能의 債務累積

註 21) 《日本讀賣新聞 記者가 提起한 質問에 대한 對答》, 로동신문, 1972年 1월 11일

으로 惡化되기만 했다.

여기서 金日成은 이 危機를 打開하기 위해 1974年末의 「70日戰鬪」, 1975年 「忠誠의 大突擊戰」에 이어 第2次 7個年計劃이 始作된 1978년에는 「100日戰鬪」를 격렬하게 展開했다. 100日戰鬪는 기실 7個年計劃의 初年度를 軌道에 올려 北韓 政權樹立 30周年記念行事때 業積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北韓 經濟는 最惡의 危機는 넘겼는지 몰라도, 자랑살 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北韓은 對日 및 對西歐 負債償還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清算, 國際的인 信義를 회복하고 따라서 對外關係에서 「主動的으로」 作用하며 「主體」를 確立할 날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金日成은 現地指導, 經濟指導에 많은 精力을 쏟고 있으나 그 本質에 있어서는 西方의 群小開放經濟를 이끌어가는 指導者들의 活動과는 다르다. 「忠誠의 總突擊戰」으로 순수한 意味의 「自力更生」을 아무리 다그쳐 보았자 政治的 獨裁가 무너질까 두려워 閉鎖를 추구하는 限 外貨獲得에 기적은 없다.

金日成의 「經濟에서의 自立」에서 또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産業分布의 再編이다. 金日成은 平安北道를 北韓의 「主要한 穀物生産基地」로 만들 것을 「指示」하고, 『平安南道는 北韓의 工業의 中心地로서, 平安南道の 工業을 急速히 發展시키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고 強調했다.²²⁾ 金日成이 特定地域을 經濟建設의 「中心」이라고 選擇的으로 指摘한 것은 吟味해 볼 價値가 있는 것이다.

註 22) <<코리아評論>>, 1979年 5號, pp.51 ~ 52 參照.

從來 北韓에는 阿吾地 石油化學基地, 雄基 精油工場 및 火力發電所, 淸津港, 茂山炭鑛, 金築製鐵聯合企業所, 咸興 興南地域의 化學工業, 合成纖維工業 등 咸鏡南北道 地方이 重要工業地帶였으며 蘇聯의 經濟技術援助도 이 地域에 集中的으로 投入되었다.

그러나 數年來 北韓의 工業建設은 東海方面의 咸鏡道 地方에서보다 西海方面의 平安道 地方에서 더 活潑한 現象을 뚜렷이 볼 수 있다. 新義州 附近의 烽火化學工場, 安州地區 炭鑛聯合企業所가 北韓이 가장 많은 資金을 投入하여 建設하는 企業이며 港灣에 있어서도 西海岸에 있는 南浦, 海州의 두港을 建設, 擴充하는데 「全党」, 「全國」의 힘을 集中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建設 中心의 轉換은 두가지 큰 意味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北韓의 經濟가 對蘇依存型에서 對中共依存型으로 바뀌고 있는 證左이다. 종래 北韓의 對中·蘇 等距離路線은 대체로 政治적으로 中共에 더 가깝고 經濟적으로는 蘇聯에 더 가까운 것으로 觀測되어 왔다. 그러나 1973年부터는 對中·蘇 經濟關係에서 均衡을 모색하고 있는 努力이 현저히 나타났다. 이는 中共의 4가지 現代化 計劃의 責任을 맡은 鄧小平이 1973年4月 1次 復權했다는 사실과 1973年末 第4次 中東戰을 계기로 世界的인 에너지쇼크에 際하여 中共의 大慶油田이 눈길을 끌었던 사실과 無關하지 않은 것 같다.

두번째로는 北韓 政治權力層에서 咸鏡道勢力과 平安道勢力의 對決에서 平安道勢力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咸鏡道 地方

은 과거 日本植民地時代부터 南北韓을 통하여 中心的인 工業地帶가 되었고, 北韓에 共產統治가 始作된 後에도 蘇聯의 影響을 強力히 받아 勞動運動, 農民運動의 先進地帶였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地域으로부터 第1級の 共產主義「人材」들이 많이 나와 「勞動黨」內部에서도 은연중 一大勢力을 形成하고 있었다. 그들을 들어보면 이미 숙청된 有力幹部로써 吳琪燮, 朱寧河, 鄭達憲, 武亭, 崔昌益, 朴金喆, 李孝淳, 李英, 金光俠, 金昌滿, 吳泰鳳 등이 있고, 死亡한 者로는 許憲, 南日, 李周淵, 鄭準澤, 洪元吉 등이 있으며, 現政權 幹部로서도 金一, 崔賢, 朴成哲, 李鍾玉, 吳振宇, 金仲麟, 許鎔, 桂應泰, 金敬連, 金永南, 尹基福, 崔戴羽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現在 政權에 남아 있는 者들은 滿洲의 빨치산派이거나, 金日成 一族의 緣故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經濟專門家들이란 理由로 金日成그룹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咸鏡道系 勢力이 아니다.

咸鏡道の 이와 같은 特質과는 對照的으로 平安道 方面에는 日本植民地時代부터 民族主義나 基督教가 번성하여 共產主義를 압도하고 있었다. 解放後 한때 北韓의 政治的 中心人物로서, 蘇聯軍이 金日成의 指導權을 確立하기 위해 監禁, 排除시켰던 曹晚植은 그 代表的인 人物이었다. 이러한 地域으로부터 有力한 共產主義 指導者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숙청된 幹部로써는 朴一禹, 張時雨 死亡者로는 崔庸健, 金萬金 등이 있고 現政權의 幹部로는 金日成, 金英柱, 金正日, 金聖愛 등 金日成 一家外에 孔鎭泰, 徐寬熙 정도이다.

이와 같은 由來와 背景에서 金日成이 經濟建設의 中心을 東部에서부터 西部로 옮긴 것은 그의 1人獨裁體制가 한층 더 굳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主體思想을 經濟에 具現함에 있어서 金日成은 經濟의 對蘇依存 一邊到에서의 脫皮를 그의 權力強化에 利用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國防에서의 自衛」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軍事面에 具現된 것이다. 이것은 1962年 12月 10日 党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처음으로 提起되었다. 金日成은 이때 中·蘇紛爭의 深化와 美·蘇共存 그리고 韓國의 軍事革命에 쇼크를 받았다. 金日成은 『外來侵略者들과의 戰爭에서 外部의 支援도 重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補助的 役割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나라의 主體的 力量이 準備되어 있지 않은 條件에서는 外部의 支援이 아무리 커도 革命鬪爭은 勝利할 수 없습니다』²³⁾고 「國防에서의 自衛」의 當爲性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곧 國防分野에서도 自力更生의 革命的 原則을 貫철하여 自衛力을 더욱 強化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의 自衛路線은 古代로부터의 常識이며 獨立國家이면 다 그런 政策을 추구하고 있지만 北韓에서는 「自衛」도 金日成이 「創始」한 것으로 美化되고 있다.

金日成은 社會主義 國家들이 「共同的 仇敵」인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에서 서로 도와주며 支持聲援하는 것은 共產主義者들

註 23)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444.

의 「神聖한 國際的 義務」라고 말하고 오히려 社會主義國家들은 이와 같은 「國際的 連帶性」을 強化할 것을 促求했다.

그러므로 金日成에게 있어서는 北韓이 蘇聯이나 中共과 軍事同盟을 맺고 援助를 받고 있는 사실은 「自衛路線」과 全然 矛盾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非共產主義 國家들이 美國과 軍事條約을 締結하여 共同의 安全을 위해 協力하고 援助를 받는 것은 「外勢」를 불러들이는 일이요, 「侵略」이요, 「軍事的 強占」이요, 「隸屬」이라고 金日成은 「규탄」한다. 金日成은 「平和를 愛護하는」 北韓의 맑스·레닌主義者들이 侵略戰爭을 일으킨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社會主義의 本質로 보아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宣傳한다. 따라서 6·25 戰爭도 「美帝」가 挑發한 것이며 北韓으로서는 「防衛戰爭」이었다고 한다.

스탈린의 戰爭概念에서는 戰爭을 「正義의 戰爭, 侵略的이 아닌 解放戰爭」과 「不正義의 戰爭, 侵略戰爭」으로 區分하고 共產主義者들은 後者は 反對하지만 前者는 支持한다는 立場²⁵⁾을 固守해 왔다. 金日成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操作方法에 의하여 6·25의 奇襲南侵戰爭을 「美帝의 侵略」에 對항하는 「朝鮮人民」의 「祖國解放戰爭」이라고 規定하면서 自身을 正當化해 왔고 또 軍事力 強化를 辯護하고 있다.

註 24) 北韓은 1961年 7月 6日과 10日, 各各 中共 및 蘇聯과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締結했다.

25) 《Histoire du Parti Communiste (Bolchévick) de U.S.S.R》
Moscow, 1949, p.186 參照.

正規軍인 人民軍外에 1959年1月 除隊軍人을 中心으로 勞農赤衛隊
를 創設한 北韓은 1962年12月の 勞動黨 第4期 第5次 全體會議에
서 ① 全軍 幹部化 ② 全軍現代化 ③ 全住民 武裝化 ④ 全地域
要塞化를 4大軍事路線으로 채택하고 1970年4月 14-16歲 高等中
學生들로 「붉은청년근위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正規軍에 있어서도 兵力과 裝備를 꾸준히 증강, 現在 北
韓軍병력은 육군만도 70만명이 되는 것으로 美國情報은 추산하고
있다.²⁶⁾

金日成은 또 軍事力의 物質的基礎는 重工業이라고 보고 年次的 經
濟建設計劃을 重工業 優先主義로 일관해 왔다. 이때문에 北韓의 勤
勞大衆과 農民들은 物質生活에서 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럴 때마다 「主體思想」을 무기로 하여 大衆의 불
만과 反對論을 눌러버리는 手法을 驅使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抗日武裝鬪爭」을 神話로 만들어 革命傳統을 계승하기 위한
政治思想教育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제5차 黨大會에서 金日成은 北
韓이 軍事技術裝備面에 있어서는 發展된 나라들과 競爭할 수 없다²⁷⁾
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現代
的 武器나 軍事技術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²⁸⁾ 고 대담하게
단정하고, 「人民軍隊」는 「政治思想的 優越性」에 의하여 軍事技術

註 26) 《AP 通信》, 1979年7月20日參照.

27)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482.

28) 上揭書 p.536.

에 우세한 「帝國主義侵略」과 싸워 이길수 있다고까지 했다.²⁹⁾

金日成은 統一問題에 있어서도 主體思想을 具現, “北韓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鬭爭에서도 自立的 立場을 계속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語句上의 매력으로 民族主義的 감정을 자극하고 對外的 선전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상 北韓의 主體思想의 圖式과 實虛를 검토하면서 한가지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되풀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을 「主體」로 완전히 염색하기 위해 「反復의 原理」를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1955년 12月28日 이래 金日成의 주요연설에는 「主體」, 「自主」가 장황하게 되풀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없고 「金日成의 忠臣」으로 살아 남은 자들은 이것이 「위대한 수령」 金日成의 創造物이라고 선전하며 金日成偶像化를³⁰⁾ 가열시키고 있다.

朴昌玉이 「총궐기 하였다」, 「총동원되었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³¹⁾ 해서 “「총」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라고 비난한 金日成은 그 자신이 지금 「主體」病, 「自主」病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의 忠臣」들은 金日成이 不注意하게도 主體思想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註 29) 《김일성저작선집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473 ~ 474.

30)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440.

31) 上揭書, p.57.

맑스·레닌主義者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같은 思想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입니다.”³²⁾ 고 한 말을 덮어두고 있다.

2. 中·蘇 紛爭속에서

이상과 같은 北韓의 主體思想은 스탈린死後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모스크바의 획일적인 통제가 弱화된 일반적인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中·蘇紛爭으로 兩分되자 여기에 本意아니게 말려들어 언젠가는 祭物이 되는 愚를 犯하지 않으려 했고 그러한 나머지 自主路線의 모색을 강요받았다고 하겠다.

金日成은 이러한 입장에 처한 金日成은 中·蘇紛爭을 北韓内部에서 그의 反對派를 제거하는데 먼저 이용했다. 당초 소련派, 延安派, 國內派로 구성되었던 北韓政權을 6·25 動亂후 치열한 權力 鬭爭에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1955年 이래로 北韓에서 출판된 일련의 党文件들을 분석해보면 金日成은 자기의 獨自的 權力基盤을 구축하기 위해 生死를 건 鬭爭을 전개해야 했다는 객관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金日成이 主體思想을 처음으로 發說한 것은 1955年 12月 28日 「党宣傳煽動 일꾼들」앞에서 한 「思想事業에서의 教條主義와 形式主義

註 32) 日本毎日新聞 記者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對答, 《근로자》 1972年 10호, p. 2.

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여기서 「主體」없이 『남의 것을 베껴다가 외기만 하는』 黨內的 소련派와 延安派, 특히 소련派에 대해 허다한 事例를 들어 공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朝鮮革命을…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黨思想事業에서 主體를 세워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업에서 혁명적 진리-맑스·레닌主義의 眞理를 체득하는 것이 重要하며 그 眞理를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게 適用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꼭 소련식과 같이 해야만 한다는 原則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中國式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³³⁾

金日成의 이같은 선언은 「朝鮮의 스탈린」인 그 자신이 흐루시초프의 緊張緩和政策의 영향으로부터 자신과 北韓을 방어하려는 명백한 意圖의 表示였다. 金日成은 소련을 다녀온 朴英彬(당시 黨宣傳煽動部長)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방향의 정책을 택하고 北韓도 「美帝國主義」를 반대하는 구호를 철폐해야겠다고 한 견해를 맹렬히 반대하면서 그런 主張은 『우리 인민의 革命的 각성을 마비시키는것』이요, “美帝國主義者들은 千秋에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원수”라고 反美鬪爭을 재강조했다.³⁴⁾

이때부터 金日成은 平和共存을 역설하는 모스크바와 戰爭不可避論

註 33) 《김일성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336.

34) 上揭書, p.333.

을 주장하는 北京과의 理念論爭 틈바구니에서 피로운 外交曲藝를 부려야 했다.

호루시초프는 金日成의 對蘇 批判的 自主意識 대두에 불만을 품고 平壤에 대해 어떤 강력한 통제를 가하려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 一端을 後日 「로동신문」의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 그런데 남의 內政에 간섭하는데 습관이 된 일부 사람들은… 언제나 兄弟黨들을 의심하며 兄弟黨들이 自己의 訓示대로 움직이는가, 自己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 놓는가, 앓는가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兄弟나라 出版物들과 放送들에서 어느 한 黨의 歷史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느 한 나라의 映画를 잘 보는가, 보지 앓는가하는 것까지도 따지면서 간섭하려 한다. 여기서는 벌써 平等과 互相尊重의 精神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大國排他主義의 表現以外에 아무 것도 아니다.³⁵⁾』

그러나 金日成은 소련에 대한 不滿을 明示적으로 表現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경제건설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는 소련과의 유대강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고 또 호루시초프治下의 소련이 1957년 가을 美國에 앞서 人工衛星(스피트니크)과 대륙간탄도탄의 발사에 성공한 그 威力에 金日成은 압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1959년 1월 소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党中央委員會에서 보고하는 가운데 소련공산당내에서 權力鬭爭을 전개한 끝에

註 35) 《로동신문》, 1963年 10月 28日.

확립된 흐루시초프체제를 전적으로 옹호하고 그에 의하여 추방된 말렌코프, 카가노비치, 물로토프, 불가닌 등을 反黨派라고 불렀다.³⁶⁾

또한 그는 1955년 12月 28日 黨宣傳煽動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한듯 다음과 같이 흐루시초프政權에 대해 過剩的 아침을 보였다.

『레닌이 創建한 소련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이며 항상 전세계 맑스·레닌主義 黨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소련공산당은 항상 우리의 모범으로 되고 있으며 그의 성과와 豊富한 經驗은 우리의 사업에서 指針으로 되고 있다.』³⁷⁾ 金日成이 이처럼 이야기할 때는 내부의 權力鬭爭에서 일단 勝利, 더이상 蘇聯派를 공격할 必要가 없어졌고 金日成 스스로는 内部權力鬭爭에서 어떤 自信感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金日成은 北京에 대해서도 讚辭를 아끼지 않았다. 金日成은 周恩來의 平壤訪問에 대한 答禮로 1958年 11月 中共을 訪問했을 때 人民公社의 성과를 축하했다. 金日成의 이같은 축하는 그가 이듬해 2月 北韓에서 시작했던 「千里馬運動」을 앞두고 大衆의 「革命的 熱意」를 최대한으로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金日成은 소련援助가 斷絶된 상태에서 1959年 9月 26日 中共政權 樹立 10주년기념을 앞두고 人民日報에 「朝·中人民의 戰鬪的 友誼」란 글을 寄稿, 6·25 動亂중 中共이 제공한 軍事力支援과 戰後

註 36) 《김일성선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224.

37) 上揭書, pp.244 ~ 245.

의 經濟援助를 강조하는 한편 과거로 소급하여 1930年代 朝鮮共產主義者들(自己自身을 가리킴)이 中共의 抗日聯軍에 가담하여 反日武裝鬪爭을 전개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했다.³⁸⁾

金日成은 이때 蘇聯과 中共에 대해 매우 細心하게 아첨을 均配시켰다. 中共에 讚辭를 보내 놓고는 곧 소련에 대해 더 높은 讚辭를 보냈다. 그는 「朝·中人民이 거둔 빛나는 成果」는 “소련의 끊임없는 援助와 蘇聯을 先頭로 하는 社會主義陣營國家 人民들의 단결과 긴밀한 互相援助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모스크바의 권위에다 스스로와 北京을 증속시켰다. 이에 앞서 北韓의 최고인민회의는 1958年 2月19日 흐루시초프의 긴장완화정책을 「全적으로 支持贊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北韓을 1959年 4月 李周淵이 이끄는 經濟使節團을 北京에 파견하여 4億 2千萬루블의 長期借穀을 얻는 經濟技術協定을 체결했고 10月 23日에는 北京으로부터 賀龍, 羅瑞卿 등의 巨物들로 구성된 軍事使節團을 받아들였다.

金日成에게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大分裂을 뜻하는 中·蘇紛爭이 큰 충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와 北京을 同時에 만족시키는 일은 매우 피로운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이 尖銳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共產主義 巨國사이에서 讚揚의 均衡으로 安全한 非介入政策을 유지하려는 努力은 오

註 38) 上揭書, p. 454.

래 갈 수 없었다. 사태는 北韓이 어느 한쪽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中·蘇紛爭이 全世界에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은 1961年 10~11월에 열린 蘇聯共産黨 22次대회 때였다. 이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個人崇拜問題를 다시 들고 나와 非스탈린化의 煽動을 재개했고 알바니아 勞動黨의 指導部가 蘇聯共産黨의 정책노선을 반대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蘇聯共産黨에서 이미 추방된 「反黨主義 党派集團」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말렌코프 등)을 教條主義者들이라고 明示적으로 물면서 中共의 지도자들을 暗示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中共代表 周恩來는 蘇聯을 儀禮적으로 찬양하는 연설 가운데서 흐루시초프의 주장과 비난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흐루시초프가 接近하고 있던 美國 케네디行政府와의 平和政策을 통박했다. 그리고 알바니아問題에 대해서는 『한 兄弟黨에 대해 공공연히 일방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統一에 이롭지 못하며 問題解決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³⁹⁾ 고 은근히 흐루시초프를 나무랐다.

金日成은 이때까지 中·蘇紛爭문제를 党内에서 논의하는 것을 막아왔으나 이 重大한 社會主義陣營內的 문제를 더이상 덮어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同大會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그 해 11월 26일 党中央委員會 全體會議를 소집하고 「事業報告」를 하면

註 39) Chou En-Lai, "Speech at the XXII CPSU Congress, Oct. 19, 1961" Alexandor Dallin(ed),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A Documentary Record, 1961~63, p.51.

서 『스탈린에 대해서는 蘇聯共産黨員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蘇聯에서 그의 활동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蘇聯共産黨的 内部問題에 속한다』⁴⁰⁾ 고 했다. 金日成은 자신의 統治作風과 密着되어 있는 스탈린個人崇拜問題에 대한 자기 입장을 회피하려 했던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곧 흐루시초프에 追從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했다. 알바니아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표면상 중립을 지키려 했고 흐루시초프를 敵對視하는 알바니아勞動黨의 指導部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는 1961年11月28日 알바니아 解放17주년기념일을 맞아 祝辭를 보내면서 「알바니아 勞動黨의 정확한 指導」를 치하했다. 이것은 北韓이 親中共便으로 기울어지는 현저한 증거였다.

이로부터 1년쯤 지난 1962年10月頃 中·印國境紛爭과 쿠바의 蘇聯미사일 撤去事件이 일어나자 金日成은 본격적으로 反蘇·親中共路線을 취하기 시작했다. 1959年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中·印國境紛爭에서 外見上 中立을 지켜오던 蘇聯이 1962年 印度便에 들고 케네디의 劇的이고 강경한 요구에 흐루시초프가 굴복, 1962年10月28日 쿠바로부터 미사일武器를 撤去한다고 발표하자 金日成은 蘇聯에 대한 信賴에 심한 懷疑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때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路線을 「티토從黨」의 이름을 들어 間接的으로 공격했다.⁴¹⁾

註 40) 内外問題研究所, 《中·蘇論爭文獻集》, 1963, pp.475 ~ 476.

41) 《北韓政治論》, 極東問題研究所, 1976, pp.328 ~ 329 參照.

金日成은 이제 흐루시초프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背信者로 바라보게 되었다.

1962년 12월 北韓은 드디어 모스크바를 공식적으로 공개규탄하는 砲門을 열었다. 즉 체코슬로바키아共産党 제 12차 大會에 北韓의 党代表團을 인솔하고 참석한 李周淵은 大會席上에서 中共에 대해 蘇聯側이 가하는 비난을 보고 中共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일부 동지들이 國際共産党會議도 아닌 한 나라의 党大會에서 中國共産党和 中國人民들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단결을 악화시키며 國際勞動 계급의 勞動의 偉業에 큰 손실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일』⁴²⁾이라고 蘇聯의 處事를 공박했다.

이어서 1963년 1월 獨逸社會主義統一党(共産党) 제 6차 大會에서 北韓은 對蘇 공격을 한층더 執拗하게 提起했다. 즉 同大會에 北韓의 代表로 참석한 李孝淳은 蘇聯側이 미리 꾸민 시나리오에 의해 연단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는 연설문을 大會執行部에 제출했다. 이 연설문은 1963년 1월 30일 平壤과 北京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한 句節을 살펴보면 『中國共産党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일부 태도』라는 것이 발견된다.⁴³⁾ 이것은 분명히 蘇聯의 태도를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1月 30日字 「로동신문」 社說은 그러한 일방적인 中共비난 행위는 「敵들의 反中國合唱」에 加勢하는 일이라고 공박했

註 42) 内外問題研究所, 《中·蘇論爭文獻集》, pp.477 ~ 480.

43) 上掲書, pp.481 ~ 485 參照.

다. 이때부터 北韓은 蘇聯을 社會主義陣營의 先頭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그해 10月28日字 「로동신문」 社說은 흐루시초프가 金日成에 대해 시도한 數多한 強壓策을 폭로하는 「社會主義 陣營을 옹호하자」를 외쳤다. 이것은 平壤이 이데올로기 戰線에서 蘇聯에 대해 宣戰布告한거나 다름이 없었다. 金日成은 이즈음 美·英·蘇간의 部分的 核實驗禁止協定과 中·蘇會談의 決裂 등의 국제환경속에서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路線에 不安을 느꼈고 毛澤東의 鬪爭的 革命主義에서 同類意議을 발견했던 것 같다.

이 社說은 『어떤 사람들은 원조를 빙자하여 兄弟黨, 兄弟國家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

원조에 대하여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政治的 간섭과 經濟的 壓力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인연이 없는 것이다. …』고 말했다.⁴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종래 「일부동지」로 불리던 蘇聯이다.

北韓의 蘇聯에 대한 무모한 반발은 1964年6月16~23日에 平壤에서 열린 亞細亞經濟討論會議를 계기로 絶頂에 달했다. 中共의 배후주선에 의해 열린 이 회의가 反蘇的 성격을 띤 것은 당연했지만 이것은 곧 蘇聯과 北韓간의 이데올로기 紛爭의 決戰場이었다. 프라우다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논설로 회의를 비방하

註 44) 《로동신문》, 1963年10月28日字 社說.

자 「로동신문」은 『왜 平壤 亞細亞經濟討論會議을 헐뜯으려 하는가?』
고 반격했다. 「로동신문」 社說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프라우다가 보란듯이 조선땅에 준 원조의 「모범」으로 지적한
平壤 방직공장과 흥남비료공장의 일부직장들을 복구건설하는데 蘇聯
人民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두 공장들
과 기타 공장들의 복구건설에 준 원조에서 당신들은 국제시장 가
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설비와 不銹鋼板을 주고 그 대신 우리 한
테 수십톤의 금과 다량의 고귀한 유색금속과 원료들을 국제시장가
격보다 훨씬 헐한 값으로 가져갔다. 우리에게 준 원조에 대해 말
할 때 당신들은 그 대신 우리 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나날에 우
리 인민의 艱苦한 勞動으로 이루어진 價値物들을 가져간데 대하여
서도 응답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45)

이것으로 金日成과 흐루시초프는 완전히 갈라섰다. 和解란 不可能
한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 金日成에게 機會가 왔다. 흐루시초프가 이로부터
두달후 돌연히 權座에서 쫓겨났다. 金日成에게는 실로 천만다행한
일이였다.

金日成은 모스크바의 브레즈네프 政權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親善
의 제스추어를 취했고 모스크바 또한 이러한 것들을 好意的으로 받
아들였다. 金日成은 브레즈네프가 흐루시초프보다는 좀더 강경한 對
美姿勢를 취했고 또 브레즈네프의 統治스타일이 흐루시초프의 統治

註 45) 上揭社說

스타일보다는 좀더 자신의 것과 가깝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브레즈네프는 執權이래 越南戰의 加熱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對外政策에 신중했고 對中共 理念紛爭에서 北韓을 中共便으로 몰아넣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平壤과 모스크바간에는 급속하게 和解가 이루어졌다. 코시긴은 1965年2月11日 하노이 訪問으로부터 歸國中 平壤에 寄着, 金日成과 회담하고 共同 코뮤니케를 발표, 1961年7月 체결된 「朝·蘇軍事同盟條約」의 意義와 役割을 재강조했다.

이때부터 金日成은 中·蘇의 中間에서 自主的 路線을 새로운 次元에서 실천에 옮기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金日成의 이같은 路線을 北京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 1966년부터 69년까지 몰아부친 中共의 「文化大整風」운동은 毛澤東과 劉少奇의 싸움이었는데 이때 毛는 劉를 공격할 때 「修正主義者」, 「中國의 흐루시초프」라고 몰아대었다. 金日成은 여기서 毛澤東으로부터 支持聲明 정도라도 강요당했을 것이다. 金日成은 모처럼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對蘇관계 정상화를 다시 해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이 毛의 요구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紅衛兵들의 大字報에 金日成을 『修正主義者』, 「軍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말에서 나타났다.⁴⁶⁾ 金日成은 蘇聯과의 寒冷한 關係를 해소하려 하자 다시 中共과 어려운 關係에 들어갔다.

註 46) 《北韓總鑑 45 ~ 68》, 共產圈問題研究所, pp.248 ~ 249 參照.

그러나 여기서 金日成은 時間을 벌었다. 毛澤東이 文化革命 동안에는 北韓에 대해 강력한 制裁를 가할 能力이 없을 것이라고 계산한 金日成은 文革의 완료를 기다려 中共측의 내뻗는 손길을 그 자신으로서는 민첩하면서도 신중하게 붙잡았다. 中共과 北韓은 60年代末 韓·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현상을 「日本軍國主義의 復活」이라고 규탄하는데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면서 양자의 「戰鬪的 友誼」를 새삼 다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69年10月1日 崔庸健이 北京을 방문, 中共政權樹立 20주년을 축하하고 1970年4月5日에는 周恩來가 金日成의 초청으로 平壤을 방문했다. 그리고 越南戰이 끝나 베트남이 親蘇로 기울고 아시아에 蘇聯勢가 확대되자 金日成은 北京을 방문, 새로운 情勢를 中共當局者들과 검토했다.

毛澤東死後 中共에 華國鋒-鄧小平體制的 穩健路線이 들어서자 金日成은 이를 종래 尖銳化했던 中·蘇對立에도 어떤 變遷이 오는 것으로 보고 對中·蘇 「友好」에 均衡을 유지하는데도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나 金日成은 베트남·캄보디아戰, 中共·베트남戰 등 아시아 共產圈內的 熱戰 소용돌이 속에서 中共과 密着함으로써 다시 蘇聯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中·蘇紛爭은 실로 그에게 괴로움을 번갈아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서도 中共도, 蘇聯도 지금까지 北韓의 金日成에 대해 決定的인 制裁를 가하지 않은 것은 中·蘇 두나라 사이에 北韓을 제편으로 끌어들이려는 競爭이 大國的인 慎重성과 忍耐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中·蘇는 北韓이 잠시 다른 편으로 기울어진 다 해도 北韓의 힘의 限界性에 비추어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早晚間 다시 자기 편에 아첨해 올 것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金日成을 가혹하게 다룰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듯 싶다. 실제로 金日成은 中·蘇가운데 어느 한편의 노선에 贊同해야 할 경우 언제나 다른 한편을 意識했고 또 장차 그 편에 노선에도 贊同할 기회를 찾는 줄타기 외교를 벌여왔다.

그리하여 國際政治의 거의 모든 問題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尖銳化한 異見對立을 보인 中·蘇양국도 北韓을 支持하는 一點에서 만은 기묘한 協力關係로 轉變했다는 逆說的인 狀況이 나타났다. 近年 中·蘇양국은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非妥協的 政治鬭爭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韓半島問題에 관한 限 北韓을 支持하는 行動의 일치로 보여왔다. 1975年 11月 8日 제 30차 유엔總會는 韓半島問題에 관한 韓國支持決議案과 北韓支持決議案을 동시에 채택하기에 이르렀는데 유엔總會에서 처음으로 北韓측 決議案이 채택된 것은 中共대표 黃華와 소련대표 야콥, 아담 말리크가 서로 경쟁적으로 北韓에 票를 모아주기 위해 분주한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되었다.

모스크바-北京-平壤간에 형성된 이 3角關係에서 金日成은 피로우면서도 두 共產巨國의 對立과 競爭을 逆利用하면서 자신의 獨自的 地位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金日成이 1977年 8月 유고슬라비아의 티토大統領을 平壤으로 초청한 것은 큰 意味를 갖는다. 티토의 平壤

訪問은 1975年 金日成의 베오그라드 訪問에 대한 答訪形式이었지만 1968年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슬로바키아 侵攻때 北韓의 「로동신문」이 「背信者」로 규탄했던 그를 「國賓」으로 환영한 것은 今昔之感을 不禁케 한다. 金日成이 티토를 이처럼 존경하게 된 것은 티토가 일찌기 共產圈에서 獨自路線을 구축, 非同盟그룹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力量을 羨望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金日成은 티토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우리는 대통령동지가 자립적인 노선과 정책을 실시하여 유고슬라비아 발전의 독자적 길을 개척함으로써 평화와 民主主義, 민족독립과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세계진보주의적 인민의 共同偉業에 多大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⁴⁷⁾고 늘어 놓았다.

여기서 金日成은 「支配主義反對」란 用語를 개발하여 中共이 反蘇外交政策을 펼 때 쓰는 「霸權主義反對」 대신 사용함으로써 親中共態度를 취하면서도 소련에 대해서는 誠意를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했다.⁴⁸⁾

金日成이 이처럼 티토에 接近, 非同盟外交에 열을 올린 것은 開發途上 제3세계의 地位가 향상되어가는 國際的趨勢에서 스스로가 非同盟그룹의 리더로 발돋움하면 中·蘇가 그를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計略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그렇게 되면 中·蘇로부터 壓力을 적게 받으면서 자신의 1人獨裁體制를 더욱 다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註 47) 《코리아評論》, 1979年 2號, p.30 參照.

48) 上揭書, p.29 參照.

Ⅲ. 主體思想 展開의 方向

— 金日成個人崇拜와 統一戰略 —

1973年 4月頃 勞動黨의 最高位幹部요, 金日成의 심복인 吳振宇는 다음과 같이 썼다.

“경애하는 首領 金日成同志께서는 일찌기 革命의 길에 나서신 첫 時期에 永生不滅의 主體思想을 創始하시고 그 장휘로운 빛발로 朝鮮革命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으며, 主體思想의 革命的 기치 밑에 피어린 抗日武裝鬪爭을 조직 영도하시어 強盜 日帝를 무찌르고 祖國光復의 歷史的 위업을 성취하시었다. 바로 이 榮光스러운 鬪爭의 나날에 우리 黨과 人民이 永遠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革命의 뿌리이며 가장 高귀한 革命的 財産인 빛나는 革命傳統이 이룩되었다. 1)”

이 말에 이어 그는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이 <人類解放鬪爭 歷史에서 처음으로 不滅의 主體思想의 革命的 기치 밑에 진행된 위대한 革命戰爭이었다> 2) 고 金日成을 世界革命史의 頂點에 추대함으로써 帝政러시아와 中國에서 그에 先行하여 革命의 勝利를 이룩한 레닌과 毛澤東의 權威를 그의 밑으로 깔아 버렸다.

註 1) 《근로자》, 1973年 제 4호, p.18.

2) 同上

이상의 吳振宇의 놀랄 만한 禮讚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그에 대한 個人崇拜運動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5年 10月 9日 勞動黨 창건 30週年 기념대회에서 金日成 자신이 <主體思想>의 기원을 자기의 14歲 少年時節에까지 소급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人民의 革命鬪爭은 참다운 맑스·레닌主義의 기치 밑에 自主的으로 발전시키는데서 出發點으로 된 것은 1962年 打倒帝國主義同盟의 결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共產主義的 革命조직인 打倒帝國主義同盟의 결성은 우리 革命의 새로운 出發을 알리는 歷史的인 宣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黨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

그리고 그는 朝鮮의 참다운 共產主義者들은 1930年代初에 <主體的인 革命路線>을 내놓고 日帝侵略者들에 대한 조직적인 武裝鬪爭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 <長久하고도 간고한 抗日革命鬪爭過程에 主體思想이 創始되고 發展豐富化되었으며 朝鮮共產主義運動안에 主體의 思想體系가 수립되었다> 4) 고 없는 사실을 지어 제임으로 스스로를 神秘化하고 있다. 1955年 12月以前의 그 많은 北韓의 어떤 黨文書와 金日成의 著作에서도 <主體>란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日帝時代의 기록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

註 3) 《김일성 저작선집》 7, 平壤, 1978, p.206.

4) 上揭書, p.207.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란 것이 널리 선전된 것은 그것이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定立되면서부터다.

北韓의 黨宣傳員들은 金日成을 「主體思想」의 化身으로 만들기 위하여 벌써부터 18세의 그가 「1930年 봄 吉林감옥에서 나오신 후……朝鮮革命에 관한 主體的 革命路線을 내놓으시었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1927년 즉, 그 나이 겨우 15세에 그가 조직했다는 『反帝青年同盟』의 구호는 <金日成원수님의 主體思想과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이 철저히 구현된 革命的이며 反帝國主義的 鬪爭口號로서 朝鮮革命의 當面目的과 終局的 目的을 밝힌 가장 科學적인 맑스·레닌主義的 鬪爭綱令』⁵⁾이라고 거침없이 쓰고 있다. 이 황당무제한 찬양은 1966년 勞動黨이 「自主性」을 宣言하던 때 말끝마다 「大國主義」, 「民族虛無主義」, 「事大主義」, 「教條主義」를 공격하면서 日帝下의 抗日武裝鬪爭도 조선의 해방도 北韓에서의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主義 建設도 모두가 「위대한 수령」 한 사람의 「고귀한 업적」에다 돌리는 政治的 상황의 산물이다. 그러나 北韓의 黨宣傳員들과 역사가들은 1952년 8월 15일 <<프라우다>>紙에 실렸던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스탈린에 대한 굴종적 아첨을 잊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人民의 成功적 解放鬪爭에 있어서 제1차적 的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兄弟的 소비에트人民과 또 스탈린同志가 몸소

註 5) <<祖國統一>>, 1969年 12月 10日.

우리 共和國에 주신 精神的 政治的 원조이다. 스탈린同志는 …… 우리 人民에게 慈父와 같은 배려를 베푸시었다. 우리 人民은 스탈린同志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救援者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將軍稱呼, 그의 유격대 경력의 찬양, 「英明한 指導力」宣傳 등 1945년 10월 중순이래로 蘇聯軍政當局에 의하여 體系的 集中的으로 시작되었던 個人崇拜運動은 스탈린死亡 이후에는 金日成 자신과 그의 黨僚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계승·발전되었다. 그가 지난 29년동안 北韓社會를 오직 자기 한 사람의 이름에서 支配해온 것과 勞動黨과 「共和國」을 창건했다는 것, 「美帝國主義」의 侵略에 대항하는 「祖國解放戰爭」을 「영광스러운 승리」에로 이끌었다는 것, 社會主義 基礎를 건설했다는 것, 黨의 自主路線을 확립한 것, 社會主義의 「地上樂園」을 實現했다는 것, 北韓을 「自主的 社會主義 工業國家로 발전시켰다는 것 등 黨이 내세우고 있는 모든 「빛나는 성과들」중 어느 하나도 金日成의 이름과 결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지난 30여년동안 北韓에서 간행된 선전자료와 黨記錄을 훑어보면 黨理論家 宣傳要員들이 北韓人民과 南韓의 大衆, 그리고 全世界 앞에다 부각시키려는 金日成의 映像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把握된다.

- ① 그는 日帝統治下의 암흑시대에 民族解放鬪爭에 진정으로 헌신분투한 絶世의 愛國的 英雄인 동시에 위대한 共產主義者였다는 것.
- ② 그는 상당한 기간 신중한 準備過程을 거치고 간고한 抗日革命

鬪爭의 經驗을 통해 朝鮮革命史上 최초로 진정한 맑스·레닌主義 黨을 창건한 革命的 「天才的」 英才라는 것.

- ③ 그는 1930년대초에 이미 오늘의 北韓政權의 모체인 「人民政府」를 民族統一戰線路線에 입각하여 滿洲에서 조직한 歷史的 愛國者요, 北韓의 現 「政權」은 그의 正統的 계승자라는 것.
- ④ 그는 民族的 명분에서 보나 맑스·레닌主義의 理念에서 보나 南北韓을 통하여 唯一無二의 正統적 지도자라는 것.
- ⑤ 朝鮮은 蘇聯軍에 의하여 解放된 것이 아니라 주로 金日成指揮 下의 「朝鮮人民革命軍」(실제 한 일이 없음)의 役割에 의하여 해방되었다는 것.
- ⑥ 그는 韓國戰爭時 「美帝」의 侵略軍을 격파함으로써 이것이 몰락하는 시초를 열어 놓았다는 것.
- ⑦ 그는 落後하고 戰爭에 파괴되었던 北韓에서 資本主義國家들이 수백년에 걸쳐서 이룩한 工業化를 불과 10년에 수행하는 世紀的 奇蹟을 창조했다는 것.
- ⑧ 그는 外勢의 간섭을 받는 일없이 主體를 견지해온 가장 자주적이요, 독창적인 南北人民의 유일한 民族的 영도자라는 것.
- ⑨ 그는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 建設을 독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식민지, 半植民地 國家들이 社會主義로 나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明示해준 「인류의 태양」이라는 것.
- ⑩ 그는 과거에 抗日武裝鬪爭과 抗美救國鬪爭을 차례차례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도 반드시 승리로 이

끝 것이 틀림없다는 것 ………

이상을 立證, 明示하기 위해 北韓의 黨文化 일꾼들은 과거에 관한 歷史的 事實들을 誇張, 歪曲, 削除, 造作하면서 그의 경력을 웅장한 파노라마로 전개시켜 왔고, 그 자신을 가장 감동적인 전설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의 극히 모호한 소년시절과 유격대원 생활은 회상기·소설·시·음악·연극·그림·가극의 형식으로 예찬되어 왔다. 그는 解放後의 鬭爭을 통해서도 「革命的 天才」로서 또는 가장 「創造的」인 맑스·레닌主義의 思想家·理論家로서 不可誤謬性을 실증해온 「위대한 수령」으로 偶像化되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령의 偶像化作業은 1966년 8월 中·蘇 對立의 渦中에서 自主路線을 선포한 후로는 量的으로 質적으로 더욱 加重上昇되었다. 그리하여 北韓社會에는 全體人民이 하나의 思想, 하나의 의지에 의하여 統治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강조되었고, 어떤 군중대회, 기념식, 會議에서도 金日成의 가장 정확한 영도와 뛰어난 政治的 力量에 대해 열광적인 아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는 날이 갈수록 엄격하게 儀式化, 規格化되고 있다. 가령 北韓의 放送出版物들이 그의 일생적인 행사에의 참석광경을 묘사한 것을 보면 古代帝王의 행차와 같은 그지없이 장엄한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은 최대의 미사여구와 아침에 가득찬 찬사는 공식석상에서 으레히 천편일률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근년에는 다시 더 添加되어 그를 「희망의 등대」, 「우리시대의 전설적 영웅」, 「白頭山의 정기를 타고난 위대한 수령」, 「民族의 太陽」, 「奇蹟의 영

도자」, 「역사의 거인」, 심지어는 「世界人民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다. 그의 「主體思想」이 열광적으로 찬양되는 분위기 속에서北韓의 黨宣傳員들은 毛澤東이 圖式化한 「反帝, 反封建的 民主革命」의 理論도, 코민테른의 공식적인 「統一戰線」戰術도, 멀리는 디미트로프의 「人民戰線」에서 유래하고 스탈린이 定立한 大戦後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도, 毛澤東의 특유한 獨創인 「自力更生」의 革命精神과 「群衆路線」의 지도방법도 모두 金日成에 의하여 創始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先驅的 共產主義者의 명성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

金日成이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黨의 自主性を 공포한 것은 1966년 8월 12일이었지만 그후 黨의 宣傳文件은 수령이 「1930년 봄 吉林감옥에서 나오신 후 더욱 무르익히시었던 朝鮮革命에 관한 主體的인 革命路線을 내놓으시었다」⁶⁾고 하니, 그의 自主性は 사실은 1966년보다도 벌써 36년전에 확립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때의 그의 나이는 겨우 18歲! 이 허황한 政治的 창작에 관해서는 굳이 論評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의 황당무제한 이야기는 第2次世界大戦末 北韓의 會寧, 淸津, 羅南, 咸興, 平壤 등의 일대를 해방시킨 것은 다름아닌 金日成의 「朝鮮人民革命軍部隊들」이었고, 그의 강력한 타격앞에 「일제놈들의 <<철벽의 방어선>>은 흙담처럼 무너졌으며 100만의 關東軍도 거품처럼 사라졌다」⁷⁾는 어이없는 虛言이다. 이

註 6) <<祖國統一>>, 1969年 10月 8日.

7) 上揭書.

렇게 金日成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생지인 萬景臺는 「朝鮮革命의 요람」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가 살던 초가집은 물론 한그루의 나무, 한 개의 바위, 조그만 공터까지도 그의 어린 시절과 관련시켜 歷史的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平壤의 「外國文出版社」는 金日成의 著作, 권위 등을 다량 간행함으로써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 傳統」과 「主體思想」에 뿌리박고 있다는 北韓의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 建設을 실재없이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비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과 日本등 先進國에서도 적극화되어 가고 있다.

1973년 한해만 해도 金日成의 「天才的 勞作들」은 세계 수십개 나라들에서 30여개 民族語로 수천만부나 번역 출판되었으며 무려 億萬部를 훨씬 넘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出版物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⁸⁾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近年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학습하기 위한 「金日成同志 勞作研究所」, 「金日成同志의 위대한 主體思想 硏究會」, 「金日成同志 勞作愛讀會」, 「金日成圖書館」등등의 이름을 가진 組織들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각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1972년 12월에는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에서 16개 아프리카 國家들의 政治活動家들이 「全아프리카 金日成同志主體思想 討論會」를 연데 뒤이어 1973년 11월에는 「中近東 및 아프리카地域

註 8) 《근로자》, 1974年 4號.

主體思想에 관한 科學討論會」가 소말리아共和國 수도에서 그곳 정부의 주최하에 열렸다.

이러한 종류의 「討論會」는 東京에서도 베이루트에서도 알제리에서도 있었다. 그리하여 北韓의 「社會主義 地上樂園」을 비취고 있는 「民族의 太陽」은 南韓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人類의 太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大革命>이나 「社會主義 大建設」을 표방한 「速度戰」이 전개되면서 北韓에서는 個人崇拜運動이 더욱 활발해져 갔다. 黨에 의한 일체의 비판세력에 대한 규탄을 의미하는 「修正主義·教條主義」, 「事大主義」, 「官僚主義」, 「主觀主義」, 「要領主義」, 「形式主義」, 「機會主義」등등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속에서 모든 黨員들은 「主體型的 참다운 共產主義革命家」, 다시 말하면 바로 金日成型的 共產主義者가 되어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 요즘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은 위대한 主體思想을 指導指針으로 하여 전개된 「世界最初의 民族解放革命戰爭」으로까지 格上되었고, 이제 그는 「우리 人民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이란 아침을 받기에 이르렀다.

종래의 唯一思想體系에 상응하도록 「唯一的 領導」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金日成은 1930년대에는 日帝를, 1950年代에는 「美帝」를, 즉 「한 세대에 두 帝國主義 強敵을 물리치신 전설적 英雄」이라는 감동적 표현으로 예찬되고 있다. 그는 지금은 초인적 지혜와 능력을 보유하는 絶세의 愛國的 指導者로 絶대화, 신

격화되고 있다. 黨의 한 宣傳員은 「社會主義 建設에서의 새로운 양상을 위한 힘의 중요한 원천은 어떤 물질적, 客觀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모든 일군과, 당원들 勤勞者들의 충성심에 있다」⁹⁾고까지 서슴치 않고 말하면서 모두는 수령님에게 끝없이 충직한 親衛隊, 決死隊가 되라고 호소한다.

또 다른 宣傳員은 다음과 같이도 역설하고 있다.

“모든 黨員들과 勤勞者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黨政策에 대한 절대성의 精神, 무조건성의 原則을 튼튼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집행하기 전에는 죽을 權利도 없다는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革命的 自覺을 가지고 鬪爭할 때 社會主義 大建設에서는 빠른 속도가 창조될 수 있으며 승리가 이룩될 수 있다.”¹⁰⁾

金日成 個人崇拜는 이제 거만하고 교활한 독재자의 權力心理와 밀착되어 大衆操作으로써 앞에서 예시한 수다한 反理性的, 反人民的, 反知性的 양태를 연출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權力과 榮華 그 자체에 도취한 옛 專制君主의 단순한 광란극과는 意味가 다른 側面을 보이고 있다. 北韓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그에 대한 個人崇拜運動을 통하여 絶對化, 神秘化하고 있으며 이것을 國家的 指導原理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은 獨裁權力이 빠지기 쉬운 自己陶醉의 現象으로도 理解할 수 있지만, 主體思想의 宣傳, 金日成의 神格化로써 그를 南北統一의 유일한 求心點으로 삼으려는 政治戰略이 깔려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註 9) 《근로자》, 1973年 3호.

10) 《근로자》, 1974年 9호.

北韓 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

劉 英 俊
(明 知 大 教 授)

目 次

I. 序 論	81
1. 問題의 提起	81
2. 研究의 範圍	82
3. 研究方法과 그 限界	83
II. 共產主義理論의 前提로서의 體制的 特性과 權威構造의 變化過程	84
1. 體制的 特性	84
2. 權威의 變化過程	89
가. 革命期와 카리스마 (Charisma)	90
나. 體制形成期와 權威의 原始的 蓄積	93
다. 體制維持期와 民主的 中央統制	98
III.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	104
1. 北韓의 體制的 特性	104
2. 權威의 變化過程과 理論의 修正過程	107
가. 革命期와 맑스·레닌主義	107
나. 體制形成 再編과 主體思想	115
다. 體制維持와 金日成 唯一思想	123
IV. 結 論	130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 大韓民國과 體制對決을 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거의 언제나 大韓民國의 國際적으로 認定된 正統性을 否認하고, 오히려 우리 歷史, 傳統, 文化에는 전혀 生소한 異質的인 思想인 共產主義 理論을 펴면서 그것이 마치 正統性이 있는 우리 民族의 體制나 權威가 되는 양 宣傳하고 있다. 그런데 그네들이 主張하는 體制나 權威에 關한 理論은 共產主義國家들의 一般理論과는 크게 다르고 또 그 起伏이 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뜻에서 여러사람들이 그렇게 일컫듯이 北韓共產主義는 그 理論的 特性으로 보아 과연 諸共產國家群속의 突然變異的 存在인 것인가? 맑스-레닌主義 政治이데올로기를 正統의 神柱 모시듯 하더니 어느 틈에 主體思想이니 唯一思想으로 變化되고 결국 金日成主義로 까지 탈바꿈하고 말았다.

그러나 突然變異가 그 심각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自體에 對한 解明만으로는 窮極的인 解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否認할 수 없는 方法論上의 엄연한 귀결점이다. 즉, 돌연변이에 對한 明確한 解剖는 역시 一般法則 및 蓋然性에 對한 선명한 分析

과 認識을 하고서야 처리되는 것이다.¹⁾

이런 뜻에서 종래의 우리들 常識人의 北韓共產集團에 대한 理解가 왕왕히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임기응변式이었음은 솔직히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²⁾ 北韓共產主義가 제아무리 과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全體共產國家의 政治體制 및 權威構造의 脈絡에서 찾아질 때 우리로서는 그 突然變異性에 대한 認識이 더욱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그 理論的 特性에 對한 우리의 對應姿勢도 더욱 굳건하고 效率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할 것이다.

2. 研究의 範圍

이러한 問題意識에 研究者는 本 小考를 通하여 첫째, 共產主義 一般의 理論의 前提가 되는 政治體制와 權威構造의 一般的인 特性이 무엇이며, 둘째, 이러한 一般理論을 北韓共產主義에 投射하면 어떠한 特徵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보고자 한다. 즉, 다시 말하여 本

註 1) Taro Yamane, Statistics: An Introductory Analysis (New York: Harper & Row, 1967), pp. 313-90.

2)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北韓學이 일종의 타부(taboo)였던 것이 사실이고, 남북대화이후 갑자기 北韓을 分析코자하다보니 共產體系에 對한 全面的 體系的 分析에 앞서, 北韓만을 성급히 다루는 경향이 學界의 傾向이었다. 「北韓」誌 創刊號 參考.

研究의 範圍은 共產主義에 對한 一般的 認識을 위하여 共產國家群의 體制的 特性和 權威構造를 먼저 보고, 그다음 北韓의 그것들을 이와 비교하는 觀點에서 보아서 그 類似點과 差異點을 캐어보는 순서와 範圍가 된다는 말이다.

3. 研究方法과 그 限界

여기서 指摘해 두고자 하는 것은 共產主義에 關한 研究는 筆者의 立場에서는 그것이 共產主義體制的 特性이든 權威構造이든간에 불가불 歷史的 接近法 (historical approach) 일 수밖에 없다는 點이다. 이것은, 첫째 現存하는 모든 共產體制가 비교적 길지 않은 革命의 結果로 생겨났다는 事實과, 둘째 그들의 革命的인 特性에도不拘하고 共產體제도 經濟的 文化的 및 政治的 發展이라는 과업에 그들의 努力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共產體制속에서 變化가 恒存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理論的 特性도 그러한 變化라는 맥락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임은 再論을 要치 않는다. 다만 共產國家의 體制나 權威構造 研究에 있어서 지적되어야 할 또 하나의 注意點은 엄격한 뜻에서 이것들에 對한 行態論的 接近 (behaviorial approach) 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面으로 資料가 制限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現 段階에서는 研究自體가 印象主義的 (impressionism) 이거나 直觀主義的 (intuitivism) 으로 될 수 밖에 없는 限界點이 있는 것이다.

II. 共產主義理論의 前提로서의 體制的 特性과 權威構造의 變化過程

1. 體制的 特性

러시아革命以來, 特히 1945年 以後에 있어서 共產主義體制는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하나의 主된 理念的 挑戰이 되어 왔다.

近來에 와서 이러한 도전은 이른바 第三世界에 對하여 더욱 그 열을 올리고 있다. 約 15개국에 달하는 이들 共產國家들은 人口가 가장 많은 中共과 소련을 頂點으로 하여 제각기 共產主義 社會建設에 努力해 왔으며 30여년 동안 제 나름대로 하나의 活力을 띤 政治秩序를 確立하는데 제 나름대로 成功한 셈이다.

그런데 1960年代에 와서 그들 共產國家들의 政治體制的 特性으로 나타난 하나의 증세는 다름아닌 共產黨이라는 경직된 認識에 기초를 둔 急進的 權威政體가 그들의 全盛期를 지나쳐 버린 것이다. 즉, 外的으로 共產主義의 限定된 팽창은 확실히 그들의 支持者를 失望시킨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1940年代 後半에 共產主義가 移植된 東歐나 東北亞地域밖에서는 단지 쿠바(Cuba)만이 이 그룹에 가담했을 뿐³⁾, 이따금 그럴 기미를 드러내던 아프리카, 中

註 3) 여기서는 1975년에 共產化된 베트남 캄보디아는 제외됨.

東國家들도 실제로 그들에 가담하지는 않은 셈이다.

內面的인 면에서 보면 共產國家들은 內紛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비단 中·蘇의 理念紛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고슬로비아를 필두로 하여 東歐 여러나라나 또 다른 곳에 있어서의 보다 더 自由主義的 政策, 보다 더 큰 參與, 그리고 보다 덜한 官僚主義⁴⁾ 등을 요구하는 데서도 이러한 內紛의 조짐을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소비에트의 帝國主義에 對한 혐오감이 이러한 不滿의 表面上의 이유지만, 아마도 그 보다는 共產體制와 함께 오리라던 「正義와 幸福의 時期」가 실제로 實現되지 못한데서 더욱 큰 이유가 있는 것 같다.⁵⁾

共產主義體制는 政策目標에서 急進的 (radical)인 것이 그 特徵의 하나이다. 실제로 그런 政策目標는 집행되기도 하지만 그에의 參與는 높지 못하고 그러한 體制에 수반되는 權威主義的 政策執行方式은 많은 경우 거부反應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共產體制란 外的 內的으로 낮은 正統性水準 (the level of legitimacy) 밖에 갖지 못하게 되며 이는 또한 집권자로 하여금 自己保存을 爲하여

註 4) Jean Blondel, Comparing Political System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2), p.187.

5) Ibid.

한층 더한 權威主義的 措置를 취하게 하는 악순환을 빚게 한다.⁶⁾
그렇기 때문에 共產體制란 制限된 범위 내에서 異論의 여지가 없
는 成就性에도 不拘하고 長期的으로 보아 未來의 明白한 發展에 暗
影을 던져주게 마련인 政治體制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共產主義體制를 全面的으로 維持해 가고 그것을 細部的으로 이끌
어가는데 가장 책임있는 關鍵的 構造는 單一政黨이다. 즉 공산국가
의 構造的 特性에 관한 限 그것은 黨과 國家와의 緊密한 區別인
바, 黨을 拍車로 하고 國家는 黨에 依하여 올바른 方向으로 움직
여 나가게 되는 셈이다. 국가의 모든 顯職은 黨에 依하여 장악되
며, 社會의 모든 領域이 적어도 理論적으로는 黨에 依하여 浸透되
어져 있다. 黨은 反對勢力을 누르는 도구이며, 政治적으로 無關心할
지도 모르는 人民大衆의 諸 階層을 動員하는 하나의 責(agent)
으로 역할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共產政治體制의 주된 發明이 있
다면 그것은 黨인 것이다.⁷⁾

共產主義政黨은 프로레타리아의 선구자로 胚胎되었었다. 따라서 그
것은 단순한 人民代表로만 생각된 것이 아니라, 그 自體가 하나의
엘리트로 간주된 셈이다. 이러한 點이야말로 共產主義政黨에게 특별

註 6) 1956 年の 소련에 의한 헝가리 간섭사건, 1968 年の 체코사건
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7) Jean Blondel, op. cit., p.191.

한 地位가 주어지고 그러한 지위가 憲法上으로도 인정되는 所以이다. 勿論 共產主義體制內에서도 여타의 政黨들이 있을 수는 있다. 基督教的 또는 農業的 性格을 띠는 政黨이 그러한 例겠지만 그런 政黨들은 共產政黨의 窮極的인 장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奉仕하는 範圍 內에서만 存立可能한 것이 特徵이다.⁸⁾

共產主義政黨의 主要한 機能別 特性을 要約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共產主義政黨은 社會 各 階層에 하나의 拍車로 파고들어 그 階層 構成員의 生活을 啓導하는 役割을 한다.

여기에서 共產主義 政黨은 하나의 組織網 또는 特殊組織의 性格을 띠는 것으로, 黨은 男女 누구나가 共產主義社會의 目標에 적어도 外形的으로는 社會化된 印象을 주게 強要하는 性格이 있다.

둘째로, 이러한 共產主義政黨의 教育的 엘리트形成機能은 그 體制 內에 들어가는 投入 (input) 選擇에 상당한 役割을 하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즉, 共產主義政黨은 소위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democratic centralism) 의 原理위에 운영되고 —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 여러 아이디어들이 처음에는 밑바닥층에서 論議되고 그다음 代表機關⁹⁾에 依하여 承認되는 形式을 취한다.

일단 黨에 의하여 승인되고 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받

註 8) Ibid.

9) 이는 全黨大會 (the party congress) 를 의미하며 보통 매 4 年만에 한번씩 소집되는 것이 각 共產國의 通例.

아들여지고 지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애초에 그 아이디어에 대하여 어떤 見解가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共產主義政黨의 存在自體가 底邊層 (grassroot)의 意見이나 要求를 바꾸어 버리는 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특히 非黨員의 異見 등은 널리 퍼지기 以前에 手術을 加하며, 反對勢力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政策의 代案으로는 考慮되지 않는다. 勿論 이런點에 있어서도 時間과 場所에 따른 差異는 있다.

共產主義政黨은 이밖에 두 가지의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그 하나가 黨은 政策의 入案者로서 高位政策을 決定하며 그 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여러가지 國家機關의 業務를 調整하는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一黨體制의 두드러진 特性으로서 黨은 決定執行을 監視하고 그러한 決定事項이 官僚體制에 依하여 履行되는 方法을 統御한다. 이러한 黨의 役割은 體制가 더 效率的이 되고 더 포괄적이 되며 中央集權化됨에 따라 더욱 그 性格의 농도가 짙어진다. 共產國家에서는 同一政黨이 永久執權을 하며 政治社會를 끌고가는 특별한 任務를 맡는 것이 通例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政策은 國家顯職에 依해서보다 中央委員會, 政治局, 秘書局 등의 黨機構에 依하여 決定된다. 黨秘書局的 課들이 行政各部와 同一한 序列에 놓여 있으며 業務面에서는 行政各部를 監視하는 경우가 많다. 法令은 대부분의 경우 議會나 政府에 依하여 通過되기 前에 黨中央委員會나 書記局에 依하여 事전에 먼저 토의되고 承諾받게 된다. 따라서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國政의 진정한 首班은 內閣의 우

두머리가 아니라 黨의 總秘書라는 主張은 正當한 것이다.¹⁰⁾

이상에서 본 것이 共產主義國家가 一般的으로 갖는 體制的 特性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이들은 모두 共產主義理論의 構成要素의 하나로나 그 前提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體制的 特徵이 北韓共產主義體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는 本稿의 關心事이다. 다만 이들의 全部를 具體적으로 投射함이 옳을 것으로 아나 北韓共產體制라는 素材 自體가 갖고 있는 現저한 制限點이나, 研究 自體가 갖는 限界點으로 보아 可能하고 또 北韓體制에 適實性(relevance)을 갖는 것으로 믿어지는 範圍內에서 추려서 檢討하고자 함을 미리 밝혀 두어야 할 것 같다.

2. 權威의 變化過程

權威(authority)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行爲者間에 存在하는 하나의 不平等關係를 뜻한다. 좀더 부연하면 權威란 一方에 의하여 形成된 決定事項들이 他方に 依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소통되며 지켜지는 때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關係가 관련된 모든 行爲者에 의하여 正統性있는 것으로 自發적으로 받아들

註 10) Jean Blondel, op. cit., pp. 192 ~ 193.

여질 때 存在하는 것으로 規定된다.¹¹⁾ 權威를 이렇게 規定할 때에 共產體制속의 어떤 特徵을 띠고 나타날 것인가?

共產體制的 權威構造는 몇가지 理由에서 流動的이고 不安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革命歷史의 日淺性, 그들이 내세우는 政治 目的上의 지나친 野望, 또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그들이 적용하는 과격한 政治方式 等を 그 理由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은 不安全性으로 因하여 共產엘리트들은 權威問題를 지나치게 認識하게 되고 權威의 形成이나 蓄積을 爲하여 그들의 體制를 지나치게 緊張시키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各 共產體制는 그 나름대로 이러한 權威構造 確保를 爲하여서는 크나큰 代價를 치루어야 했고 아직도 치루고 있는 것이 또한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革命時期의 카리스마(charisma)關係의 造成, 體制形成 및 再編時期의 權威의 原始的 蓄積(primitive accumulation of authority), 體制維持時期의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¹²⁾

가. 革命期와 카리스마

共產體制 탄생기의 權威에 대한 태도는 復合的이다. 강한 反

註 11) Alfred G. Meyer, "Authority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in Lewis J. Edinger(ed.) Political Leadership in Industrialized Societies(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p.84.

12) Ibid., p.85.

權威的 態度와 權威主義的 (authoritarian) 그것이 同時에 共存하기 때문이다. 集權하는 共產黨은 기왕의 모든 權威에 對하여 反抗的 態도를 나타내며 한꺼번에 모든 政治的 權威를 없애버릴 것만 같은 印象을 왕왕 보여준다. 國家消滅觀이 이러한 욕망을 상징하며 모든 權威를 集權主義의 自然發生的 自治政府로 대치시키고자 기도한다. 이와같은 反權威的 期待는 맑스 및 엥겔스의 著作에서부터 연유되는 것이다.

共產主義이데올로기는 두 가지 점에서 反權威的이다. 즉, 그것은 낡은 權威에 反對하여 모든 權威를 소멸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權威主義的이기도 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黨의 聖典으로 公式化되어 있고 또한 모든 구성원이 그것의 拘束力을 받아들일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黨은 따라서 모든 權威의 制度的 化身으로 主唱되고 있다. 黨의 構成員은 文字 그대로 이러한 教理를 마스터하고 있는 者들이다. 그러므로 顯職化된 構成員資格 그 自體가 政治的 權力으로서의 窮極的인 權威라는 말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共產黨은 高度로 權威主義的 機構이다. 잡다한 이유로 黨지도자들은 中央集權化, 訓練, 指揮原則 等에 對한 必要性을 強調해 왔다.

이러한 연고로 黨內權威主義 및 엘리트主義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있어서 불가피적인 核心的 要素가 되어온 셈이다. 즉, 革命的 共產主義는 프로레타리아組織을 確立하기 爲한 目標에서

權威의 必要性을 再闡明하게 된다.¹³⁾

共産黨들은 그들의 執權初期段階에서는 無政府狀態와 權威사이에서 야기되는 緊張을 緩和시킬 目的으로는 이데올로기 以上の 裝置를 運用하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mechanism)이 바로 카리스마關係의 造成인 것이다. 카리스마는 흔히 靈感있는 指導者가 갖는 特質로 規定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그가 타고난 어떤 세속적 우아함 때문에 지도자로서 성공하게 될 때 그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렇게 定義됨으로써 그 特質은 權威를 爲한 可能的 根據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인 定義, 이를테면 영감이라든지 세속적인 우아라든지 하는 特質에 內容을 부여하여 쓰기로 한다. 한 예를 들어 지도자와 추종자가 共히 「正義와 幸福期(millennium)」에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예리한 「無法的 變則狀況(anomie)」에 있어서 엘리트의 大衆의 추종에 對한 비위맞춤 等 定義가 이렇게 되면 카리스마는 하나의 特質(trait)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關係로 파악되고, 이런 점은 權威自體가 하나의 關係로 規定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환영할 만하다.

왜냐하면 카리스마를 特質로 파악하면 그것은 어느 個人的 또는 獨裁的 리더십을 說明함에 그치게 되나 그것을 關係로 파악하면 大衆과 엘리트 또는 大衆과 組職間에 存在하는 것으로 擴大할 수 있

註 13) Ibid., pp.86-87.

기 때문이다.¹⁴⁾ 이런 경우 「共產政權의 成立은 革命期間에는 共產黨과 住民의 相當部分과의 사이에 存在하는 카리스마的 關係를 그 基礎로 한다」는 假說도 可能해진다. (勿論 革命期の 無法的 變則 狀況이 카리스마的 關係의 主要한 先行條件이다.)

나. 體制形成期와 權威의 原始的 蓄積

革命으로는 執權한다는 그 自體만으로는 安定된 權威를 確立하기에 充分치 못하다. 왜냐하면 本 考察에서 使用된 뜻에서의 카리스마는 文字 그대로 일시적인 關係이기 때문이다. 元來 카리스마란 극도로 日時的인 種類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權威를 胚胎하지 않는 法이며, 카리스마가 배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權力(power)일 뿐이다. 權力이 權威와 相異한 點은 後者が 正統性에 근거를 두는 관계라면 前者는 強壓과 恐怖에 基礎하고 있는 關係라는 點이다.¹⁵⁾

그런데 問題는 적어도 하나의 政治體制를 長期的으로 유지해 나가자면 權威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共產 엘리트들도 자기 자신들의 位置를 定하고 나면 카리스마에 根據한 어떤 流動的인 權威를 確立 또는 再確立할 必要性을 느끼기 마련

註 14) Ibid., p.88.

15) Robert A. Llahi, Modern Political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pp.50 ~ 51.

이다.

이 段階의 共產主義指導者들은 權威確立의 必要性을 가장 절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니, 그것은 革命的 카리스마는 모두 사라지고 공산주의 엘리트와 그들을 따르는 以前의 人民大衆이 共히 相互間에 걸었던 情熱이 환상과 의심, 그리고 증오로 變해 버릴지도 모를 일종의 後遺症에 민감해 지기 때문이다. 이런 點은 카리스마의 範圍가 크면 클수록 失望의 크기도 正比例할 可能性이 질다.¹⁶⁾

요컨대 이 段階에 있어서는 權威상실이 극적으로 되고 이미 심각해진 危機는 共產主義政權이 항상 신경을 쓰는 外的인 壓迫에 依하여 더욱 첨예화된다. 結果적으로 權威再確立의 課業은 共產主義 리더십이 最優先的으로 넘어가야 할 問題로 重壓感을 더 한다. 사실 共產主義體制를 初期發展段階에서 特徵지어 주는 過程中的의 하나가 體制形成期의 이른바 「權威의 原始的 蓄積」인 것이다.

이는 여러 革命政權에 依하여 열성적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權力을 可能的 限 신속히 權威로 轉換시켜 보고자 하는 努力을 意味한다. 이는 또한 壓倒的으로 不利한 與件들에 對抗하여 展開하는 일대 短期生産計劃을 實踐하는 스타일로 權威를 創造함을 뜻하기도 한다. 넓게 말하여, 이러한 目的을 爲하여 共產主義엘리트에게 使用 가능한 手段들이란 強壓, 組織, 說得, 그리고 褒賞 (reward)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褒賞은 國家經濟의 效果的인 運營을 包含하여 그

註 16) Alfred G. Meyer, op. cit., p.91.

것은 人民大衆을 爲해서는 物質的 利益을, 國家에게는 物質的 誘因을 操作可能케 해 줄 것이다. 또한 이는 住民에 對한 여러가지 善心攻勢도 뜻하는 바, 多樣性에의 寬容, 決定形成 (decision making) 過程에의 參與機會, 한정된 範圍內에 있어서의 自由放任主義 (laissez faire) 政策 등을 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¹⁷⁾

強壓이란 警察國家的 手法의 意味와 關聯된 것으로 刑罰的 諸裝置의 廣範한 使用 내지 使用威脅을 말한다. 組織이란 一般的으로 黨과 大衆과의 關係에 있어서 家父長的 (paternalistic) 術數的 (manipulative) 類型을 상징함을 뜻하며 全 社會에 걸친 일종의 官僚組織을 通하여 모든 社會的 活動을 中央集權的으로 統制함을 뜻하기도 한다. 說得은 「教理의 體質化 (indoctrination) 」 또는 「成人再社會化 (resocialization) 」를 爲한 活氣차고 野望에 넘치는 計劃을 爲한 手段으로 導入되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속의 訓練은 共產主義이데올로기 自體에의 訓練으로 자연히 引導하는 效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⁸⁾

權威를 形成키 위한 네 가지의 手段, 즉, 強壓, 組織, 說得, 褒賞 등은 뚜렷이 區分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共產主義 政策은 이들 넷중 둘 또는 그以上の 範疇가 混用된 것으로 區分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權威의 原始的蓄積期에 있어서는 이들 네 手段이 모

註 17) Ibid.

18) Ibid., pp.91 ~ 92.

두 混用됨으로, 말하자면 共產主義體制는 넓은 實驗을 하고 있는 셈이며, 또 實際로도 그러하다. 이와같은 實驗을 다음과 같은 態度, 思考, 및 딜렘머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原則적으로 共產主義敎理란 그 信奉者가 權力이나 暴力의 行使에 있어서 內面的이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며, 同時에 이러한 敎理는 權威란 그것이 情熱, 카리스마 및 信念 等に 根據를 둘 때 가장 確實히 나타난다고 가르친다. 더구나 레닌은 「만약 權威가 그러한 순수한 支持를 잃으면 共產主義政權은 誘因이나 褒賞에 가급적 기초를 많이 둔 權威를 操作할 必要가 있다」고 力說하고 있다.

恐怖는 共產主義에 對한 가장 危險한 敵을 統制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넓은 階層의 無關心者나 원만한 同調者는 注意깊게 조작된 포상제도에 依해서 가장 잘 動員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¹⁹⁾ 실제에 있어서는 共產主義政權들은 그들의 權威造成에 있어서 褒賞보다는 組織이나 強壓에 더 많이 依存하고 있다. 理由는 共產國家 大部分이 經濟的으로 落後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⁰⁾

共產主義者들은 初期의 突破期에 있어서는 보다 溫和한 方法을 使用할 수 없기 때문에 權威蓄積에는 強壓的인 手段이 불가피적이라는 假定(assumption) 위에 體制를 끌고 나가게 되는 것 같다.

註 19) Ibid., p.92.

20) 이 點에서 北韓은 아마도 그 程度가 다른 어느 共產國家에 비하여 클것으로 豫見된다.

「權威의 原始的 蓄積」이라는 用語 自體가 突破口 (breakthrough) 를 찾고 權威造成을 못한 短期速成計劃을 마련코자 하는 하나의 決斷을 暗示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原始的 權威蓄積에의 要求는 共產主義政權들이 當面하는 보다 더 큰 作業의 일환으로 파악될 때만 더욱 긴급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作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體制建設 (system building) 을 意味한다. 體制建設이 점점 더 시급하고 어려운 課業으로 登場하게 되는 理由는, 共產主義엘리트들은 革命의 激動期에 있어서는 맑스主義의 이데올로기의 눈으로 共產主義의 가장 樂觀的인 面만 보게 되므로, 體制構成 따위는 별도로 進行시켜야 할 課業으로 보지 않았던 데서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다. 즉, 그들은 새로운 體制가 革命으로부터 自生되리라고 성급하게 假定해 버리고 共產主義體制는 남은 體制가 극하면 저절로 나오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一般的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그러한 期待가 강하면 강할수록 事實 革命이라 했잖아 破壞만을 가져왔고 새로운 政治體制를 制限된 物資의 範圍內에서 구축하는 데는 統合的이고 創造的인 努力이 必要하다는 사실을 더욱 切感하게 되었다. 사실 物資 그 自體가 새로운 體制에 맞추어지기 爲해서는 再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다. 철저히 새로운 制度·構造·過程 및 類型 等等이 創造되려면 기왕의 政治體制로부터 移越된 社會總體的 原資材에 철저한 變

化를 일으켜야만 했었던 것이다.²¹⁾

이렇게 본 共產主義體制形成期の 權威構造를 合理化시키고자 하는 共產主義의 理論構成의 特性이 北韓 共產主義의 體制形成期에 如何히 適用될 것이냐는 엄격한 뜻에서 하나의 「經驗的인 質問 (empirical question)」일 것이다. 理論의 相當部分이 北韓의 政治實情을 通하여 檢證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部分도 우리는 豫見할 수 있다.

다. 體制維持期和 民主的 中央統制

産業化와 體制形成을 爲하여 스탈린主義的 努力을 하는 가운데 相當數의 共產政權들이 經驗하게 되는 것은 經濟生活能力이다. 社會構造 및 生活水準의 面으로 보아 資本主義體制가 産業化 直面에 經驗하였던 社會의 水準까지 도달되는 경지를 經驗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政治的으로는 그들 特有的 性格을 그대로 持續하게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상당수의 共產體制가 主要한 轉換을 經驗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變革이 共產國家의 權威構造에 갖는 意味를 캐보는 것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主題이다.

한마디로 「共產體制에 關한 限 體制構築에의 成功은 體制自體의 權威를 強化시키는 것은 事實이나, 이것은 同時에 그것을 威脅하는

註 21) Alfred Meyer, op. cit., p.93.

特性을 지니고 있다」는 假說로 要約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權威를 強化하는 面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例를 들어 政權은 長壽가 그것인데, 確實히 共產政權의 長期執權은 政權에 對한 追從을 하나의 습관으로 轉換시켜 버리는 效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느 體制고 간에 그것이 數十年을 지탱하고 보면 그 속의 人民들에 依하여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 지금 世界の 權威中 相當수가 體制의 長壽에 힘입고 있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뜻으로 規定된 習慣은 共產體制가 餘他の 代替可能性있는 體制的 要素를 成功的으로 除去하면 할수록 더욱 深化되게 마련인 것 같다. 즉, 人民大衆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代替可能性體制에 對한 希望이 사라진 後에는 共產體制의 權威가 상당히 고조되는 事例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²³⁾

共產體制의 長壽는 그에의 盲從이 비단 習慣으로 變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體制의 組職이나 運營이 차라리 하나의 「日常生活化(routinized)」하는 데까지 이르는 느낌이다. 바꿔말하면 體制

註 22) Ibid., p.100.

23) 東獨이 베르린 封鎖事件以後에 상당한 權威를 쌓을 수 있었고 美國이 1956年에 있었던 헝가리 및 폴란드 반란에 效果的으로 支援치 못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意味와 效果를 갖는 例라 할 수 있다.

自體가 「內面化(internalized)」되는 느낌이다. 共產主義者들이 흔히 「民主的 中央集權主義(Democratic Centralism)」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主義」의 內面화가 共產黨으로 하여금 보다 광범한 人民大衆을 體制에 參加시키도록 動員할 수 있는 根據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共產政權의 教養注入(indoctrination)에의 즐기찬 努力은 人民大衆의 底邊層이 共產政治의 組織上 特殊性을 內面化하는데 寄與할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基本教養을 內面化하며 特히 集團勞動倫理에 막연하나마 어떤 使命感마저 갖게 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分명한 것 같다.

共產主義權威를 強化해 준 또 다른 要因들은 그들이 이룬 經濟·社會·政治面의 收益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들 體制속의 많은 人民들에게 「共產政權이 約束을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期待를 갖게 해 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共產國家의 市民權도 제법 成功的인 組織속의 멤버십(membership)을 뜻하며 심지어 어느 程度의 自負心마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社會인 것으로 믿게 한 것 같다. 共產主義理論이 덕혀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이러한 成功과 有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共產體제도 때로는 生活水準向上을 과시하고 大衆테러(terror)를 特免해 주며 또 國際的 問題에서 威信을 얻게 해주는 能力이 있다는 믿음이 좀더 이데올로기를 그럴싸한 것으로 보이게 하며 體制의 約束도 믿을만한 것으로 誤認케 하며 特히 黨의 理念指導者로 하여금 現世의 世界를 보다 더 實利的으로 記述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教養注入이 하나의 狂的인 再社會化에서부터 日常化過程을 거쳐서 이데올로기注入過程에서 確立된 忠誠과 信條로 둔갑해 버리는 셈인 것이다. 이런 點을 政治엘리트와 大衆 또는 政權과 大衆과의 關係라는 點에서 보면 相互收容은 勿論이고 서로가 서로의 存在를 當然한 것으로 여기는 狀態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共產政權의 正統性的 增進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大衆動員手法上的 變化도 示唆하는 것이다.

共產政權의 大衆動員手法을 類型化하려면 첫째, 어떠한 權威스타일로 大衆動員에 臨하느냐는 것과 둘째, 共產體制가 大衆動員에서 찾고자하는 動機(motive)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重要的 것 같다. 權威스타일에는 「權威主義的(authoritarian)」이냐 또는 「參與主義的(participative)」이냐를 보는 것이요, 大衆動員에서 찾고자하는 動機는 「精神的(moral)」인 것이냐 惑은 「物質的(material)」인 것이냐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對照的인 變數를 兩軸으로 하여 分析模型을 짜보면 共產體制의 大衆動員上的 權威스타일과 體制動機와의 相關關係가 導出되는데²⁴⁾ 이것은 同時에 共產國家의 體制的 特性和 權威構造의 相關關係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共產主義理論變動의 過程을 說明해 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註 24) Alfred G. Meyer, op. cit., p. 102.

<圖表>

體制動機 動員類型 權威스타일	權威主義的 (authoritarian)	參與主義的 (participative)
	(I) 革命的 (revolutionary)	(IV) 理想的 (utopian)
精神 的 (moral)	(II) 體制形成 (systembuilding)	(III) 體制維持 (system-management)
物質 的 (material)		

圖表에서 보면 :

(I) 型의 動員樣態는 革命期 및 大躍進運動時期의 動員類型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17 ~ 20 年과 1928 ~ 31 年 사이의 소련과 1958 ~ 60 年의 中共을 그러한 類의 動員政權으로 規定할 수 있겠으며

(II) 型은 스탈린主義 盛熱期, 따라서 1938 ~ 53 年의 소련과 1948 ~ 53 年의 東歐를 들 수 있을 것이며

(III) 型의 動員體制는 스탈린主義的 政權이 産業化에 相當한 成功을 거두어 政治體制的 安定性을 이를 必要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후르시초프 및 브레즈네프 時代의 動員類型과 東歐의 修正主義下의 그것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으며

(IV) 型은 勿論 共產主義體制가 淸명하는 窮極的인 目標段階 (goal

stage)로서 아직은 어느 共產國家도 여기에 와있는 例를 찾기는
힘들 것 같고, 또 果然 그럴것이나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勿論 現實(realities)은 이와 같은 네가지 틀에다 맞추어 動員樣
態를 선명히 分離하기에는 훨씬 複雜한 것이 事實이나 觀察을 意
味있게 하기 爲해서는 이러한 模型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
며 어느 意味에서는 不可避的이라고 할 것이다.²⁵⁾ 또한 北韓共產主
義體制를 여기에 비춰 봐서 그들의 動員樣態가 어떠한 길을 걸어
왔으며 그때마다 그들은 어떠한 理論으로 자기네의 動員型態를 합
理化 내지 正當化하려고 試圖한 것인지를 비록 印象主義的이거나
直能主義的인 方法論上的 限界點이 있다 하더라도 觀察해 보는 것
은 大端히 興味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註 25) Michael Haas, 科學哲學講義노트 (하와이大, 1972).

Ⅲ.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

1. 北韓의 體制的 特性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共產主義의 構造的 特性도 黨과 國家와의 엄연한 區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黨을 拍車로 하고 國家는 그에 의하여 올바른 方向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셈이다. 즉, 國家의 모든 組織은 黨에 의하여 掌握되며 社會의 모든 領域이 적어도 理論적으로는 黨에 의하여 浸透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黨의 反對勢力을 누르는 道具이며, 不然이면 政治적으로 無關心할지도 모르는 人民大衆의 諸 階層을 動員하는 하나의 責(agent)으로 역할한다고 볼 수 있겠다.

1946年 8月 29日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한 金日成의 報告를 보면 要旨은 다음과 같다.²⁶⁾ “친애하는 대표동지들!”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동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는 이 대회는 조선독립운동의 역사에서와 오늘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여러 대표동지들은 비단 로동당의 대표로서 뿐만아니라 북조선 전체 인민의 대표로서 한자리에 모여 국사를 토론하며 조국의 운명

註 26) 김일성 저작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69.

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투쟁과 건설을 하여온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 위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선근로대중의 통일적 당을 창건하는 이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도 첨예한 정국에 처하여 있는 조선인민은 오늘 최대의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당 창립대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크나큰 기대에 보답하며 인민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대회를 성과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金日成은 勞動黨의 目的과 性格에도 言及하고 있는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²⁷⁾

“우리 로동당의 강령에는 그 목적과 성격과 임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강령 첫대목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당이며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당입니다. 로동당은 조선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당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응당 주도적 힘으로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기본임무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개혁을 전국적으로 철저히 수행하며 민주주의 인민공

註 27) Ibid., p.77.

화국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北韓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는 그 出發부터 黨을 政治·
社會 等 모든 領域의 骨幹으로 내 세우고 있는 것이다. 「혁명과
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 「더욱 위대한 사업을 하
기 위하여 조선근로대중의 통일적 당을 창건」, 「로동당은 조선근로
대중의 선봉대」, 「투쟁에서 응당 주도적 힘」, 「핵심적 역할을 담
당」, 等等의 黨機能에 對한 力點的 묘사가 이를 雄辨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그리고 北韓共產主義의 國家에 對한 理論體系는 1948年 9月 10日
金日成이 發表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
1차회의에서의 정강」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要約하면 다음
과 같다.²⁸⁾

“……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적 조선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며 부
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첫째,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을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
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할 것이며, ………

둘째,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숙청하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대책들을 취

註 28) Ibid., pp.255-259.

할 것이며, ………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과 괴뢰정부의 온갖 반민주주의적, 반인민적 법령들을 무효로 선포할 것입니다. ………”

그리고 넷째, 자주적 민족경제 건설, 다섯째, 교육·문화·보건 사업, 여섯째, 각급 인민정권기관의 공고 발전, 일곱째, 대외정책 및 여덟째, 국가보위를 위한 인민군대의 강화 等等을 施政의 課業으로 내걸고 있다. 즉, 이것을 換言하면 黨이 國家目標을 設定하는 中樞機關의 役割을 한다면, 國家 내지 政府는 그것들을 政策的으로 課業化하여 實踐하는 機能을 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北韓共產主義體制라 하더라도 共產主義體制의 一般的 特性으로서의 黨 優位の 原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되는 것이다.

2. 權威의 變化過程과 理論의 修正過程

가. 革命期와 馬스·레닌主義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理論構成의 特性도 共產主義 理論構成의 一般的인 段階를 엇비슷하게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첫 段階가 1945年 8.15解放으로 蘇聯軍의 三八線 以北의 進駐初期에서 1955年 末頃 까지의 共產主義 革命期에 나타

난 權威構造와 맑스·레닌主義의 注入的 教養化에서 볼 수 있다. 즉, 이 初期에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追求된 權威構造는 一般的으로 共產主義革命의 初期에 必要한 것으로 알려진 카리스마의 造作이고 革命의 理論的 뒷받침으로는 맑스·레닌主義 強調였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에 對한 蘇聯軍 當局의 카리스마 造作作業은 1945年 10月 14日 평양 모란봉기슭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른바 「김일성 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 민중대회」에서 처음으로 公式化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革命初期의 그에 對한 카리스마化 攻勢는 과연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카리스마化 作業의 代表的인 자료만 보아도 다음과 같이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²⁹⁾

“오랜 세월 나라의 안팎으로부터 모진고난을 겪어온 우리 민족은 비운에 처한 조국과 인민을 건져줄 탁월한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 인민의 운명이 칠성판에 놓였던 시기에 그것은 가장 절박한 민족적인 갈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해와 달도 어둠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이러한 온 민족의 갈망을 안고 나서신 분이 바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註 29)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2) (평양: 인문과학당, 1969), p.1.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만경대의 가난한 초가에서 태어나신 그이께서는 일찌기 열네살때에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몸을 바칠것을 결심하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후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추켜드리고 조종의 산 백두령봉에 조국광복의 횃불을 높이올려 3천리강토에 해방의 서광을 비추시며 인민들을 영웅적인 구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실로 로인들로부터 어린이들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세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암담한 나날에도 힘을 얻으며 희망을 키웠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수놈들과의 싸움에 일떠섰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1930년대부터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령도자에 대한 역사적인 갈망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카리스마 造作에의 美辭 (rhetoric)가 이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카리스마 形成이라기 보다 차라리 個人偶像化 (personality cult)의 強要에 가깝다고 分析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共產體制에 關한 한 이와같은 金日成神話는 마치 檀君神話처럼 카리스마 造作의 道具로 強調되어 있는 것이다. 勿論 金日成이 抗日 鬪爭時期의 民族的 英雄으로 崇仰되어온 傳說的 人物인 그 金日成 將軍이 아님은 史料가 證明하는 바이다.³⁰⁾

여하튼 이와같이 날조된 權威로 北韓社會에 君臨하게된 金日成은

註 30) 金日成研究論叢 (國土統一院 : 국통조 76-12-134), pp.3-108.

革命初期에 그의 思想體系는 이른바 맑스·레닌主義를 標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맑스·레닌主義를 第一 먼저 公式的으로 表明한 것은 1946年 9月 9日「평안남도당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였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스탈린의 말들을 많이 인용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³¹⁾

그의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引用을 이 기간동안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1946年 9月 9日의 연설에서 보면³²⁾: “물론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오늘 민주혁명과업을 실천하는데서 가장 선봉적이고 적극적인것만은 사실이며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이러한 혁명가들이 우리 당의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에 통달한 사람만이 민주주의혁명의 수행에 참가할 수 있고 로동당에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비록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민주조국건설에서 높은 애국적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선봉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동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로동당이 되었으니 맑스-레닌주의가 당의 지도리론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공산주의자는 맑스-레닌주의원

註 31) 김일성 저작선집 (1), op. cit., pp.1-82.

32) Ibid., pp.87-88.

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우경적 견해입니다. 조선의 민주주의혁명은 결코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사회발전법칙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 맑스-레닌주의는 사회발전의 매 단계,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있어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이론이며 따라서 그것은 오늘 조선에서의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행하는데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지침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로동당으로 되었다 하여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당의 지도이론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거나 공산주의자가 로동당원이 되었다 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문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더욱 충실하고 그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자기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현력사적 단계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전자는 좌경적경향이며 후자는 우경적경향입니다. 우리는 이 두 경향을 다 배격하고 당과 맑스-레닌주의가 요구하는 정당한 조건을 따라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와같이 革命의 初期段階에서 金日成은 그 思想的 中核體系로서나 理論的 粧飾으로서 맑스-레닌主義를 標榜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다만 여기서 注意할 點은 그의 反復的인 맑스-레닌主義의 高唱에도 不

拘하고 맑스-레닌主義의 內容에 對한 說明이나 講論을 直接的으로
면 公式聲明이 없다는 點이다. 이와같은 點은 金의 맑스-레닌主義
의 表面적인 力說에도 不拘하고 어쩌면 그 思想이나 理論體系 自
體가 그에게는 빌어온 것이요 異質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示
唆點을 強하게 던져주고 있는것 같다.

그의 맑스-레닌主義에 對한 알맹이가 어쩌면 空虛한 부르짖음에
不過하다는 의심은 그 후의 그의 여러가지 公式聲明에도 繼續 나
타나는데 몇가지 事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47年 8月 28日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에서 한 그의 연설에서 보
면 그는 또 다시 맑스-레닌主義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는데,

“…… 우리 당은 선진적인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
무장하여야 한다. 일찌기 레닌은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
동도 있을수 없다.>>(레닌전집, 조문판, 5분 2분책, 112페이지)……선진적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선진투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같은책, 114페이지)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쏘련인민의 풍부한 경험,
세계 각국 혁명운동의 경험들을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력사와 현실
을 연구하는 그러한 교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³³⁾

즉, 여기에서도 金은 맑스-레닌主義를 理論적으로 說明하거나 教
養化하는 것이 아니라 當爲的 命題로 받아들일 것을 力說하고 있
을 뿐이다. 더구나 그는 레닌을 引用하고 소련의 경험을 칭송함으

註 33) 김일성 저작선집 (1), p.142.

로써 맑스-레닌主義가 들씌워진 (imposed) 느낌이 强하다 하겠다.

1948年 3月 28日 行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對해서 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⁴⁾

“당선전사업과 맑스-레닌주의적교양사업은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속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당선전사업과 맑스-레닌주의적사상교양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당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조국건설위업이 승리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합당이후 당학습교재와 선전자료 및 수많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출판하였으며……. 그러나 각 도당위원회 강사들은 정치시사강연과 맑스-레닌주의론 강연을 충분한 준비 밑에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말로만 떠들고 실지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 힘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인민대중 속에 우리 당의 립장과 정책을 선전하며 간부들과 전체 당원들을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당 선전 및 사상 사업을 훌훌시하거나 맑스-레닌주의리론학습을 게을리하는 경향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당적 비판을 가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반동분자들의 온갖 발광적

註 34) Ibid., pp.238-241.

음모를 분쇄하고 치렬한 계급투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 조선 및 사상교양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전당을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자각적열성을 고도로 높혀야 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北韓共產主義者들 특히 金日成은 맑스-레닌主義의 效用性을 누차 強調하고 있으나 그것의 內實이나 그 理論이 어떻게 (how) 黨과 人民의 연계성을 強化해 주며 北韓住民의 革命意識을 고취시켜 주는가에 對해서는 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北韓共產主義의 未來를 떠 맡게될 靑年들에 對한 思想教育事業에 있어서도 金은 단순히 “…… 靑년들을 선진적인 사상과 이론 즉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靑년들이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을 인식하게 하며 세계인민들의 고귀한 투쟁경험들과 세계문화의 보물고에서 가장 우수한것들을 연구하고 섭취하게 하며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를 연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³⁵⁾ 라고 力說하면서도 맑스-레닌主義의 北韓社會의 實踐的 適用性 및 理論的 妥當性을 立證해 주기보다 맹목적 믿음이나 이에의 條件 없는 熱性만을 강요한 感이 짙다고 할 것이다.

맑스-레닌主義에 對한 以上과 같은 音色 (tone)은 向後의 全革命期에도 繼續되는데,³⁶⁾ 이런 點은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의

註 35) Ibid., pp.264-265.

36) Ibid., pp.392-393.

一部를 形成한 것으로서 그것은 體系화된 理論으로 그 主義가 受用되었다고 보기보다 차라리 共產政權의 大衆動員手法上的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되었다고 보아 過言이 아닌 性 竝다. 왜냐하면 앞서 共產主義의 一般的 特性에서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大衆動員을 爲한 權威스타일은 權威主義적인 것으로 그것은 北韓의 共產化 革命期の 金日成에 對한 카리스마의 造作化에 부응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ideology)로서 體制動機를 맑스-레닌主義라는, 뜻은 잘 모르되 大衆을 一時的으로 興奮시키기에 充分的, 精神的 觸媒劑를 使用할 必要性이 絶對하였다고 推論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北韓共產體制的 革命期에 들쭉워진 外來·異質的 思想으로서의 맑스-레닌主義는 그것이 北韓社會에 自然的으로 잘 受用되었다기 보다는 強要되고 알맹이 없이 機械적으로 復唱注入된 느낌이 더욱 眞實에 가까운 듯 하다.³⁷⁾ 그 만큼 그 思想과 理論 體系는 未來에 있어서 變質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만 셈이 되는 것이다.

나. 體制形成 再編과 主體思想

1950年 6月 25日에 발발하여 1953年 7月 29日 休戰協

註 37) 이점은 김일성 자신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 차전원회의」에서 한 그의 1952년 12월 15일의 연설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다. Ibid., p.390.

定調印으로 一段 小康狀態로 접어든 滿3년이 넘는 韓國動亂은 南·北 雙方에 막대한 人命被害와 財産의 損實을 가져다 준것이 確實하다. 그 중에서도 北韓共產主義體制의 打擊이 더욱 심했던 것이 明白한 것으로서, 이는 “戰爭을 勝利로 이끌었다”고 떠벌이는 金日成 自身도 是認하고 있다. 즉, 그가 1953年 8月 5日 이른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한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題下의 報告에서 보면 “전쟁의 고통과 재난을 겪으면서 막대한 희생의 대가”,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인민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等等으로 그 참상을 證言하고,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 등을 내걸고 있다.³⁸⁾

이와 같은 全國土的 物量的 損失과 全社會的 人命被害를 겪고 나면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思考方式이나 價値觀 自體의 責任을 겪게 되는 것이 社會心理學上의 通說이라고 한다.³⁹⁾ 이런 點은 北韓共產主義社會라고 하여 例外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北韓은 戰爭遂行 過程에서 그 支援獲得과 中·쏘 理念紛爭 시작으로 말미암아 蘇聯과 中共의 눈치를 보아야만하는 處地에 놓여 소위 줄다리기式 外交路線을 擇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은 事實로 알려져 있다. 雪上加霜格으로 敗戰의 責任問題를 놓고 北韓共

註 38) 김일성 저작선집(1), pp.397-401.

39) Hahn-Been Lee,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 East-West Center Press, 19), pp.55-56.

産主義政權內部の 權力鬭爭이 深刻했던 것도 이제는 익히 잘 알려진 歷史的 事實인 것이다.

앞서 共產主義體制나 그 權威構造에 관한 一般理論에서도 본바와 같이, 革命期の 權威構造로서의 카리스마란 極히 一時的인 境遇를 除外하고서는 權威를 배태하지 않는 法이며, 카리스마가 배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權力일 뿐이다. 權力이 權威와 相異한 點은 後者が 正確性에 근거를 두는 關係라면 前者는 強壓과 공포에 基礎하고 있는 關係라고 밝혔다. 그런데 問題는 적어도 하나의 政治體制를 長期的으로 維持해 나가자면 權威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位置를 定하기가 무섭게 카리스마에 근거한 그 어떤 流動的인 權威를 잃고 새로운 權威를 確立 또는 再確立 할 必要性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 段階의 共產主義 指導者들은 權威確立의 必要性을 가장 절박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革命的 카리스마는 모두 사라지고 共產主義 엘리트와 그들을 따르는 以前의 大衆이 共히 相互에 걸었던 情熱이 환상과 의심, 그리고 증오로 변해 버릴지도 모르는 一種의 後遺症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戰爭을 치르고 난 金日成體制와 權威에는 심각한 타격이 不可避的이었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診斷이 된다. 즉, 그에게는 이른바 革命時期에 造作되었던 카리스마의 균열과 戰爭의 廢墟로 연유된 人民大衆價値觀의 變質을 再社會化 함은 勿論, 當面 國際情勢를 打開하기 위한 戰略戰術도 再編해야 했던 것

은 當然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體制의 建設 및 再編과 이에 뒤 받침되는 「權威의 原始的 蓄積」이 가장 시급한 問題로 登場하게 된 셈이다.⁴⁰⁾

權威의 原始的 蓄積 現象은 金日成에 關한 限 이른바 「主體思想」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것을 主武器로 國內的으로 南勞黨·延安派·蘇聯派를 「事大主義的 宗派分子」로 몰아 敗戰의 責任을 들 끼우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그것을 名分으로 하여 當時 흐르시초프의 스탈린格下運動에서 야기된 中·蘇 紛爭이라는 共產主義圈內的 새로운 國際情勢에서 中·蘇 兩國에 對한 一種의 流動的 中立路線을 取하게 된다. 따라서 「主體아이디어」는 一見 國內的으로는 原始的 權威蓄積으로 對外的으로는 北韓體制形成 및 再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겠다.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의 出帆과 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金日成은 1955年 12月 28日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題下에 :⁴¹⁾

“……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 것

註 40) 여기서 體制建設 및 再編이라 함은 戰前의 革命期에 異質的 思想을 造作된 權威인 카리스마로 밀고 나가고자한 것은 엄격한 意味에서 體制形成 以前 段階인 一種의 anomie 現狀으로 보는 데서 기인된다.

41) 김일성 저작선집(1), pp.561-571.

이 사상사업의 가장 주요한 결함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하면
어째가 있겠지만 사실은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못합니다. 이것
은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상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우리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
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
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소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
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
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 「주체」가 없다 하여 우리가 혁명을 하
지 않았다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혁명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물
론 아닙니다. 그러나 사상사업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교조주의자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되며 우리 혁명사
업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 우리의 정권형태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알맞게 만들
어야 할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형태가 다른 사회주의 나
라들의 정권형태와 꼭 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맑스-레닌주
의원리에서 출발한 점은 같지만 그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정강도
물론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는 정강입니다. 우리의 20개조 정강은

조국광복회의 강령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러한 것들을 똑똑히 모르기 때문에 왕
왕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 . . . 많은 동무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소화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혁명
적 창발력이 나올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 . 맑스-레닌
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
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형제당들의 경험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당들의 경
험을 연구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옹기 적
용하여야 그 경험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받
아들여 일을 망쳐버린다면 우리 사업에 해를 줄 뿐만아니라 형제
당들의 고귀한 경험까지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出帆된 이른바 「主體아이디어」는 前期 革命時期
. 의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이 맑스-레닌主義의 無修正·無
條件的 복창과는 사뭇 다른 論理로 바뀌어진 것이 確實하며, 「맑
스-레닌주의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실천」 한다거나
「형제당들의 경험을 우리 현실에 옹기 적용」한다는 等의 宣言은
權威의 原始的 蓄積 없이는 獨立的 體制形成이 不可能함을 自覺한
것으로 分析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그러한 「主體아이디어」가
力說되는 스타일面에서 보면 權威의 原始的 蓄積의 道具로 使用되

는 強壓的·組織的·說得的인 音色을 엿볼 수 있는 것이 特性이라 하겠다.

또한 金日成은 主體思想의 內容에 對해서는 1967年 12月 16日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라는 題下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⁴²⁾

“공화국정부의 정강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조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강의 실현은 우리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킬 것이며 우리 인민의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1972年 4月 3日에서 10日까지에 걸쳐 金日成의 회갑을 記念하기 爲하여 평양에서 열렸던 이른바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서 北韓의 政治要員이자 思想擔當秘書인 楊亨燮의 討論에서는 기왕에 주장된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그 나름대로 整理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要約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主體思想」의 概念은 二大支柱인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으로 構成되며, 前者는 ① “남에 대한 의타심을 버리고”, ② “자기머리로 사고하며”, ③ “자기힘을 믿고”, ④ “자립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註 42) 金日成主體思想關係資料集(국토통일원:국통조 76-11-40), pp.635-636.

⑤ “자기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태도”를 意味하고, 後者는, ①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②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원리와 다른나라의 경험을 자기나라의 역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自主的 立場」은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이고, “자기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혁명적태도와 觀點”이며, 한편 「創造的 立場」은 “혁명과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민족의 특수성을 옹기 결합”시킨 것이니,⁴³⁾ 要컨대 맑스-레닌主義原理를 지키면서 그것을 北韓의 具體的 條件에 맞게 適用하고 發展시키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은 北韓에 關한한 體制形成 및 再編의 名分으로서, 또한 그 體制를 뒷받침하는 權威構造로서 約 15年 以上을 持續해 온 셈이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權威스타일은 大端히 權威主義的이고, 또 體制動機는 「전후인민경제복구」를 위한 「천리마방식」이니 「천리마운동」 등으로하여 強한 物質的 性格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期間동안의 動員類型의 特性으로는 體制形成 및 再編에 머물렀다고 診斷할 수 있을 것이다.

註 43) 金甲喆, 北韓 「主體思想」에 關한 研究 (韓國外國語大學大學院: 政治學博士學位論文, 1976), p.54.

다. 體制維持와 金日成唯一思想

앞서 共產主義體制와 權威構造에 關한 一般的 考察에서 共產主義體制가 原始的 權威蓄積을 通하여 體制形成에 어느 程度 成功 하고나면 다음으로 그 體制를 維持해 나가야하는 段階에 접어들 것이며 그에 必要的한 權威構造는 이른바 民主的 中央統制라고 하였다. 바꿔말하면 共產體制에 關한 限 體制構築에의 成功은 體制自體의 權威를 強化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同時에 그것을 위협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權威를 強化하는 要因의 代表的인 例는 政權의 長期化로 보았는데, 確實히 共產政權의 長期執權은 政權에 對한 追從을 하나의 習慣으로 轉換시켜 버리는 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 하였다. 어느 體制고 간에 그것이 數十年을 지탱하고 보면 그 속의 市民들에 依해서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習慣은 共產體制가 여타의 代替可能性있는 體制的 要素를 成功的으로 除去하면 할수록 深化되게 마련이다. 즉, 市民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代替可能體制에 對한 希望이 사라지고 난 다음, 共產政權의 權威가 상당히 高調되기 때문이다. 共產體制의 長壽는 그에게 盲從이 비단 습관으로 化해 버리는 것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體制의 組織이나 運營이 차라리 하나의 日常生活化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現象은 體制自體가 內面化되는 것으로, 共產主義者들이

흔히 「民主的 中央執權主義」라고 하는 權威構造이다.

이런 「主義」의 內面化가 共產黨으로 하여금 보다 廣範한 大衆을 體制로 參加시키도록 動員할 수 있는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共產政權의 教養注入에 對한 줄기찬 努力은 人民大衆의 底邊層이 共產統治의 組織上 特殊性을 內面化하는데 寄與할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思想의 基本教養을 內面化 시키는 役割을 한다고도 보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1980年代의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理論的 特性을 觀察해 보자.

金日成은 1970年 11月 2日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른바 3大革命을 力說하고 있다. 3大革命이란 ① 思想革命 ② 技術革命 ③ 文化革命이 그 內容인데, 金은 이들 中에서도 특히 思想革命에 最大의 力點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依하면 思想革命은 곧 「온 社會의 革命化 및 勞動階級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⁴⁴⁾ 이것은 北韓의 客觀的인 社會實情이야 如何든 間에 적어도 金日成 自身の 主觀으로는 北韓도 體制維持期에 접어들었으며 「民主的 中央集權主義」가 權威構造面에서 可能的인 것임을 宣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全社會의 革命化 및 勞動階級化를 爲한 理論的 武器로는 前期에 形成된 主體思想을 더욱 廣範圍하게 더욱 철저하게 宣傳·浸透시켜 이제는 맑스-레닌主義를 補強하며, 심지어 그것을 능가하면 新紀元

註 44) 金日成主體思想關係資料集, op. cit., p.716.

的 思想이라 主張하게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의 強度나 適用範圍가 深化된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을 北韓에서는 「黨의 唯一思想」, 「金日成唯一思想」, 심지어는 「金日成主義」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적(的)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⁴⁵⁾

이러한 내용으로 出發한 唯一思想은 1972年 4月 3日 부터 열린 이른바 北韓의 社會科學者大會에서 宣傳的으로 體系化되고 소위 「金日成主義」화된 것 같다. 이 社會科學者大會는 그 會議의 表題 (title)에서 부터 그러한 意圖가 역역히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表題와 細部項目의 論題 그리고 項目別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⁴⁶⁾

表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 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고 달고 무엇보다도 金日成의 革命思想은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 그 자체」라고 力說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그들의 論旨는:

註 45) Ibid., pp.757-759.

46) Ibid., pp.787-870., *passim.*

“…… 우리 시대앞에 나선 이 모든 새로운 이론실천적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주기 위하여서는 기성이론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였으며 이러한 근본립장을 밝혀주는 새로운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을 창시하여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과 근본요구들에 가장 정확하고 전면적인 해답을 준 사상입니다.”

“<<…… 우리 당은 이때까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일반원리를 지침으로 삼아왔으며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내놓았거나 실천에 옮겨놓은것을 적지않게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 놓은것 가운데서 많은것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맑스나 레닌의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시대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예견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해결하여 놓았습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내어 놓은 명제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였거나 중등정도로 발전한 나라들의 사회력사조건과 그 당시의 혁명실천의 객관적요구를 반영한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내놓은 명제들과 원리들을 오늘의 혁명실천의 산 지침이 될 수 있게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서 절박하게 나선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새로운 혁명리론을 창시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적 요구이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혁명의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요구와 이러한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적령도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사상입니다.”

要컨데 「主體아이디어」로 出發한 北韓共産化를 爲한 도구로서 思想들이 體系化되어 하나의 新紀元을 이루는 獨自的인 思想으로 되었다는 主張인 것이다. 그 밖의 이 「金日成唯一思想」이나 「金日成主義」의 定義나 機能을 보면:

첫째, 金日成의 革命思想은 「主體思想」을 진수로 하는 「맑스-레닌주의적 思想理論體系」라는 것이고, 둘째, 그 理論體系는 「人民의 革命鬭爭에 關한 理論과 戰略戰術」로 機能하며, 셋째, 그것은 또한 「社會主義·共産主義建設에 關한 科學的 學說」로 役割하며, 넷째 「革命과 建設에 對한 領導原則과 革命的 群衆路線에 關한 創造的 理論」으로서 北韓社會科學의 基礎일 뿐만 아니라, 이에 依해서 北韓의 三大革命이 成功的으로 達成되어, ① 思想作業에서는 全體人民 大衆의 勞動階級化에 ② 技術革命에서는 高度의 生産性에 依한 産業社會를 建設하는데, 그리고 ③ 文化革命에서는 온 社會를 인텔리

化하여 階級이 중국적으로 打破되는데 成功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以上과 같은 主張은 1980年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 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되풀이 되고있는 것으로 傳한다. 다만 이번의 6次黨大會에서는 새로운 權力造成을 形成하고 1980年代의 「社會主義革命과 建設課業」을 提示하는 過程에서 첫째 소위 「首領決定論」에 依한 權力承繼의 準備作業으로서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의 地位가 公式化되었다는 것과 둘째 「金日成主義-主體思想」이 아예 맑스-레닌主義 代身으로 크게 내세웠다는 點이 理論적으로 볼때 特記할만하다 할 것이다.⁴⁸⁾

이와같이 볼때에 確實히 北韓共產主義體제도 저들의 主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動員類型으로 보아 體制維持期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하는 느낌을 준다. 卽, 體制形成 및 再編時期的 原始的 權威蓄積에서 進一步하여 當時의 스탈린主義的 政權의 性格이 三大革命等の 成功主張으로 제법 物量的 體制動機를 높이고 動員的이고 強制的 性格이 다분하나 參與主義的 權威스타일을 強調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客觀的인 分析으로는 이러한 모든 變數들이 北韓共產主義에 관한한 다분히 捏造的이고 宣傳的인 面이 強한 것이 事實이라면, 차라리 金日成偶像化 共產主義體制로는 類例없는 世襲制

註 47) Ibid., pp.1123-1140.

48) 時事情報資料(國土統一院:第 24 輯, 1980年 11月)

構築等으로 말미암아 이 時期에도 新카리스마(neo-charisma)에 依
한 新革命期 내지 體制再編期の 印象을 強하게 풍기는 것이 숨길
수 없는 事實로 보인다.

IV. 結 論

우리는 北韓共產主義體制的 態度나 行態를 볼때마다 그들이 異質的인 外來 思想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依한 政體임을 알면서도 變態的이고 特異하다는 느낌을 한결 같이 가져 왔음이 事實이다. 이러한 느낌은 本 研究에서는 比較共產主義的 觀察을 爲한 하나의 問題意識을 불러 일으키기에 充分한 것이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共產國家 全般의 體制的 特性和 權威構造를 살펴 보고 그것들로 부터 어떤 共通的인 特性을 먼저 導出하고 그에 投影된 北韓의 모습을 들여다 본 셈이다. 굳이 共產主義理論을 研究함에 있어서 그들의 體制的 特性和 權威構造를 問題삼는 理由는 그들이 바로 理論形成의 內實 및 對象이 된다는 社會科學的 問題認識에서 였다.

이렇게하여 形成된 共產主義論理一般에서 본 北韓의 경우, 이와 엇비슷하게 나가면서도 그들 特有的 理論的 獨斷과 理論的 矛盾이 相當히 크다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 卽, 革命時期에 있어서 그들의 카리스마造作은 카리스마의 造成이 아닌 金日成에 對한 무리한 카리스마의 「操作」이었음을 알았다. 또한 體制形成期の 金에 對한 原始的 權威蓄積의 過程에서는 이른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力, 國防에서의 自衛 그리고 무엇보다도 思想에서의 主體性的 確立이라는 뜻의 이른바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을 그 武

器로 使用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主體思想」은 그들의 宣傳이 무엇이든 間에 當時 北韓共產主義者들이 直面해야 하였던 內外的인 政治情勢가 實踐的 理由를 強要한 것으로 思想이나 理論 그 自體가 共產主義一般理論의 흐름과 同一한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體制維持時期라고나할 近者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北韓體制自體를 더욱 排他적으로 단으면서 이른바 「黨의 唯一思想」 및 「金日成의 唯一思想」 내지 심지어는 「金日成主義」라는 獨特한 主義·主張을 내걸면서 마치 이것이 「맑스-레닌的 絕對眞理」로 自處하고 宣傳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아마도 共產體制的 世襲獨裁化를 爲하여서는 이와같이 理論面에서도 突然變異的 論理가 必要한 지도 모른다. 그러나 同時에 우리들은 이러한 主義·主張이 어디까지나 「主張과 宣言 (doctrine)」이나 「獨斷 (dogma)」은 될수 없으며 科學的인 「理論 (theory)」이나 普遍的 「思想 (ideology)」 및 「主義 (-ism)」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도 證明한 셈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確實히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 體制나 權威 그리고 저들의 理論構成의 面에서 突然變異性을 갖고 있음이 診斷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北韓共產集團의 特異性은 그것이 變異的이기 때문에 그 政策形成이나 政策遂行面에 豫測을 不許하는 것도 嚴然한 事實임에 우리는 恒時 깊이 注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突然變異가 「골치거리」인 것은 그것이 어떤 一般法則이나 蓋然性으로 說明하기 어렵고, 이에의 對備가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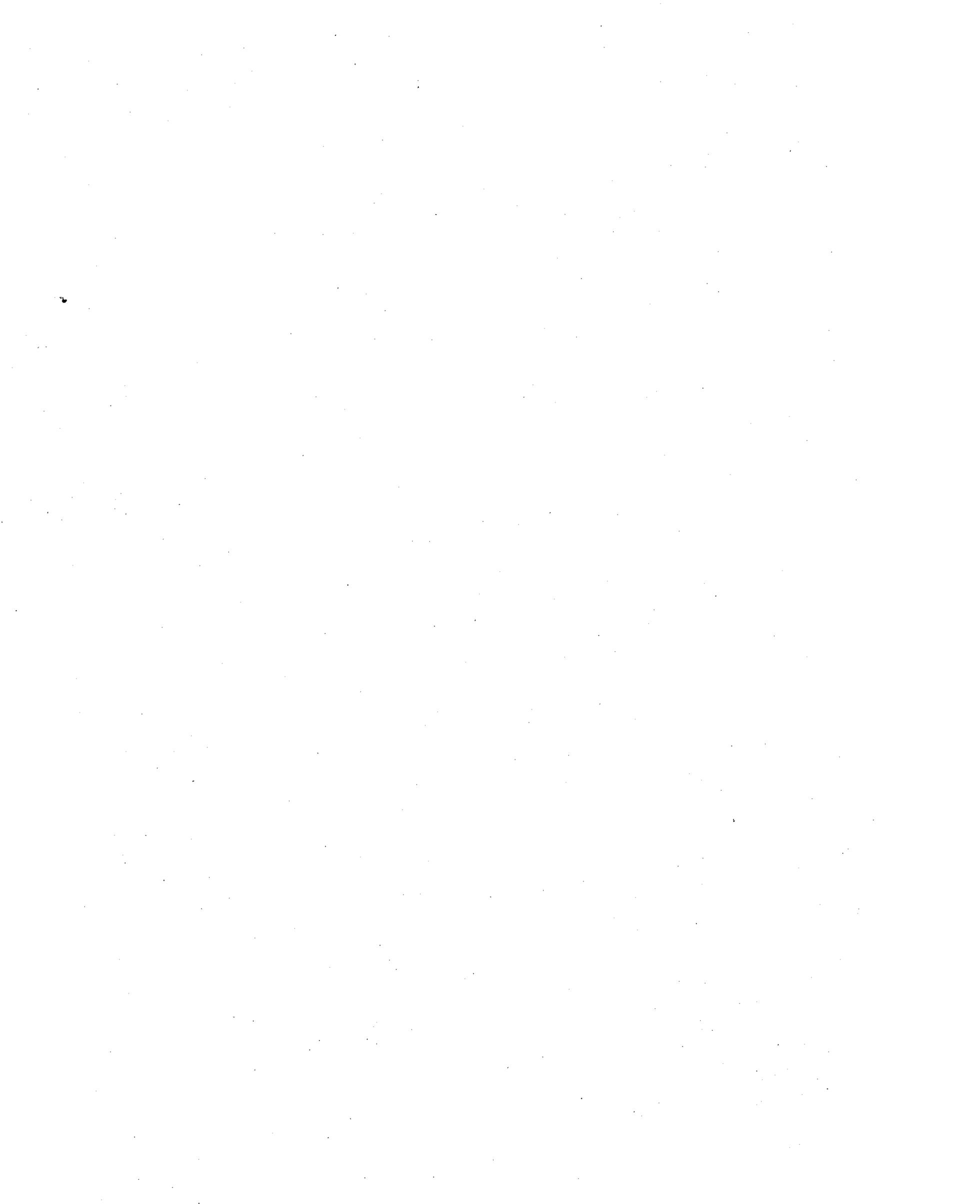
北韓共產主義思想體系와 權力構造

李 光 雨

(北韓問題研究所 研究委員)

目 次

I. 序 論	137
1. 問題의 提起	137
2. 研究方法	138
II. 北韓 勞動黨의 主體思想 形成의 背景	140
1. 主體性 論議의 一般的 傾向	140
2. 歷史的 背景	142
3. 解放後의 體制形成 經驗	147
III. 主體思想 論理	150
1. 人間主體概念의 導入	150
2. 主體의 確立	154
3. 主體思想의 定義	157
IV. 主體思想의 展開	160
1. 思想에서의 主體確立	160
2. 自主性的 擁護와 革命	167
V. 主體思想의 實踐	170
1. 基本路線	170
2. 當面重要政策	174
3. 權力構造의 性向	179
VI. 結 論	183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25週年 慶祝辭에서 祖國의 平和統一構想을 밝혔든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宣言은 우리 民族史에 一大轉機가 되었으며, 그에 隨伴한 一聯의 事態는 70年代 韓半島의 政治構造 속에서 우리가 對處하고 있는 發展 狀況을 過去와는 다른 次元에서 多角的으로 分析하는 努力을 要請하고 있다.

現在 南北對話로 表現되는 韓半島의 南北關係 進展과 並行한 各種 事態는 우리로 하여금 樂觀을 不許하게 한다.

그러나 歷史의 發展에 起伏이 있고 人間社會에 戰爭이라는 流血의 政治가 存在할수 있다고 想定할지라도, 人類史의 大潮流와 우리 民族의 歷史意志는 우리의 努力이 繼續되는 限 우리의 最高目標인 民族의 統一達成을 保障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 目標를 향해 前進하는 途程에서 許多한 試練을 克服해야 한다.

兩極的 冷戰體制下에서 過去 우리가 經驗한 狀況과는 判異하게 複雜한 內外變數가 作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南北關係의 發展은 그 對決狀況에 變化를 招來하였으니 例를 들자면 軍事對決樣相은 隱性化되고 反面 思想對決은 陽性化되는 傾向에 있으며 따라서 相互往來와 直接對話의 進行은 各己 體制를

背景으로한 理論對決이 具體化되고, 相互間 體制를 開放 擴大하는 傾向에 따라 이데올로기 對決을 尖銳化하여 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 思想 理念 體制를 超越하여 非敵對的인 모든 나라하고 友好交流하겠다는 韓國政府의 方針은 이 問題點에 附加的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過去 韓國國民의 相當 部分은 北韓共產集團이라는 對象을 通해서 共產主義를 一方的으로 認識하여 왔던 經驗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推定이 正當하다고 볼때 一聯의 到來할 새로운 事態에 對處해서 國民의 思想的 衝擊과 一時的 混亂을 豫想하는 것은 無理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國民의 思想的 衝擊과 混亂을 豫防하고 相對의 理念 對決에서 勝利할 수 있는 準備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다.

2. 研究 方法

本 課題는 北韓共產主義思想體系의 研究가 中心이 되어야 하므로 北韓 共產主義者 集團이 自體의 體制를 防禦하고 發展시키기 위해 構成 表現한 思想的 形態와 內容에 檢討의 重點을 두기로 한다.

따라서 北韓 共產主義 理論의 源泉인 맑스·레닌主義와 北韓 共產主義思想形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는 「스탈린思想」이

나 毛澤東思想 等은 本稿에서는 一般的으로 그 本質의 究明에 對한 論及은 省略하기로 한다.

共產主義에 對한 究明과 批判은 막스·엥겔스가 1848年「共產黨宣言」을 한 後 現在까지 125年間に 著名한 學者, 思想家, 政治家들에 依해서 이룩한 成果를 參考로 하면 될 것이고 本 課題는 우리가 對決하고 있는 北韓을 正確하게 認識하는데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北韓을 認識하는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發表한 資料를 中心으로 直接 分析 檢討하여 問題의 所在에 接近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北韓이 近來에 極力 내세우고 宣傳하고 있는 統治 「이데오로기」로서의 “主體思想”을 根幹으로한 反民族的 宣傳內容의 實態를 파악하여 그들의 「思想事業」과 宣傳方向을 究明하고 나아가 共產主義 批判과 南北對話 및 政治思想教育의 參考資料를 導出하는데 目的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 實態를 보다 더 根本的이며 具體적으로 批判하기 위해서는 合當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며 別途로 研究가 要請되리라고 본다.

Ⅱ. 北韓勞動黨의 主體思想 形成의 背景

1. 主體性 論議의 一般的 傾向

우리가 듣기에 어색할 정도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主體」「主體思想」을 빈번히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勞動黨의 「唯一思想」이니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라고 極口 宣傳하고 있다.

그러나 主體性에 對한 論議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唯一思想」에서 唯獨 「唯一」하게 主唱하는 그런 式의 「主體」 또는 「主體思想」만으로 理解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一般的으로 主體性이 논의되는 傾向은 政治的 經濟的 또는 社會的 不安에 處한 나라에서 發生하고 그 나라의 經濟的 發展과 政治的 安定에 따라 漸次 退潮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主體에 對한 反省은 역사의 一定한 段階에서 後進國이나 新生國들이 지켜야 할 不可避한 關門이다. 弱少國의 경우에는 大國들의 強大國 政治의 渦中에서 精神的 自己同一性 (Identity)을 確認하기 爲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찌기 日本도 戰爭에서 敗하여 天皇을 위시하여 日本人의 主權이 聯合軍 最高司令部에 예속되었을 때에 日本社會에서는 「主體論爭」이 熾烈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戰後 「맑시즘」의 물결에 事實上적으로 對抗하기 위한 主體的 立場이 問題된 일이 있었다.

戰後 西歐에 實存主義思想이 독일과 佛蘭西를 中心으로 만연하였던 것은 방황하는 自我意識을 確立하기 위한 時代的 要請을 反映한 것이다. 卽 무엇보다도 진정한 「自我」란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西歐 各國의 實存主義思想은 西歐文明을 威脅하는 共產主義에 對處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重大한 役割을 擔當해 왔다.

本來 反省이란 行爲의 길이 一端 막힐 때에 싹트는 것이고, 進路가 確定되어 行動으로 實踐된 다음에는 主體性的 確立이 現實的으로 具現됐으므로 空論化되는 傾向에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우리 韓國에서의 主體性的 論義는 그 初期的인 形態에 있어서 歷史學을 專攻하는 教授들에 依해서 展開되었으며 나중에 各分野에 波及해 온 것으로 보고있다.¹⁾

그 후 本格化되고 具體적인 論爭이 시작된 것은 5.16 革命으로 부터 第三共和國이 發足할 무렵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民族主體性的 確立」과 祖國의 近代化, 民族의 中興을 國家目標로 提示하여, 우리 社會에 새 氣風을 振作하였으며, 一時 「民族的民主主義」에 對한 論爭은 우리의 主體性 確立과 民主主義 土着化를 위한 歷史的 陳痛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후 10餘年이 지난 1972年 3月 24日 全國教育者大會에서 朴大統領은 앞으로의 教育은 “內外的 試鍊을 克服하고 우리의 使

註1) 「국토통일」 1971. 2월호 (조가경교수 논문) 북한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의 실천 개념과 민족적 주체의식의 문제, p.20.

命을 다하기 위해…… 主體的 民族史觀을 定立하여…… 우리 民族의 傳統과 國家의 自主性を 지키며 民族主體思想을 確立, 國力培養을 위한 自主, 自立, 自衛의 三大目標를 추진해야 한다”고 力說하였다.²⁾

以上과 같이 共產國家나 北韓에서 뿐 아니라 自由陣營의 여러나라에서도 主體性的 問題는 討論되기 마련이며 어느 民族이나 國家이든지 그 나라의 當面한 歷史的 狀況에 따라 「主體」의 問題는 論議될수 있으며, 各己의 差異는 言語의 表現形式 보다는 思想的 社會的 內容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北韓의 「主體思想」을 考察해 보겠다.

2. 歷史的 背景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金日成이 演說을 통해서 「主體를確立」 할 것을 促求한 公式的인 始初는 1955年 12月 28日 그들의 宣傳煽動員들에게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題目으로 教示的 演說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內容을 檢討하여 보면 “革命傳統”의 繼承을 強調하고 黨의 組織路線을 貫徹하기 爲해 黨的 思想體系 確立의 背景으로서 解放前의 「抗日武裝鬪爭」等 「共產運動」의 經驗에서 얻은 「教訓」 卽 「宗

註 2) 1972 . 3 . 24 . 대구 전국교육자대회 「박대통령 치사」 참조

派分子」들의 영향, 「民生團」과의 鬪爭, 宗主國의 변덕과 中國共産黨으로부터 無視 당했던 時節의 思想鬪爭과 「自力更生」 精神 등을 宣傳하고 있다.³⁾

그외에도 金日成의 權威를 세우기 위한 方法으로 過去를 造作的으로 宣傳하여 「思想傳統」의 背景으로 삼고져 하는 努力을 볼 수 있다. 72年 9月에는 過去보다는 比較的 「體系的」으로 外國 記者들에게 「主體思想」이 나오게 된 經緯에 對해 自己의 所謂 「祖國의 自由獨立鬪爭 過程에서 얻은 經驗」과 解放後의 經驗을 내세우고 있다.⁴⁾

勿論 解放과 權力 形成의 初期에 提起된 問題點들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많은 反省과 對應策을 강구하게 했을 것이다.

소련軍의 占領과 소련式 統治方法의 移植은 소련 追從一邊到의 風土를 造成하였고 日帝統治의 타성은 相乘的인 結果를 招來했을 것이다. 이에 對한 方策으로 金日成은 解放直後인 1945年 가을 “우리 民族의 鬪爭歷史를 研究하여 우수한 傳統을 繼承해야 한다.”고 力說했다는 것이다.⁵⁾

初期의 權力形成側面을 참작할지라도 各地에서 모여들고 各派들이 參加한 「雜多한 構成」으로 「宗派分子」들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

註3) 1955.12.28. 金일성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4) 1972.9.17. 日本毎日新聞記者와의 會見內容 「主體思想의 몇가지 問題」

5) 1955.12.28. 金일성 연설.

며, 위로부터의 「革命」으로 인한 「群衆路線」의 虛弱성과 民族勢力의 抵抗은 共產黨의 體統을 세우기에 支障이 許多하여 對策으로 民族勢力을 一時 利用하였다가 國內派 共產主義者 等과 같이 肅清을 繼續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1950年 4月에는 소련에서 民族理論의 修正이 있었고 大陸에서는 中共의 建國과 新中華思想이 提起되었다. 6.25의 南侵과 失敗, 中共軍의 介入과 그 영향, 戰爭 失敗의 混亂과 權威喪失, 그에 對한 對應策으로 뻔뻔스럽게도 「祖國解放戰爭論」을 내세워 「愛國主義」를 鼓吹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戰爭失敗의 責任을 轉嫁하기 爲해 南勞黨派에게 터무니 없는 罪名을 씌워서 無慈悲하게 속칭하고 큰 소리치는 뻔뻔스러운 그들의 行爲는 滿天下가 周知하는 事實이다.

社會主義의 「土着化」가 이룩되지 못하고 社會主義 計劃의 強行에서 오는 住民들의 염증과 「革命意慾」의 減少 等 問題點을 안은채 宗主國 소련에서는 大事變이 發生하였으니 그것은 “스탈린”의 死亡과 “후루시초프”路線에 依한 “스탈린”格下運動과 修正主義的 平和共存政策이었다. 그 衝擊이 北韓에 미치는 영향은 莫大한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金日成 支配體制 內部에서 소련을 다녀온 박영빈이가 美蘇關係改善을 參酌하여 對美關係를 變更해야 한다는 緊張緩和提議가 있었다는 것을 金日成은 指摘하였다.⁶⁾

註6) 1955.12.28. 김일성 연설.

또 한편으로는 南勞黨派를 숙청하였으나 反金勢力的 存在와 威脅은 如前하였으며 共產圈內部에는 漸次로 獨自路線의 傾向等 問題點이 露出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金日成은 一人支配體制의 基礎를 確立하기 爲해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中共式 追從)와 修正主義(소련式 追從)을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 것을 促求하였으며 그 名分下에 朴昌玉을 비롯한 소련派를 숙청하였고 金科奉을 비롯한 延安派까지 숙청을 強行하였다. 이에 對한 大衆의 疑惑은 「主體」思想 強調로 무마하고 더 以上 思考할 餘裕를 박탈하기 爲해 自力更生의 口號아래 「千里馬運動」을 展開하여 經濟建設에 動員 驅使하였다.

60年代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革命傳統」을 繼承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統一하겠다는 所謂 「南半部 解放」論을 完全 無色케 하는 事態가 發生하였다. 韓國의 4.19와 5.16 革命, 韓日國交正常化는 金日成의 立場을 難處하게 하였다. 쿠바 危機에 對한 宗主國의 態度에 失望하였고, 中蘇紛糾의 激化는 國家利益의 相克과 衝突의 事態까지 發生하였다.

1965年 4月 「인도네시아」를 訪問한 金日成은 4月 14日 PKI (공산당)의 「알리·아르함」 社會科學院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政治學講演」을 하여 「主體思想」의 成果를 海外에 宣傳하고 友好協助를 다짐하였으나 4個月 後인 8月에는 政變으로 事態는 一變하여 PKI와 「스카르노」가 滅亡하였으니 金日成은 失望이 컸

을 것이다. 中共一邊倒의 印象을 씻고 方向의 調整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越南戰의 樣相은 變化하여 美國은 北爆을 斷行하고 (1965.2.7) 아세아의 共產政權을 緊張시켰다. 韓國軍의 派越과 軍裝備의 現代化 推進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切實한 需要에 즈음하여 機會主義的 打算과 實利的 對應을 하도록 하였으니 「自主性 宣言」으로 10大政綱을 採擇하여 自主, 自立, 自衛 原則을 내세운 政策追求와 黨集中指導事業에 依한 一大住民숙청 事業을 進行하였고 四大軍事路線에 依한 全國家的 全人民的 防衛體制確立 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 하나의 놀라운 事件은 1967년에는 金日成의 「抗日戰爭」의 「戰友」이며 心腹으로 認定되었던 「甲山派」까지도 숙청하여 그의 唯一體制 確立이 極에 達하게 하였다는 印象을 주었다.

70年代에 들어오자 緊張緩和傾向의 進展에 따른 極東情勢의 解氷과 4強體制의 形成의 具體化, 韓國의 經濟發展과 國際的 進出은 北韓 金日成으로 하여금 態勢轉換을 試圖하게 하였다. 韓國의 平和統一宣言과 積極姿勢는 또 다른 角度에서 金日成에게 一聯의 平和統一攻勢를 展開하게 하여 平和統一方案 8個條項의 提議와 南北對話 呼應으로 變化하게 하였다.

72年末에는 憲法을 改正하여 一人支配體制를 보다 確固하게 唯一思想體系로 整備하였다.

3. 解放後의 體制形成 經驗

金日成은 「主體思想」이 나오게 된 經緯를 說明하면서 7) 解放直後의 形便과 6.25 戰亂 後의 社會主義建設의 經驗을 說明하였다.

“祖國에 돌아와서 「새조국」을 建設하기 위한 方案을 解決하려 하였으나 國家管理와 經濟運營의 經驗이 없었으며 우리나라의 後進性과 南北分斷 等 어려운 條件下에서 至極히 困難하였다”고 한다. 그렇다 해서 處方을 旣 곳에서 얻을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따라서 自體解決을 不可避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卽 自力更生과 主體的 自覺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昻착한 先決 問題는 悲慘한 狀態에서 脫皮하는 길을 찾기 위해 “資本主義의 길로 나갈 것인가? 社會主義의 길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果然 共產主義者로 自處하는 金日成이 이러한 虛信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金日成은 資本主義에로의 길을 갈수 없었다는 口實을 宣傳的으로 羅列하면서 그렇다고 당장 社會主義로 나갈수도 없었다고 한다. 社會主義로 넘어가기 전에 解決해야 할 「民主主義革命課業」에 當面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實情에 맞게 「創造性」을 發揮하여 經濟制度는 勤勞大衆의 利益에 合致하고 廣範한 人民大衆을 묶어 세울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 實情에

註 7) 1972.9.17. 日本每日新聞記者會見

맞고 民主的인 社會改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自己머리로 主體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土地改革을 하는 것이 “우리” 農村實情에 適合하겠는가를 研究하여 그들의 經驗이 남의 것을 形式的으로 模倣하는 것 보다 自己 問題를 自己實情에 맞게 自體 解決하기 爲해 努力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것을 實證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解放後 “새조국 건설의 鬪爭”을 통해서 「主體思想」의 正當성이 實證되고 또 確信을 갖게 되었다고 宣傳한다.

다음에 金日成은 “美帝國主義者들”과의 3年 戰爭後의 社會主義 建設의 困難과 그들의 特殊性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宣傳한다.

戰後의 與件으로서 資本家와 富農所有를 수탈하는 方法이 不必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理由로는 戰爭으로 다 破壞되어 모두 無產者化했으며, 資本主義 經理를 그들 政權이 復活시킬 必要도 없었다고 한다. 中小企業者들도 反帝鬪爭共同戰線이 可能하고 後進 工業國으로서 民族資本 保護의 必要性을 認定하기 때문에 그들의 살길은 協力하여 社會主義의 길로 前進하는 것 뿐이며, 手工業 技術도 協同하는 것이 個人經理 보다 優越하고 農民들의 切實한 要求는 農民들이 相互協同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맑스·레닌주의」의 命題라고 한다. 이와같이 工業化 實現에 앞서 農村經理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대담하게 推進하는 것이 그들의 「獨創的인 길」이며, 中小企業과 富農을 收奪할 必要없이 協同組合에 網羅 改造했던 것은 그들의 「獨特한 길」을 택하였다고 하여 結論적으로 “生活은 어떤 既存公式이나 命題에 매달리는 것보다 자기 나라 人民의 利益과 자

기 나라의 實情에 맞게 모든 問題를 解決해 나가는 「우리黨의 路線」이 옳다는 것을 또 다시 確證하여 주었다”고 主張했다.

Ⅲ. 主體思想의 論理

1. 人間主體概念導入

「主體思想」에 基礎한 靑少年 教育問題에 言及한 金日成은 “ 사람이 모든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것이 「主體思想」의 眞隨이다.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世上에서 가장 貴重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 있는 存在도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事業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成果 與否는 사람과 의 事業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人間中心」 「人間萬能」 概念이 共產獨裁者의 口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의 通念으로서는 異常하게 느껴진다.

金日成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며 革命과 建設을 主動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는 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自己運命의 主人은 自己 自信이며 自己運命을 開拓하는 힘도 自己 自信에게 있다는 思想”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인간을 「行爲의 主體」 「運命의 主體」로 풀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金日成은 以上과 같이 陳述하고서 意外로 겸손하게 “이와 같은

註8) 1972. 9.17 김일성 기자회견 「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思想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發見한 것은 아니고 맑스·레닌主義者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만 나는 이와 같은 思想을 特別히 強調했다”고 「主體思想」을 共產主義者들의 通念으로 提示했다.

以上과 같은 金日成의 主張을 通해 北韓의 權力 「엘리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檢討해 볼 만 하다. 우리는 共產主義와 金日成과 北韓實態를 여러 모로 批判해 왔으며 批判의 「메스」로 「亂刺」된 것을 보는 例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金日成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대로의 「原型」을 보고 檢討하기로 한다.

人間主體概念을 말하고 人間中心思想을 論한다고 해서 그 論者를 人道主義者로 보거나 그 思想을 人道主義的이라고 速斷하여 認定할 수는 없는 것은 우리의 常識이다. 더욱이 北韓의 「主體思想」을 그들 스스로 金日成 「唯一思想」이라고 하며 또 金日成은 「우리黨」의 「唯一思想」이라고 부르며 서로 權威를 세워주는 것은 그 「思想」이 그 時代 그 社會의 普遍性을 갖는 思想이 아니고, 어떤 思想的 立場의 一定 部分이 言語表現을 通해 政治적으로 黨派的 支配와 動員을 爲해 利用되는 極端的이고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다. 卽 金日成의 一人支配 體制를 防禦하기 위한 思想的 政治道具로써 이데올로기적 「슬로건」에 不過한 것인데 이러한 말 몇 句節로 人間性을 論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슨 根據와 目的에서 이러한 表現을 했을까를 簡單하게 推定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權威를 喪失하고 危機에 이르고 있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再生을 爲해 權威의 源泉에로의 소급現象으로 볼 수 있다. 共產主義의 權威의 源泉이란 「맑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頽廢하여 危機가 닥아 오면, 必然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이데올로기가 從來 維持하여 왔던 權威의 源泉이 追求되는 것이다. 마치 연어와 송어가 產卵地를 향해서 때를 지어 河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처럼 權威의 源泉을 향해서 思想의 소급 行次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 行次 目的은 勿論 危機에 處한 權威를 그 源泉으로부터 再確認하고 再確立하기 위한 것이지 權威를 打倒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⁹⁾

「맑스」의 初期思想에서 人間中心主義思想을 추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時期에는 아직 階級鬭爭 理論은 문제되고 있지 않으나 人間을 거의 萬能한 主觀으로 定立하고 特히 「헤겔」이 人間을 觀照하는 主觀으로서 理論的 (theorie) 本質을 重要視한데 反해 「맑스」는 行爲하는 主體로서 그 實踐的 本質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이다.

「맑스」의 初期思想에서 倫理的인 面과 人間中心思想이 있다고 해서 共產主義者들이 極力 排除하여 왔으나, 「스탈린」格下運動이 展

註 9) 「社會主義의 死滅と再生」 志水速雄 中央公論 1月號.

開된 後부터 소련 哲學界를 비롯해서 東歐圈에서 人間回復을 위한 人間主義的 社會主義思潮가 發生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이에 對한 解釋을 速斷해서는 안되겠으며 多角度로 分析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金日成은 그의 말처럼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を 固守한다는 口實로 自己 權威를 세우기 위해서 「맑스」思想의 源泉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逆說的으로 前述한 바와 같은 東歐의 人間主義的 思潮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고 스탈린의 新세를 면해 보려는 先手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세째로 毛澤東思想을 模倣하여 人間の 創造性概念을 導入하고 初期 中共革命運動式의 群衆觀點을 確立하려는 것으로 解釋되며, 스탈린獨裁와 소련式의 模倣者가 되기 보다는 中共을 創始한 毛澤東처럼 「人共」의 創始者로 權威를 세워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네째로 連續肅清의 「偉大한」業積으로 現在로는 權力에 挑戰할 政敵이 全無하니 이제는 「어버이首領」으로서 東洋的 專制君主風의 「로멘티시즘」을 풍기며 「仁慈하신」 「보살핌」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로 南北對話와 門戶開放을 위한 宣傳的 效果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註 10) 崔光石, “人間主義的 社會主義” 「北韓」 1973.4 月號.

그러면 主體思想을 提唱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金日成은 「主體思想」이 要求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람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服務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다른 角度에서 본다면 革命과 建設과 戰爭을 위해 勞動力과 戰鬥力을 所有한 存在로서의 人間이 貴重하겠으나 結局은 「모든 것을 金日成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金日成을 위해 服務하게 하자는 것」으로 바꾸어 말해도 無理한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主體의 確立

北韓의 「主體思想」에서 主體를 確立한다는 것은 “革命과 建設의 主人으로서의 自覺과 「主人다운 태도」를 堅持한다는 것”이라고 한다.¹¹⁾

“누구나 自己가 主人이라는 것을 알때 熱誠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金日成은 說明하면서 “過去에 抗日鬪爭할때 누가 돈을 주고 시켜서 했겠는가?”고 反問하고 人民大衆들이 革命을 하는 理由에 對해 “自身の 運命을 開拓하고 祖國을 救援하기 爲한 것이라는 것을 自覺하게 되고 勞動을 하는 理由는 自己의 幸福과 社會의 繁榮을 爲한 것이라고 自覺할 때 모든 힘과 熱誠을 다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勤勞者들을 覺醒하게 하려면 꾸준한 教育事業을 해

註 11) 1972.9.17. 김일성기자회견.

야 한다. 群衆을 教養하여 黨의 周圍에 튼튼히 단결시켜야 한다”
고 力說했다.¹²⁾

即 “主體를 세운다는 것은 主體的 自覺에서 出發”해야 함을 强
調한 것이다.

「主人다운 態度」 即 主體的 態度確立은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表現된다고 하고 人民의 利益과 나라의 實情에 알맞게 모
든 問題를 解決해야 하며 革命에 대한 信心을 갖고 自己 힘을 믿
고 自力으로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한다. 即 革命에 對한 樂觀
主義와 自力更生精神으로 武裝해야 한다는 것이다.

主體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積極的 姿勢가 要請된다는 뜻을 金日
成은 强調한다.

“모든 문제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主體가 없는것은 思想事業
의 最大缺陷”이라고 前提하고 “모든 問題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
고 것치레만 하며 (형식주의), 創造적으로 事業하지 않고 남의 것
을 빼껴다가 의우기만 하는가 (교조주의)?”라고 노동당의 선전 선
동일꾼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우리革命」을 옹계 遂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歷史, 地理, 人民의 風習을 알아야 人民을 「그들」의
口味에 맞게 教養할수 있고 「그들」이 自己 鄉土와 祖國을 사랑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 人民의 鬪爭歷史와 그 傳
統으로 教養해야 「그들」의 民族的 自負心을 북돋아 출수 있다고

註 12) 1955.12.28. 김일성 연설「사상사업에서……주체 확립」

「教示」했다.¹³⁾ 한 가지 注目할 것은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라고 極口 宣傳하면서도 金日成은 自己의 共產黨員인 部下들 앞에서 말할 때는 「革命鬪爭」에서 「우리」(主體)는 部下黨員들을 指稱하고 人民들을 「그들」(客體)로 呼稱하는 例를 指摘할 수 있다.

即 革命의 主人은 勞動黨이나 金日成이고 人民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眞意임을 露出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소련에게 배우라」고 強要했다가 이제와서는 크게 「反省」하여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한다고 하나 「教示」만을 따르도록 強要하면서 主人다음게 「創造的」으로 일하라고 하니 그야말로 「創造的」으로 研究할 難題라 하겠다.

金日成은 主體確立의 獨自性を 推持해야 한다는 뜻으로 過去 「鬪爭經驗」을 과시하면서 “主體를 세울 必要를 얼마나 절실히 느끼며 그것을 얼마나 強調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 그 나라가 처한 社會歷史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 金日成式 「自主路線」과 獨裁的 統治方式의 名分의 一端을 말했다.

「主體를 確立」한다는 主張은 宗主國追從 一邊到의 方式과 風土로는 一人獨裁體制를 推持하고 情勢變化에 適應하기에는 매우 危險하고 不利하다는 것을 痛感하고서 「反省」한 金日成의 方向調整方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註 13) 1955. 12. 28 당선전선동일꾼에게 한 연설.

3. 主體思想의 定義

北韓共產主義者들은 「主體思想」을 說明하거나 찬양할 때 思想內容은 一致하면서도 形式은 多少 多樣的 듯 하다.

1967年 12月 16日 金日成은 「自主路線」에 立脚한 「十大政綱」을 說明하면서 “우리 黨의 主體思想은 革命과 建設의 成果的 遂行을 위한 가장 正確한 「맑스·레닌」主義의 指導思想”이라 하였고 또 “「共和國政府」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 ”이라고 하였으며¹⁴⁾ 이번의 新憲法 第4條에서도 “共和國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金一은 “金日成이 創始한 唯一하게 正確한 맑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이라고 찬양하며¹⁵⁾ 金日成 「唯一思想」이라는 名分을 提示했다. 또 金日成 말에 依하면 “복잡한 革命鬪爭 過程에서 얻은 教訓과 經驗에 基礎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나라」 革命과 建設의 指導思想이다. 「우리나라」에서 主體思想은 社會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具現된 嚴然한 歷史的 現實이다. 主體思想을 깊이 把握하기 위해서는 우리黨의 政策과 「우리나라」의 現實을 具體的으로 研究하

註 14) 1967. 12. 16. 最高인위 제 4기 1차회의보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註 15) 「근로자」 1970. 1월호

는 것이 必要하다”¹⁶⁾ 고 했다.

北韓의 社會科學院 研究室長 이명섭은 “金日成思想은 革命과 建設의 主人인 人民大衆의 無窮無盡한 創造的 힘을 最大動員하여 社會主義 建設을 다구칠 수 있게 하는 革命的 思想”이라고 比較的 率直하고 「正確」하게 말했다.¹⁷⁾

이외에도 近來에는 北韓天地에서 모든 행사 집회와 出版物 新聞 放送 等 모든 「메스 미디어」를 통해서 「主體思想」「革命思想」「指導思想」「唯一思想」을 찬양 宣傳하기에 狂奔하면서 「多樣」한 「讚揚定義」를 하고 있으나 그들의 表現을 다음과 같이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革命과 建設을 하기 위해서는 主體를 確立해야 한다. 왜냐하면 革命과 建設은 人民大衆을 위한 人民大衆이 遂行해야할 事業이기 때문에 人民大衆은 黨의 주위에 (集團的으로) 團結하며 “主人다운 態度를 堅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革命과 建設은 自然과 社會를 改造해야 하므로 主人다운 態度는 當然히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을 要請하게 된다는 共產主義者 나름의 一般的인 論理展開가 成立될 것이다.

結論으로 要約하자면 “共產主義革命과 建設을 위해 「人民大衆」

註 16) 金日成 日本記者會見, 「主體思想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2. 9. 17.

註 17) 1973. 2. 27 「김일성노작 4주년기념」토론회 이명섭 연설.

의 힘을 最大로 集中 動員하기 위한 實踐指針”이라고 할수 있으며
특히 北韓의 경우에는 金日成 一人支配體制의 權威를 確立하기 위
해 金日成을 偶像化하는 手段으로 活用하고 있음은 周知의 現實이
다.

IV. 主體思想의 展開

1. 思想에서의 主體確立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主體思想」은 「朝鮮人民의 革命的 傳統」을 繼承한 思想이며 金日成이 創始한 指導思想임을 強調한다.

그들의 勞動黨規約(1961. 9. 18 改正)에도 “朝鮮共產主義者들의 抗日武裝鬪爭에서 이룩한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의 繼承者이다” 라고 規定하고 있으니 그「革命的 傳統繼承」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 原理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하여, 「朝鮮革命」을 勝利로 이끌어 나간 金日成을 爲始한 朝鮮共產主義者들의 主體思想과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의 培養”이라고 한다.¹⁸⁾

金日成은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것을 促求하면서 「우리黨」의 思想事業에서 「主體」는 무엇인가 묻고 그것은 「朝鮮革命」이라고 自答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 革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朝鮮의 革命을 하고 있다”고 「宣傳煽動 일꾼」들에게 「訓戒」했다. “思想事業은 朝鮮革命의 利益에 服從시켜야 한다”고 그들의 政治思想 教育의 目的을 闡明했다.

註 18) 勞動黨 宣傳煽動部 參考資料 朝總聯版 1963. p . 70.

그리고 그 方向에 對해서는 그들이 소련 共産黨의 歷史나 中國 革命의 歷史,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 原理를 研究하는 것도 모두 “우리 革命을 옳게 遂行하기 爲한 것이며 群衆들은 「우리」 人民의 鬪爭歷史와 傳統으로 教養해야 「그들」 (人民)의 民族的 自負心を 북돋아 줄 수 있으며, 자기 郷土와 祖國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와 같은 變化를 民族主義 傾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形式과 教養手段上的 轉換으로 보아야지 民族化로 보는 것은 不當하다고 본다. 그 限界는 「內容」에서는 社會主義의 純潔性を 固守하면서 「形式」에서는 民族的이라야 하는 것은 “스탈린”의 말을 引用할 것도 없이 共産主義者들에게 共認된 文化觀이다. 毛澤東도 1938年 10月 中共黨 中央委 政治報告에서 “맑스主義는 반드시 民族의 形式을 거쳐야 實現될 수 있으며, 國際主義的 內容과 民族의 形式을 結合하여야 하며, 맑스主義의 中國化는 모든 表現에서 中國의 特性을 띠게 되어야 한다”고 力說하였다는 것이다.²⁰⁾

다음에는 「祖國解放鬪爭過程」에서 얻은 「教訓」을 體得해야 한다고 金日成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時期에 自己 運命은 自身이 開拓 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갖게 됐고, 鬪爭路線과 鬪爭方法까지 모든 것을 自體가 解決하여 모든 困難과 試鍊을 克服하는 過程에

註 19) 1955. 12. 28 金日成 演說

註 20) 「北韓의 自主路線과 統一政策 批判」 朴東雲
아세아研究 1968. 2月號

서 貴重한 經驗과 教訓을 얻었다는 것이다.

即 素朴하고 平凡한 勤勞 人民大衆이 革命的으로 覺醒되기만 하면 偉力을 發揮할 수 있으며, 如何히 不利한 條件에도 能히 自力으로 革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認識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革命先輩」들의 鬪爭歷史와 傳統繼承을 心理的으로 強要하여 「自力更生」精神에 依해 內的으로 無理한 千里馬運動을 強要하고 外的으로는 對南工作을 強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革命群衆觀點」을 確立하라고 強力한 「教示」를 金日成은 機會있을때 마다 反復한다. 20年前과 같이 今年의 新年辭에서도 言及이 있었다.

官僚主義의 出現을 警戒하고 그 完全한 清算을 促求하면서 群衆의 목소리와 利益을 尊重하여야 群衆을 爭取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群衆과 離脫한 黨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다”는 「格言」을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²¹⁾

官僚主義病은 現代社會主義 執權圈內的 모든 나라가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不治의 「權力風土病」인 모양이다.

國內에서 革命運動을 進行하였고 土着的인 農民社會를 「革命根據地」로 하여 中共特有의 「大衆路線」을 實踐하여 온 「思想體系」와 「革命傳統」을 갖고 있는 中共도 官僚主義의 害毒을 解決하지 못하고 「文化大革命」과 같은 特異한 「紅疫」을 겪어야 했다.

註 21) 1955. 12. 28 金日成 演說

하물며 北韓共產黨-勞動黨은 重大特色으로서 始初부터 權力을 掌握하는 地位를 蘇聯軍에게서 賦與받아 結成됐고 밑으로 부터 大衆을 組織하여 革命을 遂行한 經驗없이 蘇聯軍 占領下의 政權擔當組織으로 出發했다는 點을 考慮하면 金日成體制의 官僚主義는 그들의「先天的」體質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 解放直後 玄俊熾으로 象徴되는 밑으로 부터의 共產黨組織이 組織되고 있었으나 이것도 金日成의 손에 實質적으로 압살 당해 버렸으니, 黨員의 大部分은 困難한 革命鬪爭의 經驗도 信念도 없이 처음부터 現實적으로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黨에 入黨했다는 事實이다.²¹⁾

그리고 玄俊熾 暗殺을 起點으로 하여 시작한 金日成一人獨裁의 特有한 「連續肅清」의 「메카니즘」은 그들의 「後天的」體質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方式(肅清의 「메카니즘」)은 結局 새로운 型の 機會主義者와 立身出世主義者를 再生産하여 肅清의 必要性을 再生産한다…… 여하튼 이것은 社會主義社會에서의 新絕對主義 (「보나팔티즘」의 要素가 있는)의 形成을 實證하는 「메카니즘」”²²⁾ 이라는 批評처럼 不治의 病임에는 틀림이 없다.

金日成의 支配 行態는 어떠한가를 앞에 引用한 日本의 左翼思想

註21) 玉城 素, 金日成の思想と行動, 1968, 日本.

註22) Ibid. pp.78~79.

家の 말을 다시 引用하면 妙味が 있다. 그는 逆說的으로 金日成 처럼 「眞實한」共產主義임을 自處하고, 蘇聯의 肅清構造에 對한 「부르제진스키」教授의 獨特한 分析 “The Permanent Purge”의 內容에 對해 全的으로 贊成하면서 다음과 같이 考察했다. “ 歴史上의 絶對王政은 封建社會에서 資本主義社會로 轉化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過渡期의 權力機構이며,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에로 急激한 轉換을 下向式으로 主導하는 役割을 遂行하는 것처럼 極히 恰似한 性格形態가 金日成政權이 걸어왔던 過程에 나타나고 있다. 「루이」王朝나 「푸레드릭」大王, 「피-터」大帝, 日本의 明治天皇이 해왔던 것처럼, 金日成도 自身을 神格化하고 強硬한 文武의 官僚機構를 構築하고 있다.”

“ 過去 絶對王政이 그 上昇安定期에는 一定한 善政을 한것처럼 第4次黨大會 以後의 金日成은 一時的으로 밝은 「英明한 指導者」然하게 보여 준 時期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후에 곧 腐朽와 停滯를 自招하여 그 自身이 革命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逢着하는 것이 아닐까? 果然 이제까지 反對派를 打倒하고 黨을 「統一」시켜 왔다는 것은 그의 至極히 「有能한」支配者的 「資質」을 反證하고 있다 하겠지만 그가 一時라도 革命家였던 일이 있었는가? ”고 反問했다.²³⁾

다음에 金日成 一派가 그토록 貴重히 여기는 「主體」의 支柱이

註 23) Ibid.

며 背景인 「革命傳統」이란 무엇인가?

北韓의 宣傳文書에 依하면 金日成은 1972年 여름, 즉 겨우 15歲되던 때 滿洲에서 「反帝青年同盟」을 몸소 組織했다고 하며, 1930年 봄에 主體的 革命路線을 提示했다고 한다. 이때의 그의 나이가 18歲가 될 것이니, 1966년에 「自主性」을 宣言한 時期보다 36年前에 「主體的 革命路線」을 宣布했으며, 21歲때 스탈린의 「콤민테른」派遣員을 감히 〈接見하신〉자리에서 「朝鮮革命問題」等に 자기의 「主體的」立場을 力說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의 家譜上的 모든 先代들은 近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韓國의 愛國的 革命運動을 獨차지해 버렸다.

이러한 造作을 強行, 個人的 偶像的 崇拜作風을 宗教儀式化한 연극은 여하튼 또한가지 염치없는 「創作」은 第2次大戰末에 滿洲와 北韓에서 日本軍을 격파하고 北韓의 主要都市를 解放한 것은 蘇聯軍이 아니라 바로 金日成 遊擊隊(뒤에 와서 이름부친 「朝鮮人民革命軍」)였다고 歷史를 황당무계 하게 날조하고 있다.²⁴⁾

金日成이가 滿洲에서 共產活動을 할때 처음부터 朝鮮共產黨에 加入하지 않고 中國共產黨에 加入하여 活動하였다고 한다. 그 當時 滿洲의 共產主義者들은 우리의 反日民族主義指導者 金佐鎭將軍을 비롯한 愛國者들을 殺害하였으며, 一國一黨의 原則에 依해 朝鮮共產黨滿洲總局을 解體시켜 中共黨에 合流시켰다 하는데 그 當時 金日成은

註 24)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2), 高亞研, 1972.

中國共產黨에 이미 加擔하고 있었으므로 中共黨幹部들에게 信任을 얻어 解體後 中共黨에 加入한 朝鮮共產主義者들 보다 優位の 地位에서 先輩然했을 것이 推測되나 滿洲에 「朝鮮人民革命軍」이라는 國籍名이 賦與됐다는 것은 人爲操作이라고 보고 있다.²⁵⁾

그 當時 「民生團事件」 등으로 中國人黨員들에게 韓國인들이 多數殺傷당했으며, 中共의 指令으로 韓滿國境地帶에서 日帝軍警을 襲擊하는 例가 있었는데 그 影響으로 國內의 抗日愛國鬪士와 많은 同胞들이 日帝의 發惡的 彈壓으로 많은 犠牲을 當하게 하는 結果가 되었다 한다.

그들이 最大의 「功績」으로 讚揚하는 事件이 1937年6月 「普天堡襲擊事件」이라고 宣傳하나, 日本支配下の 警察駐在所 面事務所 등을 襲擊한 事件이 (Ibid. pp.188-190) 어찌하여 三·一獨立運動의 民族的 傳統을 無視하는 「革命傳統」이 될 수 있겠는가?

卽 解放後에도 如前히 밖으로 부터의 「解放者」意識을 갖고, 政治的인 理論展開에 依한 情勢對應을 하려하지 않고, 不斷히 軍事的 觀點에 基礎한 「敵地」潛入, 後方攪亂方式을 原理적으로 固守하고 있는 것이 金日成集團의 問題點이다. 그는 解放後에도 一貫하여 北韓을 「民主基地」 또는 「革命基地」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지난날의 「國外빨찌산根據地」와 同一視하고, 韓國을 日帝支配下の 「朝鮮」과 同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具體적으로는 6.25南侵을 普

註 25) 前掲書 「金日成の思想と行動」 pp.215-216.

天堡襲擊의 大規模한 再現으로 看做하고, 休戰線 附近의 軍事的 不法行爲의 頻發도 金日成路線이 必然的으로 産出하는 後方攪亂的 小規模遊擊戰術의 發顯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事態가 金日成의 「革命傳統 繼承」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에 依한 「南半部 解放」의 唯一한 힘을 “밖으로부터의 「解放」 즉 武力뿐이라고 狂信하는 限平和統一의 길은 難關이 許多할 것이다.

2. 自主性の 擁護와 革命

北韓의 主體性 追求는 國際政治的인 脈絡에서 볼때 1966年 8月 12日 勞動新聞을 통하여 내세운 「自主路線」의 宣言과 結付된다. 「공산당 및 노동당들의 相互關係는 完全한 平等, 自主, 相互存重內 政不干涉, 同志的 協調등의 原則에 基礎하고 있다. 共產黨 및 勞動黨間에는 어떠한 特權적 黨도 있을 수 없다. 큰 黨과 작은 黨은 있으나 높은 黨과 낮은 黨, 指導하는 黨과 指導받는 黨도 있을 수 없다²⁷⁾는 것이다.

이와 같은 宣言은 共產圈內의 「小國」의 執權者의 立場에서 從來와는 달리 당돌한 편이다. 中蘇間의 힘의 關係를 利用 實利를 最大化시켜 보려는 보다 積極的인 政策的 면모가 엿보인다. 例컨대 近年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北韓의 對中立圈 또는 後進國 外交強

註 27) 「노동신문」 1966.8.12 사설 自主性を 擁護하자.

化의 試圖는 外交의 通商目標外에 共產圈內에서 自身の 發言權, 強化라는 目標가 添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即 後進國의 共產主義 方式의 發展模型으로 金日成 特有的 「革命」을 輸出하고 있다고 誇示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서는 對內 體制強化를 위해 住民說得과 金日成을 「小스탈린」에서 「小毛澤東」으로 다시 「小레-닌」 또는 그 以上으로 偉대한 「民族解放」과 「國家」創建의 「絕世」의 偉人으로 偶像化 神格化시키는데 惡用하고 있다.

그는 自主性 擁護의 理由를 “人間은 社會的 存在”라고 前提하고 自主性의 가치는 사람에 있어서 生命과 같은 것이며, 社會的 存在인 人間은 「社會政治的 生命」이 더욱 貴重하다고 했다. 따라서 自主性を 無視하면 人間自體를 無視하는 것이며, 自主性を 喪失하면 社會的으로 動物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革命家의 姿勢를 “노예로서 生命을 保存하기 보다는 自己를 爲해 싸우다 죽는 것을 몇배나 榮譽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⁸⁾

“自主的 立場을 견지하는 데서 무엇 보다도 重要的 것은 政治에서 自主性を 確固히 保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革命鬭爭과 自由性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教」를 한다.

“모든 革命鬭爭은 한마디로 말하여 계급적인 또는 民族的인 壓迫에서 벗어나기 위한 鬭爭이다. 人民大衆이 自己의 自主性を 擁護

註 28) 1972.9.17 金日成 記者會見.

하기 위한 鬪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各種 鬪爭의 目的을 說明했다.²⁹⁾

即 階級鬪爭에서 反封建鬪爭은 노예 生活에서 解放되기 위한 것이며, 反資本主義鬪爭은 搾取와 壓迫에서 解放되기 위한 것이고, 反帝國主義鬪爭 即 民族解放鬪爭은 自主權을 가진 民族으로 自由롭게 生存하기 위한 것이며,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鬪爭은 結局은 사람들이 온갖 壓迫에서 解放되어 自然과 社會의 主人으로서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生活을 享有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結局 이러한 「說教」가 現實과 얼마나 乖離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의 「偉大한 理論」으로 自身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現實에 알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다고 했는데 北韓의 現實은 共產獨裁體制이나 이 體制를 維持하는 創造的 方法은 金日成을 偶像으로 創造하는데 있다고 判斷한 모양이다.

果然 甲山派까지도 肅清하였으니 「革命傳統」의 唯一한 繼承者요 「體現者」가 된 金日成의 「教示」만이 北韓共產主義者의 「唯一思想」이 된다고 하겠다.

註 29) Ibid.

V. 主體思想의 實踐

1. 基本路線

北韓의 政策宣傳에 關한 文書에 依하면 「主體思想」을 政策 또
는 活動等の 「指針」이라는 「定義」를 빈번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表現은 北韓共產主義들이 「主體思想」이 「思想」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目標達成의 「實踐指針」 卽 一種의 「口號」임을 말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主體思想」은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
針²⁹⁾이라고 했으며, 또 “主體思想을 具顯한다는 것은 自主的 立場
과 創造的 立場에서 革命과 建設을 힘있게 推進하는 것”이라든지
“우리당의 모든 政策과 路線은 主體思想으로 부터 出發하고 있으
며 主體思想을 具顯하고 있다. 主體思想은 그 어떠한 理論을 위
한 理論이 아니라 複雜한 革命鬭爭 과정에서 얻은 教訓과 經驗에
基礎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나라 革命과 建設의 指導思想” 또는
“우리당이 始終一貫 堅持하고 있는 自主, 自立, 自衛路線의 正當性
과 生活力은 人民의 革命과 建設 實踐을 通해 歷史的으로 擴充되
었다”³⁰⁾고 했고 그들의 新憲法 第4條는 「맑스·레닌」主義를

註 29) 「國家活動의 모든 分野에서 自主, 自立, 自衛의 革命精神을 더욱
徹底히 具顯하자」 1967.12.16.(10 大政綱) 發表.

30) Ibid. 김일성 기자회견.

「우리나라」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宣言하였을 뿐 아니라 北韓勞動黨의 規約³¹⁾에도 「맑스·레닌」主義를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하였고, 金日成은 “맑스·레닌主義는 行動의 指針”³²⁾이라고 까지 하였다.

따라서 「主體思想」이란 共產主義를 行動의 指針으로 하는 金日成이가 「領導」하고 共產主義를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北韓勞動黨이 그들의 政策目標를 實現하기 爲해 住民들을 最大로 動員하기 爲한 實踐指針으로 解釋된다.

그러면 그들의 主體思想에 依한 그들의 自主, 自立, 自衛의 基本路線의 內容을 檢討하기로 한다.

첫째, 政治에서의 自主性原則의 內容은 國際社會에서 主體的 民族으로서의 資格要件을 論하고 있다. 卽 「自己運命의 主人으로서의 民族」은 自主的 政權을 保有하고 政治에서 自主性이 保障되어야 한다고 對外的 立場을 強調한 듯 하다.

自主性 保障의 要件으로 自己의 指導思想을 保有하고 自己人民의 利益과 自國의 實情에 符合한 方向을 設定하여 民族自決에 依한 모든 政策과 路線의 決定能力을 保有해야 한다는 것이다. 性格面에서 모든 民族間에 完全平等해야 하며 相互尊重을 要求하며 그것은 남에

註 31) 1961.9.18 改正

32) 로동신문 1966.8.12. 社說 「自主性을 擁護하자」

게 예측되는 것을 反對할 뿐 아니라 남을 예측시키는 것도 反對한다고 하면서 “남을 예측시키는 民族은 決코 自信도 自由로울 수 없는 法이다”는 「맑스」의 말을 引用했다.

大體적으로 어느 民族國家에서나 主張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러한 「當然한」主張을 內容은 다르나 1966년에야 「自主性」을 擁護하자고 宣言했다는데 問題點이 있다는 것은 그 當時 北韓의 背景을 감안한 金日成의 속셈은 우리가 周知하는 事項이다. 그 當時에는 主로 共產圈內에서의 自主性을 強調한데 反해 近來에는 「民族的」 自主性을 強調한 點이 特色이라는 것은 時代的 環境適應으로 解釋된다.

둘째로 經濟에서의 自立性의 內容이다. 나라의 自主性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自主性과 함께 經濟에서의 自立性을 強化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強調했다. 그 要點은 ① 增加하는 人民들의 物質的 需要를 充足시켜주는 基盤이고 ② 人民들의 「主人인 立場」을 物質的으로 保障하는 要件이며 ③ 國家의 政治的 自主性 保障의 必須要件이 되며 ④ 國防에서의 自衛路線 貫徹의 基礎가 된다는 것이다.

1966年 8月 12日 로동신문 社說을 通해서도 自立的 民族經濟는 自主性의 物質的 基礎³³⁾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人民들의 主人인 立場」을 내세운 點이 特色이다.

果然 北韓의 實情이 人民들로 하여금 「主人」이라고 느끼게 해

註 33) 로동신문 社說 「自主性을 擁護하자」

주었는지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反省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바로 問題點이 되고 있는 「國防에서의 自衛」에 對한 宣傳內容이다. 金日成은 말하기를 “自己를 擁護 保衛하는 것은 人間의 本性이다. 나라도 亦是 自己를 保護하는 手段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고 한다. 너무나 常識的인 말이다. 또 自衛는 自主獨立의 必須的 要求이며, 「帝國主義侵略者」들이 殘存한 條件에서 “內外의 兇수들”로 부터 自己의 「主權」을 擁護保衛할 수 있는 自衛的인 防衛力을 가지지 못한 國家는 事實上 完全한 自主獨立國家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基本立場인 듯 하다. 都大體 「內外의 兇수」들”이란 무엇을 뜻하며 누구를 겨누고 하는 말인가? 이에 對해 더 以上 論及하는 일은 紙面의 浪費가 된다.

「革命傳線을 繼承」한 「人民民主主義革路線」과 符合된 그들의 基本原則에 나오는 「必然的」인 歸結이다.

그들은 全人民的 全國家的 防衛體制에 依據하며, 現代戰과 革命戰의 合法則性에 立脚한 「四大軍事路線」의 貫徹을 豪言하며 「革命的 大事變」을 맞이 할 本格的 對決의 時期에 對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武裝力의 使命」을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하며 社會主義制度和 革命의 戰取物을 保衛하며 祖國의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 데 있다”는 名分을 내 세우고 있다.³⁴⁾

註 34) 北韓 憲法第 14 條.

「革命的 戰取物」이란 表現은 解釋에 따라서 매우 包括的일 수 있겠으나 그 內容은 피의 肅清의 連續으로 戰取한 世界에서 類例를 볼 수 없는 金日成族閥統治의 絶對的 獨裁基盤을 뜻할 것이며, 「祖國의 自由」는 人間의 基本權을 유린하고서 北韓의 執權層만의 「榮華로운」自由를 뜻한 것으로 解釋된다.

金日成에 依하면 主體思想을 具現한다는 것은 自主的立場과 創造的立場에서 革命과 建設을 힘입게 推進한다는 것이라고 하며 또한 主體思想이란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의 原則을 堅持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⁵⁾ 事實 이러한 諸種의 原則은 어떠한 主權國家이든 體制의 獨自性을 갖추기 위하여 追求하는 發展目標로서 그 自體로서 큰 意味를 賦與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諸原則의 說明으로 所謂 金日成 唯一思想體系의 眞髓가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主體概念의 虛構性이 드러난다.³⁶⁾

2. 當面 重要政策

近來에 北韓에서 內外的으로 強調하고 있는 當面한 重要政策에 內容을 大略 살펴 보기로 한다.

가. 祖國의 平和統一 實現

北韓이 對內政策에서 主體思想을 具現하기 위하여 무엇에 重點을 두고 있는가에 對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朝鮮革

註 35) 金日成 記者會見 1972.9.17

36) 以上の 引用文中 特別한 주석이 없는 것은 1972.9.17.
金日成 記者會見 內容中에서 引用하였음

命」에서 主體思想을 具現하기 위하여 當面하게 나서는 가장 切迫한 問題는 우리 祖國의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것이라고 했다.

即 「朝鮮革命」-「主體思想」-「祖國의 平和統一」의 一貫性を 明白하게 定式化 하였다.³⁷⁾ “오늘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的 自主權을 確立하는 것보다 더 切實한 問題는 있을 수 없다”고 前提하고 「南朝鮮」은 近 30年間 外勢에 依存하여 平和統一을 妨害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外勢依存이 亡國의 길이라는 것은 民族受難의 歷史를 通해 體驗한 深刻한 教訓이라고 했다.

當面課業으로 먼저 「南朝鮮」人民들이 自主自立精神으로 外勢反對 鬪爭을 展開하고 「南北 全體 人民」들이 自主平和統一을 實現하기 爲한 鬪爭에 힘차게 나서야 한다고 主張했다.

다음에 그들이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했다고 宣傳하는 「祖國統一 三大原則」의 內容은 어떠한가를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金日成은 南北關係發展에 對해 그들의 基本立場을 밝히면서 “勿論 「우리」가 提議한 것은 南朝鮮側과 「政治會議」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家族찾기 運動이라도 좋으니 會談을 하였다”³⁸⁾ 고 한것을 分析하면 그들이 南北對話에 나서는 目標는 1971年 4月 12日에 提議한 「平和統一方案 8個條項」에 依한 政治會談을 實現하자는 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豫想한 바와 一致한다.

註 37) 金日成 記者會見 1972.9.17.

38) 1972.9.17. 金日成記者會見中 「朝鮮의 平和的 統一問題에 對하여」

첫째 「自主」의 原則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民族自決의 原則에서 自主적으로 統一하자는 것이라고 하며 「美帝國主義」, 日本의 一部 反動들의 軍國主義를 現在의 外勢로 보고 逐出해야 하며, 韓國의 軍事 施設強化와 軍事訓練도 外勢와 關係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엔」은 外勢가 아니라고 하는 韓國의 見解를 極口 非難한다.

둘째로 “平和的統一의 原則은 相互內政不干涉으로 南北이 相互 自己의 制度를 相對方에게 強要하지 않으면 同族끼리 싸울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特히 注目할 點은 南朝鮮이 앞으로 어떤 社會로 되는가 하는것은 南朝鮮 人民들이 自己의 意思에 따라 決定할 것이다”고 金日成은 말했는데 外勢의 排擊과 人民의 意思에 依한 決定이라는 一連의 公式속에 그들의 基本路線인 「人民民主義革命」이라는 點은 省略 또는 隱蔽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그는 韓國의 “自由의 바람”을 猛烈히 非難했다.

세째로, 思想과 理念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할 原則은 그 前提가 되는 條件이 南北關係에서 뿐 아니라 韓國國內에서도 社會를 「民主化」하여 各黨 各派人士들의 政治活動自由가 保障되어야 할 것을 要求하며, 社會의 民主化가 實現되면 自主 平和統一을 願하는 「모든 力量」이 集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政府當局이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등의 改編을 拒否하고 野黨人士들과 接觸까지도 妨害한다고 非難하고 있다. 民族大團結을 實現하는 方法은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로 풀수 없는 問題가 많

으니 多方面的 接觸과 協商을 實現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社會의 民主化」는 어떤 것이며 「모든 力量」이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宣傳한 「統革黨」의 自由活動을 公認한 「民主化」로 그들을 包含한 모든 力量일 것이다.

그리고 平和統一 方法論의 結論으로 民族的 團合의 成就를 容易하게 하고 外勢를 排擊하여 自主的 平和統一을 完遂할 수 있도록 南北聯邦制를 實現하고자 主張한 그들이 北韓憲法 第5條의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란 무엇인가를 說明해야 한다.

나. 三大技術革命 推進

北韓에서 主體思想을 具現하기 爲한 當面한 中心的인 課業은 三大技術革命을 힘있게 밀고 나가 人民을 힘든 勞動에서 解放하는 것이라고 金日成은 말하고 있다.³⁹⁾

“搾取와 壓迫에서 解放된 우리 人民에게 있어서 이제 解決해야 할 重要的 問題는 고된 勞動에서 解放되는 것”이라고 歷史的 意義를 強調하고 그들의 憲法에서도 技術革命에 依한 勞動의 差異와 都市 農村의 差異, 階級的 差異를 解消할 것을 強調한다.⁴⁰⁾

따라서 國家와 社會의 「主人」인 人民들의 生活을 自主的 創造的으로 改善하겠다고 課業의 目的을 提示했다. 그 理由는 經濟建設

註 39) 1972.9.17. 金日成 記者會見

40) 北韓憲法 25~26 條

이나 技術革命이 그 自體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人民들에게 國家와 社會의 主人으로서의 보람찬 生活을 提供하기 爲한 手段으로 되어야 한다는 勞動黨의 一貫된 立場을 表現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金日成獨裁下에서 北韓同胞들이 「主人」이 될 날이 온다고 믿는 사람은 共產主義者들 中에서도 없을 것이다.

다. 靑少年教育事業

北韓은 主體思想에 基礎한 靑少年教育問題에 큰 關心을 돌리고 있음을 밝혔다. 그 理由는 靑少年들이 代를 이어가면서 革命을 繼續하여야 할 革命의 後備隊일 뿐 아니라 社會發展에서 사람들을 教育 教養하는 것 보다 더 重要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教育教養이 重要한 理由는 그것이 社會發展의 原動力이고 革命과 建設을 推進하기 위해 앞세우는 事業이며 社會生活의 物質的 基礎인 生活手段을 創造 改善하는 사람을 위한 事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教育事業은 “사람과의 事業”의 重要한 部分이며 사람을 「改造」하는 事業이며 모든 事業의 成果는 사람과의 事業의 如何에 左右된다고 한다. 또 教育은 知·德·體를 兼備한 社會的 人間으로 育成하는 事業이라고 定義한다.

그러면서 「社會的 人間」이란 다음과 같은 要件을 具備해야 한다고 說明한다.

첫째로 健全한 社會的 意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革命하는 時代의 젊은 世代는 革命思想으로 武裝해야 하고 社會主義建設時代의 人間은 科學, 技術, 文學, 藝術을 理解해야 하고 들째 時代에 適合한 意識水準과 文化水準을 具備해야 社會生活에서 「主人」답게 參加할 수 있고 革命과 建設도 힘있게 推進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10年制 高中義務 教育을 推進하고 新世代들이 革命的 世界觀의 骨格이 선 有能한 社會主義者로 成長시켜,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여 社會主義建設 進展에 寄與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靑少年教育은 「國家」와 社會의 「主人」인 金日成의 「家父長的 溫情」으로 「革命後備隊」가 될 靑少年을 偶像崇拜의 狂信徒로 育成시켜 金日成族閥政治의 永續化를 위한 私兵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다음에 北韓의 各分野別 政策과 事業의 名分을 「主體思想」에 依해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檢討하는 것도 參考가 될 것이나 本稿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3. 權力構造의 性向

北韓 勞動黨의 權力構造를 金日成 長期執權의 一人支配體制로 壓縮해서 보면 北韓의 政治行態로서의 特徵이 있겠으나 우선 北韓도 共產主義政權의 一種으로 보고 現代 「맑스·레닌」 主義 政黨이 共有하는 理論上的 基本問題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本來 「맑스」와 「엥겔스」의 段階에서는 별로 明確하지 못했던 社

盾, 前衛的 性格과 大衆的 性格과의 矛盾, 政治的 現實主義와 思想的 排他主義와의 矛盾 등의 現象으로 나타나는데 特히 現代政治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重大한 矛盾을 露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로 自黨 만을 最高權威라고 하여, 이것을 防衛하는 立場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國際諸黨間的 分裂과 本來의 名分으로써의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와의 矛盾과

둘째로 政治的 現實主義로서는 統一戰線戰術이 必要하지만, 原則的으로 그 將來는 푸로레타리아獨裁—共產黨—黨獨裁를 目標로 設定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에서 他黨이나 他勢力的 疑心과 警戒를 招來하지 않을 수 없다는 矛盾에서 이것을 緩和하고자 하는 曖昧한 規定이 「人民民主主義革命論」이다.

세째로 政治的인 力量을 強化하고자 하면 그에 正比例하여 黨內外的 批判思想을 敵對視하여 스스로 閉鎖集團化하지 않을 수 없다는 結果인데 이러한 問題點 때문에 오히려 黨의 思想的權威와 黨內의 思想的 創造性을 漸次 喪失하지 않을 수 없다는 矛盾에 빠진다.

以上과 같은 諸矛盾은 「맑스」의 思想을 創造的으로 發展시켜 現實에 適用한다는 口實로 自己類의 一方的 修正傾向만을 正當化하고 權威化하여온 「맑스·레닌」主義의 世界的 潮流 그 自體가 現在 逢着하고 있는 共通의 矛盾이다.

이러한 矛盾과 問題點을 가장 많이 內包하고 있는 政權이 金日成의 一人支配族閥獨裁이다.

會主義政黨에 對한 概念이 「레-닌」에 이르러 勞動者階級の 唯一無二의 前衛黨이라는 概念으로 單純化되고 定式化 되어었다. 蘇聯에서는 푸로레타리아獨裁 卽 共產黨 一黨獨裁로 轉化된다는 形式으로 實現되었다. 이 前衛黨은 露西亞의 特殊性으로 因해서 政治運動 뿐 아니라 勞動運動 文化運動 思想運動等 모든 領域에서 獨占的 權威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黨內에서 一時的으로 容認되고 있었던 分派活動의 自由가 一時 停止되고 「스탈린」에 와서 完全히 否定되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코민테른」 第三次大會(1921年)부터 使用하기 始作한 「大衆的前衛黨」이라는 奇妙한 概念이 그 後 스탈린의 「레-닌逝去記念黨員募集」方式부터 人民戰線時代의 西歐諸國의 黨活動中에 具體化 되어 下向的으로 「모델」化 되었다.

以上과 같은 諸修正의 結果 共產黨은 恒常 모든 領域에서 「唯一無二의 權威」라고 하는 獨善概念에 充滿되고 그 觀念에 사로잡히고 또 自黨을 他勢力이나 他思想으로 부터 守護하려는 自己防衛的 傾向과 黨內에 指導者와 大衆이라는 支配「메카니즘」을 갖는 官僚政黨化의 傾向이라는 二大特徵的 傾向을 併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黨의 指導部로서는 黨과 黨中樞를 批判하는 모든 意見은 빠짐없이 左右의 機會主義者이며 宗派主義 修正主義者로 認定되고 또 더우기 이와같은 行爲는 「唯一無二의 支配的權威」를 破壞하는 反黨 反階級的인 政敵으로 意識된다.

이와 같은 性向은 根本的으로 思想的 性格과 政治的 性格의 矛

近 30 年間の 長期執權期間에 内部에서 上向的인 大衆革命의 基盤도 經驗도 없는 金日成은 恒常 不安한 自己權力을 強化하기 爲해 스탈린式 統治方式에 依한 連續肅清의 메카니즘을 維持하여 오던 중 著眼한 것이 中共式 革命戰略으로 對南攻勢를 推進하면서 中共創建의 毛澤東式 權威를 模倣하여 내놓은 思想이 「主體思想」이며 그 에 對한 極端的이며 焦燥한 表現이 「唯一思想」이다.

그리고 一人支配를 強化하기 爲해 自身の 側近인 甲山派 마저도 肅清한 金日成은 不安하고 孤獨한 權座를 守護하기 爲해 막 다른 統治方式이 亞細亞的 族閥政治의 發想일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權威를 「創造的」으로 強化하기 爲한 길이 스탈린式 新憲法의 制定과 中共式 國家主席制의 創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I. 結 論

北韓의 思想體系와 權力構造에 關해서 檢討해야 할 많은 部分을 省略하기도 하였으며, 또 多角的으로 分析하지도 못하였다는 點에 對해서 뿐 아니라 미련한 論理展開를 自責하면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主體思想」實踐으로서의 政策과 宣傳의 成果, 問題點 및 展望에 對해 簡單한 評價를 試圖함으로써 結論을 代身하기로 한다.

1. 對外政策面에서 北韓은 中·蘇·北韓 三角關係에서 實利的 對應을 할 수 있었으며, 亞·阿·中南美 등의 中立圈에 進出하여 그들의 地位向上을 圖謀하였고, 資本主義國家와의 關係改善의 口實의 布石이 可能했다는 點이 成果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問題點은 國際情勢의 解氷에 따른 極東의 4強體制形成에 適應할 方向調整과 近來에 있었던 「革命輸出」의 非難, 資本主義國家와의 接近으로 過去의 修正主義非難의 名分을 喪失하였으며 共產圈內의 人間主義的 思潮의 發生과 漸次的 開放에 따른 北韓社會의 矛盾에 對한 對策의 苦心이라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將次 어떠한 對應策으로 나올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그들 路線의 本質인 國際主義와 自主路線의 一致性을 더욱 더 合理化하여 宣傳할 것이다. 둘째로 平和五原則을 主體思想에 配合하여 그들 對外活動과 對外關係를 合理化할 것이다.

세째로 國際機構에 積極參加하려고 努力할 것이며, 네째로 招請外交 等에

依한 「人民外交」를 積極 推進할 것이다.

2. 對內政策面에서는 一人支配體制를 確立하였고 住民들의 實踐意慾을 鼓吹하며 千里馬的 動員을 強行하였으며 靑少年教育을 強化하여 金日成 偶像化에 狂信的 追從을 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特記할 點은 四大軍事路線을 強行하여 軍事動員體制를 確立하고 獨裁基盤을 더욱 強化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不得已 完全 閉鎖體制에서 漸次的으로 開放함에 따라 閉鎖的 劃一化와 偶像化政策의 限界性을 意識하게 될 것이며, 歪曲된 思想教育의 矛盾이 露出될 것이다. 또 生活水準의 向上과 國防建設의 相衝이라는 問題點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對한 그들의 對應策은 첫째로 「革命傳統」을 더욱 浮刻시켜 正統性을 宣傳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 思想的 刺戟에 相應한 物質的 刺戟의 增大에 苦心하게 될 것이며, 셋째로 軍事路線에서 革命戰爭側面을 強化할 것이다.

3. 統一攻勢面에서는 그들이 一時的이나마 民族主體性을 假裝할 수 있었고, 朝總聯等 海外僑胞의 一部를 說得할 수 있었으며, 外勢排擊 宣傳의 口實이 되었다. 그리고 自主平和統一을 假裝한 宣傳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成果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眞實한 民族主義理念의 挑戰을 받아야 하며, 在日 僑胞 北送과 南北對話의 後遺症이 自體內部에 씩들 것이며, 美國, 日本과의 接觸 또는 交流擴大는 外勢 學論의 限界에 到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對應策으로 첫째 統一3原則에 依한 南北合作을 強力히 主張하고 聯邦制를 提議할 것이다. 둘째로 民族主體性 名分으로 外軍撤退 實現을 促求하는 宣傳하고 民族의 信賴回復과 平和統一努力을 名分으로 南北의 平和協定을 固執할 것이다.

以上을 綜合해 보면 그들의 成果로는 一人獨裁體裁의 確立과 金日成偶像化에 일단 成功하였고 統一攻勢에서 一時 宣傳效果를 믿었다고 보겠으나, 金日成의 主體性을 根據로 한 思想과 黨政策의 絕對性 無謬性的 強調는 「主體思想」의 全身硬化症을 治療할 수 있는 機能을 喪失해 버렸으니 이에 對한 處方은 金日成의 「創造力」을 期待하는 것인데 結局은 自體手術의 새로운 「肅清」으로 執權엘리트의 一部를 交替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나 人間性 回復의 歷史的 必然 卽 自由化의 潮流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에 對外的인 面에서 國際情勢에 새롭게 適應하기 爲해서는 二律背反的인 矛盾을 안고 苦役을 치루어야 할 것이며, 統一攻勢面에서도 이제까지의 그들의 宣傳面과 實踐面에서의 相馳는 그들의 虛構性이 漸次로 露骨化 되고 있다.

이에 對한 그들의 對策은 極東四強體制에 相應한 對外政策 轉換과 方向調整에 골몰하게 될 것이며, 韓國에 對해서는 緊張緩和 誘導戰略과 人民革命戰略을 配合한 政策을 巧妙하게 追求하여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우리의 努力에 많은 問題點을 提起할 것이다.

北韓政權機關(行政機關)의 組織
變遷에 관한 研究

金 雲 泰
(서울대학교 教授)

目 次

I. 序 論	193
II. 北韓行政의 基本的 性格 및 特徵	196
1. 北韓權力構造의 體系	196
2. 政權機關의 一般的 體系	199
3. 中央行政體系의 性格과 特徵	200
가. 主席을 求心點으로 하는 北韓行政體制의 特徵	200
나. 主席	206
다. 最高人民會議의 構成과 運營	211
라. 中央人民委員會	215
마. 政務院	217
4. 地方行政制度	223
가. 地方行政機關	223
나. 地方人民會議	225
다. 地方人民委員會	226
라. 地方行政委員會	227
5. 政務院과 黨 및 社會團體와의 相互關係	229
가. 政務院과 黨과의 關係	229
나. 黨과 社會團體	232
III. 北韓 行政組織의 變遷過程	240

1. 蘇聯軍政下에서의 行政組織과 過渡內閣	
(1945.8 ~ 1948.9.9)에서의 行政組織의 變遷	240
2. 第1次內閣 (1948.9.9 ~ 1957.9.20) 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243
3. 第2次內閣 (1957.9.20 ~ 1962.10.23) 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245
4. 第3次內閣 (1962.10.23 ~ 1967.12.16) 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246
5. 第4次內閣 (1967.12.16 ~ 1972.12.28) 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248
6. 第5次內閣 (1972.12.28 ~ 1977.12.14) 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249
IV. 北韓 行政制度의 脆弱點	261
V. 結 論	266

圖 表 目 錄

表 1. 「프롤레타리아」獨裁體系	197
表 2. 中央政治機構圖	198
表 3. 北韓의 權力體系	201
表 4. 主席의 權限體系表	205
表 5. 行政體系表	207
表 6. 金日成 族閥政治現況	209
表 7. 最高人民會議의 機構	211
表 8. 政務院機構表	216
表 9. 地方主權 및 執行機關運營體系	224
表 10. 中央統治機構 體系表	233
表 11. 歷代內閣一覽	251
表 12. 北韓行政機構의 變遷	256

I. 序 論

解放後 韓半島를 둘러싼 混亂한 國內·國際政治의 와중에서, 北韓에 共產政權이 登場한지 어언 三十年, 그간 北韓은 共產主義政治理念의 現實化로 表象되는 「쏘비에트」化 推進過程과 金日成의 偶像的 一人獨裁를 意味하는 唯一思想 支配體制의 確立 等 諸般 政治制度 化過程을 通하여 우리 社會와는 判異한 價値定向과 人民의 組織化를 通한 一元的 權威體制를 形成하여 왔다.

北韓은 「브레진스키」(Z.K.Brezzezinski)가 全體主義獨裁의 特徵으로 列擧한 바와 같은 官僚이데올로기와 一人獨裁者를 中心으로 하는 單一의 大衆政黨, 그리고 매스콤의 獨占과 經濟의 中央集權的 統制 및 一切의 暴力手段의 獨占等의 特徵을 갖춘 共產全體主義 獨裁의 좋은 標本이라 하겠으며 特히 金日成이 「人間性向 (Personality)」과 結付되는 諸般 教義의 創出과 窮極的 正當性的 根據로서 「이데올로기의 刷新」이라는 口實下에서 소위 「有權的인 解釋權」을 그 自身만이 掌握함과 아울러 나아가서는 「主體思想」의 捏造를 通한 政治的 象徴操作으로 그의 一元的 支配體制의 強化를 劃策하고 있다.

北韓은 그들 憲法 第一條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全體 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的인 社會主義國家이다」라고 하고, 第七條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主權은 勞動者, 農民, 兵士, 勤勞인텔리에게 있다. 勤勞人民은 自己의 代表機關인 最高人民會議와

地方各級人民會議를 통하여 主權을 行使한다」¹⁾고 하여 民主主義를 標榜하고 있으나 其他 共產諸國의 경우와 같이 形式上이나마 民主主義 및 그것의 基本條件이 되는 政治體制의 構造上 分化和 機能上 自律性を 全面的으로 排除하고 所謂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政治權力에 있어서 基本命題로 삼고 있기때문에 그의 權力構造 내지는 行政體系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西歐的인 여러나라의 것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또한 憲法에 의한 國家體制의 形式面에서는 立法機關(最高人民會議), 行政機關(政務院) 및 司法機關(裁判所, 檢察所) 등으로 區分되고 있어서 西歐的 民主主義 國家構造의 類型과 外觀上 恰似하여 北韓權力構造의 特殊性 乃至 本質에 對한 客觀的 認識이 曖昧하여 지기 쉽다. 그렇다고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命題 乃至 그 原理가 北韓 權力構造에 그대로 正確히 反映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事實上 權力構造에 관한 憲法規定과 現實上의 政治權力 構造間에도 적지않은 乖離現象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例컨대 北韓 憲法上에는 北韓政治權力의 最高核心體라고 볼 수 있는 共產黨(朝鮮勞動黨)의 地位에 對해서는 何等의 言及이 없으며, 또한 黨의 權力機能과 國家機關의 權力機能在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命題에 그대로 合當하게 現實化되어 있지 않은 點을 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命題에 依한다면 北韓의 政權機關은 權力의 源泉인 共產黨(朝鮮勞動黨)의 政策路線을 執行하는 것에 不過

註 1) 社會主義 憲法, 72年改正 第一條, 第七條.

하여야 하는데 實際로 同 政權機關은 統治에 있어서 共産党的 緊密한 協助者로 되고 있는 同時에 党和 政權機關의 「피라밋」構成이 最高의 頂點에서 事實上 一致하는 結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源泉的인 權力의 共産党에로의 集中은 北韓權力構造의 두드러진 特徵으로 浮刻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立法, 行政, 司法機關의 形式上的 分化和 以上 세機關의 機能 및 相互關係는 西歐的 諸國의 그것과 本質的으로 區分되는 것이다.

北韓의 權力機關은 傳統的인 西歐式 國家構造와는 달리 政治權力 뿐만 아니라 生産手段이 國有化 및 集團化되어 있는 基盤위에서 經濟, 社會 및 文化 等 모든 分野에 對한 國家의 全面的인 統制를 組織化하여 왔으며 이런 가운데 北韓의 行政組織은 解放直後の 蘇聯의 影響下에 쑸비에트式制度 借用期를 거쳐 戰爭體制와 그리고 6.25 戰後의 金日成 支配體制의 確立과 70年代부터 中共式 統治行政體制를 모방하는 體制調整이 斷行되면서 變遷해 온 것이며 이러한 變遷이 5次에 걸친 內閣變遷을 契機로 하여 進行되어 온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우선 北韓行政體制의 基本的 特徵을 밝히고 다음 北韓行政組織의 變遷過程을 檢討하고 이러한 變遷이 지닌 政治的 意義와 行政組織論으로 본 意味를 解明하고자 한다.

Ⅱ. 北韓行政의 基本的 性格 및 特徵

1. 北韓權力構造의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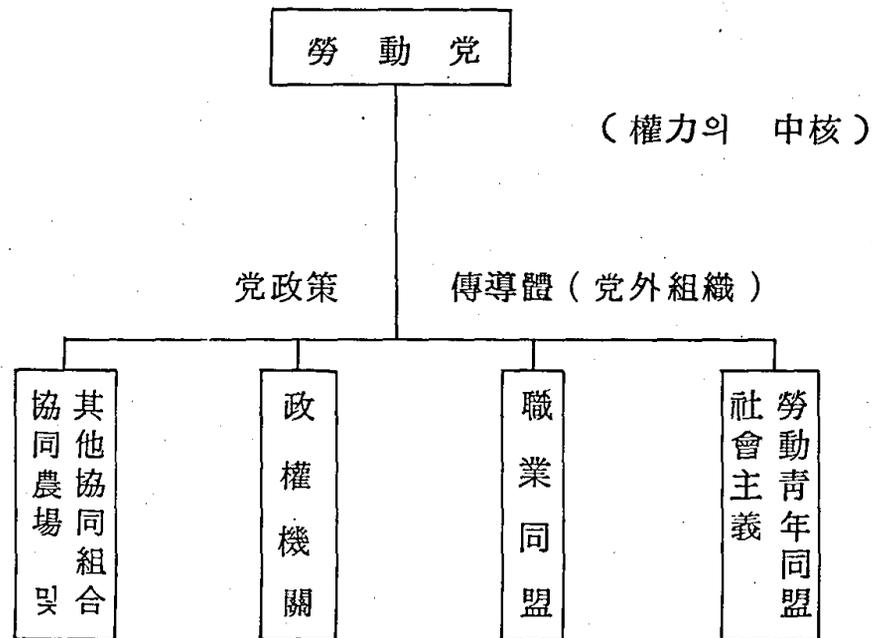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 基本原理에 따르면 北韓의 權力構造는 모든 權力的 源泉體이고 中核인 朝鮮勞動黨에 있으며 朝鮮勞動黨의 路線과 政策等を 執行하여 獨裁權力을 直接 行使하는 黨外機構로서 政權機關이 있다.

그 外에 黨外廓組織으로서의 「職業同盟(勞動組合)」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및 「協同農場」等은 勞動黨의 政策을 民衆에게 浸透接近시키고 그 遂行을 保障하는데 있어서 各己 獨特한 役割을 하고 있다.

政權機關을 비롯한 以上の 各 社會團體는 勞動黨의 政策을 民衆에 執行하는데 있어서 傳道的 即 橋梁的 役割을 한다고 해서 「黨의 傳導體(Belt)」라고도 부르고 있다. 以上の 權力構造의 關係 即 所謂 「프롤레타리아」獨裁體系를 圖式化해보면 다음과 같다.

< 表 - 1 >

「 프롤레타리아 」獨裁體系



以上에서 協同農場 및 其他協同組合은 經濟面에서 農民을 社會主義建設에 動員시켜 黨과 農民들을 連結시키는 大衆組織이며, 職業同盟 (勞動組合)은 生産面에서 勞動者를 黨과 連結시키는 大衆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黨이 新世代를 共產主義的으로 教育하고 共產黨의 豫備軍을 만들어내는 것을 容易하게 하는 使命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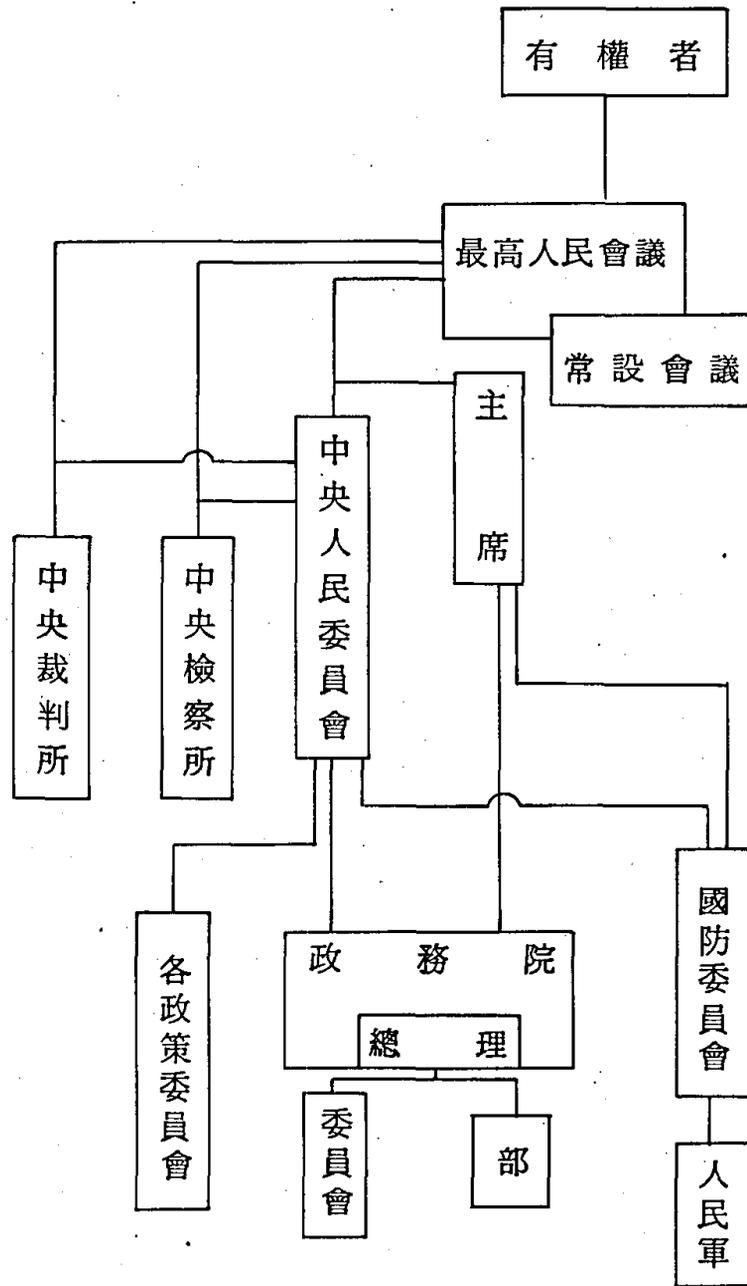
이밖에도 北韓에는 勞動黨의 外廓組織으로서 朝鮮民主主義女性同盟, 農業勤勞者同盟 등이 있는바 이들은 補完的 役割을 하는데 不過하고 權力構造의 基本體系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北韓權力構造에서 主要體系는 勞動黨과 政權機關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政權機關은 外形上의 單一한 權力構造의 中核으로 되고 있다.

北韓의 政治機構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²⁾

〈表-2〉 中央政治機構圖



註2) 朝鮮要覽, 現代朝鮮研究會, 時事通信社, 東京, 1975.p.187.

2. 政權機關의 一般的體系

北韓의 各級 政權機關은 勞動黨과 並列하게 階層的인 原理에 의해서 權力의 「피라밋」型 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그 基盤에는 都市 및 農村의 人民會議 및 人民委員會가 있으며 그위에 順次로 中央의 國家機構가 聳立되고 있다. 그리고 北韓政權機構의 特徵으로서 「共和國의 國家諸機關은 唯一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共和國에 있어서 人民政權의 唯一性은 國家機關體系의 唯一性의 前提이다」³⁾라고 指摘되는 바와같이 北韓의 諸機關은 形式上 最高 權力을 統合的으로 掌握하고 行使하는 最高人民會議를 頂點으로 單元的인 階層에 의한 唯一體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政權機關의 體系的 唯一性은 北韓의 政治·經濟的으로 特殊한 그들의 基盤을 反映시킨 것이며 또한 그들이 標榜하는 社會主義 建設과 韓半島의 共產統一이라는 그들의 革命課題를 完遂하기 위한 것으로서 正當化되고 있는 것이다.⁴⁾

北韓 統治構造에 있어서는 近代民主政治에 있어서 不可缺의 要素인 3權分立構造를 度外視하고 超中央集權化의 原理를 堅持하고 있는바 이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命題에 立脚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이 北韓權力機關은 總括的으로 一糸不亂한 唯一體系를 形成

註3) 北韓科學院, 經濟·法學研究會編,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日本, 東京 評論社, 1966 .p.121.

4) 前掲書, pp.121-122.

하고 있으나 그가 遂行하는 政權의 機能形態는 多樣하다.

1972 年의 北韓新憲法에서도 北韓의 政權機關을 最高人民會議, 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政務院, 地方人民會議, 人民委員會 및 行政委員會, 裁判所 및 檢察所 等으로 區分하여 權力機關의 唯一體系를 더욱 強化하고 있다.

北韓의 權力體系를 圖式化하면 다음 表 3 과 같다.⁵⁾

3. 中央行政體系의 性格과 特徵

가. 主席을 求心點으로 하는 北韓行政體制的 特徵

北韓의 政權機關 및 各級 社會團體는 朝鮮勞動黨을 頂點으로 하여 構成되어 있다. 黨과 社會團體는 實質上 權力을 保有하나 正式的 統治機構에는 包含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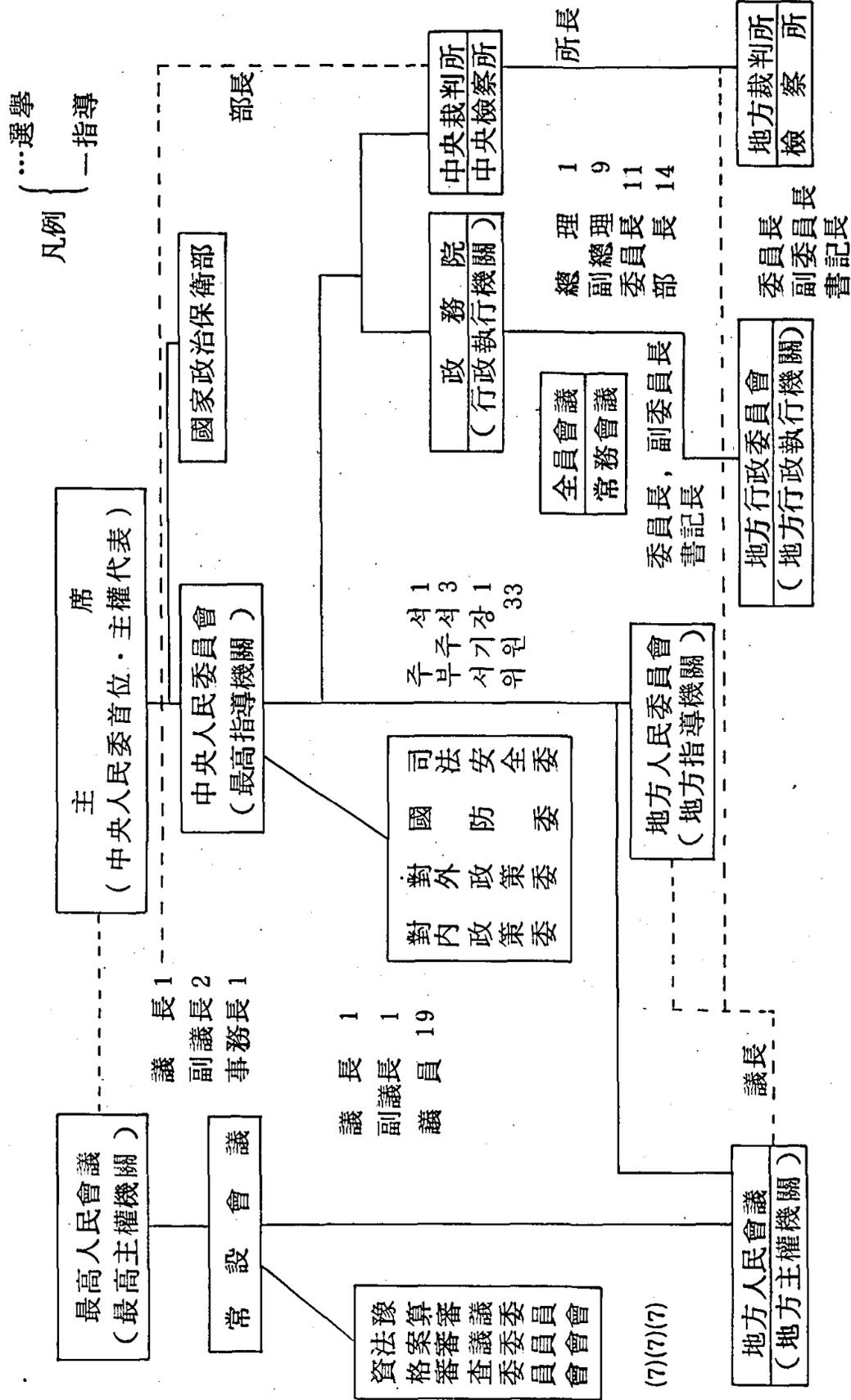
1972 年 12 月 27 日 北韓은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을 制定하면서 金日成의 黨과 內閣의 最高位職 兼職으로 因한 政策執行過程上에서의 黨의 지나친 干涉과 統制는 行政의 能率性和 效率性的 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露呈하였기 때문에 黨과 內閣을 聯合하는 會議 形式의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하였다.

金日成은 中央人民委員會의 主席이 되고 政務院의 總理에 金一을 앉힘으로써 內閣이 政策의 樹立과 統制에 參與할 수 없도록 制度

註 5) 北韓政治論, 極東問題研究所, 서울, 1976.p.597.

<表 3>

北韓斗權力體系



를 改編하였다. 다시 말하여 金日成이 內閣首班까지 兼함으로써 생기던 諸般 결함을 是正하겠다는 名分이 있으나 結果的으로는 行政責任을 轉嫁시키고 自身은 新設된 國家主席의 地位에 앉음으로써 「스탈린」式 獨裁的 會議統治를 合法化시켰다. 여기에서 新憲法에 依해서도 金日成의 黨權은 分離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金日成體制의 特徵은 스탈린體制와 中共의 制度를 모방한 것이지만 蘇聯과 中共의 體制는 原來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

蘇聯에서는 黨權과 國家代表權이 分離되어 있다. 國家代表權은 最高소비에트 常任委員會 議長이 가지고 있다. 1937年 2次世界大戰 발발의 危機가 스탈린으로 하여금 黨權과 國家代表權 및 行政權을 獨占하도록 하기 전에는 이 權限들이 別個의 人物들에게 分散되어 있었다. 1955年 스탈린 死後 本來의 制度가 復活되었다가 5年 後 후르시초프에 依해서 다시 權力集中現象이 일어났었지만 1964年 후르시초프 실각 후에 登場한 브레즈네프와 코시긴이 다시 權限을 分散시켜 占有함으로써 本來의 制度로 되돌아 간 것이다.⁶⁾

한편 中共에서는 全國人民代表者大會가 國家主席과 副主席團을 選出하도록 되어 있다. 이 國家主席은 蘇聯의 最高소비에트 常任委員會 議長이나 1972年憲法改正 以前の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常任

註6)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1972, p.807.

委員會 委員長의 地位를 방블케 하는것이지만 꼭 같지는 않다.

中共의 全國人民代表者會議도 常任委員會를 가지고 있고 그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이 따로 存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共의 國家主席은 보다 重要하고 實力있는 자리인 것이다.

中共의 國家主席은 最高國務會議와 全國國防會議를 統轄한다. 最高國務會議는 30名이 넘는 各계 各層의 代表들로 構成되어 있지만 會議가 자주 召集되지 않고 또 召集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樹立된 政策을 追認하는 役割 밖에는 못한다. 國防會議도 100餘名の 成員으로 構成되어 있지만 實質的인 政策樹立의 機能은 黨이 軍事委員會에 讓步하고 있다.

1958年 毛澤東은 劉少奇에게 國家主席의 자리를 물려 줌으로써 毛澤東은 黨權만을 掌握하고, 또 行政權은 周恩來가 行使케 함으로써 3頭體制를 形成했다.

이렇듯이 蘇聯과 中共의 國家主席은 北韓과 같은 1人支配體制의 首長의 地位가 아닌 것이다.

北韓新憲法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國家代表權, 軍統帥權, 中央人民委員會 指導權, 그리고 政務院의 召集權과 指導權 및 政策 決定權등을 掌握하도록 하였다.⁴⁾ 이와같이 莫強한 權力을 한 사람이 獨占하도록 憲法上 權限만 規定되어 있고 義務에 대해서는 「主席은

註7) 北韓憲法 第6章 參照

自己事業에 대하여 最高人民會議앞에 責任을 진다」⁸⁾라고한 規定되어 있을 뿐 具體的인 義務規定이 없다. 이러한 點들은 中共의 主席이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 依해서 罷免될 수 있으며 國務院의 監督權이 全國人民代表者大會 常任委員會에 있는 中共의 경우와 다르다.

이처럼 莫強한 權力을 所持한 北韓의 主席이 行政에 干涉하는 것은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로서 政務院을 指導·監督하는데서 비롯한다. 中央人民委員會는 主席의 指揮와 監督 및 統制를 받게 되며 主席의 提議에 依하여 副主席과 書記長 및 委員들을 選任하고 召喚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主席이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이기 때문에 同 委員會는 主席의 補助 또는 諮問機關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主席의 權限體系를 圖式化하면 表 4와 같다.⁹⁾ 또한 政策樹立權, 法令審查權, 主要 官吏의 人事權 등 國政 全般에 걸쳐 強力한 權限行使를 하는 中央人民委員會는 ¹⁰⁾ 本質的으로 權力分立의 原則을 完全히 無視한 權力統合的 基礎위에서 있다. 더구나 實際上으로는 黨政治委員會의 大部分의 委員職을 中央人民委員會 委員들이 兼職함으로써 黨의 政權機關에 대한 指導를 合理化시키고 있다.¹¹⁾

註 8) 上揭法, 第 98 條

9) 北韓政治論, 極東問題研究所, 서울, 1976, p.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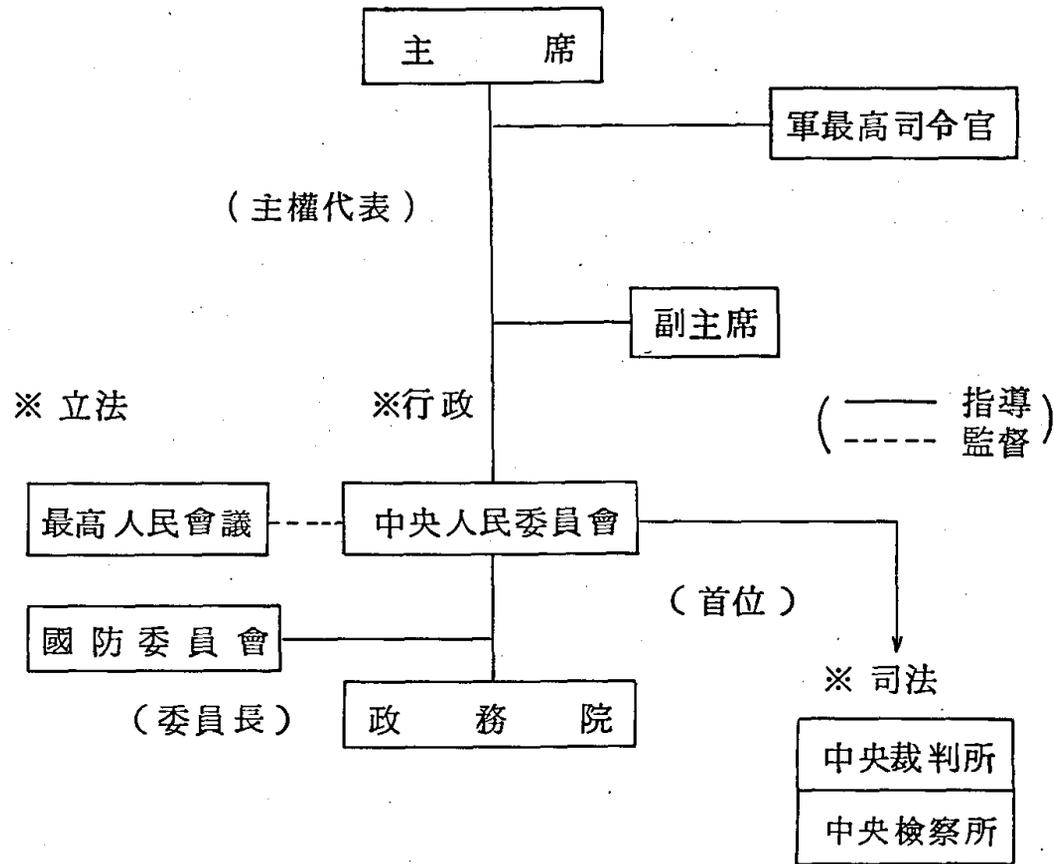
10) 北韓憲法, 第 103 條參照

11) 北韓全書(上), 서울, 1974, p. 163.

(25 名의 中央委員中 1~16 位까지는 政治委員會 委員 및 候補委員, 17~20 位까지는 黨비서 및 부장급, 21~25 位까지는 政務院의 副總理級으로 되어있다)

〈表 4〉

主席의 權限體系表



形式上으로는 北韓의 中央人民委員會가 中共의 最高國務會議과 비
 슷한點이 있지만 그 首位인 主席이 最高人民會議의 召喚對象이 되
 지 않음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副主席 以下 構成員의
 召喚도 主席의 提議에 의해서 可能하기 때문에 結局 主席 1 人에게
 責任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形式上으로는 集團指導體制이지만 實
 은 法律的으로 교묘하게 만들어 낸 1 人體制에 不過하다.

政務院은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中央人民委員會에서 決定
 된 事項을 執行하는 機關이다. 政務院은 從前의 內閣에 該當하나

過去에 가지고 있던 政策決定權을 떼어 中央人民委員會에 넘기고
이제는 行政執行權만을 가지고 있다. 主席, 最高人民會議, 中央人民委
員會 및 政務院등에 關係서는 다음에서 詳論하겠다.

무릇 北韓行政體系表(表5)¹²⁾에서 볼 수 있듯이 北韓의 行政體系
는 主席 金日成을 頂點으로 하여 스탈린式的 官僚主義的 統治
制度和 中共의 制度를 混合하여 共產國家內에서도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全權的 1人體制의 骨幹으로 되어 있다.

나. 主席

主席에 對하여 여기서는 憲法上에 나타난 權限을 簡略히 說
明하기로 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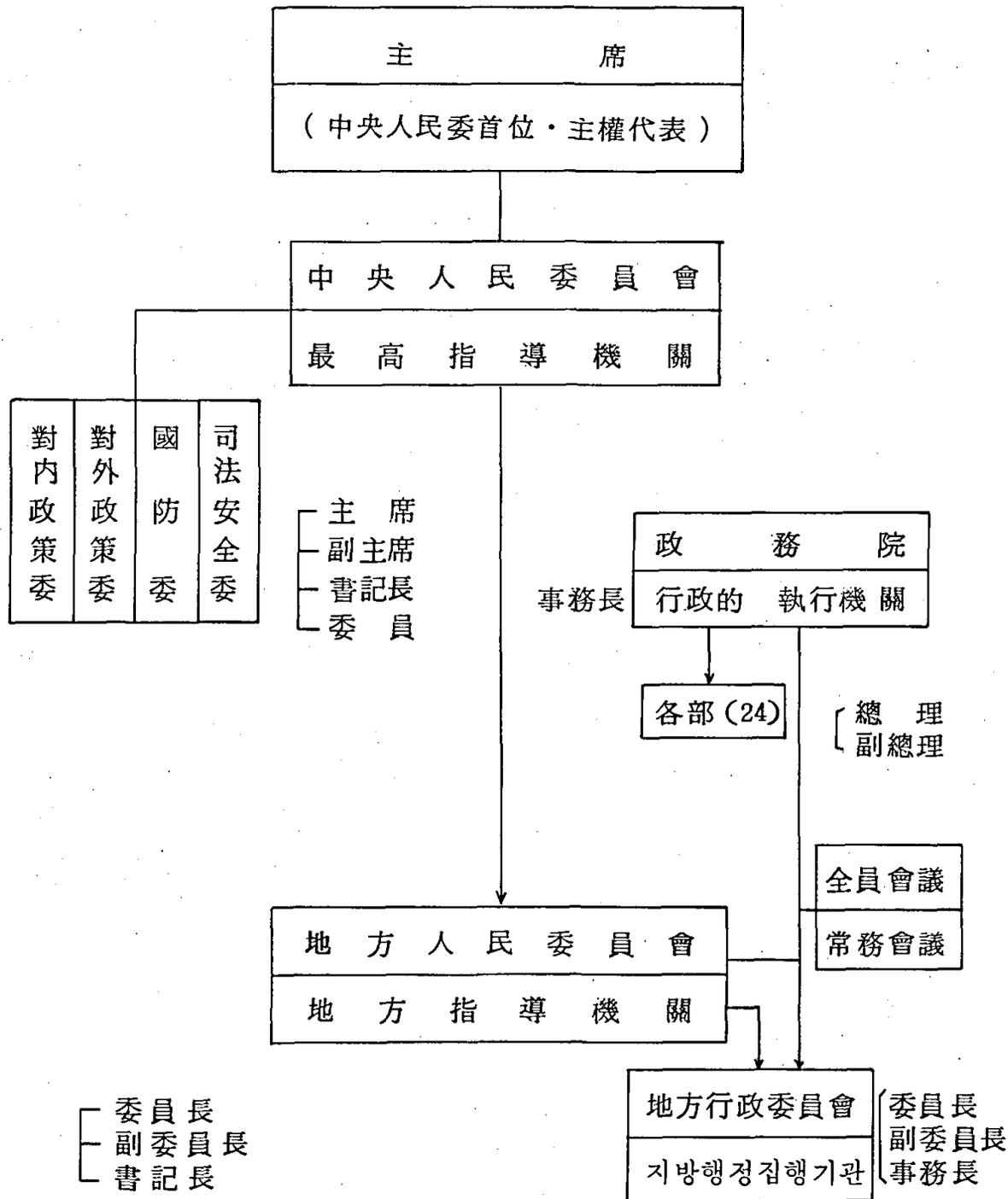
- ① 主席은 國家의 首班이며 國家主權을 代表한다.
- ② 主席은 最高人民會議에서 選舉하며 任期는 4年이다.
- ③ 主席은 中央人民委員會를 直接 指導한다.
- ④ 主席은 必要에 따라 政務院會議를 召集하고 指導한다.
- ⑤ 主席은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 되
며 國家의 一切 武力을 指揮 統率한다.

註 12) 北韓政治論, 極東問題研究所, 서울, 1976, p.188.

13) 主席의 權限에 關係서는 北韓憲法, 第6章 參照

〈表5〉

行政體系表



⑥ 主席은 最高人民會議 法令,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을 公布한다. 또한 主席은 命令을 發한다.

⑦ 主席은 特赦權을 行使한다.

⑧ 主席은 다른 나라와 맺은 條約을 批准 및 廢棄한다.

⑨ 主席은 다른 나라 使臣의 信任狀 召喚狀을 接受한다.

⑩ 主席은 自己 事業에 對해 最高人民會議 앞에 責任을 진다.

⑪ 副主席은 主席의 事業을 돕는다는 等으로 나타낼 수 있다.

1975年 現在 主席에 金日成, 副主席에 勞動黨政治委員會委員인 崔庸健, 民主黨委員長인 康良煜과 中央委秘書인 金東奎 등이 있다. 康良煜과 金東奎는 金日成 族閥政治의 代表로 參考로 그 現況을 살펴보면 表(6)과 같다.

<表6>

金日成族閥政治現況

1975.12 . 現在

姓名	金日成과의關係	職責(權力)
金日成		總秘書. 主席. 國防委員長. 最高司令官
金正日	長男	黨政治委員. 組織 및 宣傳煽動 擔當秘書
金英柱	親弟	黨政治委員. 政務院副總理
金聖愛	妻	女盟中央委委員長
康良煜	外從祖父(5寸)	副主席. 民主黨委員長
金仲麟	金英柱妻家姻戚	對南工作擔當秘書
李勇武	不確實	軍總政治局長(上將)
許鎔	4寸妹夫	副總理. 外交部長
金貞淑	從妹(許鎔의妻)	職總副委員長
楊亨燮	從妹夫	黨政治委員 思想擔當秘書. 國家檢閱委員長

姓 名	金日成과의關係	職 責 (權 力)
金 炳 夏	조카남편	國家政治保衛部長
康 賢 洙	外 4 寸	平壤市黨責任秘書·平壤市人民委員長
張 正 桓	사 돈	人民武力部副部長 (中將)
黃 長 燁	조 카	最高人民會議議長 同常設會議議長
康 希 源	外 戚	平壤市行政委員長
金 東 奎	不確實	副主席·黨政治委員·秘書

다. 最高人民會議의 構成과 運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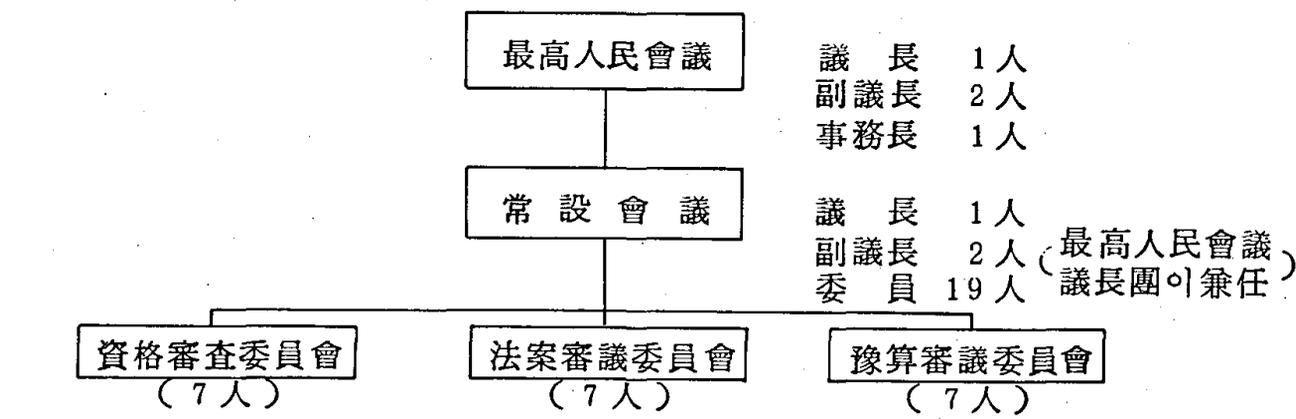
北韓憲法은 最高人民會議를 最高主權機關이라고 明文으로 規定하고¹⁴⁾ 있으나 實際의 地位는 主席·黨 또는 中央人民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行動하는 形式的 機關에 不過한 것이다. 舊憲法에서는 비록 形式的이지만 最高主權機關으로서 重要的 政策決定과 國家代表 및 權力層의 任免權을 가지고 있었으나 新憲法에서는 이러한 權限을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에 移管함으로써 新憲法 下에서의 最高人民會議는 追認機關으로 轉落하고 말았다.¹⁵⁾

最高人民會議는 「人民의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舉原則에 依하며 秘密投票로 選出한 代議員으로 構成된다¹⁶⁾」고 規定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黨이 指名한 1人의 候補에 대한 單一投票函制를 運營하는 公開投票인 것이다. 代議員의 數는 人口 3萬名當 1名씩 選出된 541名이다.

<圖表 7 >

最高人民會議의 機構

(1976.3 現在)



註 14) 北韓憲法, 第 73 條.

15) R. A. Scalapino & Chong-Sik Lee, op. cit., p. 792.

16)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1964, pp. 41 ~ 42.

最高人民會議에는 常設會議과 3個 特別委員會가 있다. 이를 圖表
化하면 表 7 과 같다.¹⁷⁾

最高人民會議는 1936 年에 制定된 蘇聯의 「Stalin 憲法」에 있는
「最高 Soviet」를 모방한 것으로서 新憲法에 依한 그 權限을 보
면 다음과 같다.¹⁸⁾

- ① 憲法 및 法令을 採擇 또는 修正한다.
- ② 國家의 對內外 政策의 基本原則을 세운다.
- ③ 主席을 選舉한다.
- ④ 主席의 提議에 依하여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委員
들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⑤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員들을 選舉 및 召喚한다.
- ⑥ 主席의 提議에 依하여 政務院 總理를 선거 및 召喚한다.
- ⑦ 主席의 提議에 依하여 國防委員會 副委員長을 選舉 및 召
喚한다.
- ⑧ 中央裁判所 所長을 選舉 및 召喚하며, 中央檢察所 所長을
任命 및 解任한다.
- ⑨ 國家의 人民經濟 發展計劃을 承認한다.

註 17) 北韓政治論, 上揭書, p.174.

18) 北韓憲法, 第 76 條.

⑩ 國家豫算을 承認한다.

⑪ 戰爭과 平和에 관한 問題를 決定한다.

最高人民會議는 年 1~2 回の 定期總會와 代議員 半以上の 要請과 常設會議의 要請에 따라 臨時會議를 召集하게 되어 있으나 臨時會議가 召集된 例는 거의 없으며, 定期會議는 會議期間이 2~4 日 程度에 그친다. 따라서 最高人民會議의 休會中の 業務를 代行하기 爲하여 마련된 것이 常設會議라는 것이다.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蘇聯의 「最高 Soviet 幹部會」, 中共의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東歐의 「國家評議會」 或은 「人民會議幹部會」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蘇聯 및 東歐에서는 이 機構의 長이 國家元首의 職을 遂行하고 있다. 스탈린은 이 機構를 「集團大統領」이라고 表現했었다.

常設會議는 ① 最高人民會議 休會 中 提起된 法案을 審議, 決定하고 次期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는다. ② 最高人民會議 休會 中 現行 法令을 修正하고 次期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는다. ③ 現行 法令解釋 ④ 最高人民會議召集 ⑤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事業 實施 ⑥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의 事業 ⑦ 最高人民會議 休會 中 委員會와의 事業 ⑧ 地方人民會議 代議員 選舉事業 組織 ⑨ 中央 裁判所 判事, 人民審判員 選舉 및 召喚 等 老대한 任務와 權限을 가지고 있다.¹⁹⁾

註 19) 北韓憲法, 第 87 條.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常設會議은 立法 뿐 아니라 司法에 관한 權限도 있으며 (③, ⑨項), 選舉委員會로서의 權限 (⑤, ⑧項)도 가지고 있다. 또 最高人民會議에서 常設會議가 提出한 承認要求事項을 한번도 거절한 事實이 없다는 것은 「常設會議 立法」이 蘇聯의 「幹部會 立法」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最高人民會議은 自己業務와 關聯된 必要한 委員會를 두는데 現在는 資格審查委員會, 法案審議委員會, 豫算審議委員會의 3個 委員會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委員會는 常設이 아니고 必要한 때만 活動하고 있을 뿐이다.

資格審查委員會는 選舉된 代議員의 資格을 審查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며 나아가서는 代議員에 對한 召喚 및 懲戒에 關한 事項도 取扱을 한다.²¹⁾

豫算審議委員會는 政務院이 提出한 豫算 및 決算案을 檢討하여 本會議에 報告한다.

法案審議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아야 할 法令의 草案을 作成하고 審議한다.

北韓은 政權樹立 以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5次에 걸쳐 代議員 選舉를 實施하여 最高人民會議를 構成하고 現在 第5期까지 40餘次의 會議를 開催했었으나 아직 단 한 件의 議案도 否決한 事實이

註 20) 稻子恒夫, 「社會主義와 權力集中制」, 東京, 1958, pp.48~49.

21) 朴東雲, 前掲書, p.50.

없으며 金日成과 党的 決定에 따라 모든 것이 滿場一致로 處理되어 왔다.²²⁾

라. 中央人民委員會

中央人民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이며, 中央人民委員會 首位는 主席이다. 中央人民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委員들로 構成한다.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中央人民委員會의 任務와 權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²³⁾

- ① 國家의 對內外 政策 樹立
- ② 政務院, 地方人民會議 및 地方人民委員會 事業을 指導한다.
- ③ 司法, 檢察機關 事業을 指導한다.
- ④ 國防 및 國家 政治 保衛事業을 指導한다.
- ⑤ 憲法, 最高人民會議 法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命令, 中央人民委員會 政令, 決定, 指示, 執行 政令을 監督하며 그와 어긋나는 國家機關의 決定, 指示를 廢止한다.
- ⑥ 政務院의 部門別 執行機關의 部를 新設내지는 廢止한다.
- ⑦ 政務院 總理의 提議에 의하여 副總理, 各 部長, 그밖에 政務院 成員들을 任命 및 解任한다.
- ⑧ 大使와 公使를 任命 및 召喚한다.

註 22) 北韓全書. (上), p.145.

23) 北韓憲法, 第7章 參照.

⑨ 重要 軍事 幹部를 任命 및 解任하며 將領, 軍事稱號를 授與한다.

⑩ 大赦를 實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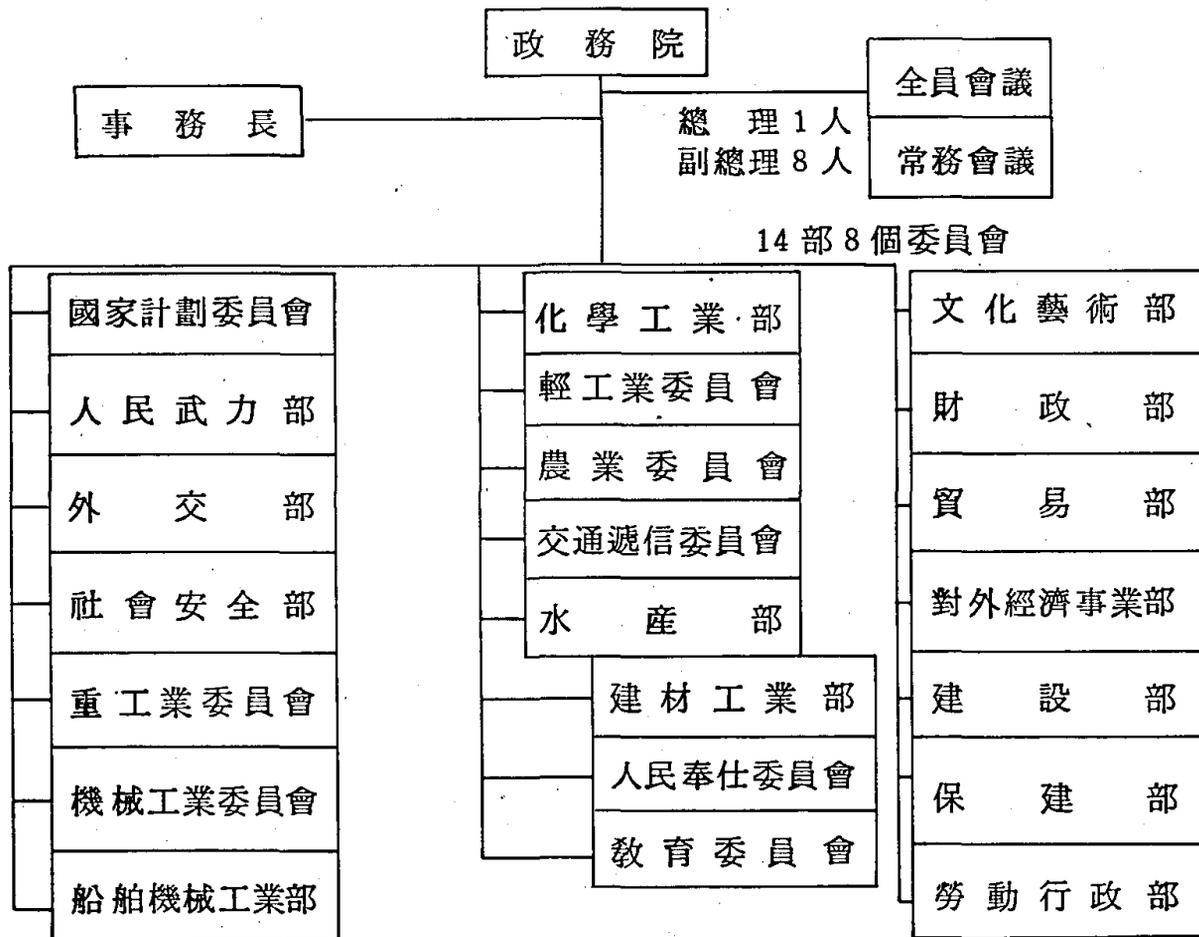
⑪ 行政區域을 新設改廢한다.

⑫ 有事時에 戰時狀態와 動員令을 宣布한다.

위와 같은 事業에 대하여 中央人民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 앞에 責任을 진다.

<表 8 >

政務院機構表



마. 政務院

政務院은 主席의 提議에 따라 最高人民會議에서 選舉된 總理와 主席이 提議하고 中央人民委員會가 任命한 副總理, 部長, 委員長 및 그 밖의 成員들로 構成된다.²⁴⁾ 政務院의 機構는 <表 8>에서 보듯이 1人의 副總理, 1人의 事務長, 14個의 部, 8個 委員會로 構成되어 있으며 全員會議과 常務會議를 두고 있다. 副總理가 8人이나 되는 것과 部와 委員會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制度는 元來 蘇聯에서부터 由來한 것이다. 蘇聯도 初期에는 閣僚의 數가 14~16名에 不過하였었다. 그러나 國內의 社會主義 建設과 그에 따른 政治·經濟의 變化로 專門化내지 細分化가 일어났다. 1936年 12月에는 30名으로 閣僚의 數가 늘어났다. 2次世界大戰後 經濟復興을 위하여 機構가 擴大되어 1953年 2月에는 72名의 閣僚가 되었다.

1964年 코시킨首相은 90名이나 되는 閣僚會議를 주재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縮小되어 15個 部處만 남아 있다.²⁵⁾

北韓 역시 蘇聯에 의해 共產化되어서 蘇聯을 模型삼지 않을 수 없었으며 後進共和國으로서 先進共產國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²⁷⁾

註 24) 北韓憲法, 第 76 條 第 6 項, 第 103 條 第 7 條

25) 北韓政治論, 前揭書, p.189.

26) 世界共產圈總鑑, p.90.

27) R. A. Scalapino & C. S. Lee, op. cit., p.800.

副總理는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다. 그는 1個 分野 以上の 業務를 管轄하며 때로는 數個의 部를 統轄하고 調整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런 役割을 통해서 總理를 補佐하는 것이며 同時에 黨과의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黨의 政策을 行政에 反映시키는 重要な 通路로서 役割하는 것이다.²⁸⁾ 8人의 副總理 中에서 6人이 黨政治委員이라는 事實에서 우리는 그 職能의 重要性和 黨과의 密接한 連關性을 推測할 수 있다고 보겠다.

部는 自己 所管事業에 대해서 直接的인 行政作用을 하는 高度로 中央集權化된 機構다. 反面에 委員會는 一般的인 調節과 政策의 方向을 提示하는 分權的인 行政機構로서 委員會 傘下의 機構는 限定된 規制範圍 内에서는 相當한 裁量權을 가지고 있다. 즉 委員會는 包括的인 上位機關이라고 할 수 있고 部는 限定的인 下位機關이라 할 수 있다.

政務院은 從前의 內閣에 該當하나 過去의 內閣에서 政策決定權을 떼어서 新設된 中央人民委員會에 넘기고 行政執行權만 가지고 있다. 新憲法에서 規定하고 있듯이 政務院은 最高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²⁹⁾ 으로서 行政執行과 行政指導를 擔當하고 있다. 金日成이 國家主席이 되기 前에는 內閣首相職을 金日成이 兼任 擔當함으로써 政策樹立, 決定 및 執行까지 擔當하였지만 內閣의 後身인 政務

註 28) Scalapino and C. S. Lee, op. cit., p. 801.

29) 北韓憲法, 第 107 條.

院은 이제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는 下位の 行政機關이 되었다. 앞의 <表8>에서 보듯이 事業進行을 위하여 全員會議과 常務會議를 두고 있다. 政務院 全員會議는 政務院의 成員全體 즉 總理, 副總理 各 部の 長 및 各 委員會의 委員長으로 構成되며 國家管理事業의 主要問題를 討議, 決定한다. 全員會議는 一種의 長官會議로서 行政의 性格을 띤 最高管理機關이다. 또한 政務院 常務會議는 總理, 副總理 및 總理가 任命하는 成員들로 構成하며 政務院 全員會議에서 委任한 問題들을 討議, 決定하도록 되어 있다. 이 常務會議는 政務院의 高位幹部로 構成된 常設政策機關으로서 重要的 政策이나 國家機密事項을 審議決定하는 閣內內閣(inner cabinet)이며 戰時나 非常事態에 對備한 最高位 政治機關이다.

政務院은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지고 있다.³⁰⁾

- ① 各 部, 政務院 直屬機關 地方行政委員會 事業指導
- ② 政務院 直屬機關의 新設·廢止
- ③ 人民經濟 發展計劃 作成 및 그 實行對策 樹立
- ④ 國家豫算 編成 및 그 實行對策 樹立
- ⑤ 工業, 農業, 對內外 商業, 建設, 運輸, 國土管理, 都市經營, 科學教育, 文化, 保健 등 事業 執行.
- ⑥ 貨幣 및 銀行制度 強化對策 樹立

註 30) 北韓憲法, 第 109 條.

- ⑦ 條約의 締結 및 對外事業實施
- ⑧ 人民武力 建設事業
- ⑨ 社會秩序 維持, 國家利益 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障 對策樹

立

⑩ 政務院 決定, 指示에 어긋나는 國家管理機關의 決定·指示의 廢止

政務院은 以上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지고서 中央人民委員會와 主席의 指示를 받아 行政을 執行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各 部, 委員會의 機能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¹⁾

國家計劃委員會는 勞動黨의 經濟政策에 立脚하여 北韓의 모든 經濟計劃을 綜合作成하고 이를 政務院會議에서 承認받아 各 部署로 通報한다. 또한 同 委員會는 그 作成된 計劃案에 대하여 具體的인 實行計劃을 指導保障하여 人民經濟計劃 全般에 걸친 豫備的 決算까지 行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計劃委員會는 政務院의 25個 部署 中에 外交, 社會安全, 人民武力部가 管掌하고 있는 業務를 除外한 人民經濟 全般에 걸쳐 所管別 管理局을 傘下에 두고 있다.

人民武力部는 過法의 民族保衛省을 改稱한 것으로서 傘下에 人民軍 總參謀部를 두고 各級 司令部를 指揮·統率하고 있다. 人民武力部는 中央人民委員會의 政策樹立과 指導에 의해서 國防에 관한 諸 事業을 執行하나 그 執行過程에서는 政務院에서 決定된 細部的 實行指針이나 施行方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平時가 아닌

註 31) 北韓全書(上), pp. 164-168.

戰時 下에서는 軍最高司令官인 主席이 國防委員會를 통해 直接 軍을 統率하도록 되어 있다.

外交部는 外國과의 條約 및 協定締結, 修交擴大, 在外公館 運營 등의 事業을 한다. 副次的으로는 外國과의 通商, 貿易交流, 親善交流의 擴大 등의 事業도 遂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貿易部 對外 經濟事業부와 密接한 連繫를 맺고 있다.

社會安全部는 우리나라의 治安本부와 비슷하나 다른 것은 社會安全員의 任務中에 反革命行爲 감시 및 反航空組織의 運營 등 特殊 任務가 부과되어 있다.

重工業委員會는 歷代內閣에서 가장 頻繁한 改編을 거친 部署로서 金屬工業, 電氣工業, 石炭工業, 鑛業과 電力問題를 관장하고 있다.

機械工業委員會는 一般機械, 精密機械, 電氣機械, 重機械工業을 管掌하며 機械設計와 設備部品에 대해서도 管理權을 가지고 있다.

化學工業部는 化學管理, 化學纖維工業, 製鹽, 染料工業과 製紙工業을 管理한다.

輕工業委員會는 日用品工業, 食料工業, 紡織 및 被服工業 등 住民生活과 直結되는 消費材 工業을 一括的으로 管理한다.

農業委員會는 農業經營을 指導하며 協同農場을 指導하고 林業, 畜産業, 蠶業을 管理한다.

交通遞信委員會는 海運, 陸運, 遞信을 管理하는데 5次內閣(1972年 構成)에서 처음으로 交通과 遞信이 합쳐졌다.

人民奉仕委員會는 新設한 것으로 糧穀收買, 都市經營, 商業, 社會問

題, 農村建物を 管理한다.

教育委員會는 過去의 普通教育省과 高等教育省을 統合한 것으로서 出版, 圖書, 科學教育, 技術教育까지 管理한다.

文化藝術部는 映画, 音樂, 舞踊, 演劇, 美術 등을 管理하며 北韓社會主義制度의 우월성과 金日成 偶像化政策을 위한 對住民 心理戰活動도 아울러 遂行한다.

財政部는 豫算編成, 豫算下達, 豫算執行을 擔當하며 財政에 대한 監督機能도 同時에 遂行하고 있다.

貿易部는 外國과의 貿易交流 및 擴大를 위해 外交部, 對外經濟事業部와 密接한 連關을 가지고 있다.

保健部는 醫療, 製藥, 衛生, 防疫 등의 事業을 執行 監督한다.

勞動行政府는 勞動力의 把握, 補充, 勞動力의 配置와 賃金問題, 勞動條件, 勞動時間 등의 業務를 統轄하고 있다.

水産部는 漁業, 漁具, 水産協同組合 關係를 統轄한다.

一般機械工業部는 船舶製造와 管理業務를 統轄한다.

建財工業部는 建設分野에 所要되는 모든 資材의 生産 및 管理事業을 遂行한다.

對外經濟事業部는 外國과의 經濟交流以前的 貿易商談, 市場調査 및 開拓, 外國投資 誘導, 外國에 대한 經濟支援을 專擔함으로써 實質的인 通商이나 交易 以前的 問題를 다루고 있다.

建設部는 1948年 北韓政權樹立 當時에는 없었으나 1953年 6月 國家建設委員會가 新設되었으며 1955 ~ 1959年과 1961 ~ 1963년에

建設省이 同委員會와 함께 並存하다가 各各 廢止되었다. 그러다가 1967年 12月 第4次 內閣에서 다시 復活된바 今般 第5次內閣에서 建設委員會와 建設省이 統合, 建設部로 發足되었다. 同部는 過去와는 달리 國土, 産業, 都市, 農村 등 建設關係分野를 一括적으로 統合, 管轄하게 되어 있다.

4.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行政機關

北韓의 行政區域은 休戰協定 以後 20여년간 數次에 걸쳐 行政區域을 改編하였다. 8.15 解放時 6個 道, 9個 市, 89郡, 810 邑·面이었던 것을 1952年 面階層을 廢止하고 道·市(郡)·里의 3段階 行政區域體制로 바꾸었다. 따라서 郡의 數가 증가했고(157) 里의 規模가 擴大되었다.

또한 工場·鑛山·漁村의 里中 400名 以上の 賃金 勞動者가 居住하는 地域에는 새로운 社會主義的 行政單位로 指稱되는 勞動者 區를 設置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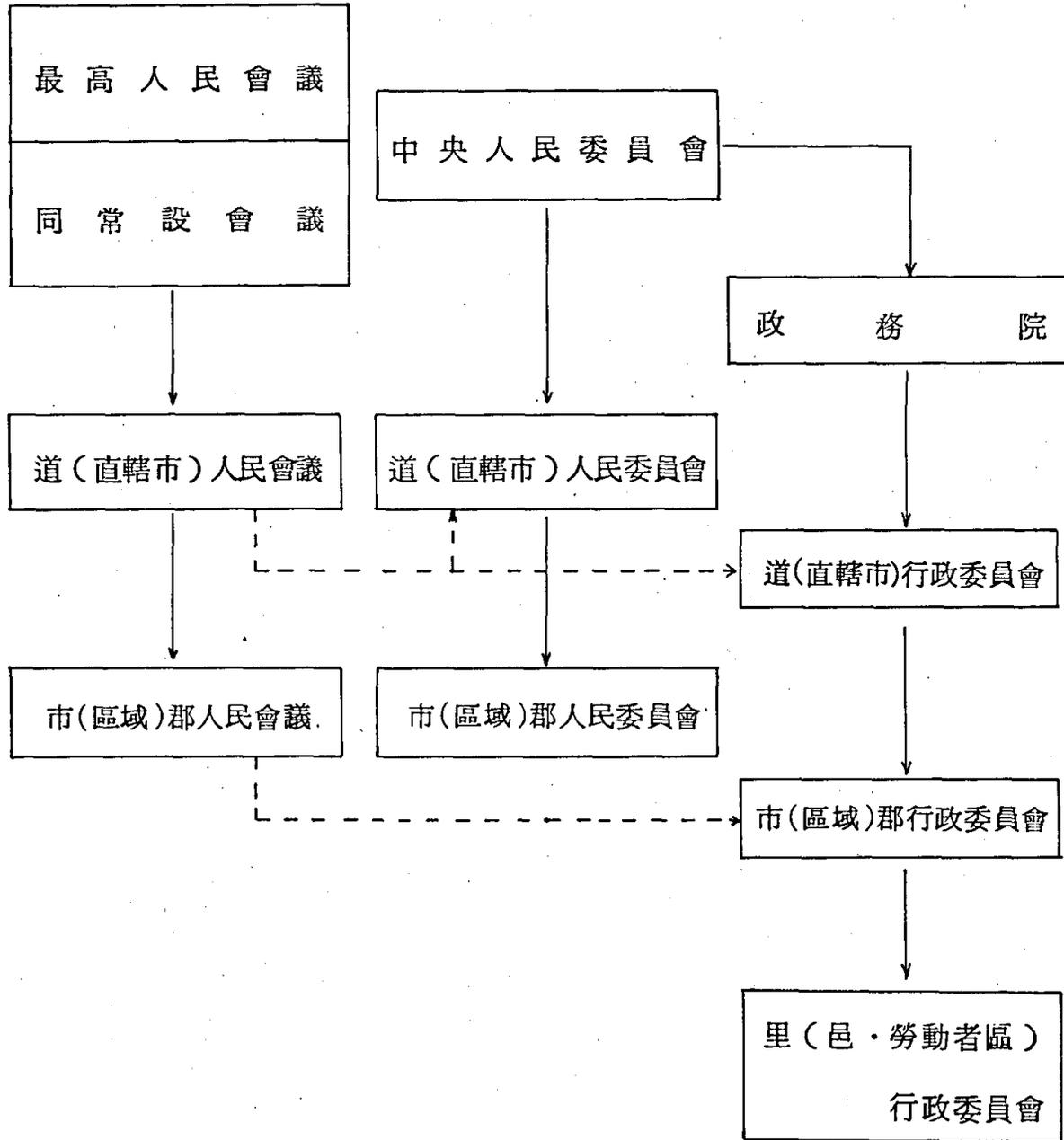
行政區域은 道(直轄市), 市(區域), 郡·里(邑·勞動者區)로 區分되어 있다. 따라서 地方機關은 行政區域에 따라 組織하게 된다. 즉 地方行政機關은 앞에서 본 中央組織과 對比되는 地方人民會議와 地方人民委員會 및 地方行政委員會로 이루어져 있다.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9>³²⁾

註 32) 北韓全書(上), p.179.

〈表9〉

地方主權 與 執行機關 運營體系

-----> 選舉
-----> 指導



나. 地方人民會議

中央의 最高人民會議에 對比되는 機關으로 新憲法 下에서는 道, 直轄市, 市區域 郡單位에서만 構成되고 里單位에서는 人民會議가 構成되지 않는다고³³⁾ 하고 있다.

地方人民會議는 그 地方의 主權機關이며 同時에 地方的 事務에 관하여 重要한 權限을 가지고 있지만 中央集權主義 原則에 따라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게 되어 있어³⁴⁾ 實質的으로는 中央政府의 代行機關에 그치고 있다.

地方人民會議 權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진다.³⁵⁾

- ① 地方의 人民經濟 發展計劃을 承認하며
- ② 地方豫算을 承認하고
- ③ 該當 人民委員會 委員長, 副委員長, 書記長, 委員들을 選舉하고 召喚하며
- ④ 該當 行政委員會 委員長을 選舉하고 召喚하며
- ⑤ 該當 裁判所의 判事, 人民參審員을 選舉하고 召喚한다.
- ⑥ 該當 人民委員會와 下級人民委員會 및 人民會議 그릇된 決定, 指示를 廢棄하는 權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地方人民會議의 權限은 「承認」과 「選舉」만으로 되어 있고,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 監督을 받게 됨으로써 形式

註 33) 北韓憲法, 第 115 條.

34) 上揭法, 第 103 條 第 2 項

35) 上揭法, 第 118 條

的인 것에 不過하다.

다. 地方人民委員會

新憲法 下에서 道·直轄市·市·區域·郡·人民委員會는 該當 人民會議의 休會中の 地方主權機關이 됨과³⁶⁾ 同時에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中央政府의 地方的 事業을 執行한다.

地方人民委員會의 權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³⁷⁾

- ① 地方人民會議를 召集하며
- ② 地方人民會議 代議員 選舉를 위한 事業을 하며
- ③ 該當 人民會議 代議員들과의 事業을 하며
- ④ 該當 人民會議와 上級 人民委員會의 決定·執行을 위한 對策을 세우며
- ⑤ 該當 行政委員會의 事業을 指導하며
- ⑥ 下級 人民委員會의 事業을 指導한다.
- ⑦ 該當 行政委員會와 下級 人民委員會, 行政委員會의 그릇된 決定의 執行을 停止시킬 수 있고
- ⑧ 該當 地域 內的 國家機關 企業所 및 社會協同團體들의 事業을 指導하고
- ⑨ 該當 行政委員會 副委員長, 事務長, 委員들을 任命 및 解任 하

註 36) 上揭法, 第 123 條

37) 上揭法, 第 125 條

는 등의 權限을 가지고 있다.

中央人民委員會에 對比되는 地方機關인 地方人民委員會는 該當 人民會議와 上級 人民委員會에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다.³⁸⁾

그러나 中央人民委員會가 地方人民會議를 指導·監督하고 地方人民會議가 下級 人民會議의 決定·執行을 停止시키는 權限을 가지고 있으므로 實質的으로 地方人民委員會는 該當 主權機關인 人民會議보다 上位의 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것이다.

라. 地方行政委員會

地方行政委員會는 過去에는 없었으나 新憲法에 의하여 新設된 機關이다. 地方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³⁹⁾ 이라는 地方行政委員會는 中央의 政務院에 對比한다. 地方行政委員會는 自己事業에 대하여 該當 人民會議·人民委員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上級 行政委員會와 政務院 그리고 該當 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도록 되어 있어 二重 三重의 業務監督과 統制를 받고 있다.

最下位 機關으로서 地方行政委員會가 갖는 權限은 다음과 같다.⁴⁰⁾

- ① 該當 地方의 모든 行政事業을 組織·執行하며
- ② 該當 人民會議·人民委員會 및 上級 行政委員會의 決定·指

註 38) 上揭法, 第 127 條.

39) 北韓憲法, 第 128 條.

40) 北韓憲法, 第 130 條.

示를 執行하며

③ 地方의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고 그 實行對策을 세우고

④ 該當 地方의 社會秩序維持, 國家의 利益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障을 위한 對策을 세우며

⑤ 下級 行政委員會 事業을 指導하며

⑥ 下級 行政委員會의 그릇된 決定·指示를 廢棄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

地方行政은 이와 같이 地方人民委員會의 政策樹立機能과 地方行政委員會의 執行機能을 中心으로 實施된다. 各級 地方人民會議가 主權機關으로서 該當 人民委員會를 選舉로써 構成하면 이 人民委員會는 該當 行政委員會의 副委員長, 事務長, 委員들을 任命한다.

地方行政委員會는 自己事業에 대하여 該當 人民委員會와 人民會議 앞에 責任을 지고 上級 行政委員會와 政務院의 指導와 監督을 받게 되어 있다.

地方行政制度를 中央組織과 對比하여 體系的인 改編作業을 한 것은 1972年의 新憲法 採擇이 契機가 되었다. 그 以前에는 地方 人民會議를 人民委員會라 불렀고 現在의 人民委員會는 人民委員會 常任委員會의 後身に 該當하는 것이다.

現在 各級 主權機關은 「人民會議」, 行政指導機關은 「人民委員會」, 執行機關은 「行政委員會」라고 統一하면서 權限도 再分配하고 있다.

또 現在 地方行政區域單位로서는 9個 道(平安南道, 平安北道, 慈江道, 黃海南道, 黃海北道, 咸鏡南道, 咸鏡北道, 江原道, 兩江道)와 1個 特別市(平壤) 3個 直轄市(南浦, 開城, 清津) 및 169個 市·郡 등이 있다. 41)

5. 政務院과 黨 및 社會團體와의 相互關係

가. 政務院과 黨과의 關係

政府와 黨과의 關係에서는 우선 黨과 最高人民會議과의 關係를 살펴본 다음 政務院과 黨 및 中央人民委員會, 社會團體와의 關係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共產主義 國家에서 權力の 가장 核心되는 것은 共產黨이다. 즉 共產黨은 國家의 모든 權力の 源泉이고 國家機關은 共產黨의 權力에 의하여 決定된 諸般 政策을 執行하고 共產黨으로부터 委任받은 權力을 行使하는데 不過하다. 이러한 共產黨을 頂點으로 하여 定立된 權力構造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에 의하여 合理性을 만들어내고 있다.

끊임없는 階級鬭爭을 통하여 階級이 없는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資本家 및 反革命分子들에 대한 勞動階級の 單一的이고 도 無制限한 支配權力이 樹立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註 41) 朝鮮要覽, 前揭書, p.198.

그 결과 黨과 國家機關의 有機的 聯關을 強調하며 그 兩機關의 有機的 聯關性은 兩機關의 頂點을 占하는 者의 融合에 依하여서만 成功的으로 達成된다고 본다.⁴²⁾ 北韓統治機構는 大體로 最高人民會議(立法機關),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行政府) 및 中央裁判所(司法府) 등으로 形式上은 區分되어 있으나 實質적으로는 機能上으로 統合되어 朝鮮勞動黨의 一黨獨裁體制를 形成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憲法上으로는 最高人民會議는 最高主權機關이며, 唯一한 立法機關이라고 明示되어⁴³⁾ 있으나, 超憲法的 權力인 黨의 支配가 모든 國家機關의 活動을 陰陽으로 統制하고 있다.⁴⁴⁾ 1972年 12月에 實施한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에서 勞動黨所屬 代議員이 總 541名 中에서 528名으로 97.6%를 占하고 있다는⁴⁵⁾ 것은 위의 事實을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다.

國內外政策의 基本原則과 人民經濟計劃의 決定 등 國家 重大事項은 最高人民會議의 審議에 先行하여 黨中央委員會에서 採擇되고 단지 最高人民會議는 이를 滿場一致로 再確認하는 것을 慣行으로 삼고 있다.

最高人民會議의 會期가 平均 3日이며 會期 中 日課는 指導者의

註 42) 勞動黨 規約 第 7 條

43) 北韓憲法 第 73 條

44) 勞動黨規約 第 7 條

45) 北韓全書(上) p.145.

演說에 대한 支持 拍手와 党的 承認을 받은 政府提案에 대한 若干의 贊成討論 後 滿場一致로서 그것을 採擇하거나 追認하는데 그치며 따라서 그것은 形式的 審議機能을 行하는데 不過하고 實質的 統制는 党 中央委員會가 行하고 있는 實情이다. 政府와 黨을 關聯하여 中央統治機構를 圖式化 하면 <表 10>과 같다.

다음 党과 中央人民委員會 및 政務院의 關係에서 보면 北韓은 1972年 12月 27日 소위 社會主義憲法을 制定公布하고 政策의 效率的인 統制 및 執行을 指導할 目的으로 党과 政府를 聯合하는 合議體 形式의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하였다.

憲法 改正 前의 內閣은 党的 政策樹立에다 基礎를 두어 그 政策들을 執行해 왔으나 新憲法에서는 主席制가 새로이 생기고 主席이 中央委員會를 實質的으로 指揮, 監督 및 統制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主席은 執行機關인 政務院의 會議를 召集, 指導하며⁴⁶⁾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 下에 政務院이 事業을 執行하도록 規定되어 있다.⁴⁷⁾ 主席은 行政執行에 있어서도 絶對的 權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主席은 이밖에도 党 中央委員會의 總秘書職을 兼任하고 있고, 党的 權力 核心體인 党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委員의 大部分을 中央人民委員會의 委員으로 選任하여 党的 決定과 指示가 國家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決定과 指示라는 形式을 取하게 함으

註 46) 北韓憲法 第 91 條

47) 北韓憲法 第 107 條

로써 党的 國家機關에 對한 統制를 強化하고 있다. 1972年 12月 28日에 組織된 中央人民委員會 25名의 名單을 보면 中央人民委員中 1~16位까지는 党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委員 및 候補委員이며, 17~20位까지는 党秘書 및 部長級이며 21~25位까지는 政務院의 副總理級으로 構成되어 党이 곧 政府의 核心을 掌握하고 있음을⁴⁸⁾ 알 수 있다.

國家主席은 國家代表權, 軍 統帥權, 中央人民委員會 指導權, 政務院의 召集, 指導 및 政策 決定의 權限을 가지고 있고, 党 中央委員會 總秘書職을 兼하고 있어서 모든 權力이 國家主席에 集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黨과 社會團體

北韓에 存在하는 主要한 社會團體로는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職業同盟, 女性同盟, 農業勤勞者同盟, 文學藝術家總同盟 등이 있다.

이러한 團體들은 勞動党的 外廓組織으로서 獨立性이나 中立性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 金日成은 1956年 第3次 党大會에서 「党和 大衆과의 連繫를 保全하는 引轉帶로서의 團體들은 우리 党的 가장 믿음직한 幫助者이며 後備隊입니다.」⁴⁹⁾ 라고 主張하였다. 또 1961年 4次 党大會에서는 諸團體들의 役割을 더욱 強調 했으며 큰 成果를 올렸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註 48) 北韓全書(上), p.163.

49) 朝鮮勞動党 第3次大會 文獻, 平壤, 1956, p.129.

다음에 党과 主要 社會團體로서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朝鮮職業總同盟·朝鮮民主主義女性同盟 및 農業勤勞者同盟등과의 關係를 簡單히 살펴보고자 한다.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의 成立過程을 보면 1946年 1월에 共產主義的 性格을 가진 青年同盟들이 統合되어 〈北朝鮮民主青年同盟〉이 結成되었으며 그後 이것이 〈朝鮮民主青年同盟〉으로 改編되고 1964年 5月에는 다시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社勞青)〉으로 改稱되었는바 1971年 6月現在 社勞青은 約 3百萬의 盟員을 가지고 있다.⁵⁰⁾

社勞青의 目的은 朝鮮勞動党的 領導밑에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課業을 實現하고 社會主義,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鬪爭하는⁵¹⁾ 것으로 되어 있다.

社勞青의 機能은 첫째, 勞動党的 指導下에 모든 活動을 하며, 勞動党的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하여 人民大衆에게 浸透시키는 先鋒的 役割을 하며, 党的 後備隊로서 軍隊·工場·企業所 및 農漁村에서 勞動党的 支柱役割을 한다.

둘째, 勞動党的 豫備 黨員을 養成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셋째, 南韓 赤化統一의 人的 資源 및 豫備隊의 役割을 한다.

네째, 經濟計劃의 早期 遂行을 위해 勞動力·動員의 中樞的 役割을 하고, 다섯째, 金日成 一家의 獨裁體制的 鞏固化를 爲한 基本的

註 50) 北韓全書(上), p.218.

51)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規約 前文

役割을 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社勞靑에 들어갈 수 있는 資格은 滿 14 세부터 滿 30 세까지의 靑年으로서 同盟의 綱領과 規約을 承認하고 그것을 實踐하기 위하여 鬪爭하며 同盟의 一定한 組織에서 熱成的으로 事業하며, 規定된 盟費를 바치는 모든 靑年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다.⁵²⁾

社勞靑은 마치 共産黨을 縮小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 組織原則이나 組織構造는 共産黨과 거의 같은 것이고 金日成의 「프롤레타리아」獨裁에 忠誠을 바치는 基本的인 革命組織體라 할 수 있다.

다음 朝鮮職業總同盟의 性格을 살펴보면 職業同盟은 「그 本身任務가 全體 勞動者·事務員들을 黨두리에 더욱 굳게 結束시키며 勞動階級 속에서 黨的 思想體系를 더욱 튼튼히 確立함으로써 勞動階級으로 하여금 黨的 부름에 따라 한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며 黨과 革命을 위하여 忠實히 服務」케 하는데 있다고 金日成은 主張한바 있다.⁵³⁾

職業同盟은 1951年 1월에 創設되었으며 1962年 1월에 開催된 職業同盟 中央委員會 3期 6次 全員會議에서 第4次 勞動黨大會 決定을 貫徹하기 위하여 그 組織體를 強化하였는데 從前의 7個 産業別 團體를 金屬機械工業, 化學, 建築, 林業, 運輸 및 港灣등 10

註 52)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規約 第一條

53) 朝鮮勞動黨 第4次大會 主要文獻集, 平壤, 1961, p.137.

個 産業別 機構로 擴大하였으며, 1971年 12月現在 約 240 萬名의 盟員을 保有하고 있다.⁵⁴⁾

北韓의 職業同盟은 民主主義社會에서의 勞動團體와는 本質적으로 다르다. 職業同盟의 全般的인 事業으로서는 党的 指示를 忠實히 遂行하기 위하여 作業班 單位 또는 職場 單位別로 競爭시킴으로써 勞動能率을 向上시키기 위한 千里馬運動 또는 二重 千里馬運動을 展開하여 生産責任을 超過 達成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다음 朝鮮民主主義女性同盟(女盟)에 關하여 살펴보면 北韓은 1946年 7月 30日 「男女平等權에 關한 法令」을 公布하여 傳統的인 家族制度의 破壞를 斷行하였는바, 女盟은 이런 計劃을 遂行하는 團體라 볼 수 있다.

北韓의 女性同盟은 本來 1945年 11月 18日 「北朝鮮 民主女性同盟」으로서 創立되었으며 1951年 1월에 「南北 朝鮮女性同盟 合同中央委員會」에서 「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統合, 改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⁵⁵⁾ 1971年 現在 女盟員數는 約 200 萬名에 이르며⁵⁶⁾ 金日成의 妻 金聖愛가 女盟 中央委 委員長職을 맡아 있는 것으로 미루워보아 金日成의 族閥政治는 外廓團體에 까지 浸透된 것을 알 수 있다.

註 54) 朝鮮要覽, 現代朝鮮研究會, 時事通信社, 東京, 1975, p.207.

55) 北韓全書(上), p.222.

56) 朝鮮要覽, 前掲書, p.208.

金日成은 「朝鮮民主女性同盟」의 任務는 「女性들 속에서 共產主義 敎養을 強化하며 그들의 政治意識과 文化水準을 더욱 높이며, 社會主義 建設에서 勤勞女性들의 役割을 더욱 提高」시키는데 있다고 主張한다.⁵⁷⁾

女盟은 男女平等과 女性의 權利伸張을 標榜하면서 家庭生活을 破壞하는 同時에 6個年 經濟計劃과 같은 党的 政策을 早期 達成하기 위하여 女性의 勞動力을 보다 效果的으로 動員하고,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党的 路線 및 政策 等에 대한 女性의 義務感을 扶植케 하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農業勤勞者同盟(農勤盟)은 職盟, 社勞靑, 女盟과 더불어 가장 큰 外廓團體의 하나로 1972年 2月 現在 約360萬名의 同盟員으로 構成되어 있다.⁵⁸⁾

農勤盟 역시 勞動党的 路線과 政策을 補助 遂行하고 党和 農業部門의 勞動者 및 事務員을 連結시키는 引轉帶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農勤盟의 盟員은 「農業勤勞者同盟」에도 나타나 있듯이 農民에 局限시키지 않고 農業과 關聯된 部門에 從事하는 勞動者, 技術者 및 事務員을 包含시키고 있다. 同盟 中央委員會의 任務를 要約하면 ① 同盟內 党的 思想體系의 確立과 金日成의 敎示實踐 ② 思

註 57) 朝鮮勞動党 第4次大會 主要文獻集, 1956, 平壤, p.139.

58) 朝鮮要覽, 前掲書, p.207.

59) 農業勤勞者同盟, 規約 第7章 參照.

想革命, 文化革命 및 技術革命的 推進 ③ 社會主義 農村建設 等を
規定하고 있다.⁶⁰⁾

이밖에 勞動党的 領導下에 文學藝術活動을 통하여 北韓住民을 共
産主義思想과 革命傳統을 갖게 하는 「朝鮮文學藝術家同盟」이 있고
또 「民主黨」 「天道敎靑友黨」등 소위 勞動党的 友黨이 있으며
社勞靑. 職盟. 女盟. 農勤盟 等 勞動党的 外廓團體들과 더불어 모든
社會團體를 總網羅한 組織으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 形成되고 있
는 것이다.

註 60) 上掲 規約 第3章 參照.

Ⅲ. 北韓 行政組織의 變遷過程

1. 蘇聯軍政下에서의 行政組織과 過渡內閣 (1945. 8 ~ 1948. 9.9) 에서의 行政組織의 變遷

가. 平南建國準備委員會 組織

1945年 北韓은 蘇聯이 共產化하기 쉬운 여건에 놓여있었다. 日帝의 36年間の 植民地政策으로 因하여 國內에 組織된 政治團體는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共產社會內에는 蘇聯의 共產化政策을 反對 또는 抵抗할 組織的 힘이 弱하였다.

解放을 맞이한 平壤에서는 各界人士들이 모여 中央(서울)消息에 깊은 關心을 기울이면서 建國에 關한 論議를 거듭했다.

8月 17日 古堂 曹晚植을 中心으로 平壤 鍾路에 있는 吳胤善宅에서 열린 有志懇談會는 別다른 논란도 없이 <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組織하고 그 構成과 部署(委員長 曹晚植, 副委員長 吳胤善, 總務部長 李周淵 등)를 發表하였다. 이 構成에서 曹晚植을 中心으로한 民族主義陣營人士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共產主義者들은 極小數였다.

<平南建國準備委員會>는 解放 當日에 結成을 본 中央(서울)의 建國準備委員會의 名稱에 歸一하자는 데에 意見을 모았지만 <中央建準>의 性格이나 路線은 미처 把握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過渡的인 純民間 愛國團體로서 中央政府의 樹立을 기다리

면서 國民들의 自發的인 協力을 얻어 비록 10日間の 짧은 期間 이나마 自治的인 能力을 發揮하였다.

蘇聯軍의 北韓 進駐를 기화로 共產主義者들이 北韓 各地에서 蠢 동하기 시작했고 특히 中央(서울)建準이 左傾路線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소식을 接하기에 이르자 平南建準은 名稱을 바꾸어야 한다는 意見까지 대두되었지만 蘇聯軍의 進駐로 名稱은 고사하고 人的 構成까지 뒤집히고 말았다.

나. 蘇聯軍政의 對北韓政策

8月 25日 蘇聯軍은 正식으로 平壤에 北朝鮮駐屯 蘇聯軍司令部를 設置하여 蘇聯 第25軍 司令部「치스차코프」大將이 司令官이 되었다.

蘇聯이 北韓에 共產制度를 移植한 方法은 東歐 諸衛星國에서 쓴 手法과 큰 差異가 없지만 兩斷된 國土의 남쪽에 民主主義의 旗幟을 앞세우고 들어 온 美國이 있다는 點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蘇聯의 北韓共產化計略을 要約하면 ① 政治·經濟 等 모든 것을 韓國人에게 넘겨준다는 美名下에 韓國名을 가진 蘇聯 共產黨員에게 넘겨 주었다는 點, ② 蘇聯軍 少佐이며 蘇聯 共產黨員인 金日成(本名 金成柱)을 最高權力者로 등장시키기 위하여 英雄化시켰다는 點 ③ 北韓을 漸次的으로 共產化하기 위하여 民主·民族陣營의 人士들 까지 包含한 民主政體로 假裝시켰다는 點, ④ 基幹産業, 鐵道運輸, 銀行 等 主要 經濟機關을 國有化란 口實로 共產黨이 占有하게 하

있다는 點, ⑤ 北韓을 共產革命基地로 삼고 力量을 蓄積, 將次 全
韓半島를 共產化하려고 꾀한 點 ⑥ 金日成으로 하여금 共產黨首와
北韓政權首班을 兼任시킴으로서 손쉬운 上전 노릇을 하게한 點 等
을 들 수 있다.

다. 平南人民政治委員會 構成

平壤에 駐屯한 蘇聯軍 司令官은 첫 事業으로 平南建準의 解
體와 人民委員會 構成을 서둘렀다.

蘇聯軍政은 平南政治委員會를 構成한 26日 日本側 道知事 以下
幹部들을 불러, 모든 行政權을 〈平南人民政治委員會〉에 넘겨주라고
命令했다. 그리하여 27日부터 道에서 地方에 이르기까지 行政機關
等 모든 機關을 接收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機關長을 任命하였다.

各 地方에 人民委員會가 組織되고 秩序가 回復되자 蘇聯軍政은
새로운 行政機構를 만들게 되었다. 즉 10月 8日 蘇聯軍 司令
部는 北朝鮮五道會議를 召集하고, 10月 28日 「北朝鮮五道行政局」
을 正式으로 組織 發足시켰다.

同 五道行政局은 産業·教育·保安·司法·交通·農林·財政·遞信
保健·商業의 10局으로 構成되었는데 그해 11月 中순까지 局長은
대부분 共產黨 幹部로 그리고 副局長은 전부 蘇聯 2世를 배치하
였다.

1947年 2月 21日에 召集된 北朝鮮人民會議 第一次會議는 「北朝鮮의 立法權을 行使한다」는 規定을 마련하기에 앞서 北朝鮮 人民會議에 관한 規定 第7條에 依據하여 常任委員會를 構成하고 이어 이른바 北朝鮮最高執行機關인 「北朝鮮人民委員會」를 再組織하였다. (最初의 組織은 金日成이 入北한 이듬해인 1946年 2月 8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이다.)

이 會議에서 委員長에 金日成이 選任되고 그에게 委員會의 組織 編制가 委任되었다.

이때의 機構를 보면 委員長, 副委員長, 事務長, 企劃局, 産業局, 內務局, 外務局, 財政局, 交通局, 農民局·遞信局, 商業局, 保健局, 教育局 勞動局, 司法局, 人民檢閱局, 宣傳局, 糧政局, 등이 있었다.

이 編制는 蘇聯軍政으로부터 政權을 承繼하기 위한 過渡的인 準備機關으로 組織된 것으로 事務長과 企劃局 같은 管理機構를 優位에 두고 經濟發展을 擔當하는 産業局과 國內治安을 管掌하는 內務局을 優先的으로 編制한데서 그 特徵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人民檢閱局같은 保安檢査擔當의 革命期의 統制機構가 注目된다.

2. 第1次內閣(1948.9.9 ~ 1957.9.20) 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北韓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가 樹立되면서 그 初期의

第一次內閣組織은 首相 金日成과 副首相 3名 밑에 17個의 省級 機構를 가졌었다. 1953年 以後 副首相은 漸次 늘어나서 1956年度에는 8名으로까지 증가되었다. 또한 51년에는 産業省이 重工業省으로, 다시 55년에는 金屬工業省으로 바뀌고 다시 여기에서 化學建材工業省이 分離되었으며 53年 6月에는 國家建設委員會가 新設되었고 54年 3月 電氣省이 發足되었다. 그리고 57年 石炭工業省과 機械工業省이 新設되었다.

1次內閣期間中에 이와같은 副首相의 증가와 産業 및 建設分野의 機構들이 大幅 늘어나게 된 것은 1954年부터 시작된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1957年 <第一次 5個年經濟計劃期>까지의 政策推進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副首相을 大幅 增員한 것은 部省의 數가 增加됨에 따라 統制의 適正範圍를 勘案했고 首相과 副首相으로 構成되는 閣內內閣(innercabinet)을 통하여 集權的인 行政을 遂行하려는 蘇聯式 政府編制의 管理方式을 모방한 것이라 하겠다.

뒤이어 1957年의 第二次內閣의 組織까지 總 22個 件數에 達하는 省의 廢合, 新設, 乃至는 名稱變更을 보여 주었다.

이와같이 機構改編이 頻繁했던 理由에 關해서는 二次大戰前後의 蘇聯의 經驗에서 몇가지 示唆點을 發見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⁶¹⁾ 원래 蘇聯에서는 産業의 急速한 發展에 따르는 專門化의 증대 때

註 61) 北韓統治機構論, 前掲書, pp.69-70.

문에 重要産業 部門의 企業管理 責任者들은 相級部省「레벨」의 地位에 끌어 올리는 傾向이 나타났으며, 다만 「스탈린」死亡後에 이르러서는 第三期 第4次 最高 소비에트가 一但 機構簡素를 指向하면서 省들의 統合을 試圖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곧 原狀으로 復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⁶²⁾

3. 第2次內閣(1957.9.20~1962.10.23) 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第二次內閣 組織當時·副首相은 6名이었고 省級機構는 20個였다. 뒤이어 60年 以後 副首相은 8名으로 늘어났으며 文化省과 教育省이 57年에 統合·教育文化省이 되었고 다시 60年에 文化省 普通, 高等教育省의 3個省으로 擴張되었다. 또한 重工業分野와 建設分野에 있어서도 頻繁한 統合 分離를 가져온바 그 代表的인 것이 1960年 石炭工業, 機械工業, 動力化學工業 등이 統合되어 重工業委員會로 發足 되었고 이것이 다시 62年에 金屬, 化學, 電氣, 石炭, 機械工業省으로 分離 되었다. 그리고 59年에 廢止되었던 都市經營建設省이 61年에 建設省으로 되살아났으며 62년에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 新設되었다.

註 62) 蘇聯內閣의 機構改編에 관해서는 Julian Towster, Political Power in the U.S.S.R., Oxford Univ. Press. 1948, Ch.Xi, 3 참조.

이와같은 重工業分野의 分離獨立, 科學技術委員會의 新設等은 1961年부터 1966년까지의 7個年經濟計劃에서 내세운 重工業의 優先的인 發展과 技術革新 等の 政策에 기인하였으나, 同 7個年計劃은 다음 4次內閣에까지 延長될 程度로 失敗를 免치 못하였다.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特徵은 ① 副首相制가 漸次的으로 擴大되어 왔다는 것과 ② 産業部門의 省과 委員會들의 變動이 많았다는 點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機構의 變遷은 經濟計劃이 거듭됨에 따라 産業部門에 對한 中央의 統制가 더욱 크게 要求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第3次內閣(1962.10.23~1967.12.16) 中の 行政 組織의 變遷

1964年度에 들어서면서 重工業優先政策으로 因하여 極히 不振한 輕工業分野를 發展시키는데 多少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62年 1月 輕工業委員會를 國家輕工業委員會도 擴張한바, 이에 앞서 各道에 輕工業委員會, 各市·郡에 地方産業經營委員會 等を 新設함으로써 輕工業管理體系를 一元化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1966年 1월에 다시 輕工業省으로 환원하였고 1967年 1월에 가서 다시 이 輕工業省을 食料 및 日用品工業省과 紡織 및 製紙工業省으로 分離하였다.

또한 第2次內閣當時 重工業委員會에서 分離獨立한 機械工業省을

1967年 1월에 와서 이를 다시 第一機械工業省과 第二機械工業省으로 分離시켰다.

同 期間中 이와같은 輕工業 및 機械工業分野의 內閣機構가 수차례 바뀌고 없어지는 過程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1962년에 시작한 7個年計劃課題에 있어서 重工業보다 輕工業쪽이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次內閣期間中에서 輕工業分野의 機構가 여러차례 變動된 것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輕工業不振으로 因한 北韓住民의 不滿이 더욱 膨大하였음을 立證할 수 있으며 이는 勞動黨 第4期 7次 全員會議(1963年 9月)에서 <輕工業등의 重點發展에 關한 決定>이 採擇되었다는 點에서도 明白하다.

또한 1964年 2月에는 交通省을 分離하여 交通運輸委員會와 鐵道省을 新設하였는데 이것은 7個年經濟發展計劃期間의 重要幹線鐵道事業과 對外貿易에 따르는 海運事業을 더욱 強化하기 위한 措處였다.

第三次內閣에서 더욱 두드러진 改編은 1964年 4月都市經營省을 廢止하고 그 業務를 內務省에 移管하였다. 이것은 1962年 10월에 社會安全省에 그 業務를 大幅 移管한 內務省이 그동안 國土管理業務만 擔當하여 오다가 都市建設, 維持管理 및 都市園林化 事業等 都市經營省의 任務를 맡게 됨으로써 國土計劃管理가 一元化를 期하였다.

또한 1964年 12月 改閣에서는 金屬化學工業省(2次內閣當時 重工業委員會)를 廢止하고 金屬化學省과 化學工業省으로 分離 獨立시

켰으며 內務省을 國土管理省으로 改稱하였다. 한편 副首相級은 3次內閣發足當時 8名이었으나 1967년에는 10名으로 曆代內閣中에서 가장 많은 增員이 斷行되었다.

5. 第4次內閣(1967.12.16~1972.12.28)中の 行政組織의 變遷

第4次內閣에서는 主로 建設關係分野의 機構가 많이 생겨난 바 3次內閣에서 廢止되었던 都市經營省과 建設省이 67年 12月 다시 부활되고 1969년에는 國土管理省이 國土建設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70년에는 第一機械工業省이 第三機械工業省으로 分離되는 등 37個部署(31個省과 6個委員會)로 機構가 大幅 擴張되었다. 한편 4次內閣에서 副首相級은 當初 9名이었으나 5次內閣때까지는 8名을 維持하였다.

이와같이 北韓의 5代 內閣機構가 不安定하게 流動的인 狀態에서 廢止·統合·分離·新設 그리고 復活의 變遷過程을 밟아온 것은 他 어느 分野보다도 工業部門이 顯著했다. 이것은 그들의 對內的 統治에 있어 政治社會的인 面에 있어서는 그들의 獨裁方式이 奏效했었다는 것을 意味하게도 된다. 그러나 經濟建設分野에 있어서는 重工業優位政策下에서 輕工業을 發展시킨다는 基本政策 밑에 政府管理能力的 不足과 現在의 北韓支配階級の 獨裁的 統治方式의 限界를 露呈시켜 姿意的이고 臨時彌縫的인 機構의 細分化 現狀만 招來하게 되었다고 본다.

6. 第5次內閣(1972.12.28~1977.12.14) 中の 行政 組織의 變遷

1972年 12月 北韓은 新憲法을 채택하면서 一人支配의 社會主義政治體制를 構築했으며 여기서 中央政府組織方式이 많이 導入된다. 우선 <內閣>을 <政務院>으로 改稱하였고 政務院 構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선 首相制度가 廢止되고 主席制를 新設했고 總理制度가 新設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主席制 및 總理制의 採擇은 中共式 政府形態를 모방한 것이며 아울러 一人獨裁者인 金日成의 地位와 權威를 制度上格上 시키고 主席으로 하여금 獨裁權力을 強化하는 동시에 政治的 責任은 免除받게 하는데 政治的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政務院은 主席의 統制下에 있는 管理幕僚的 性格의 會議體로서 過去의 金日成이 內閣을 獨占적으로 直接 支配하던 때와는 달리 單純한 行政的 執行權만을 保有하게 되어 있고 制度上 政務院은 그 보다 高次元的 行政指導 統制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傘下機關으로서의 地位에 있으나 實際器能上 主席의 完全統制下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第5次內閣에서는 第4次內閣當時의 細分化된 工業·運輸·建設 等 經濟部署를 統合함으로써 內閣의 機構를 從前의 37個에서 22個로 大幅 縮少하였다.

1972年 12月 中央國家機關 改編當時 內閣構成의 特徵을 보면 ① 民族保衛省을 <人民武力部>로 改稱하였고 ② 鐵道省과 海運 및 陸軍省을 統合 <交通遞信委員會>로 單一化했으며, ③ 普通教育部와 高等教育部를 <教育委員會>로 統合, ④ 建設關係部署를 <建設部>

에 全部 吸收했으며 電氣, 石炭, 鑛山 等を 統合, 〈重工業委員會〉로 統合하였고 ⑤ 第 1, 2, 3 機械工業委員會를 〈機械工業委員會〉로 합치고 〈船舶機械工業部〉를 新設하였다. ⑥ 紡織, 製紙, 食料, 日用品 地方工業 等を 廢合하여 輕工業委員會로 一元化했고, ⑦ 가장 特異한 것으로서 서비스, 商業 그리고 都市經營 等 人民生活向上을 위한 諸部門을 管理하는 〈人民奉仕委員會〉를 新設한 것 等이다. 한편 副首相級도 組閣當時 6名으로 第一次內閣 以後 가장 적은 數를 두고 있다. (73年 9月에 1名 증가)

이와같이 第 5次內閣에서는 第 4次內閣當時의 機構를 3分の 1 가량 줄인 것은 業務의 지나친 分散·細分化로 管理上 非効率性和 調整能力의 限界가 露呈되고 아울러 責任 限界의 分散 等으로 오히려 部處間의 割據 對立과 責任 回避現象이 露出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逆機能을 除去하고 行政執行力을 統合集權化 함으로써 能率을 提高하는데 그 力點을 둔 改編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많은 部省編制에 있어 群少關係者들을 統合한 委員會制 方式을 採擇한 것은 專門化된 分野間의 調整과 能率을 增進해 보려는 窮余之策으로 풀이된다.

第一次內閣에서 第五次內閣까지의 行政組織의 變動狀況과 그 過程을 하면 다음 表 11, 表 12와 같다.

〈表11〉

歷代內閣一覽

區分 部署別	第一次內閣	第二次內閣	第三次內閣	第四次內閣	第五次內閣
	1948.9 ~ 1957.9	1957.9 ~ 1962.10	1962.10 ~ 1967.12	1967.12 ~ 1972.12	1972.12 ~ 1977.12
首相	金日成	金日成	金日成	金日成	金一(總理)
總理					
副首相(副總理)	11名	9名	12名	13名	10名 (현재 8名)
國家計劃委員會	3名	3名	1名	2名	2名
民族保衛省	○	○	○	○	
人民武力部					
內務省	○	○	○		
國土管理省			○	○	
社會安全省	○		○	○	
社會安全部					○
外務省	○	○	○	○	
外交部					○
國家檢閱省	○	○	○	○	
人民檢閱委員會	○				
交通省	○	○	○		
鐵道省	○		○	○	
交通運輸委員會	○				
陸運吳海運省				○	

區分 部署別	第一次內閣	第二次內閣	第三次內閣	第四次內閣	第五次內閣
	1948.9~ 1957.9	1957.9~ 1962.10	1962.10~ 1967.12	1967.12~ 1972.12	1972.12~ 1977.12
遞信省	○	○	○	○	
交通遞信委員會					○
財政省	○	○	○	○	
財政部					○
司法部	○	○			
勞動省	○	○	○	○	
勞動行政部					○
保建省	○	○	○	○	
保建部					○
教育省	○				
文化宣傳省	○				
教育文化省	○	○			
普通教育省		○	○	○	
高等教育省		○	○	○	
教育委員會					○
普通教育部					○
高等教育部					○
文化省		○	○	○	
文化藝術部					○
農林省	○	○			

區 分 部 署 別	第一次內閣	第二次內閣	第三次內閣	第四次內閣	第五次內閣
	1948.9 ~ 1957.9	1957.9 ~ 1962.10	1962.10 ~ 1967.12	1967.12 ~ 1972.12	1972.12 ~ 1977.12
農 林 省	○	○			
農 業 委 員 會			○	○	○
林 業 省		○	○	○	
都 市 經 營 省	○		○	○	
都 市 建 設 省	○				
國 家 建 設 委 員 會	○	○	○	○	
建 設 省	○	○		○	
建 設 部					○
都 市 建 設 經 營 省		○			
農 村 建 設 省		○	○		
都 市 產 業 建 設 省			○		
建 設 建 材 工 業 省	○	○			
建 材 工 業 省			○	○	
建 材 工 業 部					○
產 業 省	○				
重 工 業 省	○				
金 屬 工 業 省	○	○	○	○	
化 學 建 材 工 業 省	○				
化 學 工 業 省	○	○	○		○
化 學 工 業 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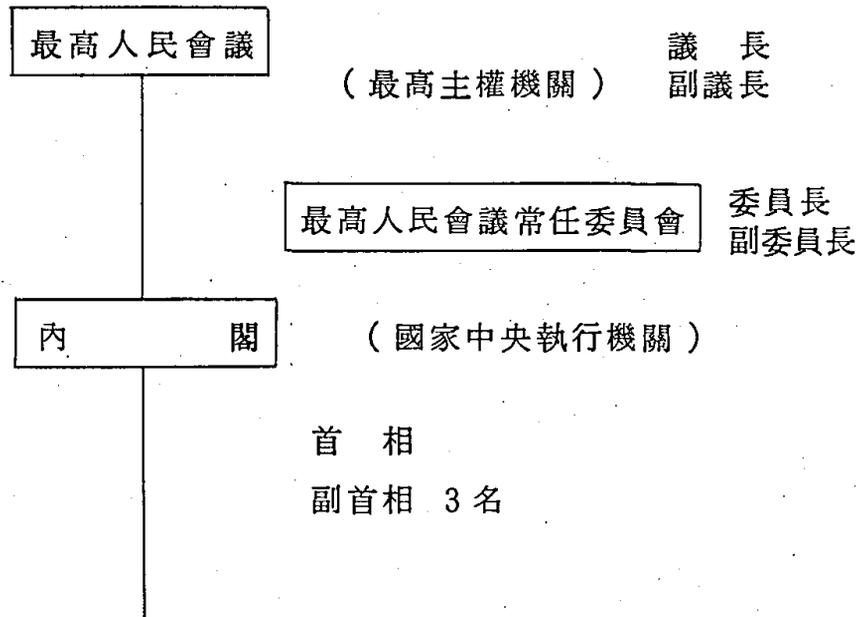
區 分 部署別	第一次內閣	第二次內閣	第三次內閣	第四次內閣	第五次內閣
	1948.9 ~ 1957. 9	1957.9 ~ 1962. 10	1962.10 ~ 1967.12	1967.12 ~ 1972.12	1972.12 ~ 1977.12
動力化學工業省		○			
電 氣 省	○	○			
石 炭 工 業 省	○	○			
機 械 工 業 省	○	○	○		
電氣石炭工業省		○	○	○	
重工業委員會		○			○
金屬化學工業省		○	○		
機械工業委員會			○		○
第一機械工業委員會			○	○	
第二 "			○	○	
第三 "				○	
輕 工 業 省	○	○	○		
輕工業委員會		○	○		○
紡織製紙工業部			○	○	
食料・日用品工業省			○	○	
地 方 工 業 省				○	
水 產 省	○	○	○	○	
水 產 省					○
收 買 糧 政 省	○	○	○	○	
地 方 經 理 省	○	○			

區 分 部 署 別	第一次內閣	第二次內閣	第三次內閣	第四次內閣	第五次內閣
	1948.9 ~ 1957.9	1957.9 ~ 1962.10	1962.10 ~ 1967.12	1967.12 ~ 1972.12	1972.12 ~ 1977.12
商 業 省	○	○	○	○	
貿 易 省	○	○	○	○	
貿 易 部					○
對內外商業省	○	○			
對外經濟委員會				○	
對外經濟事業部					○
地 方 行 政 省		○			
科學技術委員會		○	○	○	
資材供給委員會			○	○	
無任所長官	(1名)○	(2名)○			

< 表 12 >

北韓中央行政機構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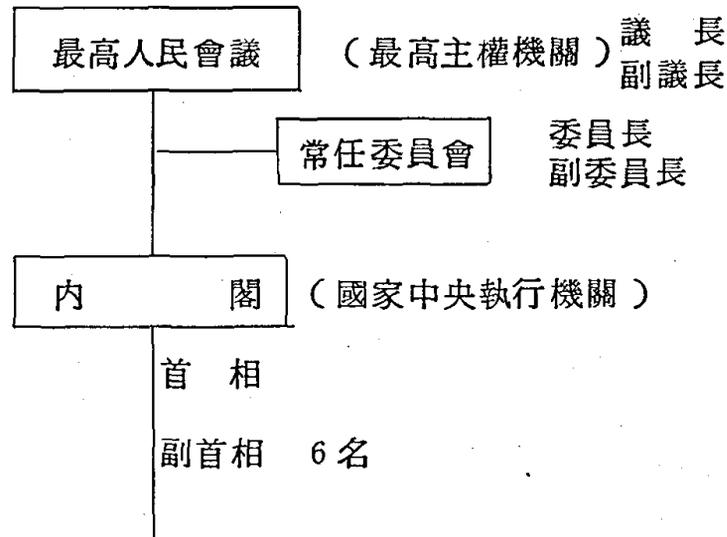
1) 第一次內閣 (1948.9~1957.9)



※ () 안의 연대는 신설된 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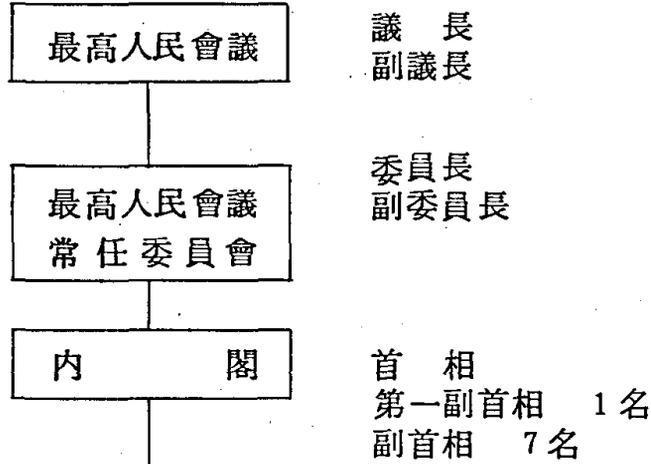
국가계획위원회	금속공업성 (1955.6)	대내외상업성 (1956.9)	수 산 성 (1954.3)
국가건설위원회 (1953.6)	경 공 업 성 (1951.12)	교 육 청	전 기 성 (1954.3)
건 설 성 (1954.1)	건설건재공업성 (1952.5)	교 육 문 화 성 (1957.8)	지 방 경 리 성 (1957.8)
인민검열위원회 (1952.5)	농 립 성	체 신 성	석 탄 공 업 성 (1956.5)
민 족 보 위 성	농 업 성 (1952.11)	사 범 성	기 계 공 업 성 (1956.5)
내 무 성	교 통 성	문 화 선 전 성	무 역 성 (1951.10)
외 무 성	철 도 성 (1949.1)	노 동 성	도 시 경 영 성
무 임 소	재 정 성	수 매 양 정 성 (1956.5)	도 시 건 설 성 (1951.12)
중 공 업 성 (1951.7)	상 업 성	보 건 성	화 학 건 재 성 (1955.1)

2) 第2次内閣 (1957.9-196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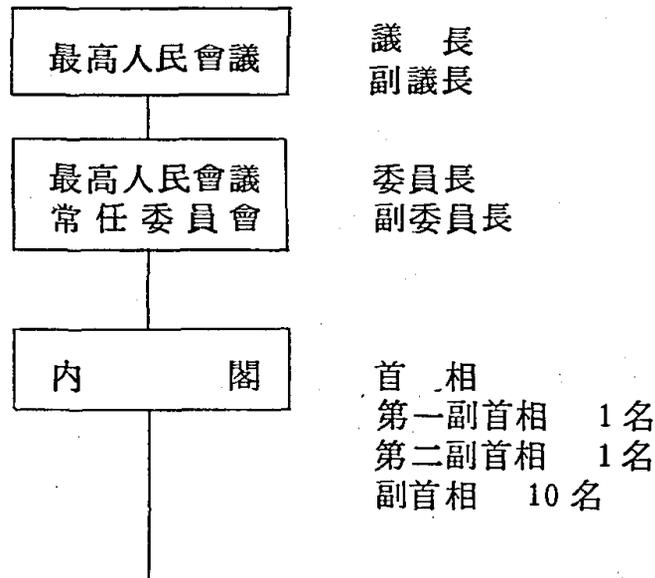
국가계획위원회	노동성	국가건설위원회 (1957.12)	석탄공업성	지방경리성
민족보위성	보건성	건설성 (1961.2)	기계공업성	상업성
내무성	교육문화성	도시건설경영성 (1958.11)	전기석탄공업성 (1962.8)	무역성
외무성	보통교육성 (1961.1)	농촌건설성 (1961.9)	중공업위원회 (1960.4)	대내외상업성
국가검열성	고등교육성 (1960.4)	건설건재공업성	금속화학공업성 (1962.8)	지방행정성 (1959.5)
교통성	문화성 (1958.9)	금속공업성	경공업성	과학기술위원회 (1962.7)
채신성	농림성	화학공업성	경공업위원회 (1960.4)	
재정성	농업성 (1959.9)	동력화학공업성 (1958.8)	수산성 (1962.12)	
사법성	임업성 (1958.4)	전기성	수매양정성 (1962.10)	

3) 第三次內閣 (1962.10 - 196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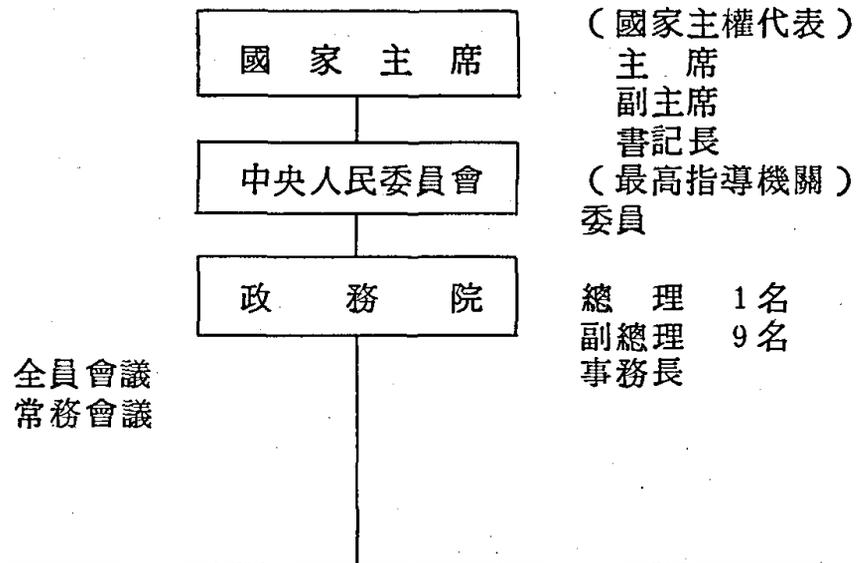
국가계획위원회	체 신 성	임 업 성	기 계 공 업 성	방직제지공업성 (1967.12)
민족보위성	재 정 성	도시 경영 성	전기석탄공업성	음료, 일용품공 업성 (1967.1)
내 무 성	노 동 성	국가건설위원회	금속화학공업성	수 산 성
국토관리성 (1964.12)	보 건 성	농촌건설성	기계공업위원회 (1963.7)	수매양정성
사회안전성	보통교육성	도시산업건설성	제1기계공업성 (1967.1)	상 업 성
외 무 성	고등교육성	건재공업성 (1963.1)	제2기계공업성 (1967.1)	무 역 성
국가검열성 (1966.9)	문 화 성	금속공업성 (1964.12)	경 공 업 성 (1966.1)	과학기술위원회
교 통 성	농업위원회	화 학 공 업 성	경공업위원회 (1962.10)	자재공급위원회
철 도 성 (1964.2)				

4) 第四次内閣 (1967.12 - 1972.12)



국가계획위원회	보 건 성	전기석탄공업성	대외경제위원회
민족보위성	교 통 교 육 성	제 1 기계 공업성	과학기술위원회
국토관리성	고 등 교 육 성	제 2 기계 공업성	자재공급위원회
사회안전성	문 화 성	제 3 기계 공업성 (1970.10)	
외무성	농업위원회	방직제지공업성	
국가경영성	임 업 성	음료일용품공업성	
철도성	도시경영성	지방공업성 (1971.3)	
육운및해운성	국가건설위원회	수 산 성	
체신성	건 설 성	수매양정성	
재정성	건재공업성	상 업 성	
노동성	금속공업성	무 역 성	

5) 第五次內閣 (1972.12.18 ~ 1977.12)



국가계획위원회	고등교육부	수 산 부
인민무력부	문화예술부	무 역 부
사회안전부	농업위원회	대외경제사업부
외 교 부	건 설 부	
교통체신위원회	건 재 공 업 부	
재 정 부	화 학 공 업 부	
노동행정부	중공업위원회	
보 건 부	기계공업위원회	
교육위원회	경공업위원회	
보통교육부		

IV. 北韓行政制度의 脆弱點

北韓의 行政은 勞動黨의 階層制와 行政機構의 階層制가 縱的으로 水平的으로 緊密히 相互連結되어 있고 人的構成面에서 「二重的 兼職裝置」(Device of Dual Office - holding)에 依해 黨으로부터 政治的 統制를 받고 있는 것이다.

勞動黨의 行政統制는 政務院의 中央行政部署 및 地方傘下機關을 黨 中央委員會 統制下에 두고 各種의 黨 監督部署를 中央의 各 行政機構나 團體는 물론하고 地方의 下位行政組織에도 配置해서 깊이 간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確保되고 있다.

따라서 行政의 모든 分野는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나 實際로는 黨의 方針과 黨의 最高指導層의 政治的 意思決定을 傳達하는 通路로서 또는 執行하는 手段으로서 存在하며 行政機構는 그 規模가 크든 작든 간에 黨集權化의 犧牲物로 轉落되어 그 自律性과 專門性을 發揮하기에 困難한 狀況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黨과 行政府의 聯關構造는 北韓行政制度의 運營에 있어서 여러가지 커다란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다고 본다.

行政府가 獨立的으로 諸般計劃을 樹立執行하는 것이 아닌, 黨의 作成·提示한 發展目標의 手段으로서만 그 存立이 可能하기 때문에, 自然 經濟的 合理主義에 立脚한 投入과 產出의 比率을 意味하는 能率性보다 오히려 執行의 結果를 놓고 黨의 目標達成度에 따르는 效果性을 重視하는 傾向이 짙은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犧牲을

不辭하고라도 党的 政治的 意思決定인 發展目標을 達成하고 나아가서는 超過達成해 보려는 執念은 行政機構를 資源 特히 人的資源의 搾取내지는 消耗體制로 轉換시키는 것이다.

이는 特히 行政機構에의 人的 充員에 있어서의 「党性」과 「專門性」의 相對的 比重과 聯關되어 심각한 問題點을 提示하는 것이다. 党的 壓力때문에 專門的인 知識이 未及하더라도 「党性」을 評價하여 官僚로 採用하는 경우 資源의 能率的 配分보다는 힘에 依한 目標達成을 얻으려는 蓋然性이 큰 것이다. 또한 高度로 執權化된 党的 統制는 行政的 分權化의 可能性을 閉鎖시키고 이는 行政的 非能率을 助長할 可能性을 높이게 되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다.

「政治的 價値로서의 反對」를 認定하지 않는 北韓社會에서는 權力的 絶對化 즉 金日成의 一人支配體制는 당연한 結果로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政權의 平和的 交替를 위한 諸裝置는 存在할 여지 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裝置의 缺如로 因하여 權力的 絶對化는 個人崇拜의 길을 열게 되고 또한 그것은 逆으로 權力的 絶對化를 더욱 促進하게 된다.

金日成의 一人獨裁 政治·行政體制는 内部的 모순을 露呈할 날도 멀지 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蘇聯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탈린」死後 그를 格下시킨 事例는 北韓의 「小스탈린」인 金日成에게 있어서도 결코 남의 일만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北韓에 있어서는 行政府를 이끌어가는 高位 幹部들에게 肅清이 하나의 制度化된 慣行으로 되어 不安狀態와 恐怖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을 執行하고 있으며 下部末端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金日成 自身도 平北道 黨의 경우에 關해서 「했수로 나누면 매년 2,250 名의 黨員을 黨에서 내 보낸 것」⁶³⁾이 너무 지나쳤다고 指摘하고 있는 形便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金日成 自身만이 黨政治委員會에 계속 남아 있었고 金一이 中央委員으로 存在하고 있었다는 事實로 미루어 黨에 예속되어 있는 行政官僚의 不安狀態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行政府를 이끌어 나가고 政策을 원만히 執行하는데 있어서 金日成이 眞正한 意味의 영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金日成政權의 正當性, 政治目標 및 手段 그리고 그 政治스타일의 正當性이 보편적인 確信을 갖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以上 큰 疑問이 아닐 수 없다. 리더쉽에의 必要條件은 體制의 구성원이 당연한 目標, 手段의 正當性 그리고 리더 自身이 最少限 그 正當性에 대한 보편적 確信을 갖게 될 때 形成되기 때문이다. 結局 目的과 手段에의 盲服은 물론 심지어는 首領에의 人格적인 盲從마저 강요하고 있는 것이 北韓體制의 實情이다. 所謂 「首領님 敎示에의 無條件性과 絶對性」 등은 그 用語自體가 이를 證明해 주고 있는 바이다.

機能主義的 觀點에서 본다면 한 개인의 偶像化나 個人崇拜는 屢

註 63) 金日成선집, 第 4 卷, p.384.

터 (David E. Apter)가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중의 動員體制를 強化하는 神聖集團體 모델 (Sacred Collectivity model)에 로 接近하는 한 段階이다.⁶⁴⁾ 애프터의 理論에 따르면 聖스러운 集團 모델은 完全한 強制 모델 (Perfect coercion model)이다. 金日成 集團은 大衆의 絶對服從을 바라면서 個人 崇拜를 宗教的 敎理로 승화시킨 것이다. 結局 이를 위한 行政力의 集約으로 인하여 他部分과의 均衡있는 發展이 무시되고 있는 實情이라 하겠다.

行政執行機關에 대한 監督機關으로서의 各級 人民會議과 最高人民會議 사이의 系統的인 關係를 단절시킨 것이 法條文 作成過程에서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中央人民委員會나 政務院 또는 國家 主席이 最高人民會議에 對하여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는 憲法上的 規定이 다시 한번 無視됨으로써 主權이 國民에 있다는 소위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原則은 사라진 것이다.

最高人民會議는 最高主權機關이지만 年 1~2回 소집되고 그나마 會期가 2~4日에 不過하므로 執行機關에 대한 監督機關으로서의 機能은 實質적으로 發揮할 時間的인 여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責任을 질 여지가 없는데도 党에 依하여 反党分子 또는 反動分子로 烙印적인 이른바 肅清對象者만이 人民에 對하여 責任진다는 미명 下에 去勢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맥상의 約束과 그 約束의 履行 사이에는 커다란 差異가 있는 것이다.

註 64) David E. Apter,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1965. pp. 31-33.

그러면 왜 任期 4年짜리의 舉手機들로 構成되는 最高人民會議를 두고 있는가? 現代의 모든 國家들이 經濟가 發展하고 社會가 複雜해져 가면서 漸次로 嚴格한 權力分立의 政府形態나 議會優位の 政府形態로부터 行政優位の 政府形態를 취함으로써 量的으로 幅湊하고 質的으로 複雜하고 어려워진 國家的 當面問題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共產國家에서도 이 점은 例外가 될 수 없다.

北韓行政體제의 體質變化는 金日成의 後繼問題가 대두될 때 필연코 일어날 것이다. 金日成의 一人獨裁의 權威로 維持되어 온 北韓의 現 政治·行政엘리트 内の 秩序가 金日成 아닌 後繼者의 弱화된 權威로 인하여 體제의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큰 弱點이다. 行政엘리트가 어떤 制度的인 장치에 의해 充員 確保되고 있다기 보다는 人脈 中心의 個人에 對한 忠誠心이 爲主가 될 때는 그것은 一般的인 共產主義社會에서의 党性과도 區分되는 派閥 忠誠心으로 轉落된다. 따라서 金日成 대신 만일 金正日이 頂點에 서게 될 때는 새로운 派閥調整에 따르는 派爭의 可能性이 높아지게 될 展望이 큰 것이다. 아 물론 金日成이 물러나게 되면 그 어느 形態로든 北韓의 모든 組織에는 變化가 생길 것이고 行政制度에도 體質變化가 올 것이다.

V. 結 論

北韓은 舊憲法體制는 소위 人民民主主義原則에 입각했다고 볼 수 있으며 新憲法體制下에서는 社會主義的 프롤레타리아 獨裁主義에 立脚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舊憲法은 名目上이나마 全體人民에게 主權이 있다고 했는데 新憲法은 「主權은 勞動者·農民 兵士·勤勞인텔리에게 있다」고 하고 勤勞人民만이 主權者라는 主張을 하고 있다. 그들은 全社會의 勤勞階級化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全體人民이 곧 勤勞人民이라고 할지 모르나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主義를 規定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北韓이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實施하며 群衆路線을 貫徹한다고⁶⁵⁾ 하고 國家는 착취와 압박에서 解放된 勤勞者·農民·兵士·勤勞인텔리의 利益을 擁護하고 보호한다고 하여 그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階級獨裁主義特性을 充分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政治的原則을 그들 나름대로 세워서 北韓이 「勞動階級이 영도하는 勞動同盟에 基礎한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社會主義的 生産團體와 自主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의거한다」⁶⁶⁾ 고 하는 原則規定을 하고 있는 동시에 北韓政權의 正統性を 主張하기 위하여 「帝國主義侵略者들을 反對하며 祖國의 光復과 人民의 自由와

註 65) 北韓憲法 第 10 條

66) 北韓憲法 第 2 條

幸福을 위한 영광스러운 革命鬪爭에서 이룩된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革命的인 政權이다」⁶⁷⁾고 強調하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이는 「마르크스·레닌 主義」를 北韓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네들의 活動의 지도적 指針으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新憲法에서는 國家主席制度를 導入하여 金日成을 명실공히 最高의 地位에 올려 놓았으며 金日成의 1人 獨裁體系를 強化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즉 現在 金日成은 黨의 總秘書와 黨政治委員 그리고 國家를 代表할 뿐더러 行政에서 國家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 등을 占하여 黨과 行政을 獨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黨軍事委員會委員長과 國防委員會委員長職도 兼함으로서 軍總帥權과 軍政權도 掌握하고 있다.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으로서 中央人民委員會를 두어 과거의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와 內閣의 重要한 政策決定權을 掌握하고 있으며 이 中央人民委員會는 主席에 依하여 직접 지도받는 政策決定機關으로서 政務院과 地方人民會議 및 地方人民委員會 등을 指揮監督하는 位置에 있다. 이로써 政務院은 단순한 中央行政機關으로 轉落하고 있는 것이다.

新憲法에 依한 中央人民委員會의 設치는 과거 黨과 行政執行機關의 알력을 해소하고 黨·政府聯合體로서 共同으로 責任지며 黨이

註 67) 北韓憲法 第三條

行政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裝置로서 明文化 된 것이다.

北韓行政組織을 社會變動과 關聯시켜 보건데 우선 社會變動의 時代區分을 第一期 共產支配體制確立期(1946.8 ~ 1956.4) 第二期 金日成 一人支配體制 確立期(1956.4 ~ 1961.9), 第三期 金日成 唯一體制 確立期(1961.9 ~ 1970.11), 第四期 社會主義 權力體系 確立期(1970.11 ~ 現在) 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며 第一期는 소련式 共產主義統治體制的 行政組織을 土着化시키기 위하여 國內派와 南勞党派를 숙청하며 單一共產黨體制下에 集權的인 行政體制的 기반을 形成한 시기라 하겠으며 第二期는 單一共產體制와 集權的인 行政體制的 社會經濟的인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分派 勢力을 근절시키고 産業化政策을 強行한 시기이며 第三期는 金日成唯一支配體制를 確立하여 對南侵略을 위한 戰時體制를 뒷받침하는 行政體制를 정비한 時期이며 第四期는 中共式 社會主義統治體制를 모방하여 金日成의 唯一支配體制를 制度化하고 行政組織이 能率性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組織體系를 大幅 統合 整備하였다. 이렇듯 北韓의 行政體制는 國內·國際的 政治狀況의 變遷에 따라 빈번한 變動을 거듭한 組織體系로써 金日成 一人에게 모든 權力이 人格化되고 그의 恣意的判斷이 크게 作用하는 不安定한 脆弱性을 內在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政治體制와 肅清

俞 完 植

(南北對話事務局 諮問委員)

目 次

I. 北韓의 權力構造	273
1.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 命題	273
2. 北韓 權力構造의 主要體系	280
II. 北韓 權力構造의 變動過程과 그 要因	292
1. 北韓 權力構造의 歷史的 變動過程	292
2. 權力變動의 要因	300
III. 北韓權力的 派閥과 金日成	308
1. 共產黨 派閥鬭爭의 歷史的 傳統	308
2. 3大派閥과 金日成系	314
IV. 肅清의 序幕	333
1. 金日成의 登場	333
2. 玄俊赫의 暗殺事件	336
3. 國內派 肅清의 開始	342

I. 北韓의 權力構造

1.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 命題

金日成의 肅清이 北韓의 權力構造에 要因이 있음을 이미 言及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權力構造란 共產主義의 基本原理에 立脚한 것을 말한다. 金日成이 北韓의 權力體制를 任意로 손질할 수 있음은 勿論이지만 거기에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概念 및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命題와 또한 蘇聯의 權力政治의 歷史와 背馳되어서는 안된다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萬一 金日成이 어떠한 動機에서든 이같은 限界와 規範을 벗어난다면 그는 共產主義者로서의 存在價値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싫은 共產國家에 共通的인 權力構造의 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 命題를 살펴보는 것은 金日成 肅清史의 本質과 背景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共產國家라고 하더라도 蘇聯의 소비에트(Soviet)型 國家와 第2次 大戰後에 태어난 北韓을 포함한 소위 人民民主主義國家의 權力形態 사이에는 相異點이 있었고 따라서 兩者의 權力構造는 同一하지 않았다.

그러나 北韓은 人民民主主義革命의 第1段階는 產業의 國有化 및 土地改革 등에 의해서 1947年頃에 끝나고, 이후 人民民主主義革命의

第2段階, 즉 社會主義革命에 들어가 1957 ~ 58年頃에는 社會主義基礎의 구축을 의미하는 工業과 農業을 비롯한 經濟의 全分野에 걸친 生産手段의 社會化가 끝나고 權力形態도 그에 相應하게 變化되었다고 宣言했던 만큼, 50年代 後半期이래 北韓의 權力構造는 소비에트型과 本質上 同一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주로 소비에트型 國家를 意중에 둔 레닌과 스탈린의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理論과 命題는 北韓에도 適用될 수 있다.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의 命題 가운데 가장 基本的인 점은 共產黨이 國家機關 및 모든 公共團體에 대한 指導的 核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共產黨은 共產國家의 모든 權力的 원천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國家機關은 共產黨의 權力에 의해서 決定된 政策을 執行하는데 있어서 共產黨으로부터 받은 權力을 行使하는데 不過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共產國家의 權力을 機構적으로 보면 中央의 指導力으로서의 共產黨과 지렛대 및 調帶 (belt)의 網狀組織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社會的, 政治的인 權力組織이다. 그리고 이 網狀組織을 여러 소비에트(諸國家機構), 勞動組合, 青年同盟, 文化組織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勤勞者層 國民의 現在 및 將來의 利益과 目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政策과 機能은 이것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실시되고, 統制된다」고 말하였다.¹⁾

註 1) 레닌選集, 日語版, 第10分冊, p.60.

요컨대 權力の 本源내지 中核으로서의 共產黨은 그의 政策을 國家機關들의 黨外組織을 통해서 執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共產黨의 無制限의인 權力, 그리고 國民으로부터 授任되지 않은 그 獨裁權力이 暴惡한 1人에 掌握되었을 때, 自身の 權力을 유지, 강화하는 이론적 방패로 이용하며 暴政과 또한 肅清을 恣行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北韓當局도 「共和國(北韓)의 國家機關은 우리나라의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의 有機的 構成部分을 이루고 있으며 이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 가운데 指導的 力量으로 되고 있는 朝鮮勞動黨과 政策을 執行하는 벨트(belt)의 役割을 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 가운데 벨트의 役割은 國家機關뿐만 아니라 社會組織도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共產國家의 이러한 共產黨 中心의 權力構造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不可避論에 의해서 合理化되고 있다. 즉 共產黨이 이미 權力을 掌握한 共產主義社會에서도 打倒된 資本家를 비롯한 反革命階級은 장기에 걸쳐 집요하게 反革命을 시도하기 때문에 階級鬭爭은 中止되지 않으므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필요하며, 한편 共產國家는 궁극적으로 계급이 없는 共產主義를 건설하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에 낡은 國家機構(革命以前の 國家機構)는 철저히 破壞되고

註 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 社會體制」北韓科學院 經濟, 法學研究所編(在日 朝鮮人科學者協會 社會科學部門法政部會 譯) p.113, 日本評論社 刊

勞動階級の 單一的이고 無制限한 支配權力이 樹立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시 프롤레타리아獨裁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스탈린은 그의 著書「레닌主義의 諸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政治權力을 그의 손에 掌握한 프롤레타리아가 敗北는 하였으나 絶滅되어 있지 않은 부르조아지에 대해서, 또 소멸되지 않고 反抗을 도리어 強化하고 있는 부르조아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階級鬪爭」이라고 했으며 「革命에 의해서 남은 國家機構를 철저히 紛碎하고 소비에트權力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또는 부르조아지와 小부르조아지의 協調主義者들의 非프롤레타리아大衆에 대한 支配 및 權威의 影響력을 즉각적으로 물리쳐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³⁾

물론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란 共產黨 또는 共產黨指導層의 極少數, 나아가서 1人獨裁를 階級の 獨裁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事實 蘇聯을 비롯한 共產國家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勞動階級の 政治權力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켄젠이 말한 바와 같이 蘇聯에서는 産業勞動階級の 獨裁란 말뿐이고, 실은 共產黨의 獨裁, 아니 極少數의 獨裁, 아니 領首의 獨裁라고 지적한바 있다.

마르크스主義의 正統派라고 自處한 獨逸社會民主黨의 카우츠키도 소비에트, 러시아를 가리켜 領首의 獨裁라고 비난했으며, 레닌은 그

註 3) 「레닌主義諸問題」, 스탈린著: 日語版, 田中順次譯, pp.24-28.

의 論文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左翼小兒病」에서 이를 지적하고 반격을 가하고 있다.

共產國家의 權力이 프롤레타리아獨裁權力이냐, 아니냐는 問題는 共產國家의 權力構造의 本質 및 性格이 어떤 것이냐, 즉 民主的 要素가 있느냐의 與否를 究明하는데 基本的인 問題提起가 되고, 한편 北韓을 포함한 共產國家의 肅清史를 分析, 評價하는데 있어서도 基本的인 立脚點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共產黨에 無制限한 權力을 부여해야 하고 또 同權力의 유지와 行使를 위해서는 暴力을 비롯한 어떠한 強制手段도 正當化시키고 있는 根據로 資本家階級의 反革命攻勢를 彈壓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으나 蘇聯과 그리고 北韓을 포함한 共產諸國의 歷史와 現實은 그러한 主張이 虛構에 지나지 않음을 立證해 주고 있다. 共產國家에서 獨裁와 彈壓과 또한 肅清의 主要對象은 資本家階級이 아니라 勞動者들을 비롯하여 社會階級이 아닌 知識層과 文化人 등의 各界各層에 이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共產黨指導層이 가장 主要한 肅清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獨裁權力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彈壓과 肅清을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이름을 빌려 恣行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고 主張함으로써 이를 부르조아民主主義와 對峙시키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階級의 獨裁란 한낱 虛構이고, 黨의 獨裁, 나아가서 極少數의 獨裁, 더 나아가서 黨領首의 獨裁인 만큼 프롤레타리아獨裁

란 허무맹랑한 主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共產國 가운데서도 北韓의 金日成集團은 이른바 黨內 民主主義는 물론이고 集團指導제조차도 事實上 否定함으로써 가장 철저한 金日成一人獨裁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共產國家보다도 北韓에서는 人權이 가혹하게 유린되고, 政治的 및 思想的 彈壓이 極甚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橫暴한 肅清으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은 1930年代에 社會主義가 進展될수록 階級鬭爭은 緩和되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強化된다고 主張함으로써 政治, 社會的 恐怖雰圍氣를 새로히 造成하였고, 그 가운데서 有名한 예초프스치나 大肅清事件이 惹起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스탈린의 새로운 理論은 그의 獨裁에 威脅이 되는 政治勢力과 個人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除去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때 秘密警察의 기능이 一層 強化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 北韓의 金日成은 이상의 스탈린의 理論이 스탈린以後 蘇聯共產黨의 새로운 指導者에 의해서, 批判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그를 그의 獨裁權力的 維持, 強化와 政敵의 肅清에 最大限으로 導入해 왔다.

다음 共產黨과 國家機關의 關係를 더 具體적으로 보면, 共產黨의 權力과 國家機關이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國家機關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體係의 有機的인 主要構成部分이며, 프롤레타리아獨裁를 直接 表現하고 國家面에서 黨과 勤勞者를 連結시

키는 大衆組織이라고 規定하고 있거니와⁴⁾ 共產國家機關은 그 國民과 外部에 대하여 外形上의 唯一한 權力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그 國民은 法律上의 權力問題에 있어서 共產黨이 아니라 國家機關과 直接的 關係를 맺게 된다.

즉 共產黨이 國家機關을 內的으로 嚮導하고, 推進시키는 中核으로 되고 있지만 그 國民 및 外部에 대해서는 權力的 全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產黨과 國家機關사이의 權力關係의 根本的 形態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共產黨은 첫째, 國家機關의 要員의 詮衡, 발탁 및 配置, 둘째, 國家機關 活動의 性格 및 方向을 정하는 指導的 指示, 셋째, 國家機關의 活動과 그 活動點檢에 대한 援助이다.⁵⁾

또한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은 共產國家 權力構造에 있어서, 특히 權力과 國民사이의 關係에 있어서의 共產黨과 國家機關의 關係를 더욱 明白히 밝혀주고 있다. 레닌은 「共產黨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實現한다. 그러나 이것은 國家權力과는 別個로 國家權力 없이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실현하고 있다던가, 黨이 國家機關을 통하지 않고 國家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黨은 權力的 中核이다. 그러나 黨은 國家權力과 同一한 것이 아니며, 또 同一할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⁶⁾

註 4) 前掲「레닌選集」第23卷, p.250, 第31卷, p.120.

5) 「蘇聯邦의 國家機構」, 谷川良一, pp.137-138.

6) 스탈린選集(日語版) 8卷, p.60.

한편 共產主義에서는 國家機關과 共產黨의 權力關係를 形體와 그 中核의 關係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그 兩者의 有機性이 요구되고 그 結果 兩者의 頂上에 각각 오르고 있는 自然人的 一致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 래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統治하는 黨으로서 우리는 소비에트(國家機構)의 上層을 黨의 上層과 一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兩者는 蘇聯에서 一致되어 있고 將來에도 그러할 것이다.」⁷⁾

共產主義의 이같은 命題는 北韓에서 그대로 實現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命題를 金日成이 黨과 國家機關을 한손에 掌握함으로써 그의 1人獨裁權力을 유지, 강화하는데 最大限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그에 挑戰하는 反對勢力을 抑壓, 肅清하는데 하나의 根據로 삼고 있다.

2. 北韓權力構造의 主要體系

앞에서 說明한 共產主義 命題에 따라 北韓의 權力構造는 執權黨인 朝鮮勞動黨이 모든 權力의 中核이고 源泉體로 되고 있으며, 다음에 同黨의 政治路線과 政策을 執行하며 獨裁權力을 直接 表現하는 黨外機構로서 國家機關이 있다. 이밖에 黨外組織으로서 職業同盟,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女性同盟 등은 勞動黨의 政策을 民衆에게 接

註 7) 前掲書, p.95.

近시키고 그 執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各己 獨特한 役割을 하고 있다. 國家機關을 비롯한 以上の 社會團體는 勞動黨의 政策을 民衆이 執行하는데 있어서 傳導的 役割을 한다고 하여 黨의 傳導體라고 부르고 있다.

國家機關이라고 함은 內閣 및 地方人民委員會, 檢察과 裁判所 등 黨政策을 權力으로 집행하는 組織이며, 職業同盟과 農業勤勞者同盟 등은 生産面과 勤勞生活에서 勞動者와 農民을 각각 黨과 連結시키는 大衆組織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은 勞動黨이 新世代를 共產主義者로 教育하고 勞動黨員의 豫備를 만들어 내는 것을 使命으로 하는 勞動者, 農民의 青年大衆 組織이라고 한다. 또한 女性同盟은 모든 女性들이 勞動黨의 政策을 實現하는데 積極적으로 協調하도록 組織, 動員하는 使命이 주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社會團體가 있으나 모두가 北韓 權力構造의 補充的 役割을 하는데 불과하고 權力構造의 基本體系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北韓 權力構造의 主要體系는 勞動黨과 國家機關이 이루고 있다.

가. 勞 動 黨

北韓의 勞動黨은 北韓 權力構造의 中核으로 되고 있는 동시에 北韓 統治組織에 있어서 最高指導者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獨裁 國家에 있어서 黨이 最高指導者로 表現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政治上 또는 組織上の 問題는 무엇이던 黨의 指導的 指令이 없이는 國家機關 및 기타의 大衆組織에 의해서 決定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라고 말하였고 또한 프롤레타리아 自體가 처음부터 「勞動者의 前衛이며 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인 만큼 따라서 前衛의 前衛 또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組織에 있어서 最高의 指導者이다」라고 規定하였다.

北韓의 勞動黨은 이상의 命題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北韓當局은 그의 勞動黨이 「人民政權의 嚮導로 되고 있으며, 人民政權은……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執行한다」고 말하고 있다.⁸⁾

요컨대 勞動黨은 北韓의 實質的인 最高權力기관이며, 北韓 國家機關의 權力行使는 勞動黨에 의해서 授任된 것에 불과하다.

다음 勞動黨의 構造는 「黨統一의 原則」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原則은 만일 黨內部的 分裂이 있을 경우에는 政治權力의 獨占은 사실상 不可能하다는 認識에 기인하고 있다. 즉 黨은 「相異한 그룹의 集成物이 아니라, 한강의 花崗岩과 같은 굳은 統一體的 意識, 鐵과 같은 規律에 의해서 結合된 統一的인 中央組織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⁹⁾ 最下端으로부터 最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黨의 隊列에 있어서의 完全한 統一과 結束은 獨裁와 黨의 지도적 역할

註 8) 前掲「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 社會體制」,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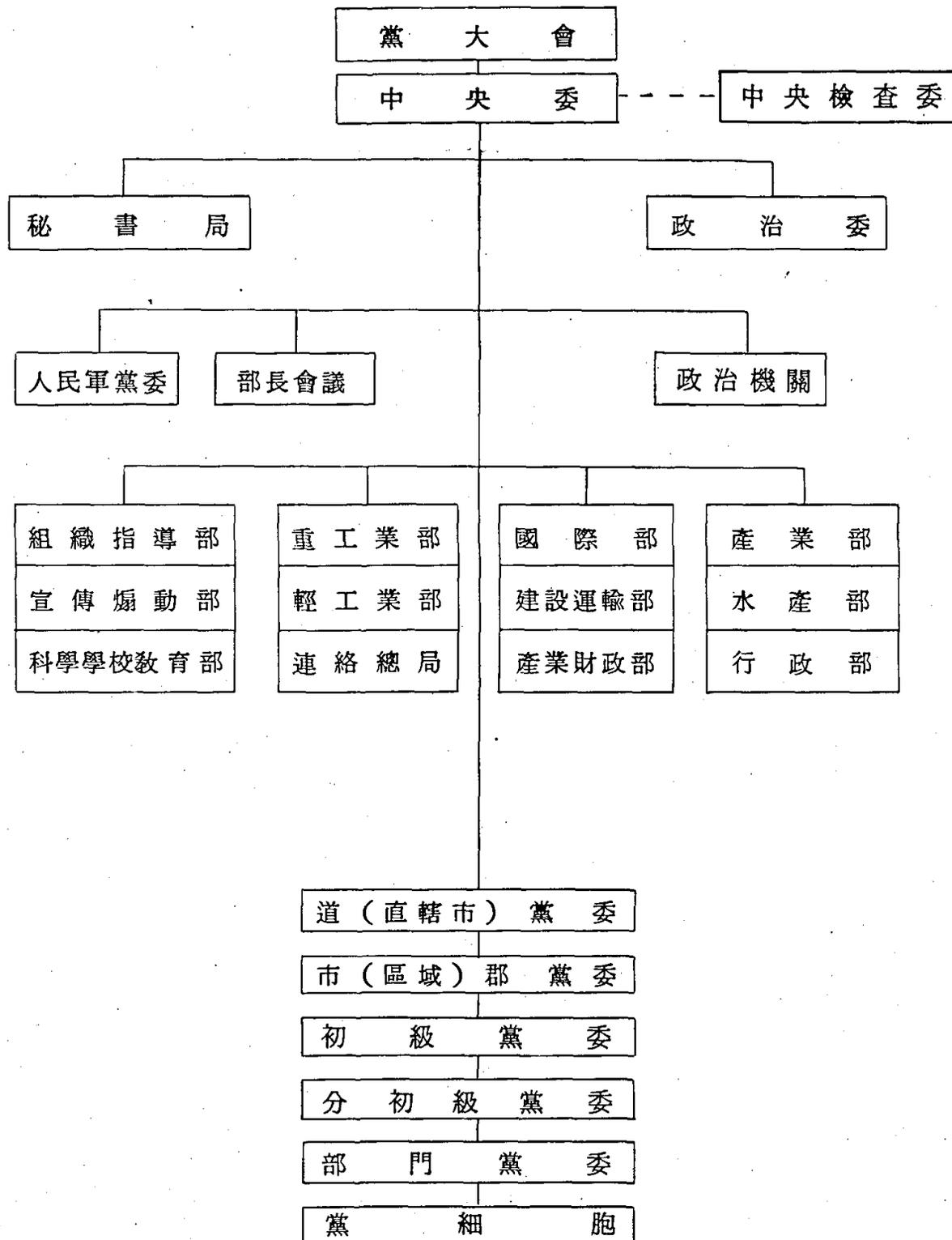
9) 前掲書, pp.126-127.

의 成功 및 그의 生存을 위해 基本的이고, 절대 不可缺의 要求를 간주되고 있다.

北韓 勞動黨은 이러한 原則과 基本要求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中央集權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勞動黨 規約 第2章 17條「다」項에서 「黨員은 黨組織에 복종하며, 少數는 多數에 복종하며,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에 복종하며, 全體黨組織은 黨中央委員會에 절대 복종한다」고 되어 있다.

勞動黨中央委員會에서는 分派와 그룹의 結成을 絶대로 禁止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勞動黨首 金日成의 絶대적 獨裁權力이 실현되고 있으며 勞動黨首를 頂點으로 하는 피라밋型의 黨權力體系가 形成되고 있다.

勞動黨의 構造를 圖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勞動黨 構造는 地域的 및 生産的 基礎위에 세워진 피라
밋型的 權力을 表現하고 있다.

피라밋型 機構의 頂點에 있는 黨大會는 形式的 代表機關에 불
과하며 黨政策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實제적으로 最高權力의 기능을
가진 것은 政治委員會와 또한 秘書局이다. 中央委員會는 黨大會가 열
리지 않는 期間에 黨大會의 權限을 代行하는 最高機構로 되어 있
으나, 이것도 1년에 2回 소집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常設機構
가 아니며, 事實上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이 그 中核으로서 實질적 最
高權力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央委員會는 政治委員會와 秘書局 內에서 異見이 야기
되거나 權力을 에워싼 갈등이 빚어져 그 自體로서는 원만한 수습
이 困難하다고 볼 경우에는 黨中央委員會가 소집되어 이를 調整하
는 것이 常例로 되어 왔다. 1956년 9月の 勞動黨中央委員會 全
員會議를 비롯하여 北韓 最高權力層의 內에서 權力 및 政策을 에
워싸고 심각한 陣痛에 직면할 때마다 中央委員會가 그것을 調整하는
役割을 했던 歷史的 事實을 想起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最高
權力者가 黨中央委員會에서 多數派를 확보하고 있느냐의 與否는 중
요한 關心事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組織的 反對派가 거의 다 肅清되고 金日成과 그의 直系로
權力이 一色化된 60年代이후에는 勞動黨中央委員會의 기능마저 有名無
實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金日成이 主導하는 黨政治委員會의 決定
을 異議없이 그대로 黨政策으로 追認하는 한낱 裝飾機構로 化해버

리고 말았다. 우리가 黨中央委員會에 關心을 돌릴 만한 點이 있다면 北韓權力의 序列대로 同委員會의 名單이 羅列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다음 北韓勞動黨의 上下組織 및 機構間的 相互關係는 강력한 中央集權主義의 原則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北韓當局은 中央集權主義가 아니라 民主主義的 中央集權主義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그 根據로 첫째, 最下級으로부터 最上級에 이르기까지 黨의 모든 指導機關은 選舉에 의해서 구성되고 둘째, 黨의 各級指導機關은 選舉반은 黨組織에 自己事業을 定期的으로 總轄報告한다. 셋째, 엄격과 規律과 少數者의 多數者에 대한 복종, 넷째 下級기관에 대한 上級기관 결정의 絕對的 拘束을 들고 있으나, 黨中央의 決定내지 意思는 事實上 어떠한 批判과 牽制도 받지 않고, 그대로 強要되고 있음으로 「民主主義的 中央集權主義」는 擬制에 불과하다.

한편 勞動黨機構의 名單位가운데서 權能 및 責任이 세가지로 區分되고 있다.

첫째, 代表機關이다.

最下層의 黨組織에는 黨總會, 道·市(區域)郡黨의 경우는 黨代表者大會, 全黨의 경우에는 黨大會가 그것이다. 이러한 代表機關은 常設의 것이 아니고, 黨大會는 4年 道黨代表者大會는 2年에 각각 1回, 市(區域)郡黨代表者大會는 1年에 1回以上 소집되기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執行機關이다.

黨總會가 選出하는 初級黨, 執行委員會, 該黨代表者大會가 選出하는 道·市(區域)郡黨委員會, 黨大會가 選出하는 黨中央委員會가 그것이다. 黨指導機關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以上の 各級黨委員會는 該黨組織의 活動을 日常的으로 指導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各級黨委員會도 常設機構가 아니며 예컨대 中央委員會는 6個月에 1回以上 召集된다.

세째, 各級黨委員會에서 選出되는 常務 機關이다. 中央委員會의 政治委員會, 道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執行委員會 등이 그것이다. 이 機關은 連日 혹은 빈번히 會合하고 피라밋型 組織의 機能的, 地域的 連結點에 있어서 黨活動의 利害關係에 不斷한 注意를 돌리고 全黨機構의 日常的 運營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는 中樞的 組織體이다.

나. 國家 機構

北韓의 國家機關은 勞動黨과 거의 同一하게 系統制的 原理에 의해서 成立되고 있으며, 形態的으로는 黨權力機構와 併行하여 國家權力的 피라밋型을 形成하고 있다. 그 基底에는 都市 및 農村의 人民會議 및 人民委員會가 있으며, 그 위에 順次로 中央의 國家機構가 聳立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共和國의 國家諸機關은 唯一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共和國에 있어서人

民政權의 唯一性은 國家機關 體系의 唯一性의 前提이다」¹⁰⁾

北韓의 國家 諸機關은 最高權力을 統一的으로 掌握하고 있는 國家主席을 頂點으로 唯一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말하기를 이같은 國家機關 體系의 唯一性은 北韓의 政治·經濟的 基盤 및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建設과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이라는 課題의 共通性에 의해서 規定되고 있다고 한다.¹¹⁾ 즉 國家機構의 體系에 있어서는 近代民主政治에 不可缺의 條件으로 되고 있는 3權分立을 否定하고 超中央集權化의 原則을 堅持하고 있는데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概念에 立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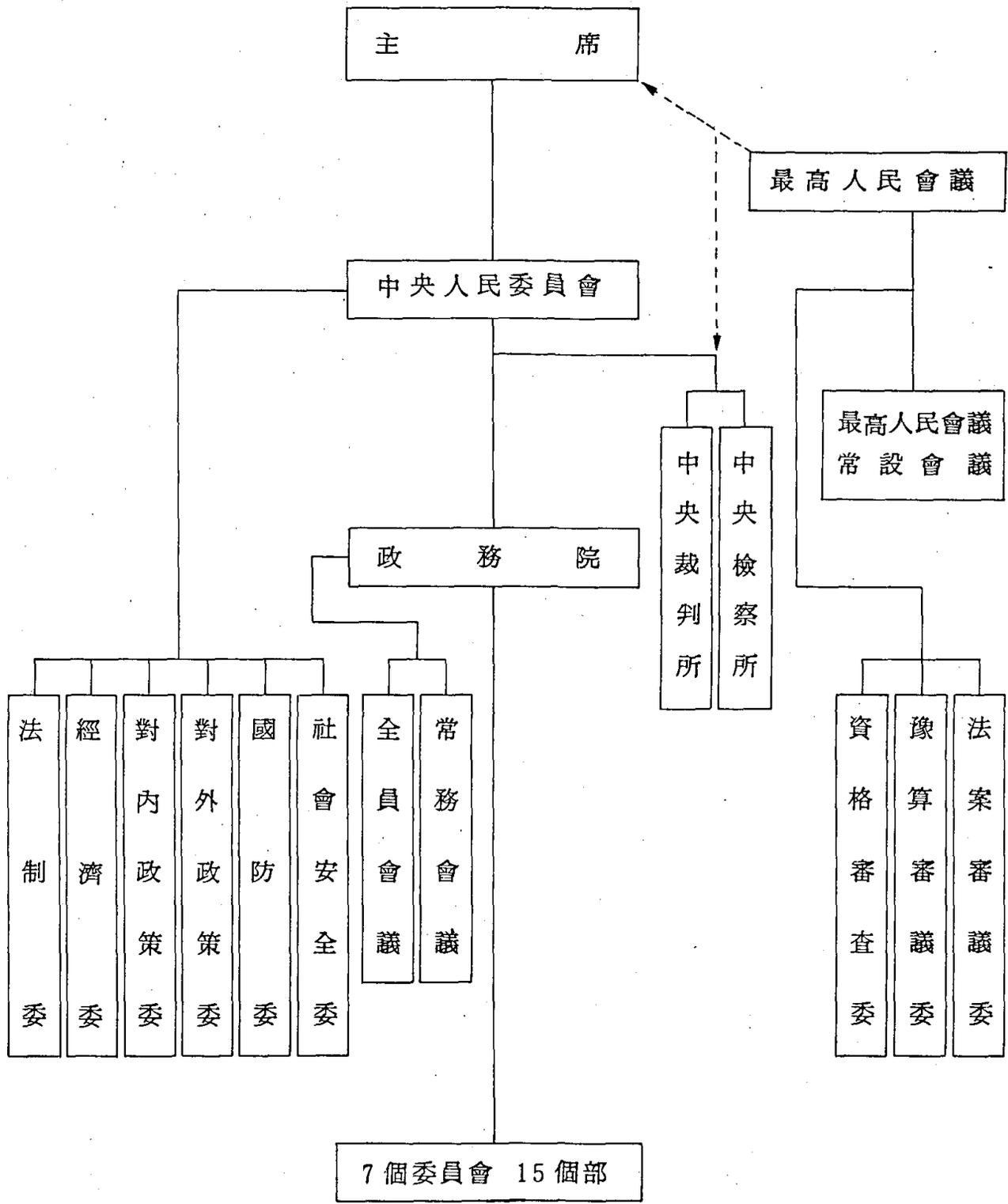
北韓 國家機關은 總體的으로는 唯一의 體系를 이루고 있으나 그 가 擔當하는 政權의 實現形態는 多樣하며 또 그에 相應하여 그들의 組織과 活動形態도 相異하다.

北韓 憲法에서는 政權의 實現形態와 權限에 따라 北韓 國家機關을 主權機關이라고 하는 最高人民會議과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및 地方人民會議, 그리고 國家權力의 執行機關으로서 國家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 및 政務院, 地方人民委員會로 系統化하고 있으며, 한편 司法機關으로서 各級 裁判所와 各級 檢察所로 區分하고 있다.

北韓의 國家機構 (中央) 를 圖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註 10) 前掲書, p.154.

註 11) 前掲書, p.161.



凡例 → 選舉

上記 圖表는 1972年 12月 새로운 「社會主義憲法」에 의한 國家 機構이다.

새 憲法에서 가장 重要한 點은 國家主席의 新設이다. 國家主席은 國 權을 代表하고 國政의 最高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委員長으로 서 同委員會를 直接 指導하며, 또한 軍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 長을 위하여 軍의 最高統帥權을 掌握함으로써 權力을 極度로 그에 集中化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國家主席인 金日成의 獨裁權力을 一 層 強化시킨 것이다.

한편 最高人民會議는 如前히 最高主權機關이라고 稱하고 있으나 從 前의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合議制大統領 (委員長은 國家元首) 이라는 그의 地位를 國家主席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權限을 中 央人民委員會에 大幅 넘기고, 常任委員會 대신 新設된 常設會議는 有 名無實한 것이 되고 있다.

中央人民委員會는 國政의 論議와 決定에서 集團指導制를 실시하고 자 하는 試圖로 分析되며, 여기에는 黨政治委員會의 成員 즉 黨僚 와 함께 總數(約 30名)의 約 3分の 1에 達하는 테크노크라트를 參加 시키고 있다.

新設된 政務院은 舊體制의 內閣에 해당되고 있지만 그의 指導機關으로 中央人民委員會와 國家主席制가 設立되었기 때문에 政策의 決定權限은 狹 少化되고 보다 더 實務部署化되고 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舊體制에서는 黨의 政治委員會 및 秘書局과 國家機 構의 內閣이 橫的 關係에서 竝立되고 있었다고 하면 新體制에서는

中央人民委員會가 內閣에 代置되었고, 新設된 政務院은 그 下位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편 「國家政治保衛部」는 非公開된 채 1974年 1月頃에 새로 設 置된 것으로 確認되고 있는데, 이는 一般的 國家機構의 體系라는 別 途로 金日成에 直屬된 特別 機關으로서 주로 金日成權力 및 그 後 繼者 問題에 대한 威脅 및 抵抗要因을 除去하는데 主目的을 둔 秘 密警察 機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共 産國家에서도 類例가 없는 것이며, 金日成權力和 그의 後繼者問題에 不安要因이 潛在하고 있음을 自認하고, 그의 除去에 汲汲하고 있는 證左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겠다.

II.北韓 權力構造의 變動過程과 그 要因

1.北韓權力構造의 歷史的 變動過程

北韓에서는 1945년 10월 10일이 朝鮮勞動黨의 創黨日이라고 말하고 每年 이 날을 記念하고 있다. 따라서 理論上으로는 이때에北韓의 權力機構가 처음으로 樹立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때는 여러 갈래의 共產主義運動의 派閥 또는 그룹이 黨權을 에워싼 싸움을 치열하게 展開하고 있었고 其實 1945年 10월 10日 以北 共產黨熱誠者大會 즉 北朝鮮共產黨의 創黨大會라고 오늘날 主張하고 있는 이 모임은 蘇聯軍政의 庇護를 받고 있던 金日成의北韓의 多數 共產主義組織을 代表하지 못한 獨舞台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同大會는 秘密裡에 開催되었으며 여기서 行했다는 金日成의 基調演說은 50年代에 가서 뒤늦게 發表했던 것이다.

한편 當時 微妙한 關係는 서울의 共產主義 指導者들과北韓 共產主義 指導者, 특히 金日成사이에 빚어지고 있었다.北韓黨 當局은 50年代까지 前記 45年 10月 10日에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 또는 「朝鮮共產黨北朝鮮組織委員會」를 設立했고 서울의 共產黨當局은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의 設立을 承認했다고 記錄하지 않을 수 없었거니와¹²⁾ 當時 金日成을 비롯한北韓 共產主義 指導者들은 종든

註 12)北韓發行 「朝鮮中央年鑑」(1949年版), 「北朝鮮日誌」10月 23日項目

싫든 朴憲永이 指導하는 서울의 共產黨組織을 朝鮮共產黨 中央으로 받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南北勞動黨이 合黨(1949年)된 이후 朴憲永系가 金日成에 의해서 肅清되고 또한 延安派, 蘇聯派 등도 역시 金日成에 의해서 거의 다 肅清되어버린 50年代末葉 이후에는 「北朝鮮分局」이라는 表現을 回避했으며 金日成은 지난 75年 10月 10日 勞動黨創黨 30周年記念日に 즈음한 演說에서는 「北朝鮮共產黨中央委員會」라고 말했다.¹³⁾

이렇듯 創黨大會라고 하는 1945年 10月 10日의 「以北5道共產黨熱誠者大會」에서는 中央集權的인 共產黨機構를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金日成의 指導體制는 形成될 수 없었던 것이다.

後日 金日成은 이때를 回顧하면서 地方主義가 强하고 群雄割據의 상태에 있었다고 비난하였다.

北韓 共產黨이 中央集權的인 指導體制를 갖추고 金日成이 名實共히 黨의 指導者로 등장한 것은 1945年 12月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3次擴大會議에서 金日成이 責任秘書로 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前後에 걸쳐 金日成의 權威를 부정 또는 도전하는 派閥과 個人에 대한 假借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물론이다. 共產主義 理論에서나 共產主義運動의 관록에서 金日成을 압도하

註 13) 平壤放送, 1975.10.9.

고 했던 玄俊赫(國內派)이 백주에 暗殺당한 것도 이때이다.

한편 金日成과 그 一派보다 뒤늦게 北韓에 들어간 中共系 共產主義者들(延安派)은 金料奉을 頂點으로 新民黨을 組織하고 金日成系와는 別途로 共產主義勢力을 확대해 나갔다.

新民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政黨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中國共產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으며 金日成系와 相異點은 知識層과 일부 小資產層을 勞動者, 農民과 함께 主要 構成要素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金日成은 이러한 新民黨의 도전에 대해서 그의 共產黨의 體質을 改善함으로써 新民黨과의 勞力競爭에서 勝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對決을 피하여 新民黨과 合黨하는 길을 擇하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金日成에게는 新民黨뿐만 아니라 金日成이 北韓에 登場하기 以前에 이미 強力한 組織을 굳히고 있었던 國內派를 去勢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課題에 當面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新民黨과 合黨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1946年 8月 北朝鮮共產黨과 新民黨이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을 創黨하였으며 新民黨側의 金料奉이 中央委員會 委員長으로 되고 金日成은 副委員長으로 되었다. 그러나 1946年 2월에 이미 北韓의 政權機構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구성되고 金日成이 委員長으로 되고 있었던 만큼 權力은 黨이 아니라 蘇聯의 庇護를 받고 있었던 金日成이 장악하고 있었다.

1948年 3月 北朝鮮勞動黨 第2次大會에서 金日成이 名實共히 黨
首로 됨으로써 黨의 獨裁權力 體系가 비로소 公式化되었다.

北朝鮮勞動黨 第2次大會에서는 黨의 常設 最高權力機構로 政治委
員會와 組織委員會(現在의 秘書局 機能과 大體로 同一하다)를 두었
다. 그 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政治委員會 委員: 金日成, 金科奉(延安派), 許哥而(소련派), 金策
(金日成系), 崔昌益(延安派), 朴一禹(延安派), 朱寧河(國內派), 計
7명

組織委員會 委員: 金日成, 許哥而(소련派), 金烈(소련派), 朴昌玉
(소련派), 朴英先(金日成系), 計 5명

다음 1956年 4月 朝鮮勞動黨(1949年 5月 南北勞動黨이 合黨
하여 朝鮮勞動黨으로 改稱) 第3次大會에서 選출된 常務委員會의 名
單은 다음과 같다. 이때 組織委員會를 廢止하고 政治委員會는 常務
委員會로 改稱하였다.

常務委員會 委員: 金日成, 朴正愛(소련派), 金一(金日成系), 鄭一龍
(國內派), 崔庸健(金日成系), 朴金哲(金日成系), 林春秋(金日成系),
金光俠(延安派), 南日(소련派), 李孝淳(金日成系), 金昌滿(延安派),
計 11명

常務委員會 候補委員: 李鍾玉(國內派), 韓相斗(國內派), 河仰天(延安
派), 金翊善(金日成系), 計 4명

1948年 3月の 勞動黨 第2次大會에서 政治委員會 7名 가운데 金

日成系는 그 自身外에 1名밖에 안되었는데 비하여 1956年 4月의 第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 委員 11名 가운데 金日成以外에 5名으로 增加하여 過半數를 차지하였음을 指摘해야 하겠다.

한편 延安派는 1948年 3月の 第2次黨大會에서 政治委員會 7名 가운데 3名이던 것이 1956年 4月の 第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 委員 11名 가운데 2名으로 줄었고, 이들마저도 金日成의 心腹으로 돌아섬으로써 事實上 延安派를 떠난 者들이었다.

蘇聯派는 1948年 3月の 第2次黨大會에서 政治委員會 委員 7名 가운데 1名이고, 組織委員會 委員 5名가운데 3名으로 過半數를 占했는데, 1956年 3月の 第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 委員 11名 가운데 2名으로 줄어 勢力이 多少 衰退했음을 보였다.

國內派는 1948年 3月の 第2次黨大會에서 政治委員會 委員 가운데 1名이었는데 1956年 4月の 第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 가운데 1名으로 初期부터 다른 派에 비하여 微弱한 存在에 불과하였다.

以上과 같은 變遷은 金日成系가 第2次黨大會로부터 3次大會에 이르는 約 8年間に 權力鬭爭에서 점차 다른 派를 압도하고 金日成의 獨裁權力이 굳어져 가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다음 1961年 9月の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選出된 政治委員會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政治委員會 委員：金日成, 崔庸健 (金日成系), 金一 (金日成系), 金昌

滿 (延安派), 朴金哲 (金日成系), 李孝淳 (金日成系), 金光俠 (延安派),
李鍾玉 (國內派), 鄭一龍 (國內派), 南日 (소련派), 朴正愛 (소련派),
計 11 명

政治委員會 候補委員 : 金翊善 (金日成系), 李周淵 (國內派), 河仰天
(延安派), 韓相斗 (國內派), 計 4 명

勞動黨 第 4 次大會에서 最高權力機構인 政治委員會의 以上과 같은
構成員은 金日成系가 더욱 強化되고, 소련派와 延安派가 각각 2 名
으로 下位 序列에서 안배되고, 國內派가 正委員 2 名, 候補委員 4
名 가운데 2 名으로 두드러지게 進出した 特徵을 보였다. 延安派와
소련派의 最上層이 1956 年 9 月 反金日成運動으로 肅清된데 따라
金日成系에 積極적으로 協力하고 있던 國內派 人物들을 最高權力層
에 등용함으로써 소련, 延安 兩派를 견제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
인다.

다음 1956 年 10 月 勞動黨代表者會에서 改編된 政治委員會와 新
設된 常務委員會 및 秘書局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常務委員會는
政治委員會의 核心分子로 구성되었으며, 權力을 金日成에게 보다 더
集中시키기 위한 것이다.

政治委員會 委員 : 金日成, 崔庸健 (金日成系), 金一 (金日成系), 李周
淵 (國內派), 朴金哲 (金日成系), 李孝淳 (金日成系), 金光俠 (延安派),
李鍾玉 (延安派), 南日 (소련派), 朴正愛 (소련派), 金翊善 (金日成系),
金昌奉 (金日成系), 朴成哲 (金日成系), 崔賢 (金日成系), 李永鎬 (소련
派), 計 15 명

政治委員會 常務委員會 委員：金日成，崔庸健（金日成系），金一（金日成系），朴金哲（金日成系），李孝淳（金日成系），金光俠（延安派），計 6 명

秘書局 秘書：

總秘書 - 金日成

秘書 - 崔庸健（金日成系），金一（金日成系），朴金哲（金日成系），金光俠（延安派），石山（金日成系），許鳳學（金日成系），金英柱（金日成系），朴容國（金日成系），金道滿（金日成系），計 10 명

金日成系는 政治委員會 15 名 가운데 8 名，常務委員會 6 名 가운데 5 名，秘書局 秘書 10 名 가운데 9 名을 차지함으로써 1961 年 9 月 勞動黨 第 4 次大會 이후 1966 年 10 月 勞動黨代表者會에 이르는 約 5 年間에 金日成系에 의한 權力의 完全 獨占이 거의 完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黨代表者會가 黨中央委員會의 改編을 그 機能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비추어 이때의 黨代表者會는 戰爭準備의 政策을 黨路線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金日成의 權力과 政策路線에 위협이 되는 일체의 權力構成의 要素를 제거하고 一絲不亂한 金日成의 獨裁體系 確立에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특히 이 모임에서 延安派로서 1956 年에 延安派 肅清에 큰 功勞를 세운 金昌滿이 權力에서 제외된 것은 당시 北韓이 對中共偏向으로부터 對蘇關係의 개선으로 轉換한 사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겠다. 즉 北韓의 對外政策 가운데 가장 중요한 對中·蘇를 變化시키

는 政策에서 否定的 태도내지 反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要因을 權力의 構成에서 제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意圖였다고 보겠다.

다음 1971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새로 구성된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196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에서 新設했던 常務委員會는 이때 廢止되었다.

政治委員會 委員：金日成，崔庸健(金日成系)，金一(金日成系)，朴成哲(金日成系)，崔賢(金日成系)，金英柱(金日成系)，吳振宇(金日成系)，金東奎(金日成系)，徐哲(金日成系)，金仲麟(金日成系)，韓益洙(金日成系)，計 11名

政治委員會 候補委員：玄武光(延安派)，鄭準澤(國內派)，楊亨燮(金日成系)，金萬金(소련派)，計 5명

秘書局 秘書：

總秘書—金日成

秘書—崔庸健(金日成系)，金一(金日成系)，金英柱(金日成系)，吳振宇(金日成系)，金東奎(金日成系)，楊亨燮(金日成系)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0年 11月의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는 北韓權力의 中核으로 되는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을 全員 金日成系로 망라하고 말았다. 이것으로 權力을 에워싼 派閥間의 오랜 暗鬪는 一段落된 셈이다.

196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 때와 比較하면 同代表者會에서 선출된 政治委員會 및 秘書局 權成員 19名(兩機關의 總數는 26名이

지만 兼職한 者가 7名이다) 가운데 무려 14名이 脫落되고 말았다. 이같은 大規模의 脫落은 1967年 3月頃 「消極性과 保守主義」라는 이유로 朴金哲(黨組織責)과 李孝淳(對南工作責) 一派가 肅清된 사건과 또한 1969年 12月頃 金昌奉(民族保衛相)과 崔光(人民軍總參謀長)을 비롯한 北韓軍 首腦部가 多數 肅清된 事件에 기인한다.

2. 權力變動의 要因

北韓權力的 歷史的 變動要因을 더듬어 보면 몇가지 特徵을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權力鬭爭이 거의 全的인 要因으로 되었고, 여기에 蘇聯 또는 中共으로부터 壓力이 作用했다. 그러나 1950年代 後半부터는 政策對決이 權力鬭爭에 加味되기 시작하다가 1960年代 이후에는 政策對決의 比重이 權力鬭爭의 要因보다 도리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要因이 添加된 것은 產業 및 經營專門家の 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먼저 權力鬭爭의 面을 살펴 보기로 한다. 1950年代에 休戰前後에 걸친 朴憲永, 李承燁을 비롯한 南勞黨系가 金日成權力を 전복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음모했다는 罪目으로 肅清됨으로써 朴憲永(黨中央委員會 副委員長)과 李承燁(黨中央委員會 秘書) 등이 北韓權力

의 中核으로부터 除去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朴憲永系와 親近했다는 혐의를 받고 許哥而(黨中央委員會 秘書, 소련派)가 自殺하는 등 적지 않은 사람이 權力의 中核 또는 中堅으로 부터 追放되었다.

이렇듯 南勞黨系와 그의 關聯者들이 除去된 데에는 政策的 異見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權力鬭爭이 支配的 要因이었다.

다음 1956年 9月부터 約 1年間に 걸쳐 延安派 및 一部 蘇聯派의 肅清은 金日成이 1965年 10月 10日 勞動黨 創黨 20周年에 즈음한 演說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¹⁴⁾ 金日成의 權力體系에 커다란 威脅을 加했던 事件이었는데, 同事件은 權力鬭爭의 性格을 가진 同時에 그와 表裏의 關係에서 政策對決의 面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反金日成運動의 先頭에 선 延安派와 일부 蘇聯派는 초기부터 金日成權力의 獨裁화와 橫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다가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 刺戟받아 金日成 個人崇拜와 無謀한 重工業偏重을 批判하는 運動을 表面化시켰던 것이다.

어떻든 金日成과 그 一派는 이 事件을 계기로 끊임 없이 그의 權力을 隱然히 위협해 오던 異質的 派閥과 政敵을 除去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宿望을 이룩한 셈이 되었다.

註 14) 「근로자」 1965.10. 第20號, “勞動黨創立 20周年에 즈음한 金日成의 演說”

1961年 9월에 열린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勞動黨中央委員會 委員 가운데 約 3分之1을 追放하고 이를 金日成 直系 또는 그의 忠僕으로 代替시킨 것도 마침내 金日成 獨裁權力이 確立하고 同時에 反對派가 다시 組織化될 수 없도록 封鎖하는데 成功한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1960年代에는 反對派閥의 組織的 挑戰이 거의 不可能하게 된 與件에서 派閥다툼의 性格을 띤 權力鬭爭이 두드러지게 展開될 餘地는 없었으며, 따라서 權力變動은 주로 政策을 에워싼 對立에 起因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重要的 事件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6年の 金昌滿과 그 一黨을 去勢시킨 事件이다.

金昌滿은 本來 延安派이기는 하지만 金日成이 強力한 政策으로 대했던 朴昌玉(소련派)을 去勢시키는데 앞장섰고, 뒤이어 1956년 延安派를 肅清하는데 있어서도 金日成에게 積極的으로 협조했거니와 金日成으로부터 두터운 信任을 獲得하고 있었던 者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어느 누구도 勢力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보면 꺾어버리거니와, 게다가 1960年代 後半期에 들어 北韓이 對中·蘇關係를 變化시킴에 즈음하여 中共系의 金昌滿을 祭物로 올렸다.

둘째, 1967年 3月頃 朴金哲, 李孝淳 一黨의 肅清事件이다.

이들은 金日成系이기는 했으나 金日成 一派의 無謀하고 狂的인 戰爭準備 政策에 批判的이었고, 소위 「南朝鮮革命」을 통한 共產化 統一에 重點을 둠으로써 戰爭을 피해야 한다고 主張하다가 肅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當時 朴金哲은 黨政治委員會 委員이며 黨組

織指導部長이었고, 李孝淳은 黨政治委員會 委員이며 黨連絡部長으로서 對南工作의 責任을 맡고 있었다.

朴金哲과 李孝淳 및 그 一黨을 肅清한 後 「消極성과 保守主義를 反對하자」라는 口號가 나타났으며 1967年 3月의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이 口號를 黨의 中心的 鬭爭課題로 決定한 것은 以上에서 말한 政策對決이 매우 심각했었음을 示唆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黨과 首領을 목숨으로 保衛하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口號를 내건 것은 朴金哲, 李孝淳 一黨의 肅清事件과 결코 無關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以上의 政策對決은 金日成獨裁權力에 위협이 될 만큼 潛在的 抵抗勢力이었다는 것을 金日成一派가 自認한 증거라고 하겠다.

세째, 1949年 12月頃의 北韓軍部 肅清事件이다.

이 事件에서는 民族保衛相 金昌奉, 人民軍總參謀長 崔光, 人民軍總政治局長 許鳳學 등이 一舉에 追放되었다.

이 事件의 內幕은 公開되지 않았으나, 1970年 1月 人民軍黨擴大全員會議(秘密會議)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은 同事件의 性格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金日成은 同演說에서 肅清된 軍首腦部가 犯한 잘못을 다음 몇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에 도전하였다. 둘째, 北韓의 戰爭準備 政策에 消極的이었다. 세째, 全人民의 武裝化 政策을 반대하여 勞農赤衛隊의 強化를 輕視하였으며, 同時에 全國의 要塞化 政策을 形

式的이고 不忠實하게 집행하였다. 네째, 美軍으로부터의 報復을 두려워 하였다. 다섯째, 人民軍隊內에 軍閥造成을 피하고 反革命으로 나갔다.¹⁵⁾

金日成의 이상과 같은 비난으로 보아 同 肅清事件은 軍事戰略을 에워싼 對立이며 보다 높은 次元에서 평가한다면 北韓의 소련 및 中共과의 共同防衛體制가 北韓의 防衛내지 攻擊에 갖는 比重을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에 대한 對立이었다고 보겠다. 즉 金日成側은 1962年 12月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이래 표방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로 北韓의 防衛와 공격을 기본적으로 카바하여야 하고, 소련과 中共과의 軍盟은 그것을 補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서, 反對派는 소련 및 中共과의 共同防衛體制를 自衛에 못지 않게 중요시하고, 나아가서 共同防衛體制가 輕視된다면 北韓의 방위는 보장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前者는 이른바 主體思想과 自主性에 理論的 근거를 둔 모험주의이고, 政治優先主義인데 대해서 後者는 合理主義이고 現實을 重視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또 다른 側面으로 이 肅清事件을 평가한다면 黨이 軍을 支配해야 한다는데 대한 반발이었으며, 이는 肅清된 軍首腦部가 人民軍隊內의 黨事業을 忽視했다고 비난된 것으로도 立證될 수 있다.

註 15) 1970年 1月, “勞動黨人民軍黨擴大全員會議에서의 金日成의 結論演說”

어떻든 이상에서 說明한 이 肅清事件의 성격과 그리고 肅清된 軍首腦部가 모두 金日成의 直系였다는 事實로 미루어 派閥鬭爭이 아니라 政策을 에워싼 對立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음 北韓 權力變動의 또 하나의 要因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點은 北韓의 權力과 소련 및 中共과의 관계이다. 北韓의 權力이 對外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同權力이 本來 소련으로부터 가져다 준 것이고, 同時에 이때까지 北韓은 中·蘇 사이의 主導權을 에워싼 競爭의 對象으로 되어 온데 緣由한다.

1950年 北韓 權力에 대한 소련 및 中共으로부터의 영향이 어떻게 作用했는가는 1956年 9月 延安派 및 소련派 一部の 肅清事件이 시사해 주고 있다. 1956年 9月 金日成이 緊急 소집한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日成權力에 對抗해 나선 延安, 소련 兩派를 假借없이 肅清하기로 결의하였고, 延安派 가운데 數名은 禍를 피하기 위하여 이미 中共으로 亡命하였는데, 同全員會議 직후 소련으로부터 第一副首相 미코얀, 中共으로부터 國防相 彭德懷가 秘密裡에 平壤에 와서 肅清하기로 결정된 자들이 反革命分子라고는 볼 수 없으니 寬大하게 처리하라고 壓力을 가함으로써 金日成 一派는 대부분의 肅清 결정을 번복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후 1958년에 이르는 동안 反金日成運動者들은 結局 肅清되고 말았으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犯罪」를 造作함으로써 소련 및 中共지도자들에게 納得시켜야 하였다.

한편 延安派 및 소련派의 反金日成運動은 1956年 2月 소련共

産黨 第 20 次大會에서의 個人崇拜批判내지 非스탈린化에 고무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소련指導層의 支持 및 中共指導層의 默認을 기대한 것이었다고 보겠다. 당시 모스크바에 駐在한 北韓大使 李尙朝가 이때의 反金日成運動에 가담하고 金日成의 過誤를 蘇聯當局에 告發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¹⁶⁾

마지막으로 北韓 權力變動의 要因 가운데 하나로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金日成의 後繼者 問題이다. 金日成이 그의 아들 金正日을 後繼者로 內定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라면 後繼者 問題에 관한 金日成의 뜻에 어긋나는 一切의 言行을 容納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새로운 權力을 에워싼 肅清 劇이 빚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73年 12月 새로운 「社會主義憲法」體制에 의해서 國家主席制를 新設함으로써 金日成獨裁體制를 강화하는 동시에 金東奎를 國家副主席에 올려 놓는 反面에 金英柱 (金日成의 實弟)의 權力序列을 낮추는 등 權力構成을 再整備한 것은 後繼者 問題를 의식한 처사라고 보겠다.

1966年 10月 勞動黨 代表者會에서 改編한 權力體制는 金英柱를 金日成의 後繼者를 내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金英柱는 一躍 黨政策委員과 秘書局의 秘書로 올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事實上 金日成, 崔庸健, 金一에 이어 第4位의 權力序列에 올랐으며 한편 117名의 黨中央委員會 委員의 選出에 있어서도 金英柱

註 16) 「北韓政權의 暗鬪相」, 內外問題研究所刊, 1966. 6.

系를 많이 등용내지 昇進케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金日成이 보다 年老해질수록 後繼者문제를 에워싼 權力鬭爭은 隱然히 또는 公開的으로 점차 치열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Ⅲ. 北韓權力的 派閥과 金日成

1. 共產黨 派閥鬭爭의 歷史的 傳統

우리나라 共產主義 운동은 그 起源을 1910年代 末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데 初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黨權을 에워싼 또는 理念的 對立으로 말미암은 派閥鬭爭으로 얼룩지고 있다.

1919年 8月 申奎植을 비롯한 社會主義者들이 上海에서 「朝鮮社會黨」을 창립한 것을 우리나라 社會主義 운동의 起源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¹⁷⁾ 이렇다할 운동의 業績을 남기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한편 1917年末 李東輝가 中心이 되어 露領 ورا지보스토크에서 「韓人社會黨」을 조직하였으며, 1919년에는 「高麗共產黨」으로 黨名을 바꾸고 얼마후 本據地를 上海로 옮겼다. 이것이 世稱 上海派의 始終이며 일크츠크派와 黨權과 共產主義運動의 方向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展開했으며 이는 1925년에 創立한 朝鮮共產黨內의 派閥鬭爭에 까지 連關을 갖게 되었다.

일크츠크派라 함은 露領·일크츠크에 居住하고 있던 韓人들이 1918年頃에 「韓人共產黨」을 별도로 조직한 것을 말한다. 李東輝가 主導하는 上海派가 社會主義者임을 自處하면서도 獨立運動에 鬭爭을 집중함으로써 民族主義의 色彩를 두드러지게 나타낸데 대해서 일크츠크

註 17) 「朝鮮共產主義運動의 起源」 R.A. 스카라피노·李廷植共著, 韓國研究圖書館 譯刊, p.2.

크派는 이미 러시아 共產主義組織에 가담한 자가 적지 않았거니와 民族意識이 비교적 약하고 共產主義의 理念에 깊이 빠져 있는 過激分子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海外 韓人들의 社會主義 乃至 共產主義者들의 운동은 露領과 中國 이외에도 日本에 있는 留學生들과 知識人들 사이에서 볼 수 있었고 이것이 또한 새로운 派閥의 要素로 된 것은 물론이다. 이들은 日本의 東京과 서울을 수시로 往來하면서 日本에 먼저 전파된 마르크스主義思想을 비롯한 社會主義思想과 또한 無政府主義思想등을 國內에 傳達함으로써 朝鮮共產黨의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共產主義 組織으로는 「北星會」를 들 수 있다. 北星會는 1924年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을 그 傘下에 조직하고 資本主義와의 抗爭을 宣言하는 한편 國內에 침투하여 全民族的 聯合으로 民族解放을 성취하고 社會主義를 實現시킨다는 主張 아래 「新興青年會」를 결성하고 그 세력의 확대를 꾀하였다.¹⁸⁾ 이들은 上海派의 李東輝와 접촉이 있었으며, 서울 青年會(高麗共產係) 및 火曜會(朝鮮共產係) 등과 치열한 黨權을 에워싼 경쟁과 싸움을 벌였다.

國內에서는 1923年에 日本의 韓人 社會主義運動의 씨클인 「1月會」가 國內組織에 착수 하였는데 그 以前에 서울에는 勞農共濟會(1920年 結成)를 발판으로 하여 發生한 李英, 金思國 등의 「서

註 18) 前掲書, 「韓國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p.66.

을靑年會」(1922年 9月 結成)와 洪命燾, 朴憲永 등의 「火曜會」가 社會主義運動의 中心을 이루고 있었다. 이 밖에도 金料熙가 主導하는 「北風會」 金翰, 元友慶이 이끄는 「無產者同盟會」 朴崇秉이 이끄는 「칼톱會」등이 역시 各各 派閥을 이루고 散在하고 있었다.

1924年 4月 17日 前記 「1月會」의 主導로 여러 社會團體를 聯合시켜 朝鮮勞農總同盟을 結성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년만에 「서울靑年會」의 對抗을 비롯한 派爭으로 다시 分裂되고 말았다.

이 무렵에 1月會系와 손을 잡았던 火曜會와 北風會는 無產靑年同盟, 勞動黨 등과 合作하여 「朝鮮共產黨」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1925年 4月 17日 서울 雅叙園에서 朝鮮共產黨을 창립하였다. 火曜會系의 金在鳳, 洪增植, 朴憲永, 曹奉岩, 洪南杓, 權五高, 朴順東, 李準泰, 趙東祐, 金燦, 崔元澤 등과 北風會系의 金若水, 上海派(高麗共產黨系)의 朱鍾健, 兪鎮熙, 勞動黨系의 尹德熙 등을 幹部로 選출하였으며 4月 18日에는 朴憲永, 金泰淵, 林元根의 지도하에 朝鮮共產黨 共產靑年會를 結성하였다.¹⁹⁾

한편 1925年 12月 新義州事件으로 朝鮮共產黨의 간부가 검거되고 이들의 조직이 드러나자 同黨에 불평을 품고 있었던 서울靑年會系는 蘇聯 및 上海의 極東局과 연락하여 同年에 따로 春景園에서 共產黨을 조직하였다. 이는 春景園共產黨이라고 불리워졌으며 金思國과 李英이 責任秘書로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運動은 發生 초기부터 派

註 19) 前掲書, p.68.

爭과 主導權을 에워싼 對立과 갈등으로 잇따랐으며, 朝鮮共產黨은 各派間의 百家爭鳴 가운데서 共產主義者들의 완전한 總會를 이루지 못한채 태어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共產黨은 日帝의 強壓 아래서 까지 派閥싸움으로 始終하다가 창립한지 4年만에 終末을 보게 되고 말았다.

이같은 共產主義者들의 派閥鬪爭의 根本要因을 어떻게 說明해야 하겠는가? 共產主義運動 및 共產黨內의 派閥鬪爭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革命의 過程과 10月革命 이후의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蘇聯에서도 크고 작다는 差異가 있을뿐 中斷되지 않고 끊임없이 展開되었으며, 그밖의 여러나라의 共產黨 및 共產主義運動에서도 派閥鬪爭은 共通的 現象이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多年間 多數의 共產黨內에서 分派鬪爭이 벌어졌다. 이 點으로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는 폴란드와 美國의 黨派인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朝鮮共產主義運動 내부의 分派鬪爭이며, 이는 世界記錄的이다.」라고 1932年 5月の 코민테른執行委員會의 「朝鮮共產主義運動에 관한 意見書」²⁰⁾에 적혀 있거니와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 및 共產黨內의 派閥싸움은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傳統이 8.15 이후 北韓共產黨內의 派爭과 肅清에 反映되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8.15 以前까지의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과 共產黨組織은 大衆的 기반을 갖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共產主義運動 및 共產

註 20) 「콤민테른文獻集」, 朝鮮總督府, p.584.

黨의 指導層 내부에서 이데올로기 論爭으로 날을 보내는 동시에 黨指導權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專念하였다. 이것이야말로 派閥鬭爭의 根本原因이고 背景이라고 하겠다.

大衆的 기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共產主義者들과 共產黨이 내세운 이른바 鬭爭目標 및 課題가 當時 日帝의 植民地政治로부터 獨立을 반드시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우리 民族의 念願과 너무도 유리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하기는 共產主義者들과 共產黨도 獨立鬭爭을 前面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民族的 이해관계를 國家 共產主義運動의 目標에 從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콤민테른(蘇聯 共產黨을 中心으로한 國際共產黨組織)의 指令에 忠實하려고 애썼고, 뿐만 아니라 蘇聯을 祖國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치 않았던 관계로 당시 우리나라 各界, 各層으로부터 警械의 對象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日帝를 反對하는 獨立運動에 共產主義者를 참가 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祖國光復을 위한 民族의 大同團結에 항상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으로 적지않은 民族主義者들까지 처음에는 朝鮮 共產黨의 강력한 獨立鬭爭에 期待를 걸고 同黨에 가담하거나 域은 提携했었으나 共產黨의 反民族的 性格이 점차 露骨化되고, 同時에 共產主義者들의 참을 수 없는 背信으로 結局 同黨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露領과 中國의 海外 韓人 共產主義運動은 各派閥에 따라 性向이 相異하였으나 러시아 볼세비크의 組織에 가담하였으나 그 影響을 깊이 받은 者들은 朝鮮 共產主義運動을 蘇聯 共產黨의 世界的 戰略, 戰術이라 하는 次元에서 評價함으로써 民族的 主體性を 저버리

고 있었는데, 이러한 事情은 民族主義的 傾向을 끝까지 固守하려고 노력한 일부 共產主義者들 및 그 그룹과 反目 및 갈등을 빚어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또한 派爭의 要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點이라고 하겠다.

8.15 이후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大衆的 其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1920年代 이래의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의 傳統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따라서 이 點에서 前後者間의 派爭의 共通的과 要因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8.15 이후 北韓 共產主義者들과 共產黨 上層部는 1920年代 이래의 우리나라 共產主義運動 및 朝鮮 共產黨에 가담했던 者들이 多數를 占한 事實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8.15 이후 北韓 共產黨이 過法의 派爭을 再演시킨 潛在的 要因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도 8.15 以前의 共產主義運動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金日成과 그 一家가 蘇聯軍政의 庇護아래 共產主義運動에 經歷과 貫錄을 가진 者들을 支配하려는데서 보다 세찬 派爭이 展開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點이 金日成의 肅清史에 하나의 큰 줄거리를 이루게 한 것이다.

한편 金日成은 그의 反對派와 政敵을 肅清하는데 있어서 例컨데 崔昌益(延安派)의 경우와 같이 1920年代에 派閥싸움에 가담했다는 데서 肅清의 口實을 찾았고 또 이미 斷行한 肅清을 正當化하려고 꾀해 온 事實도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金日成에 特有的 肅清의 手法이라고 하겠으며 그의 肅清史를 叙述하는데 있어서 하

나의 興味있는 記錄이 될 것이다.

2. 3大派閥과 金日成系

3大派閥이라고 함은 國內派, 蘇聯派 및 延安派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國內派라고 함은 北韓에서 共產主義運動을 하다가 8.15를 맞고, 이후 北韓에 머물러 있었던 者들을 말한다. 南韓에서 줄곧 共產主義運動을 하다가 8.15를 맞은 者들도 國內派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38線을 境界로 南韓內의 共產主義者들은 初期에 別途로 黨組織을 가짐으로써 北韓內의 派閥鬭爭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 보다도 南北의 共產主義者들 사이에 黨中央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날카로운 對立을 보였기 때문에 金日成의 肅清史를 엮어나가는데 있어서는 便宜上 그들을 國內派와 분리해서 따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金日成一派는 물론 蘇聯 및 中共과 깊은 聯關을 갖고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中共系라고 할 수 있고, 또는 蘇聯系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中共系인 延安派와 구별되어야 하고 동시에 주로 蘇聯 2世들로 이루어진 蘇聯派와도 一線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便宜上 別途로 金日成系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한때 金日成一派를 甲山派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으나 이는 咸鏡北道 甲山을 根據地로 金日成一派와 抗日鬭爭을 했다는 견해에 根據를 둔 것 같은데 朴金哲(勞動黨 組織部長까지 지내다가 肅清된者)등과 같은 金日成派가

운데 극히 少數가 甲山을 根據地로 抗日運動을 했을 뿐 金日成 自身과 金日成派의 大部分은 甲山과 거의 關係가 없는 者들이기 때문에 金日成一派를 甲山派라고 부르는 것은 妥當하지 못하다고 본다.

먼저 國內派는 大部分 1920 年代 朝鮮共產黨의 組織에 참가한 者들이었으며 8.15 까지 國內에 殘留하여 日帝警察의 監視와 彈壓속에서 地下活動을 하였고 그 가운데 多數는 日警에 檢舉되어 投獄되었거나 或은 投獄된 後 또는 投獄되지 않은 채 日警에 屈服하여 轉向에 응낙한 者들이었다. 北韓에서 國內派의 巨頭였던 玄俊赫 역시 轉向者의 收容所인 大和塾에 들어가 있었다.

國內派로 著名한 者로는 平南의 玄俊赫, 張時雨, 平北의 金載甲, 白容龜, 咸南의 吳琪燮, 鄭達鉉, 朱寧河, 李鳳洙, 李舟河(元山), 咸北의 金東龍, 黃海의 宋鳳郁, 金德永등을 들 수 있다. 金鎔範, 朴正愛夫婦도 8.15 當時 國內에서 國內派와 함께 共產黨組織에 참여하였으나 本質上으로는 蘇聯派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大部分은 서울에 있는 南韓共產主義 指導者 朴憲永의 影響을 오래前부터 받고 있었으며, 朴憲永系가 아닌 者들도 朝鮮共產黨의 中央은 서울에 두어야 하는 것이 當然하며 同時에 朴憲永이 南北에 걸친 朝鮮共產黨의 指導者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共通的인 見解였다.²¹⁾ 이것은 金日成이 蘇聯軍政의 登에 업혀 登場

註 21) 「左翼事件實錄」1卷, p.85 大檢察廳 搜查局

하기 前의 일이다.

따라서 平南의 玄俊赫을 비롯하여 以上에서 列擧한 國內派들은 各
己 自己의 地域에서 共產黨組織에 着手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地方組織의 테두리를 벗어나 것이 아니었고 將次 서울의
黨中央에 所屬될 것을 意識하고 있었다.

그러면 國內派의 思想的 傾向은 어떠했느냐는 點이다. 우선 國內
派의 巨頭 玄俊赫으로 말하면 共產主義 理論에 밝은 者로, 누구못
지 않게 共產主義에 忠實하다고 自處하고 있었으나 植民地로부터
해방된 이 나라에서는 急激한 共產化政策과 共產獨裁는 禁物이고
어디까지나 民主革命의 段階를 거쳐 統一된 民主獨立國家를 수립해
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全民族이 大同團結해야 한다고 強調하였
다. 그가 平南人民政治委員會 副委員長으로서 曹晚植委員長과 잘 協
調해 나가고 또 共產主義者로서는 一般大衆의 人氣도 상당했던 것
은 그의 온건한 思想과 政策路線 때문이었다고 보겠다.²²⁾

그밖에 國內派 人物들이 어떠한 思想的 傾向과 政策抱負를 가졌
는지는 낱낱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北韓에서는 玄俊赫이
國內派 指導者로 公認되고 있었고, 또한 玄俊赫이 피력한 政策路線
에 國內派 共產主義者가 挑戰함으로써 對立을 이루었다는 記錄은 없
는만큼 玄의 見解가 國內派를 대표했다고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國內派는 蘇聯軍政이 北韓에 제대로 布陣하고, 金日成이 登

註 22) 前掲書, 「韓國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p.194.

場하기 以前에 各地域에서 共產黨組織을 그런대로 갖추어 놓고 있었으며 이 事實은 곧 後에 金日成一派뿐만 아니라 뒤늦게 北韓에 歸國한 蘇聯派와 延安派는 黨權 장악의 企圖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金日成系가 國內派를 肅清하는데 蘇聯, 延安 兩派와 提携할 수 있는 材料로 되었던 것이다.

國內派에게는 蘇聯派와 延安派의 存在는 이미 알려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 兩派와 각각 어떻게 調和할 것인가를 研究課題로 올려 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과 그 一派의 存在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登場은 國內派에게는 奇襲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延安派라고 함은 中國共產黨의 本據地 延安에서 黨組織生活과 政治的 및 軍事的 訓練을 받고 8.15 후 北韓으로 入國한 者들이다. 이들은 獨立同盟과 그 傘下의 朝鮮義勇軍에게 金料奉을 頂點으로 하나의 指導體制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武亭은 中共八路軍內 砲兵司令官과 朝鮮義勇軍 總司令官을 歷任하였고 이밖에 延安派 또는 그 영향하에 있는 적지 않은 者들이 中共軍에 所屬되어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8.15 후 北韓軍의 創設에 延安派가 金日成系와 함께 主導的 役割을 할 수 있게한 歷史的 背景이 되었고, 따라서 延安派는 肅清될 때까지 軍部の 強力한 支持를 얻어 金日成系에 抵抗할 수 있었던 것이다.

延安派의 指導級人士는 金料奉, 武亭, 崔昌益, 朴一禹, 韓武, 金昌滿, 尹公欽 등이었다. 이 가운데 崔昌益은 1920年代 朝鮮共產黨의 創

회에 참여하고 金日成이 그를 肅清할 때 指摘한바 있거니와 콤공
류파에 가담하였었다.²³⁾

金料奉을 中心으로한 延安派는 解放된 朝鮮의 社會主義 및 共產
主義運動은 마땅히 自身이 主導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蘇聯
軍이 北韓을 占領했던 만큼 가장 強力한 競爭者는 蘇聯共產黨에서
組織生活을 하다가 入國한 蘇聯派라고 豫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
면 金日成과 그 一派는 入國前까지 關心밖의 存在에 不過하였고,
其實 金日成이란(傳說的인 金日成將軍이 아닌 金成柱) 이름은 들어
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1955年 延安派 朴一禹가 內務相으로부터
遞信相으로 左遷된데 대해서 金日成에게 「나는 毛澤東主席의 信任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무슨 權利로 나를 1級相으로부터 3
級相으로 깎아 내리느냐」고 對抗했다고 하는데²⁴⁾ 이는 延安派가 金
日成에게 이때까지 품고 있던 輕蔑과 不滿을 폭발시킨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延安派가 1945年 9月 中·下旬頃 新義州를 거쳐 北韓
에 들어 갔을 때, 蘇聯軍政當局은 이미 金日成을 北韓權力の 指導
者로 내세우기 위한 計劃을 굳히고 있어 權力の 野心에 挫折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情勢를 再檢討해야 했었다.

한편 延安派가 8.15해방이 된지 1個月이 넘어서야 入國하고 더

註 23) 1958年 3月, 勞動黨 第1次代表者會議에서의 金日成演說

註 24) 越南者の 證言

우기 同派의 指導者 金料奉은 더 늦게 平壤에 들어오게 된 것은 蘇聯軍政當局의 牽制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事實은 北韓의 派閥鬭爭이 장차 中·蘇關係의 趨移와 連關을 갖고 展開되리라는 조짐이었다고 보겠다. 當時 中國共產黨은 國民黨과 치열한 內戰中에 있었고, 그후 1949年 10月 中共이 中國大陸을 搗搗함으로써 政權을 수립한 이래 數年間은 毛澤東이 스스로 「向蘇一邊倒」를 宣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兩國은 서로 勢力擴張을 에워싸고 싸운 歷史的 關係, 또한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理念과 戰略이 서로 一致되지 않은 不調和를 강하게 意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蘇聯當局은 처음부터 北韓에서 延安派가 權力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極力 防止했다고 보겠다.

어떻든 延安派는 蘇聯軍政의 比호를 받고 있었던 金日成一派와 合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別途로 入國한 蘇聯派와도 一線을 굽고 한참동안 觀望하다가 1946年 3月 30日 新民黨을 創黨하기에 이르렀다. 南韓에서는 이보다 앞서 역시 獨立同盟의 後身으로 1946年 2月 16日 新民黨을 創黨하였다. 新民黨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金日成의 共產黨과는 性向을 달리하여 勞動者, 農民뿐만 아니라 知識層과 小資產層을 組織基盤으로 삼았다. 말하자면 金日成의 共產黨이 左傾的 共產主義黨이라고 한다면 新民黨은 右傾的 共產主義黨이라고 볼 수 있었다.

興味있는 點은, 1946年 8月 金日成의 共產黨과 新民黨이 合黨함으로써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시킨 것을 黨을 大衆的 政黨으로

發展시킨 賢명한 劃期的인 處事라고 金日成이 主張하고²⁵⁾ 그 功績을 自身에게 돌렸는데 實은 新民黨이 처음부터 이른바 大衆的 政黨으로 發足했던 만큼 勞動黨의 正統은 마땅히 新民黨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따라서 金日成은 延安派의 黨組織 構想에 뒤늦게 贊同하고 그에 迎合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음 蘇聯派는 蘇聯에서 태어났거나 或은 어린시절부터 蘇聯에서 敎育을 받은 者들로 이 나라 共產黨에 입당하여 共產主義者로 敎育되고 단련된 者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蘇聯軍의 北韓進駐에 뒤따라 北韓에 入國했는데 그 時期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大部分은 延安派보다도 뒤늦게 入國했던 것으로 보인다.

蘇聯派의 巨物級으로는 南日, 許哥而, 朴昌玉, 朴義完, 金承化 등을 들 수 있고 金溶範, 朴正愛夫婦는 蘇聯派라고 할 수 있지만 8·15 以前에 蘇聯스파이로 北韓에 드나들면서 活動하다가 金溶範은 日警에 체포되어 投獄되었다가 出獄된 後 방랑생활을 하고 있었다.

蘇聯派는 延安派와 마찬가지로 金日成과 그 一派를 눈아래로 보고 있었으나 金日成에게 北韓權力을 장악하게 하려는 蘇聯當局의 뜻을 正面으로 反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金日成一派와 對立을 피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蘇聯派가 權力의 野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機會를 기다리는 姿勢였다고 보겠다.

註 25) 「근로자」, 1965.10, 第 20 號, “勞動黨創立 20 周年에 즈음한 金日成演說”

蘇聯當局이 蘇聯派를 뒤늦게 北韓에 들여 놓은 것은 金日成에게 權力을 장악하려는 計劃에 妨害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蘇聯派가 延安派와 다른 特異點은 延安派가 北韓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獨立同盟」에 의해서 金科奉을 頂點으로 指導體制를 갖추고 있었는데 反해서 蘇聯派는 그렇지 못하고 蘇聯의 各地에 散在했던 者들이 北韓에 들어와 비로서 同系的인 意識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兩派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相異點은 延安派가 獨立同盟 傘下에 朝鮮義勇軍을 設置하고 軍幹部를 훈련, 育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北韓軍 창설때 그 基幹의 一部를 同派가 占한데 反해서 蘇聯派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北韓軍부에 同派가 거의 참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後日 派閥間의 權力鬭爭의 과정에 있어서 蘇聯派가 相對적으로 脆弱하지 않을 수 없는 要因으로 되었던 것이다.

다음 金日成系의 正體는 무엇인가? 金日成이 1931년에 中國共產黨에 入黨했다고 그의 傳記에 記錄하고 있거니와 그의 黨歷과 活動根據地로 본다면 中共系라고 할 수 있고, 한편 太平洋戰爭이 발발했던 해인 1941년에 滿州로부터 蘇聯으로 들어가 거기서 軍事·政治訓練을 받고 大尉階級으로 8·15 직후 北韓에 들어왔다는 事實로 비추어 보면 蘇聯系라고도 할 수 있는 者이다.

그러나 金日成一派는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延安派 및 蘇

聯派와는 人脈上의 關係가 없을 뿐만 아니라 8·15 후 金日成一派가 하나의 勢力으로 延安, 蘇聯 兩派와 치열한 權力鬭爭을 벌였든 만큼 特色을 가진 하나의 獨立된 派閥로 보지 않을 수 없다.

金日成系로 著名한 者는 安吉, 崔賢, 金策, 崔庸健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다 中國共產黨員으로서 滿洲에서 投日遊擊鬭爭을 하다가 1941年頃에 大部分이 日本 關東軍의 討伐에 쫓겨 蘇聯으로 건너간 者들이다. 한편 그들은 8·15 후 蘇聯軍政이 金日成을 北韓共產集團의 頭目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金日成의 隸下에 들어갔었지 8·15 前의 遊擊戰에 있어서는 결코 金日成의 部下가 아니었던 것이다. 金日成의 正體는 아직까지 正確히 구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一派가 初期에 主張했던대로 抗日遊擊隊의 師長(中隊 乃至 大隊規模의 單位) 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金策은 南滿에 있었다고 하는 金日成과는 멀리 떨어진 北滿洲에서 活動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崔庸健은 1936年에 金日成과 合流했다는 말이 事實이라고 하더라도 「師」보다 한계단 높은 單位인 軍團의 政治部長이었다고 하는만큼 그가 金日成보다 下位였을 리가 없다.

1950年代이래 金日成이 滿洲의 抗日遊擊隊에서 어떤 地位에 있었다든가에 대해서는 故意的으로 言及을 回避하고 오직 同遊擊隊의 指導者라고 묘사하는 同時에 맑스·레닌主義黨의 基礎를 이때에 이미 닦아 놓았다는 등 그를 英雄化시킨 것은 歷史의 날조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한가지 興味있는 일은 金日成이 1975年 10月 10日 勞動黨 創黨 30周年에 즈음한 演說가운데서 1936年 10월에 결정한 「打倒帝國主義同盟」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戰略·戰術의 適用 및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의 準備에 劃期的인 것이었다고 強調한 點이다.

「打倒帝國主義同盟」이라는 團體의 이름은 일찌기 말한 일이 없는 새로운 것이고 이때까지는 1935年 5월에 組織했다는 「祖國光復會」를 들어 그것은 同年 7月の 콤민테른 第7次大會에서 採擇한 反파쇼 人民戰線의 戰略과 그 理論을 反日民族統一戰線에 導入한 것이라고 主張해 왔던 것이다.²⁶⁾ 요컨대 「祖國光復會」의 결성 日字가 콤민테른 第7次大會의 開催보다도 앞서 後者の 戰略과 理論을 前者가 導入했다는 것은 矛盾으로 祖國光復會에 관한 主張 역시 造作된 것이거니와 이제와서 「打倒帝國主義同盟」을 새로이 들고 나온 것은 金日成의 이른바 抗日鬪爭史가 날조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어떻든 1930年代에 滿洲에서 抗日遊擊 鬪爭을 했다는 者들이 金日成의 뒤를 이어 北韓에 들어와 金日成의 隸下에 모여 하나의 派閥을 形成하기에 이른 것은 金日成의 權威에 承服해서가 아니라 蘇聯軍政이 金日成을 北韓 共產集團의 指導者로 내세우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만큼 金日成을 좋든 싫든 받드는 것이 自身들의 장

註 26) 1935年 7月, 콤민테른 第7次大會에서의 지미 트로프의 反파시즘 人民戰線에 관한 演說.

차 榮達에 有利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金日成派로 이밖에 主로 國內와 滿洲사이를 反日運動의 活動舞台로 하여금 金日成과 接觸이 있었다고 하는 朴金哲 등을 지적할 수 있다. 初期의 「金日成略傳」에 의하면 朴金哲이 主導한 甲山工作委員會와 金日成이 接觸을 가졌고, 1936年의 普天堡戰鬪는 이 같은 連關과 協力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金日成略傳」이 대부분 造作된 것인만큼 이를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1967年에 朴金哲이 李孝淳등과 함께 숙청됨에 즈음해서 金日成과 다음과 같은 言爭을 벌렸다고 함은 매우 興味있는 일이라고 하겠다.²⁷⁾ 즉 金日成偶像化에 중요한 材料로 利用해 온 普天堡戰鬪에 대해서 朴金哲이 普天堡의 日本警察 駐在所에 있는 數名の 警察官을 습격하여 食糧과 武器를 빼앗아 낸 것에 不過하다고 폭로하였다고 하며 이에 金日成은 激怒하여 朴金哲이야말로 日警에 逮捕되어 投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傷處하나 입지 않고 釋放된 것은 日警에 屈服하여 變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응수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金日成派라고 하더라도 여러갈래의 親疎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金日成의 權威 및 個人崇拜에 妨害가 된다고 보여지는 者들은 잇따라 權力의 中核으로부터 除去되어 왔다. 이 事實은 金日成의 獨裁權力이 그 派를 結束시키는 唯一한 作用力을 發揮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金日成이 蘇聯軍政의 庇護를 받지 못하여

註 27) 越南者의 證言

北韓 共產集團의 權力을 장악하지 못했든들 金日成派란 形成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끝으로 附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金日成派란 이른바 抗日遊擊隊 出身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8·15 직후 金日成이 北韓에 登場했을 무렵에 이미 적지 않은 他派의 사람들을 懷柔에 의해서 自身の 支持勢力으로 돌렸거니와 北韓의 派閥版圖는 수시로 變化해 왔다. 뿐만 아니라 어느派의 系譜에도 들어있지 않은 젊은이들을 思想敎育과 金日成崇拜運動에 몰아넣음으로써 金日成에 대한 忠誠分子로 만들어 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들이 4代의 年齡에 이르러 이른바 新進으로서 北韓權力의 中堅乃至 中核에 進入하고 있는 것이다.

3. 南勞黨과 北勞黨

朴憲永, 李承燁 등의 南朝鮮勞動黨의 指導者들은 南韓에서 共產主義 활동이 不法化되고 同時에 地下組織이 거의다 檢舉되어 더이상 暗躍할 餘地를 잃음으로써 1947年頃에 越北하여 北韓의 共產集團과 合流했던만큼 此後에는 北韓의 派閥에 하나가 새로 加算되고 이리하여 北韓權力의 構成은 再編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以前에도 朴憲永을 中心으로한 서울의 共產主義者들과 金日成을 비롯한 北韓의 共產主義 各派 사이에 全國的 黨領導權을 에워싼 對立을 보였고 한편 朴憲永一派와 北韓의 金日成系, 蘇聯, 延安 및

國內派의 關係는 各各 親疎의 差異가 있어 복잡하고 미묘한 派閥 關係를 이루었다.

서울에서는 解放된 다음날인 1945年 8月 16日 鍾路 長安빌딩에서 前身 「서울」系인 李英, 鄭栢, 崔益翰 등이 主動이 되어 世稱長安派라고 불리워진 共產黨을 조직하였으며 이에 대립하며 同年 9月 8日 서울 桂洞의 한 民家에서 朴憲永을 中心으로 하는 前身 「火曜會」系 一派가 熱誠者大會를 개최하고 朝鮮共產黨再建準備委員會를 구성하여 共產主義者들의 全國大會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였다.²⁸⁾

이리하여 兩派는 날카로운 對立을 보이다가 결국 朴憲永派가 승리하여 그의 主導下에 兩派가 合同함으로써 同年 9月 11日 朝鮮 共產黨의 再建을 宣言하였다. 同黨의 탄생은 北韓 共產主義者들, 特히 朴憲永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朴憲永을 잘 알고 있는 國內派에게 커다란 鼓舞로 되었다. 한편 코민테른以來 共產黨은 一國一黨이어야 한다는 原則이었기 때문에 同年 10月 10日에 北韓에서 金日成의 主導에 의해서 조직했다는 共產黨은 北朝鮮 共產黨이라고 하지 못하고 「朝鮮 共產黨 北朝鮮分局」이라고 呼稱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서울의 共產黨을 中央으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後日 金日成이 蘇聯軍이 進駐하고 있었던 北韓에 朝鮮 共產黨의 中央을 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朴憲永派의 反對로 그러지 못했다

註 28) 前掲書, 「左翼事件實錄」, pp.23-24.

고 비난했으며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金日成은 1975年 10月 10日 勞動黨創立 30周年에 즈음한 演說에서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라는 말대신에 「北朝鮮共產黨中央委員會」이라고 함으로써 歷史의 僞造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北朝鮮分局이 언제 北朝鮮共產黨으로 이름을 바꾸었는지 정확한 날자는 分明치 않다. 北韓에서 發刊된 「朝鮮中央年鑑」(1949年版)에 의하면 1946年 1月 29日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連名으로 발표된 「모스크바 3相會議 決定 支持聲明」에는 아직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北朝鮮共產黨」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1946年 3月 19日 美·蘇共同委員會와 관련된 聲明을 발표했을 때이다.²⁹⁾

그러나 共產黨名과는 관계없이 金日成은 처음부터 서울의 共產黨 中央의 指示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蘇聯軍政에 직속되어 활동했으며 또 蘇聯當局이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北韓의 黨 權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쨌든 1945年 12月 17-18日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3次擴大委員會에서 金日成이 처음으로 責任秘書(第1秘書)로 된 것을 起點으로 서울의 朴憲永 共產黨과 名實共히 對等한 地位에서 北韓 共產黨을 운영해 나갔다고 보겠다. 金日成이 즉각적으로 北朝鮮共產黨의 이름을 가지고 서울의 共產黨과 對等한 地位로 행세하지 못한 要因 가운데 하나는 北韓內의 國

註 29) 前掲書, 「韓國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p.202.

內派의 反對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吳琪燮과 鄭達鉉등에 一國一黨의 原則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金日成에 抵抗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北韓에서는 1946年 7月初부터 北朝鮮共產黨과 新民黨의 合同工作이 시작되었고 同年 8月 28日부터 30日까지 平壤에서 合黨大會를 開催하고 北朝鮮勞動黨을 創黨하였으며 南韓에서는 그보다 뒤늦게 11月 23日 共產黨, 新民黨 및 人民黨의 3黨이 合黨함으로써 「南朝鮮勞動黨」을 創黨하였다.

北韓에서 共產黨과 新民黨의 合黨에 의한 北朝鮮勞動黨은 물론 蘇聯當局의 指示에 따른 것이었으며 두黨의 竝存은 金日成에게 權力을 장악케 하려고 한 蘇聯의 豫定에 威脅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의 大衆的 기반을 획득해야 한다는 命題도 亂脈相을 이루어 實現되기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創黨된 北朝鮮勞動黨의 中央委員會 委員長(黨首)으로는 延安派의 指導者와 金料奉이 추대되고, 金日成과 國內派이지만 이미 蘇聯軍政과 金日成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던 朱寧夏가 副委員長으로 되었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보다 앞서 1946生 2月 8日에 수립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자리에 오르고 있었든 만큼 實權은 그의 손에 장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金料奉을 同黨의 委員長자리에 앉힌 것은 蘇聯軍政의 構想에 따랐다고 하겠으나 形式上 北朝鮮勞動黨의 指導席을 各派間에 按配했다는 印象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겠다.

한편 南朝鮮勞動黨의 創黨도 蘇聯軍政의 指示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合黨의 過程은 자못 복잡하였고, 曲折을 피할수 없었다. 그 가장 큰 要因은 北韓의 新民黨과는 달리 南韓의 新民黨과 또한 人民黨이 맑스·레닌主義黨이라기 보다는 社會民主主義的 性格을 가졌고, 따라서 朴憲永系의 共產黨과 一體 되기 어려웠다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어떻든 1945年 8月 3日 人民黨은 同黨 委員長 呂運亨의 名의로 人民, 共產, 新民의 三黨合黨을 提案하는 書翰을 共產, 新民兩黨에게 보냈고, 이에 대해서 다음날 4日 共產黨은 同黨 責任秘書 朴憲永의 名의로, 7日에는 新民黨이 同黨委員長 白南雲의 名의로 각각 合黨을 승낙한다고 회답하였다.

그러나 共產黨內의 反朴憲永派는 三黨 合黨을 반대해 나섰다. 共產黨內部에서 朴憲永一派의 獨善的인 專橫에 反感을 품고있었던 李廷允, 姜進, 徐重錫, 金綴洙, 金權, 文甲松, 金台榮, 李華俊등은 그 機會에 朴憲永派 勢力을 견제할 목적으로 우선 共產黨大會를 소집하여 中央委員을 改選하고, 合黨問題를 民主的으로 論議한 뒤에 그 可否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叛旗를 들었다.³⁰⁾ 동시에 그들反朴憲永派는 人民黨의 呂運亨과 新民黨의 白南雲을 3黨合黨의 反對로 돌려세우려고 工作을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人民黨 主流派는 「現段階에서는 美軍政과의 協力과

註 30) 前掲書, 「在翼事件實錄」, pp.284-285.

左右合作을 추진하는 것이 當面の重大課業」이라는 이유로 合黨에 反對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人民黨 中央委員會는 1946年 8月 16日 多數決로 合黨을 결의하였다. 朴憲永一派가 人民黨에 잠입시킨 푸락치를 동원시킨 결과로 알려졌다. 이때 人民黨首 呂運亨은 黨首 사임의 의사를 表示하였다.

朴憲永一派의 主導아래 마침내 9月 4日 「人民, 共產, 新民 三黨合黨 準備委員連席會議」를 개최하고 南朝鮮勞動黨을 創黨하기로 하고 결정서를 採擇하였다.

이에 대하여 白南雲, 張建相等은 그것을 共產黨內 朴憲永一派의 獨斷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朴을 반대하는 人民黨委員長 呂運亨, 新民黨委員長 白南雲, 共產黨의 姜進의 共同 명의로 또하나의 3黨合黨 決定書를 발표하고 假稱 社會勞動黨 3黨合黨準備委員會를 人民 共產, 新民的 3黨이 高루 按配하여 구성하고, 委員長에 呂運亨 副委員長에 白南雲, 姜進을 選출하였다.

이러는 동안 朴憲永一派는 一聯의 악랄한 罷業선동에 이어 46年 10月 大邱의 이른바 「10月暴動」을 야기시켰는데 國民의 視線이 그곳으로 集中되고 있는 틈을 타서 11月 23日 秘密會議끝에 南朝鮮勞動黨을 결성하고 委員長에 許憲, 副委員長에 朴憲永과 李基錫 中央監查委員長에 崔元澤을 각각 選出하였다.

다음 南朝鮮勞動黨과 北朝鮮勞動黨의 合黨경위를 보기로 한다. 먼저 兩黨合黨의 準備工作으로 1949年 6月 25日부터 5日間에 걸친 南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과 北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의 合同會議를 平

壤에서 개최하고, 兩戰線이 통합하여 71個의 政黨, 社會團體가 망라되었다고 하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결성하였다. 이때 「南朝鮮民主主義民族戰線」의 指導層은 이미 대부분 越北해 있었고 組織도 붕괴되어 凶靈團體에 불과한 상태에 있었다.

이어 南北의 「民靑」, 「女盟」등이 잇따라 統合되고 同年 6月 30日부터 2日間に 걸쳐 南北勞動黨 聯合中央委員會를 열고 南北勞動黨이 合黨함으로써 朝鮮勞動黨을 發足시켰다.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委員長에는 金日成, 副委員長에 朴憲永과 許哥而(소련派)가 選출되었다.

金日成은 1950年 12月 南北勞動黨 合黨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年間に 우리黨이 力量을 더욱 튼튼케 하여 조성된 복잡한 환경에 대처하며, 全黨의 힘을 합쳐 統一的 指導部에서 더욱 威力하게 民主建設을 進行하며 모든 民主力量을 結속하여 광범한 朝鮮勞動大衆을 우리黨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勞動黨 全體黨員들의 意思를 대표하여 黨을 통일하는 決定的인 聯合中央委員會를 가졌다. 그 結果 우리는 黨의 統一的 中央委員會를 내놓았으며 統一的 黨中央의 指導밑에 民主的 諸政黨·團體들과 같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계속 強力한 鬪爭을 展開하여 왔다」³¹⁾

南北勞動黨의 合黨은 벌써 平壤에 넘어와 있던 朴憲永을 비롯한

註 31) 1950.12.4.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3次全員會議에서 行한 金日成演說

南勞黨 指導層을 흡수한 것에 불과했지만 南北에 걸친 共產黨의 指導層을 名實共히 장악하려고 애썼던 金日成으로서는 오랜 宿望이 達成된 셈이 되었다.

한편 南北勞動黨의 合黨 및 南北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의 統合은 美軍의 南韓撤收를 발표한 1950年 6月8日 直後の 일로 格別한 그들의 기도가 숨어 있었다고 보겠다. 즉 金日成은 이미 노리고 있던 南侵戰爭의 도발을 최종적으로 決心하고 南北勞動黨의 合黨등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當時 金日成의 戰略은 北으로부터 奇襲南侵을 감행하고 南韓內에 朴憲永의 南勞黨이 潛伏시켜 놓았다고 믿고 있던 地下組織의 봉기로 호응을 얻어 短期에 赤化統一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그러자면 朴憲永一派의 積極적 協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休戰後 金日成이 朴憲永一派를 숙청하고 나서 北韓軍의 南進에 南韓의 後方으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朴憲永이 있다고 했던 50萬黨員의 地下組織網은 허위였다고 비난한 것은 그러한 事情을 示唆해 주고 있다.³²⁾

註 32) 1953年 8月 勞動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行한 金日成演說

IV. 肅清의 序幕

1. 金日成의 登場

蘇聯軍이 平壤에 進駐하여 正式으로 「北朝鮮駐屯蘇聯軍司令部」를 설치한 것은 1945年 10月 25日이었다. 司令官은 蘇聯 第25軍 司令官 치스차코프大將이었고 그 兵力은 20萬 乃至 30萬으로 推算되었다. 우선 스탈린이 우리나라에 품고 있던 野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탈린은 第2次大戰이 끝나기 直前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유고슬라비아의 副統領이고 軍에 의한 共產獨裁에 抵抗한 밀로반 질라스에게 「領土를 점령하는 者는 그 누구나 그의 軍隊가 할 수 있는限 自己自身の 社會制度를 거기에 構築하기 마련이다」³³⁾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의 이러한 野心에 北韓이 例外가 될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北韓에 進駐한 蘇聯軍司令部의 되풀이된 宣傳 「붉은軍隊는 썬베트 秩序를 設定하거나 또는 朝鮮地域을 얻으려는 그런 目的을 가지지 않았다」느니 또는 「우리의 目的은 人民들의 解放鬪爭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며 다음에는 그들이 自己所願대로 自己땅에서 自由로운 生活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등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蘇聯은 韓半島에 대한 이같은 野心을 가지고 그의 代辯者 및 앞잡이로 金日成을 選定한 것이다. 그 選定資格은 共產主義理論에 밝

註 33) 밀로반 질라스著, 「스탈린과의 對話」, 黎明文化社, 韓國語版, p.100.

고 共產政權의 領導者的 資質을 구비하고 있느냐에 보다는 蘇聯에 얼마나 忠實하고 獻身的이냐에 두었다고 보겠다.

金日成은 蘇聯將校服을 입고 平壤에 蘇聯軍司令部를 설치하기 以前에 잠입한 것으로 보아지고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얼굴을 나타낸 것은 蘇聯軍政의 指示로 曹晚植씨가 영도하는 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解體시키고 8月 27日 民族 陣營과 共產側으로 接配하여 構成한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組織한 直後 曹晚植씨를 비롯한 同委員會 委員들 앞이라고 한다.

그러나 金日成이 堂堂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北朝鮮駐屯蘇聯軍司令部」의 民政司令官 로마넵코少將의 案內와 소개로 첫선을 보였다고 한다.³⁴⁾ 이때 金日成의 나이는 겨우 33세이고, 民族陣營人士들은 勿論이고, 平南人民政治委員會에 參加한 玄俊赫을 비롯한 共產主義者들 가운데서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北韓當局이 後日에 밝힌바로는 1945年 10月 10日부터 13日까지에 非公開로 열린 「朝鮮共產黨 西北五道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 金日成이 처음으로 公式登場했다고 하며, 이 모임이 있던 이튿날인 10月 14日 「金日成將軍歡迎 平壤市 群衆大會」가 열렸다. 이大會 역시 蘇聯軍政의 스케줄에 의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여기서도 로마넵코蘇聯民政司令官이 金日成을 案內하고 群衆에게 소개하였다.大會에 모인 사람들이 老將軍 金日成이 아닌 30代의 초라한 金日成 卽 本名 金成柱를 보고 얼마나 놀래고 失望

註 34) 前掲書, 「金日成을 告發한다」, p.54.

했는지 想像할 수 있겠다.

당시 「平南民報」 편집국장으로 金日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後에 「民主朝鮮」(北韓內閣機關紙) 主筆로 있다가 自由大韓에 넘어와 反共運動에 적극가담한 故 韓載德씨가 이날의 光景을 적은 手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윽고 로마넵코少將이 이날의 主人公 金日成이라는 사나이를 마이크 앞으로 내세우며 다시 한번 그를 英雄이요 愛國者요 指導者라고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拍手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 拍手 환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프로그램대로 花環증정이 연출될때 조차 拍手칠 것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金日成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金日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들 몇 몇 사람들은 이미 앞서 그를 만나본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를 처음 보는 일반 市民들에게는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 억지로 없는 위엄을 보이려 하나 촌티를 벗지 못한 어색한 태도로 마이크 앞에 나타난 金日成은 들고나온 원고를 내리 읽었다. 그것은 분명히 外國語 말을 번역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서툴게 번역한 것이었다. 그것을 또 서툴게 읽었다. 그 내용이 또 문제였다」³⁵⁾

金日成의 演說內容은 이렇듯 그 自身の 所信이 아니라 蘇聯當局이 作成한 씨나리오를 그대로 읽어내린 것으로, 스탈린을 찬양하고 蘇聯軍을 해방자라고 주장한 것이 主要한 줄거리였고, 同時에 「勞

註 35) 前掲書, pp.65-67.

力있는 사람은 勞力으로, 知識있는 사람은 知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民主國家의 창건을 위해서 各계 各層이 總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즉 처음으로 平壤市民 앞에 登場한 金日成은 蘇聯當局이 시키는대로 아직은 共產主義者라는 正體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대신 民族的 立場에 선 愛國者로 가장하였던 것이다. 金日成의 이같은 첫 宣言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가는 이윽고 共產主義라는 本色를 公公然하게 드러내 놓음으로써 強行한 反民族的, 反民主的 暴壓政治를 실시하는 가운데서 여지 없이 폭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2. 玄俊赫의 暗殺事件

金日成의 肅清史에서 序幕을 열어놓은 것은 共產主義者 玄俊赫을 줄개를 시켜 백주의 大路에서 暗殺한 事件이다. 어찌서 玄俊赫부터 손을 댈는 가는 當時의 事情으로 미루어 너무도 分明하다고 하겠다.

玄俊赫은 竹川出身의 共產主義理論家로 日帝때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日本警察의 轉向者收容所인 大和塾에 끌려다니다가 8.15를 맞았다. 해방 直後 玄俊赫은 서울에서 朴憲永과 가까이 하다가 平壤에 나타나 朝鮮共產黨 平南地區 責任者가 되었고 平南人民 政治委員會에서는 曹晚植委員長 밑에서 副委員長으로 있었다. 玄은 마르크스主義者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蘇聯軍政의 使囑를 받고 있었던 金

日成과는 政治的 見解와 所信이 크게 對立되고 있었다. 玄은 日帝植民地에서 해방된 이 나라가 나갈 길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獨裁 또는 一黨獨裁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선 부르조아 民主主義的 革命이어야 하며, 따라서 참다운 民主 民族聯合政權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바꾸어 말해서 玄도 궁극적으로 共產主義로 나가야 한다는데는 勿論 異議가 있을 수 없는 共產主義者였으나, 그러기까지에는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고, 이 단계에서는 응당 共產黨이 政權을 獨占할 것이 아니라 名實共히 共產黨과 民族陣營이 衡平하게 參與하는 聯合政權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第2次大戰의 終末을 前後하여 蘇聯軍이 進駐한 東歐諸國에서도 이미 實現되고 또한 앞으로 수립할 政權의 性格과 形態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에워싸고 共產主義者들 가운데 세찬 論爭이 벌어졌는데 玄俊赫의 以上과 같은 主張은 初期東歐諸國 共產主義 指導者들의 見解와 大體로 흡사함을 찾아 볼 수 있다.

東歐의 共產主義理論家들은 東歐諸國에 民主政黨이 共產黨과 함께 參與 함으로써 나타난 政權을 프롤레타리아獨裁도 아니고 부르조아 政權도 아닌 特異한 것이라고 하여 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 라고 불렀는데 同政權의 性格에 관해서 불가리아 共產黨首 지미트로프는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불가리아는 소비에트共和國이 아니고 國民의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手工業者 및 인테리겐차가 指導的 役割을 하는 人民共和國이다. 이 나라에는 어떠한 形態의 獨

裁도 없다。」³⁶⁾

또한 民族主義的 偏向이라고 모스크바로부터 세찬 공격을 받은 폴란드共産黨首 고물카는 「人民民主主義의 政治權力을 노동계급의 영도에 의한 民族的, 民主主義的 諸階級の 聯合으로 行使된다」고 주장하였고 때문에 「폴란드勞働者黨(共産黨)을 多政黨的 傾向이 있다던가, 다른 民主的 政黨에 굴복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반박했으며 나아가서 「社會變革의 改革的 方法과 社會主義的 秩序에로의 改革的(革命的이 아닌)으로 옮겨가는것은 完全히 可能하다」고 까지 斷定했다.

하기는 이러한 東歐의 人民民主主義論은 이윽고 모스크바의 壓力으로 말미암아 「人民民主主義는 資本主義 要素의 清算과 社會主義 經濟의 組織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成功的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었으나 北韓에서는 東歐의 온전한 人民民主主義論과 內容이 大同小異한 玄俊赫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論이 可否의 討論에 불려지지도 않고, 暗殺의 대상으로 되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玄俊赫은 北朝鮮共産黨을 서울의 共産黨 밑에 들 것이 아니라 따로 獨立시켜야 한다는 金日成의 所望에 대해서도 一國一黨의 原則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早速한 統一 獨立을 이룩하지 않

註 36) 「北韓 30 年史」, pp.70-71. 俞完植·金泰瑞共著, 現代經濟日報·일요신문社 共刊.

으면 안될 이 나라의 情勢에 비추어 보더라도 不當한 處事라고 하여 反對했으며, 한편 北韓에 全國을 共產化할 수 있는 革命基地를 構築해야 한다는 金日成의 이른바 「民主基地」路線에 대해서 贊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玄俊赫의 存在는 金日成과 또한 蘇聯軍政에게는 눈안의 가시 같았고,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金日成의 나갈 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었으며 同時에 蘇聯當局이 이미 짜놓은 北韓共產化的 里程碑가 蹉跌을 招來한다고 생각했다고 보겠다. 蘇聯軍政과 金日成은 玄俊赫을 說得, 회유하려고 試圖하였고, 그것이 秦效하지 못하자 脅迫·恐喝을 거듭했으나 玄은 所信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玄俊赫은 暗殺을 당하고 말았다. 1945年9月(日字未詳)에 낮 玄은 曹晚植씨와 함께 로마넝코司令部에 불리어 갔다. 貨物自動車 앞칸에 타고 平壤의 中心街인 平壤市廳앞 大路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車에 뛰어오른 赤衛隊服을 입은 怪漢에게 2發의 흉탄을 맞고 쓰러졌다.

玄俊赫을 누가 어찌서 죽였는가는 公式的으로 밝혀진바 없다. 그러나 그 犯行을 計劃한 자는 金日成이고, 下手人은 張時雨가 틀림없다고 믿어지고 있다. 張은 玄俊赫과 같이 日帝時代에 大和塾生活을 하였고 本來 間島共產黨員으로 「間島暴動」에 參加하여 10年의 징역을 살은 자이며 無識한 過激派이고 出世慾에 불타고 있었다.

張은 日帝時의 大和塾때부터 玄俊赫과의 사이가 매우 나빴다 하며, 해방후 玄이 서울에 올라와 「朝鮮共產黨 平南地區黨部」를 조직하

자 北韓의 거의 모든 共產主義者들이 여기에 들었음에도 不拘하고 張은 끝내 玄을 반대하여 「朝鮮共產黨 平壤市黨部」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玄을 敵對했다. 그러는 가운데 蘇聯軍이 들어와 軍政의 道具로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組織하자 張은 이에 아부하여 事業部長의 職을 自願하여 맡게 되었으나 그의 「朝鮮共產黨 平壤市黨部」는 玄의 「平南地區黨部」에 통합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玄에 대한 張의 敵對感은 일층 커지고 있었다. 金日成은 바로 이러한 張時雨를 玄俊赫 暗殺의 下手人으로 教唆한 것이다.

金日成이 玄俊赫 暗殺의 主役이라는 事實은 前記 韓載德씨의 手記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우리는 모든 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당시 「로마넝코」司令部의 高級通譯官으로 있던 蘇聯 2世 兪在日이 술 취한 김에 그 事件의 내막을 자랑삼아 털어놓은 것이 퍼지게 된 것이다. 兪在日이 드러낸바에 의하면 하루는 로마넝코少將室에 金日成, 金策, 金鎔範과 張時雨등이 찾아 와서 玄俊赫 처리에 관한 秘密會談을 했는데 그 때 이들 4명은 결국 玄을 없애는 非常手段 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로마넝코등 蘇聯人측은 後日을 염려해서였는지 처음에는 상당히 주저하였는데 金日成등은 집요하게 그 暗殺計劃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³⁷⁾

이렇듯 金日成一派의 요청에 蘇聯軍政當局은 처음에 그렇게까지 할

註 37) 前掲書, 「金日成을 告發한다」, p.128.

必要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고 보겠으나 蘇聯측에게도 北韓共產化의 스케줄에 玄俊赫이 크고 작든 하나의 장애로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만큼 그의 暗殺計劃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으며, 下手人の 責任을 맡은 張時雨에게 「실수 없이 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兪在日은 後日 秘密을 發說했다는 問責으로 蘇聯에 소환되었다고 하며 다시 시베리아로 流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金日成一派와 蘇聯軍政當局은 玄俊赫의 暗殺을 民族陣營에서 저지른 白色테러로 僞裝시키려고 꾀했다. 이리하여 「白色테러를 打倒하자」는 口號를 大的으로 외치고 상대한 社會葬으로 乙密臺入口에 玄의 山所를 큼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와 欺瞞劇은 통하지 않았다. 玄俊赫의 暗殺은 金日成一派와 蘇聯軍政當局의 共謀로 감행되었다는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犯法이 서툴어 퍼지게 되었다. 犯行의 手法이 서툴어 黑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點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當時의 北韓 情勢로 보아 玄俊赫을 暗殺할 者는 金日成一派를 빼놓고는 없었던 것이다.

張時雨는 玄俊赫을 暗殺하는데 成功했지만 蘇聯軍政當局은 欺瞞劇의 馬脚이 드러나 도리어 自身の 威信을 損失시켰다고 評價했든지 張을 實權없는 閑職인 北朝鮮消費組合 委員長으로 左遷시켰다. 그러나 後에 金日成內閣이 들어서자 商業相에 등용되고, 陸軍中將의 肩章을 달아준 일이 있었으나, 金日成의 肅清史에 共通的 現象이거니와 金日成에게 致命的인 秘密을 알고 있는 張은 이윽고 肅清되고 말

왔던 것이다.

金日成이 玄俊赫 暗殺의 主犯이라는 것은 數年後 玄의 乙密臺入口 墓地를 파헤쳐 어디론지 옮겨버리고 말았고 또한 玄을 反黨宗派分子로 烙印적은 事實로도 다시 立證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3. 國內派 肅清의 開始

金日成은 國內派 巨頭인 玄俊赫을 白晝의 暗殺이라고 하는 殘忍한 手法으로 除去했으나 그의 獨裁權力 장악에는 아직도 難關이 중첩되고 험한 路程이 예측되고 있었다. 勿論 東歐諸國에서 그랬던 것처럼 北韓에 進駐하고 있었던 蘇聯軍司令部의 積極적 比護가 金日成의 權力鬭爭에 不可缺의 背景으로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6.25 南侵前까지는 金日成의 肅清行脚은 蘇聯軍政當局의 事前承認 乃至 指示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關係로 金日成의 肅清手法은 스탈린의 그것을 導入했음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스탈린이 그의 두려운 政敵 키로프를 1934년에 暗殺해 놓고 그것을 白色테러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事件을 보다 큰 肅清의 嚆矢로 이용한 手法을 金日成의 玄俊赫 暗殺事件에 거의 그대로 導入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蘇聯軍政當局의 發想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金日成의 立場으로서는 蘇聯으로부터의 信任을 잃게 되면 그

의 執權野望은 水泡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蘇聯軍政當局의 눈치를 살피고 또 아부하면서 北韓을 衛星國化하려는 蘇聯의 里程碑를 보다 忠實히 그리고 보다 빨리 實現시키려고 狂奔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金日成의 肅清劇은 橫暴하고, 反民族的으로 얼룩졌던 것이다.

金日成이 玄俊赫을 暗殺로 除去시킨 事件은 그의 눈안의 가시를 빼버린 것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國內派를 비롯한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즉 北韓共產主義者들 사이에서는 金日成이 어떤 爲人인가에 관해서 아직도 궁금증을 못 풀고 있었다고 하면, 이 事件으로 金日成이 民族的 立場을 아예 저버린 蘇聯의 앞잡이 일 뿐 아니라 權力的 野欲을 위해서는 背信과 殘忍無道한 테러도 서슴치 않는 者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肅清은 國內派를 비롯한 北韓共產主義들이 金日成一派를 보다 警戒하고 그와 對決意識을 강화케 하는 動機로 되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玄俊赫 暗殺事件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各派가 서로 단결하여 共產黨權力的 指導體系에 集合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相互 不信과 警戒가 깊어 짐으로써 流血的 派閥鬭爭을 展望케 했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玄俊赫을 暗殺한 다음 國內派의 포섭공작에 着手했다. 포섭의 가장 主要한 對象은 咸鏡南北道에서 必死的인 組織工作으로 勢力을 크게 확장하고 있었으며 日帝時부터 상당한 鬭爭經歷을 가졌고 共產主義 理論에도 밝은 이른바 國內派 共產主義者들이었다.

그 主要人物로는 吳琪燮, 朱寧夏, 李舟河, 鄭達鉉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울의 朴憲永과 連結을 가지고 있었으며 金日成에게는 이 點을 가장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咸鏡道에서는 8.15 해방후 地下에서 나온 共產主義者들과 그 同調者들이 「吳琪燮萬歲를 부르고 그들 北韓共產黨 組織의 指導者로 받들고 있었다.

金日成은 먼저 吳琪燮을 說得시켜 自身の 隸下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吳는 一國一黨의 原則을 들고 北韓이 서울과 分離된 單獨 共產黨을 組織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뿐만 아니라 玄俊赫의 暗殺事件으로 金日成이 어떤 爲人인지 드러나고 있었던 만큼 金日成을 경멸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蘇聯軍政의 強權이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蘇聯軍警備司令官이 吳에게 說得工作과 함께 威脅으로 壓力을 가했다. 그래서 吳는 굴하지 않자 로마넝코 民政司令官이 그를 平壤으로 불러 金日成과 同席시켜 서로 협조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³⁸⁾ 吳는 여기서도 頑強하게 버티다가 끝내는 北朝鮮共產黨 第2秘書의 자리를 주고 동시에 自身の 見解를 존중해 준다는 條件으로 妥協에 應하고 말았다. 吳의 이때의 本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金日成을 共產黨 지도자로 마음 속으로 받들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後日 金日成에 대한 그의 抵抗으로 보아 分明하다고 하겠다.

註 38) 「北韓政權의 暗鬪相」, pp.92-93, 內外問題研究所 刊.

이리하여 吳琪燮이 金日成의 손에 의해서 肅清될 것은 누구나豫測할 수 있는 일이었고 오직 時間문제였다. 黨會議에서 빈번히 金日成一派는 吳의 이른바 過誤를 찾아 공격하기를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그를 「民族主義的 轉落分子」 또는 「트로츠키的 左傾分子」라고 비난 하였다.

마침내 吳琪燮은 1946年 初 共產黨 第2秘書의 자리에서 追放되고 그해 2월에 수립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宣傳部長으로 左遷되었다. 그러나 吳는 金日成一派의 壓力에 굴하지 않고 共產主義 理論家로서의 能力을 大衆앞에서 誇示함으로써 北韓共產主義者들 가운데서의 人氣는 더욱 높아갔다. 이같은 吳에 대한 金日成一派의 迫害는 公開的으로 또는 隱然中에 加重되었다. 그러데 金日成一派가 吳를 다시 한번 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다. 金料奉을 비롯한 延安派가 뒤늦게 北韓에 들어와 조직한 新民黨과 金日成의 共產黨의 合黨大會가 1946年 8月 28日부터 3日間 개최되었는데 이때 金日成一派는 自身の 能力不足으로 말미암아 吳琪燮을 代弁者格으로 내세우기로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吳는 同大會에서 主席團의 一員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며, 果然 8月 29日 吳의 演說은 거기서는 누구도 追從을 不許할 만큼 共產主義 理論이 整然할 뿐만 아니라 雄弁이었고 場內를 壓倒했다고 한다.³⁹⁾

그후에도 吳琪燮이 金日成의 비위에 가장 거슬린 點은 그가 金

註 39) 前掲書, pp.94-98.

日成의 權威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自己의 눈아래로 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지고 있다. 前記 共·新 合黨大會가 있는 直後 吳琪燮은 重用되기는 커녕 宣傳部長으로부터 勞動部長으로 다시 左遷되고 말았다. 北韓 共產集團內에서는 共通的인 現象이거니와 左遷에 左遷의 終車驛은 肅清이 있을 따름이다.

1946年 11月 北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가 소집되었다. 이 會議는바로 吳琪燮을 肅清할 목적으로 연 것이며 奇襲적으로 「吳琪燮의 左右傾的 過誤에 대하여」라는 議題를 올렸다. 이때 金日成에 懷柔되고 있던 朱寧夏가 吳를 공격하는 主役을 맡았다. 朱는 지난날 吳의 部下였다. 이것도 金日成의 肅清手法의 하나이다. 卽 肅清하겠다고 생각한 者에 대해서 되도록 自己의 直系를 動員시키지 않고 敵과 親近했던 者로 하여금 공격의 화살을 날리게 한다는 것이다.

吳琪燮의 過誤로 問題삼은 것은 北朝鮮勞動黨 機關紙 「勞動新聞」에 게재된 그의 論文내용이었다. 이 論文의 要旨는 「職業同盟은 勞動者의 唯一한 組織體이기 때문에 최후까지 勞動者의 利益을 代弁하는 機關이 아니면 안된다. 지금 北朝鮮에서는 經濟 및 產業機關이 모두 國有化되고 있지만 여기서 일하는 勞動者들의 利益은 職業同盟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 및 產業機關이 國有化되었다는 이유로 勞動者들의 利益이 無視되는 일이 있으면 職業同盟은 그러한 職場과 鬭爭하여 勞動者의 權益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吳琪燮의 이같은 主張이 맑스主義 理論에 비추어 妥當性이 있고

없고 間에 共產獨裁下의 現實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으며, 其實 蘇聯에서도 그러한 理論은 共產黨의 統治 및 組織原理와 어긋난다고 하여 새찬 論爭 끝에 排斥된바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朱寧夏의 反駁要旨은 「吳琪燮은 資本主義社會의 勞動組合 理論을 社會主義的 所有로 바꾸어진 北朝鮮의 工場과 鑛山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北朝鮮 勞動者들의 鬪爭對象이 마치 國有化된 經濟 產業機關인 것 같이 吳琪燮은 主張하고 勞動者들을 선동하였다. 北朝鮮 勞動者들은 國有化된 經濟產業機關을 상대로 鬪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論爭이 벌어졌는데 吳琪燮은 다시 「레닌」選集을 가지고 나와 自己의 主張이 레닌의 理論과 어긋나지 않음을 하나 하나 證明하려고 했으며, 自己의 主張을 반대하는 主張이 바로 反맑스·레닌主義이라고 斷定하고 『나를 「트로츠키」主義로 몰려고 하는 本心이 무엇이냐』고 反問하였다.

司會者인 金科奉(延安派)은 難處한 表情을 지었으며 場內는 緊張되고 있었다. 이때 北朝鮮勞動黨 中央委員 兼 內務相이고, 後日 金日成의 權威에 승복하지 않았다가 肅清된 朴一禹가 緊急動議로 演壇에 올라와 「우리들은 그 論文에 대해서 아직 檢討한 바 없다. 執筆者와 批判者의 論爭만 듣고는 是非를 가릴 수 없다. 論文을 檢討하기 위한 委員會를 組織할 것을 제외한다」고 發言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懷疑를 감추지 못한채 演壇에 올라와 「檢討委員會는 必要없다. 吳琪燮은 土地改革을 지도하라고 北靑에 派遣했는데 自己

마음대로 土地改革을 해버린 反黨分子이다. 吳는 확실히 自由主義的 害毒分子이다. 그는 勞動部長의 職責을 망각하고 되지 못한 論文을 新聞에 發表하여 勞動者들을 그릇되게 선동한 것은 應黨 黨이 그의 責任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問題를 가지고 더 이상 論爭을 벌일 必要가 없다」고 말하고 이 問題를 黨中央委員만의 모임에서 別途로 처리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리하여 會議는 閉會되었다.

그後 金日成은 吳琪燮을 黨으로부터 追放할 機會를 잡으려고 했으나 情勢가 如意치 못했는지 黜黨만은 보류하고 모든 職責으로부터 解任시킨채 黨 中央委員으로만 놓아 두었다. 吳가 이러한 처지에서서 何等의 發言權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監視와 內查가 그를 뒤따랐다. 그러다가 吳는 1956年 7月の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다시 同黨 中央委員會 委員으로 등용되고, 同年 5月에는 收買糧政相에 취임되었다. 吳의 이러한 「奇蹟」은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스탈린의 暴政과 個人崇拜가 세차게 비판된 影響이었다. 즉 金日成은 蘇聯에서의 그같은 비판이 北韓內의 自己에 대한 反對派를 鼓舞시킴으로써 그의 權力이 위태로와 질 것으로 보고, 갑자기 金日成偶像化운동을 中斷시켰거니와 一時的으로나마 尤화적 태도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金日成이 가장 두려워한 政敵은 延安派와 蘇聯 2世派이었으며 따라서 國內派 吳琪燮을 다시 懷柔로 포섭하는 것은 以上 兩反對派와의 對決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1956年 8月과 9月 延安派가 蘇聯 2世派와 合勢하여 反 金日成運動을 展開했을 때 吳琪燮은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同情的이었다 하여 過去의 「過誤」와 결부시켜 黨中央委員會委員과 함께 收買糧政相 職으로부터 追放되고 말았다. 그후 그는 1958年 4月 平安南道 中和郡 農業協同組合 副委員長으로 쫓겼고 이윽고 投 獄되었다.

이리하여 北韓 共產集團의 權力鬭爭 및 金日成의 肅清史에의 國內 派의 巨物 吳琪燮의 幕은 내려지고 만 것이다.

다음은 朱寧夏이다. 그는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本來 咸南의 吳琪燮과 鄭達鉉 밑에서 共產主義運動에 종사하였던 者이다. 그러나 金日成一派의 懷柔工作에 吳琪燮이 오래 동안 頑強하게 應하지 않은 데 反해서 朱寧夏는 金日成派에 즉각 가담하였다. 그의 이같은 背信은 出世慾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金日成은 그를 自身의 품안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吳琪燮을 궁지에 몰아 肅清하는 데 앞잡이로 이용할 수 있었다.

金日成은 1947年 8月 共產黨과 新民黨의 合黨에 의한 北朝鮮 勞動黨 創立 大會에서 朱寧夏를 自己와 함께 同黨 中央委員會 副委員長 자리에 앉혔다. (委員長은 金科奉) 이리하여 朱는 金日成에 아부하기에 안간 힘을 썼으며 吳琪燮을 비롯한 國內派를 去勢하고 肅清하는 陰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마치 1956年에 金日成이 延安派 金昌滿을 시켜 同派의 指導者들을 肅清하는 데 主役을 맡게 한 것과 흡사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의 눈에는 어디까지나 黑色分子로도 보이고, 언제 自身의 權力에 도전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朱寧夏를 오래 實權있는 자리에 놓아 둘리는 없었다. 결국 1948年 8月 金日成一派는 朱寧夏를 宗派主義 및 英雄主義라고 烙印을 찍고 勞動黨의 中核으로부터 追放하고 말았다. 즉 朱는 黨中央委員會 副委員長 자리를 이용하여 自己와 가까운 者들을 적지 않게 要職에 등용했으며 宗派를 만들어 黨權을 獨占하려고 꾀했다는 問責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朱를 즉각 肅清하기에는 그의 「罪目」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희박하였고, 또한 이때만 하더라도 延安派 및 蘇聯二世派 등 金日成 反對派 勢力이 쟁쟁하여 肅清은 一定한 制裁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朱寧夏는 1948年 9月 金日成의 初代 內閣때 交通相 자리에 취임할 수 있었으나 이윽고 蘇聯大使로 左遷되었다. 當時 蘇聯大使館은 平壤駐在 蘇聯大使가 蘇·北韓의 거의 모든 分野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連絡事務所에 불과한 閑職이었다. 그러나 朱의 蘇聯大使職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윽고 平壤에 소환되어 輕工業省의 한 管理所 支配人으로 추방되었고 1953年 8月에는 朴憲永 李承燁一派의 反金日成쿠데타 陰謀에 관련되고 同派가 새로 構成하려고 한 內閣의 副首相에 朱寧夏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하여 결국 工場 勞動者로 追放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金日成의 權力集團에서 國內派의 巨頭들은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